

연구
논문

대한민국 산업화시대의 위대한 만남

— 박정희와 박태준 —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 작가

이 대환

【읽어두기】

*

박정희와 박태준의 오랜 불가분의 관계를 통틀어 관찰할 때 매우 특이한 점이 있다. 오늘날에 보편적으로 ‘박정희의 영예’로 평가되는 공적의 자리에서는 박태준의 영예도 함께 빛나지만, ‘박정희의 음영’으로 평가되는 과오의 자리에서는 박태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진귀한 귀결은 박정희와 박태준의 관계를 살피는 가장 흥미로운 관점이다. 그 관계를 규명해나가면서 박태준이 역사에 기여한 실증을 밝히는 작업은, 자본주의체제를 갖추는 대한민국 건국시대의 근대화 무대를 지나치게 정치운동사 중심으로 조명하고 해석해온 기존의 편견과 왜곡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대환(작가), 평전 『박태준』에서

*

한국정당학회가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국민 1009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건이나 계기로 한국 국민들은 새마을 운동(35.5%), 경제 개발 5개년 계획(24.5%), 경부 고속 도로 및·포항제철 건설(20.8%)을 들고 있다(조선일보, 2010.5.28).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포항제철이라는 한 기업의 설립이 전 국가적 사업인 고속 도로 건설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동시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보다 크게 뒤쳐지지 않는 파급 효과를 가

진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 국민은 포항제철의 성장을 한국 경제 발전의 주된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포항제철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한 직접 효과는 주로 경제적 효과로서 포항제철이 값싸고 질 좋은 철강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다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 즉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 수입 대체 효과, 수출 효과, 고용 효과들을 포괄한다. 간접 효과는 포항제철 성장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미친 영향으로서 한국인의 경제하려는 의지, 즉 자신감에 미친 효과와 기업 제도의 선진화에 미친 효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술하자면 포항제철의 설립과 성장, 그리고 그 정신은 한국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고 가치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인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고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애국심과 도전적이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포항제철은 기업 경영의 모범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포항제철 경영자의 리더십과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 윤리 경영 등은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즉 포항제철의 경영은 한국 기업들의 벤치마킹의 대상으로서 기업 변화와 성장의 선도적 모델로 간주되었으며 이는 다른 기업들의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한국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켰을 것으로 이해된다.

-김병연(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포스코와 한국경제」에서

*

주요 철강 관련산업으로는 조립금속제품업, 운수장비업, 기계업, 전기기계제품업, 건설업, 조선업 등이 있는데, 포항제철이 1973년부터 그 제품을 생산하여 철강제품의 수입대체가 가능하게 된 이후 이들 관련산업의 생산활동이 급격히 증가한 데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있어서 포항제철이 공헌한 바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철강수요산업의 수출비중이 큰 데서 알 수 있듯이 포항제철은 철강제품의 저렴한 공급으로 이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공헌한 바가 크다. 만일 국내 수요가들이 포항제철 제품을 구입하는 대신 전량 수입했을 경우의 수입액에 대한 비용절감액을 보면 1979년에는 25.6%, 1982년에는 42.0%, 그리고 1985년에는 33.9%이어서 무려 예상 지출액의 3분의 1 이하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기간 중 국내 철강수요자들은 포항제철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약 3분의 1을 절약한 셈이 된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포항제철의 국민경제 기여와 기업문화 연구』에서

*

1973-1992 년 기간 동안 포스코의 연평균 총 마진율은 32.4%로 전 기업 평균 10.8%나 다른 선진국 철강사들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CSC(37.6%)에 이은 2 위를 기록했다. 포스코의 총 마진율이 CSC(대만 차이나스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포스코가 국내 수출 수요 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Local 가격 체제를 운영해 온 반면, CSC 의 경우 내수 가격을 국제 수출 가격에 연동시켜 판매 단가가 높고, 설비 구성이 열연 및 냉연 중심으로 단순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1970 년대 초부터 90 년대 초까지는 세계 철강 경기의 부진으로 생산 규모가 축소되었고, 2000 년대 들어서 철강 기업 간 M&A 를 통한 통합화나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철강 산업이 부흥하면서 철강 기업들의 실질 매출액이 크게 상승하였다. 포스코의 경우 1973 년 포항 1 기 준공 이후 1973 년-1992 년 동안 연평균 19.3%씩 증가하여 유일하게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했고, 1993 년-2007 년 기간에는 연평균 5.3% 증가했다. 전체 기간 동안에는 12.9% 증가하여 경쟁 기업들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포스코의 전체 종업원 수는 1991 년 25,083 명을 피크로 계속 감소해 왔다. 1992 년 광양 4 기 준공으로 2,001 만 톤의 조강 생산을 생산할 때에도 종업원 수는 23,599 명으로 종업원 1 인당 조강 생산량이 848 톤에 달했다. 반면 같은 해에 미국 USS 는 947 만 톤 생산에 종업원 수는 21,478 명, 신일철은 2,532 만 톤 생산에 33,314 명, TKS 는 991 만 톤 생산에 45,119 명으로 포스코에 비해서는 낮은 생산성을 나타냈다.

-곽광수(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세계 철강기업 경영 성과 분석」에서

*

프로젝트는 비전을 실현하는 기술이요 과학이다(Turner, 1996). 여기서 비전은 프로젝트에 자금과 자원을 제공하는 주인의 비전이다. 그러므로 주인은 프로젝트에 이해관계가 가장 큰 주체인 만큼, 프로젝트 관리자와 동업자적 자세로 협력적인 업무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진행 성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프로젝트 성공 요인 논의에서 프로젝트 관리자와 프로젝트 주인의 관계는 소통 차원에서 언급되었으나 이와 같이 동업자적 관계로의 격상이 명시적으로 주장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Turner, 2004)

터너가 프로젝트 성공의 필요조건으로 강조한 프로젝트 주인과 프로젝트 관리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는 마치 포스코의 설립과 제철소의 건설 과정에서 보여 준 박정희와 박태준의 관계를 일컫는 것 같다. 포항제철소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박태준은 박정희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원 덕분에 마치 그의 분신처럼 행동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박태준은 프로젝트 수행 조직의 CEO 및 프로젝트 관리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프로젝트의 주인 역할까지 맡아서 궁극적 주인인 국가를 위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4 반세기 동안 몰입하고 헌신했다.

-김정섭(대구대 경영학과 교수),「포스코 포항제철소 건설 프로젝트 성공 요인 분석」에서

*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을 작곡하셨고 제가 그분의 작곡에 따라 연주자들을 지휘했던 것입니다.”

--박태준, 1997 년 인터뷰에서

목 차

프롤로그-위대한 만남	
포항제철의 국민경제적 기여	
1968 년 만우절의 기억	
박정희와 박태준의 약속, 그리고 세 번 토의	
박정희와 박태준의 첫 만남	
다른 길을 걸어와서 다시 만나다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미지수 시간대의 짧은 작별	
‘거사 명단’에는 빠졌던 비서실장	
박정희, 박태준을 경제 방면으로	
녹색혁명의 출발선상에서	
박정희, 정치는 싫다는 박태준을 일본으로	
박태준, 대한중석을 구하며 경영수업을 하다	
다시 시작하는 종합제철	
“임자를 잘 알아. 말아! 뒤에는 내가 있어!”	
박태준의 롬멜하우스, 박정희의 쓸쓸한 독백	
박태준의 환호	
“그 친구 원래 그래. 건드리지 마!”	
오히라의 실눈 뜨게 하기	
‘일웅’의 마라톤	
식민지 배상금 전용의 협약을 맺다	
박태준의 우향우, 박정희의 종이마패	
“떡을 사먹든 술을 사먹든 임자 마음대로 해”	
“중통령이라 부르시오”	

“나왔다! 만세!”

김대중 납치사건과 박태준의 망치

“정말 믿어도 되는 거야?”

아이젠버그와 박태준의 결투

박정희의 짜증-“백악관이야 뭐야”

폭파하며 전진하다

제 2 제철소 갱탈전 서막

차 한 잔의 일갈

박정희의 마지막 선물

덩샤오핑, “박태준을 수입하면 되겠네”

제철기술의 식민지 극복

박정희와 박태준의 맨가슴 대작

박정희와 박태준의 마지막 대화

비장한 마무리-가장 아름다운 재회

에필로그-박태준의 삶과 정신

프롤로그-위대한 만남

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으로 결말난 2012 년 대선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평가는 공과(功過) 또는 명암(明暗)으로 선명히 갈렸다. 세대 간 인식의 낙차도 뚜렷하여 젊은 세대는 과(過)에 대한 학습효과와 기억이 두텁고, 오십대 이상은 공(功)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긍정이 두터웠다.

박정희의 ‘공(功)’은 성공한 혁명가라는 것이고, ‘과(過)’는 그것을 위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독재정치를 했다는 것이다. 이제 그 과(過)의 상징처럼 떠올리는 말은 쿠데타, 유신체제, 김지하 시인, 인혁당 사건, 부마사태 등이다.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했으니 ‘쿠데타’라 불러야 마땅한 5.16 에 대하여 장준하는 1961 년 6 월호『사상계』권두언에서 “4.19 혁명이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면 5.16 혁명은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라 했다. 암울한 시대에 비판적 지성의 거점이요 산실이었던『사상계』. 장준하의 그 권두언은 4·19 직후 한국사회를 질타하는 격문에 가까웠다. “민주당은 혁명 과업의 수행은커녕 추잡하고 비열한 파쟁과 이권운동에 몰두하여 바쁘고 귀중한 시간을 부질없이 낭비해 ... 국민경제는 황폐화하고 대중의 물질생활은 더 한층 악화되고 사회적 부는 소수자의 수중으로 집중하였다. 그 결과로 절망, 사치, 퇴폐, 패배주의 풍조가 이 강산을 풍미하고 있었다.” 장준하가 박정희처럼 5.16 을 혁명이라 불렀다 해도 5.16 그 자체는 쿠데타였다. 그러나 그 귀결이 혁명이었다.

5.16 은 쿠데타로 출범하여 혁명으로 귀결했다고 정리할 때, ‘귀결이 혁명이었다’는 그 속에 박정희의 공(功)이 역사적 실체로 실존하고 있다. 그 공(功)의 뒷면이 과(過)이고, 그 과(過)는 ‘독재’라 불린다. 그런데 과연 독재 없는 혁명이 있을까? 혁명 없는 독재는 있지만, 독재 없는 혁명이 있을 수 있을까? 노동해방의 공산주의혁명에도 반드시 프롤레타리아독재가 있어야 한단 말 아닌가?

박정희의 공(功)은 혁명이라 부를 만한 4 대혁명이다. 산업혁명, 의식혁명, 안보(국방)혁명, 녹색혁명이 그것이다.

산업혁명은 오천년 절대빈곤의 농경사회를 산업사회로 확실히 탈바꿈시켰다는 것이다.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 했다. 그 기적의 저변에는 ‘공돌이’ ‘공순이’라 불린, 2012 년 현재 예순 살을 넘은 기성세대의 피땀이 쌓여 있었다. 의식혁명은 산업화의 정신적 동력이었다. 조선시대의 신분세습과 노예제도(노비가 인구의 40% 이상이었음)와 사농공상과 소중화(小中華) 맹신, 그리고 식민지, 전쟁, 절대빈곤, 부정부패 등이 대대로 조장해온 패배주의, 사대주의, 파벌주의, 한(恨), 심지어 ‘엽전’이라 불린 그 오래고 어두운 의식구조에다 “우리도 하면 된다” “세계로 나아가자”라는 도전의식과 진취기상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안보혁명은 최초로 자주국방을 기획하고 실천했다는 것이다. 임진왜란 후 류성룡이 피눈물로 쓴『징비록』에서 그토록 강조한 ‘자강(自彊)의 국가’가 그로부터 350 년이나 지난 뒤에야 국가의 진정한 비전으로 추진되었다. 자주국방, 부국강병 없는 근대국가는 없다. 녹색혁명은 헐벗은 강토를 푸르게 바꾸었다는 사실이다. 오늘의 푸른 산은 박정희 통치시대가 물려준 ‘푸른 혁명’의 푸른 증거이다.

박태준의 공적은 박정희의 4 대혁명 속에서 소중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산업혁명에는 중합제철의 대성공이 있다. 의식혁명에는 철저히 추구한 세계일류주의가 있다. 안보혁명에는 세계 최고 제철소뿐만 아니라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바탕에 흐르는 “철강과 과학기술은 국부(國富)와 국방의 원천”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실천이 있다. 1962 년 1 월 ‘무연탄을 쓰면 자원도 되고 산림녹화도 된다’는 국립광물지질연구소 이정환 소장의 캐치프레이즈는 녹색혁명의 기본방향이었다. 십구공탄 보급으로 이어지는 그 캐치프레이즈 앞으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을 모셔간 이가 박태준이었다. 마침 박정희와 박태준은 무연탄 개발을 땀과 대체 방안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박태준은 ‘녹색’ 애착도 유난했다. 추기경(김수환)이 “낙원”이라 칭송하고 모스크바대학 총장 빅토르 사도브니치가 “레닌 동지가 꿈꾸던 이상향”이라 부러워한 포항과 광양의 포스코 사원주택단지는 한국 ‘녹색주거’의 선구적 모범으로 실존하고 있다.

이렇게 박태준의 공(명)은 박정희의 공(명) 속에서 중요한 맥락으로 존재하건만 박정희의 과(암)이 박태준의 공(명)을 가리지는 않는다. 이것은 근대화 시대에 불가분의 관계였던 두 사람의 관계를 감안해볼 때 매우 특이하고 진귀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뜻밖에 간단하다. 박정희가 자신의 과(암)를 기록한 ‘정치’ 방면이 아니라 자신의 공(명)을 세우는 ‘경제’ 방면에 박태준을 배치했고, 박정희의 ‘정치’ 진출 권유를 거부하기도 했던 박태준이 그에게서 부여받은 사명을 훌륭하게 실현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사명은 포항중합제철을 탁월하게 성공시켜 한국 제철산업을 세계 일류로 우뚝 세운 것이다.

정치냐 경제냐, 이 갈림길이 박태준의 눈앞에 나타난 때는 1963 년 9 월이었다. 1948 년 남조선경비사관학교(육사) 강의실에서 스승과 제자로 처음 만난 두 인물은 1950 년대 후반부터 깊은 대화의 술자리를 시작하여 1960 년 부산 군수기지사령부에서 거사를 꿈꾸는 사령관과 인사참모로 지낸 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상공담당 최고위원의 관계에서 1963 년 가을을 맞았고, 이때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윤보선과 대선 진검승부를 앞둔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다.

1963 년 9 월 어느 날, 두 인물은 독대한다.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군으로 돌아갈 거냐고 묻자, 그는 권력의 단물을 빨다가 돌아가면 군대에 불평만 늘어난다며 고개를 젓는다. 박정희는 답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조사를 시켜봤는데 당선에 문제가 없으니 고향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라”고 권유한다. 박태준의 답이 걸작이다.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불합리의 종합판 같은 정치에 나가서 순종 못하고 반대를 해대면 각하께서 골치 아프실 거 아닙니까?” 이라고는 미국 유학의 뜻을 밝힌다. 대선에서 승리한 박정희는 1964년 정초에 청와대로 박태준을 불러 유학을 말리고 일본 특사로 파견하면서 “집도 없던데 집 마련에 보태라”며 하사금을 내리고(박태준은 노년에 그 집을 팔아 사회에 기부한다), 1964년 12월에는 그때 최대 달러박스였던 대한중석 사장에 임명한다. 만성적자의 대한중석을 흑자체제로 돌려놓는 발군의 경영실력을 발휘한 박태준, 그를 기다리는 다음 차례는 바로 박정희가 맡기는 포항제철이었다.

세계 최고 제철소 건설의 25년을 대하드라마에 비유한다면, 제1부는 포항제철이고 제2부는 광양제철이다. 포항제철의 제작과 기획은 박정희이고, 연출과 주연은 박태준이다. 박정희는 1961년부터 제철소를 기획하지만 1965년 미국 방문을 통해 구체화하고, 이때부터 연출자로 지목하고 있던 박태준을 1967년 실제 연출자로 지명하여 포항제철 기공식을 열고, 1968년 4월 1일 포항제철을 탄생시킨다. 그러나 제작비 조달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한다. 그해 11월 영일만을 방문한 박정희가 “남의 집 다 헐어놓고 제철소가 되기는 되나”라고 쓸쓸히 독백한 때는 미국, 영국 등 서방 5개국의 8개 철강사가 약조한 자금 도입이 막혀 있었다. 결국 그것은 막혔다. 대하드라마는 제작비가 없어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돌파구를 뚫는다. 1969년 2월 절망적인 상황에서 연출자 박태준이 대일청구권자금 전용의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자 박정희가 그것을 승인하는 것이다. 그날부터 박태준은 일본 정계와 철강업계 지도자들을 직접 설득하고, 그 성과 위에서 그해 8월 정부 차원의 실무 교섭을 마무리하고 1970년 4월 1일 마침내 착공 버튼을 누른다.

박정희는 포항제철을 13번이나 방문(1973년 1기 준공 전에 6번, 그 후에 7번)한다. 그만큼 관심과 의지와 애정이 각별했다. 그리고 그는 1978년 가을에 ‘박정희와 박태준의 관계’가 정해놓은 어떤 운명에 따라 마지막 선물을 하듯 박태준에게 제2제철소 건설임무를 맡긴 뒤 이듬해 가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대하드라마는 1980년부터 제2부다. 대통령들(전두환, 노태우)의 재가를 받긴 했으나 제2부는 제작, 기획, 연출, 주연 모두를 박태준이 맡아야 했다. 그러나 박태준은 박정희와의 약속이나 박정희가 맡긴 사명의 참뜻을 잊은 적이 없었다. 이것이 1992년 10월 3일 박정희의 무덤을 찾아가게 한다. 아무도 예측 못한, 오직 박태준만이 깊은 가슴속에 간직해온 그날, 그는 세상을 떠난 대하드라마 제작·기획자에게 보고한다. “각하, 포항제철은 빈곤타파와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일관제철소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각하의 의지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그 포항제철이 어제, 포항.광양 양대 제철소에 연산 조강 2 천 100 만 톤 체제의 완공을 끝으로, 4 반세기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박태준은 울고 있었다.

박정희가 서거한 1979 년 10 월, 그때 이미 세계적 철강기업으로 성장했던 포항제철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하버드대, 스탠포드대, 미쓰비시종합연구소 등이 여러 요인을 밝혀내면서 한결같이 ‘박태준의 탁월한 리더십과 능력’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영일만의 기적’에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내려져 있었다. 그것이 바로 ‘박정희와 박태준의 독특한 인간관계’였다. 이대환은 『박태준』평전에서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

박정희는 박태준의 순수하고 뜨거운 애국적 사명감만은 범할 수 없는 처녀성처럼 옹호했다. 정치권력의 방면으로 기웃거리지 않고 당겨도 단호히 뿌리치는 박태준의 기개를 높이 보았다. 여기엔 한 인간과 한 인간, 한 사내와 한 사내로서 오직 둘만이 온전히 알아차릴 수 있는 서로의 빛깔과 향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박정희와 박태준의 독특한 인간관계는 박태준이 자신의 리더십과 사명감을 신명나게 발현할 수 있는 양호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주었다.

독특한 인간관계, 이것은 두 인물의 만남을 20 세기 후반기 한국 근대화 시대의 ‘위대한 만남’으로 나아가게 하는 레일이었다.

정계 입문 권유를 마다한 박태준을 박정희가 경제 방면으로 배치하게 되는 갈림길이 만들어진 1963 년 9 월로부터 무려 48 년이 흐르고, 박정희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그날로부터도 무려 32 년이 흐른 2011 년 9 월, 박태준은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예감하면서 포철 초창기 현장 직원들 380 명과 다시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눈물의 호수로 변한 그 재회의 자리에서 그의 마지막 공식 연설이 있었다. 광양제철까지 완공한 뒤 박정희 유택 앞에서 ‘영전(靈前)보고’를 올렸던 박태준은 84 세의 노쇠한 몸으로도 그를 잊지 못하여 동지들과 후배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제철소가 있어야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일념과 기획과 의지에 의해 포항제철이 탄생했고, 그분은 저를 믿고 완전히 맡겼을 뿐만 아니라, 온갖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도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정희가 박태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정치적 외풍을 막아준 단적인 증거는 1970 년 2 월에 생긴 이른바 ‘종이마패’일 것이다. 불법정치자금을 뜯기지 않으려는, 설비구매의 잘못된 관료주의를

타파하려는 박태준에게 박정희는 암행어사 마패와 같은 것을 선물했다. 박태준은 그것을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박정희가 서거한 뒤 박태준은 13년을 더 포스코를 이끌어 제철보국의 거대한 꿈을 실현했다. 스스로 올타리 역할까지 해내면서 기어코 박정희와의 약속을 지켜냈다. 학자들이 규명했지만, 포스코의 대성공(제철혁명)은 한국 산업화의 견인차가 되었다. 제철혁명은 산업혁명과 안보혁명의 하위개념이지만, 제철혁명이 성공하여 산업혁명과 안보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또한 산업화 성공은 민주화 성장의 물적 토대를 제공했다. 박정희의 해안이 없었다면 포항제철의 박태준은 없었고, 박정희와 박태준의 독특한 인간관계(완전한 신뢰관계)가 없었거나 박태준이 없었다면 제철혁명의 대하드라마는 대성취를 거둘 수 없었다. 여기에 박정희와 박태준의 '위대한 만남'의 시대적 실체가 있으며, 박태준은 박정희 서거 후 13년이 지났을 때든 32년이 지났을 때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위대한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었다.

학자들은 박태준의 정신을 무사심(無私心)과 순명(殉命)의 애국주의로 규명했다. 이 정신은 박정희의 한 특질이기도 하지만 박태준의 필생을 관통한 강고한 신념에는 '박정희와의 약속'도 담겨 있었다. 가령, 이런 장면을 보자. 2003년 가을, 광양. 박태준과 그의 평전 작가 이대환은 막걸리로 반주 삼으며 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문득 박태준이 말했다. "내가 포스코에서 탄생각을 했다? 그러면 죽어서 박 대통령과 만났을 때 창피해서 이거 한 잔 나눌 수 있겠소?" 작가를 뻘히 쳐다보았지만, 그것은 자기 맹세 같았다. '탄생각'은 '검은 돈'이고 '이거'는 '막걸리'였다. 포스코의 주식을 한 주도 받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한 박태준이 만약 박정희 서거 후에라도 '탄생각'을 품었더라면 두 인물의 만남은 '위대한 만남'의 종착역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떠난 이의 뜻과 남은 이의 뜻이 끝까지 일치한 점, 이는 '위대한 만남'의 화룡점정이다.

2011년 12월 13일 숨을 멈춘 박태준은 32년 전부터 박정희가 기다린 동작동 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그해 11월 14일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 가서 축하할 예정이었지만 정작 당일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던 박태준. 그의 유고 연설에는 이런 문장이 담겨 있었다.

그리운 각하, 이제는 저의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재회하여 막걸리를 나누게 되는 그날, 밀리고 밀린 이야기의 보따리를 풀어놓겠습니다. 며칠은 마셔야 저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마칠 것 같습니다. 부디 평안히 기다려 주십시오.

과연 박태준의 그 소박한 소망은 이루어졌을까? 그때, 하느님의 귀는 열려 있었을 것이다.

포항제철의 국민경제적 기여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무참히 시해 당했다는 비보를 박태준은 이튿날 이른 아침에 포항시 효자동 숙소에서 들었다. 그때 포철 임직원들은 포철주택단지 안의 야트막한 야산 언덕 위에 자그만 절간처럼 마련된 사장의 숙소를 ‘효자사(孝子寺)’라 부르고 사장을 ‘효자사 주지’라 부르기도 했다. 그만큼 박태준은 서울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날들이 많았다. 10월 27일 아침에도 그는 혼자였다. 음식도 장만하고 옷가지도 챙겨주는 마치 장교 시절의 당번병 같은 비서(총각)만 거실에서 서성거렸다. 라디오를 통해 엄청난 뉴스를 접한 비서도 극도의 긴장을 죄고 있었다. 마냥 기다리지 못한 비서가 조용히 사장의 방문을 열었을 때, 박태준은 여느 날과 달리 단정히 책상 앞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사장의 가슴 앞에 놓인 라디오를 비서는 보았다. 라디오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꺼진 상태였다. 비서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을 나왔다.

박태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복 차림에 안전화를 신고 숙소를 나섰다. 그러나 회사에 당도한 그의 행동은 평소와 너무 다른 것이었다.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혼자서 묵묵히 걸었다. 그의 발길이 이어 나가는 동선(動線)은 박정희의 발길이 그려놓은, 지표에 남아 있진 않지만 그의 머리에 뚜렷이 남아 있는 동선이었다. 1978년 12월 포철을 열세 번째로 방문한 박정희가 걸어갔던 시찰의 길이었다. 박정희의 동선을 따라 걸어가는 박태준의 가슴과 영혼은 온통 슬픔이 넘쳐났다. 그러나 그는 포항제철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비보의 의미를 정확히 잡아야 했다. 이제 박정희는 지상에서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지상에서는 그의 공과(功過)에 대한 시비가 격렬하면서도 지루하게 이어질 테지만, 별안간 그의 공백이 발생한 시간대에서 오직 공기업 포항제철이라는 법인에 한정해서 들여다볼 경우에 박정희의 죽음은 포항제철로 불어오는 온갖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사라진 것이었다.

이제부터 그 누가, 그 무엇이 ‘가장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줄 것인가?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것은 속담이지만 틀린 속담일 수 있다. 공든 탑은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는 역설을 담은 것이지만, 실제로 탑을 쌓아올리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는 쉽다. 변화한 도시를 만들기는 어려워도 전쟁은 그것을 쉽게 파괴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작용하는 것이다.

출지에 박정희가 사라진 날, 박태준이 앞장서 쌓고 박정희가 뒤에서 보호한 포항제철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경제의 금자탑으로 우뚝 솟아 있었다. 임자 뒤에는 내가 있으니 소신껏 밀어붙여 봐. 이

격려성 언약을 박정희가 고스란히 실천함으로써 박태준은 온갖 정치적 참견과 음모를 돌파하며 포항제철이라는 거대한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

왜 포항제철은 1970 년대에 ‘영일만의 기적’이라 불렸을까? 왜 ‘한강의 기적’에 빗댈 만한 자격을 갖추었을까? 21 세기 초반에 삼성전자는 글로벌 최우량 기업으로 손꼽히며 한국경제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산업도,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산업도 세계경제계의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포항제철이 없었다면, 박정희가 기획하고 박태준이 연출한 포항제철이 이른바 ‘무(無)’라고 불릴 온갖 악조건을 극복하고 드디어 성공을 거두지 못했더라면 한국의 자동차산업도 조선산업도 전자산업도 오늘의 영광을 누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철과 전방으로든 후방으로든 철(鐵)과 깊은 연관을 맺은 모든 한국의 산업들이 오늘과 같은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각 산업의 태동기나 성장 초기에서 ‘철’ 수요의 높은 비중과 그에 따른 자금 지출의 비중을 을 감안해볼 때 만약 포항제철이 ‘양질의 철강제품을 안정적으로 국제철강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지 못했다고 가정한다면, 오늘과 영광이나 두각은 거의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20 세기 후반의 근대화 역사에서 박정희와 박태준의 만남을 ‘위대한 만남’으로 만들었으며,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명명해야 하는 근거이다. 1917 년에 태어나 1979 년에 생을 마친 박정희, 1927 년에 태어나 2013 년에 생을 마친 박태준. 십 년 차이로 이 험난한 땅에 태어나 공동의 운명을 짊어지고 서로의 고투를 감당한 뒤 34 년 차이로 이 세상을 하직했으나 늦게 떠난 이가 앞서 떠난 이와 맺었던 대의(大義)를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영원한 동지’가 된 박정희와 박태준. 두 사내의 만남이 ‘위대한 만남’으로 거듭난 근거를 경제학적 계량화로 증명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인간의 냄새가 증발하는 한계를 넘어설 수 없지만, 1987 년 9 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수행한 <포항종합제철의 국민경제기여 및 기업문화 연구>라는 방대한 연구서(총 1137 쪽)에 읽어볼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포항제철이 국민경제에 기여한 것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겠으나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함으로써 접근할 수 있다.

첫째, 포항제철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타 부문으로부터 구매한 각종 원자재나 원초적 투입요소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쳤느냐?

둘째, 포항제철이 철강 등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타 부문으로부터 구매한 투입요소나 원초적 투입요소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느냐?

셋째, 포항제철이 그동안 국내에서 공급부족 상태에 있던 철강제품의 상당부분을 생산·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성장에 어떠한 공헌을 하였느냐?

넷째, 포항제철이 국제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철강제품을 국내에 공급하였다면, 이를 통하여 국내물가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

이상의 4 가지 질문에 대하여 산업관련분석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그 연구의 기본 목표인데, ‘넷째’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는 그것이 국내 철강 관련 산업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추적하고 있다. 여기서는 위의 4 가지 질문 중 2 가지, 즉 ‘셋째’와 ‘넷째’에 대한 연구 결과만 인용하기로 한다. ‘첫째’와 ‘둘째’에 대한 연구 결과를 포함하면 포항제철의 국민경제적 기여도가 더 높아지겠지만 국내 관련 산업의 성장에 끼친 영향만으로도 그것이 충분히 증명되기 때문이다. 이 증명은 박정희가 왜 그토록 종합제철소 건설에 대한 의지와 집념을 불태웠고 박태준이 왜 그토록 포항제철의 성공을 위해 강렬한 열정과 시념으로 목숨까지 걸었던가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줄 것이다. (이 인용에는 별도 표시 없이 원문을 생략하기도 한다.)

산업별 중간투입률 추이를 보면 철강 일차제품의 경우 1975 년의 87.5%, 1980 년의 86.8%, 그리고 1983 년의 84.7%를 기록하여 같은 기간 중 전(全) 산업 평균인 57.5%, 60.4% 및 59.5%에 비하여 1.5 배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중간투입률은 총생산액에서 중간투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한 산업이 얼마나 여타 산업제품을 생산요소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철강업의 중간투입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철강산업 그리고 그 중 포항제철이 여타 산업으로부터 매입하는 중간재의 양이 큰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물론 포항제철이 여타 산업의 생산 및 고용증대에 공헌한 바가 작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산업의 생산물이 타 산업부문의 생산을 위해 중간재로 쓰인 비율을 나타내는 중간수요율을 보면, 철강 일차제품의 중간수요율은 1983 년 현재 82.6%에 이르러 전 산업 평균 51.2%나 제조업 평균 55.9%보다 높다. 이것은 철강업이 전형적인 중간재 생산부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타 산업이 철강업에 의존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철강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68로서 우리나라 산업 가운데 가장 높으며 제조업 평균 1.99 보다도 월등히 높다. 생산유발계수는 그 산업이 직간접적으로 국내 총생산량을 유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로서, 이것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철강산업이 여타 산업의 생산활동을 크게 촉진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영향력계수란 어떤 산업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 산업이 생산해야 할 생산액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철강 일차제품은 영향력계수 1.51로서 전 산업 중 가장 높다.

이와 같은 산업관련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철강업이 한편으로는 생산요소의 구매자로서 또 한편으로는 중간투입물의 공급자로서 아주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포항제철이 우리나라 철강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포항제철이 지금까지 그 제품생산활동을 통하여 관련산업의 발전에 그리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지대함을 알 수 있다.

포항제철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판매가격이 동종(同種) 제품의 국제시장가격이나 국내수입가격에 비하여 월등히 낮다. 이것은 그만큼 국내의 철강 수요자들이 비싼 값으로 외제품을 사다 쓴 대신, 훨씬 싼 포항제철품을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원가절감 효과를 얻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 철강 관련 산업으로는 조립금속제품업, 운수장비업, 기계업, 전기기계품업, 건설업, 조선업 등이 있는데, 포항제철이 1973년부터 그 제품을 생산하여 철강제품의 수입대체가 가능하게 된 이후 이들 관련산업의 생산활동이 급격히 증가한 데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있어서 포항제철이 공헌한 바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철강수요산업의 수출비중이 큰 데서 알 수 있듯이 포항제철은 철강제품의 저렴한 공급으로 이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공헌한 바가 크다.

포항제철 생산제품의 판매구조를 보면 1979년에는 국내판매의 비중이 63.3%이었음에 대하여 그후 국내판매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져 1985년에는 69.0%가 되었다. 이와 같이 수출보다 국내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은 포항제철의 판매정책이 국내수요 안정과 수품대체에 주력함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철강수요자들이 수입품 대신 포항제철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얻은 절감비용액이 1979년의 2억 4천 2백 13만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5년에는 그 크기가 무려 4억 6천 2백 96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만일 국내수요자들이 포항제철 제품을 구입하는 대신 전량 수입했을 경우의 수입액에 대한 비용절감액을 보면 1979년에는 25.6%, 1982년에는 42.0%, 그리고 1985년에는 33.9%이어서 무려 예상 지출액의 3분의 1이나 됨을 알 수 있다. 즉 이 기간 중 국내 철강수요자들은 포항제철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약 3분의 1을 절약한 셈이 된다.

이러한 비용절감액의 크기와 위에서 본 철강업의 전방효과 크기를 동시에 고려하면 포항제철이 그 설립 이래 우리나라 철강관련산업의 생산원가를 크게 낮춤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공헌한 바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포항제철이 1973년부터 1985년 사이에 달성한 국제수지 개선효과는 외화가득액(外貨稼得額)이 33억 3천 3백만 달러, 수입대체액이 56억 4천 7백만 달러이어서 합계 89억 8천만 달러에 이른다. 이것은 과거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했을 때(1985년까지) 포항제철이 국제수지 적소 해소에 이바지했음을 의미한다.

1971년부터 1985년까지, 전반적인 물가상승기(연평균 13.7% 상승)에 있어서 오히려 포항제철이 제품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시켜온 것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 물가안정에 공헌하였다. 첫째, 철강제품을 생산요소로 투입하고 있는 건련산업의 생산비절감 및 다른 요인에 의한 생산비 증가 요인을 완화시킴으로써 이들 산업의 제품가격을 보다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억제에 직접적으로 공헌하였다. 둘째, 포항제철로 인하여 관련산업의 생산비가 절감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 산업을 비롯한 그 관련산업 전부에 걸쳐 제품의 공급 곡선이 하향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공급곡선의 하향이동은 결국 생산량의 증가로 연결되어 생산량의 증가는 같은 통화량에 대하여 물가하락으로 연결된다. 물론 이 기간 중 통화량은 증가하였으므로 물가는 상승하였는데, 포항제철의 공헌에 힘입어 그 상승이 보다 완만해졌음을 의미한다.

1968년 만우절의 기억

1968년 4월 1일. 이 만우절에는 한국 현대사가 기록으로 남길 만한 두 가지의 '특별한 기념식'이 열렸다. 장소는 대전과 서울이었다. 대전의 것은 거창하고, 서울의 것은 조촐하고 소박했다. 다만 시작이 조촐하고 소박하다고 해서 미래도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시작은 작아도 그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이 바이블에 새겨져 있지 않는가.

대통령 박정희가 국방부 장관 김성은에게 '예비군 조직 편성'을 지시한 것은 그해 2월 6일 밤이었다. 이 지시를 실현할 법안이 야당의 반대를 뚫은 뒤에 '예비군 창설'이라는 현실적 실체로 등장한 때가 4월 1일이었다. 박정희의 예비군 창설은 북한 주석 김일성의 대남 적화전략 중 특히 무장공비 침투에 대비하는 통치 차원의 사안이었다. 당시에는 그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

한국이 베트남에 파병한 1965년부터 북한의 대남 도발은 1953년 휴전 이후의 십여 년에 비해 그 횟수와 강도가 높아졌다. 1965년 48건, 1966년 59건, 1967년 140건, 1968년 86건, 1969년

73 건, 1970 년 53 건 등이었다. 횡수로는 1967 년이 1968 년보다 훨씬 많지만 준전시 사태라 부를 수 있는 고강도의 도발은 1968 년에 일어났다. 그해 11 월 동해안에 상륙한 무장공비 병력이 120 명이나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이 증명되지만, 1 월 21 일 북한 특수부대가 박정희를 죽이기 위해 청와대의 턱 밑까지 침투한 이른바 1.21 사태는 정말 대범한 도발이었다.

예비군 창설은 반공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박정희의 그 통치적 결단의 원인과 근거는 김일성의 무모한 대남 도발이었다. 사건에 비유하자면 박정희에게 알리바이를 제공한 이가 김일성이었다. 예비군 조직과 유사시의 동원 체계에도 그것이 반영돼 있었다. 무장공비 출현에는 마치 화상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처럼 즉각 대응이 급선무다. 상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뒤에 움직이면 피해만 늘어난다. 선 조치, 후 보고라야 한다. 군대 조직은 출동까지가 굵뜨다. 중대-대대-연대-사단-군단이라는 지휘체계를 다 밟아야 하는 것이다. 예비군은 다르다. 읍.면 단위에 중대 규모로 조직하고 경찰 지서장이 지휘해서 선 조치, 후 보고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합동참모본부가 군대를 동원할 때까지의 공백을 메우면서 출동한 군대를 보조할 수 있다.

박정희는 1968 년 4 월 1 일 오전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된 예비군 창설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한국 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미국 워싱턴에서 날아든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야 했다. 믿기 싫은 뉴스였다. 그들은 장난이거나 거짓말이라 믿고 싶었다. 누군가 주위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듯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만우절이지?"

미국 시각 3 월 31 일 밤 9 시, 한국 시각 4 월 1 일 오전 11 시. 존슨 대통령이 30 분간 전국 방송을 했다. 박정희의 귀를 찌르는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였다. "나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지 않고, 후보 지명도 수락하지 않겠다." 이것은 존슨의 정치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좀 섭섭할 수 있었다. 1961 년 5 월 16 일 쿠데타로 집권한 때부터 껄끄러웠던 대미(對美)관계에서 그나마 인간적으로 제일 친숙한 대통령이 존슨이었던 것이다. 북한 특수부대의 1.21 청와대 기습 사건 때는 즉각 경호관들을 보내 청와대 주변을 살살이 살펴보게 해준 사람이었다. "월맹지역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하겠다." 이 선언은 두 달 전부터 워싱턴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바로 하루 전에 박정희는 직접 보고도 받았다. 그래도 박정희를 심란하기 짝이 없는 소식이었다.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한국은 전투병력 5 만 명을 베트남에 파병하고 있었다. 3 월 31 일 청와대를 찾아온 주한 미국 대사 포터가 같은 내용을 알려줬을 때도 그는 "미국의 이같은 일방적인 결정은 월남전 해결에 결코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1968년 1월, 한국 통치자는 유난스런 다사다난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 시절을 현역 젊은 기자로 뛰었던 한 언론인은 “1968년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 열흘은 자유진영 대(對) 공산진영 간 세력 균형의 대지진이 일어난 시기”였다고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한국에서 벌어진 1.21 사태에 이은 1월 22일의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을 맞은 미국은 군사적 대응조치에 한계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월남전도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월 29일 오후 미국 정부는 메크로스 국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은 현재 수준으로 월맹군의 침투를 저지하면서 북폭(北爆)을 중지하고 평화회담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1월 30일 새벽에는 월맹군과 베트콩에 의한 월남전 최대 규모의 기습공격이 월남 전역에 걸쳐 시작됐다. 이른바 ‘테트(Tet, 구경의 월남어) 공세’는 월맹이 1968년 구경의 느슨한 분위기와 민족 대이동의 혼란을 틈타 대규모로 벌인 기습전이었다. 초기에는 성공하는 듯했으나 궁극적으로는 군사적 패배를 가져온 자살적 공세였다.

이 공세에서 베트콩은 많은 간부들을 상실하고 약 4만이 넘는 병력을 잃음으로써 월남전쟁 전면에서 사라지게 됐다. 이후 전쟁은 월남 내의 집권층과 해방전선 간의 내전이 아닌, 월맹 정규군과 월남 간의 남북 대결로 그 성격이 더욱 뚜렷해졌다.

군사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정치·심리적으로 월맹은 대승리를 거두었다. 미국 언론과 사진기자들의 과장보도로 미국 내의 여론은 크게 악화돼 존슨 대통령은 1968년 3월 31일 월맹에 대한 폭격 중지를 선언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월맹측에는 평화협정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고, 소련과 영국 등에는 협상 개최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1968년 1월 30일 설날 아침, 박정희 대통령은 김성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난 새벽에 월남 전역에서 시작된 월맹군과 베트콩의 대규모 기습작전에 관한 주월 한국군 사령부의 보고 내용을 전달받았다. (중략)

테트 공세 때는 베트콩 특공대들이 1.21 사태의 김신조 일당처럼 월남의 티우 대통령 관저를 습격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에서 불과 50여 m 떨어진 주월 한국 대사관을 경비하던 박세환 중위와 소대원들에 의해 대통령궁 앞에서 궤멸됐다. 박세환 중위는 월남 대통령을 구해냈다고 해서 사이공의 영웅이 됐다.

-조갑제, <박정희> 전 13권 중 제9권에서

박정희의 참모들이 존슨 대통령의 연설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해한 그 만우절에 서울 한복판 명동의 유네스코회관 3 층에서는 조촐하고 소박한 기념식이 열렸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영어 약칭 POSCO, 이하 '포스코'라 부름) 창립식이었다. 창립 요원은 박태준 사장을 포함해 모두 39 명이었다. 9 시 30 분에 시작된 공식 행사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는 뒤풀이에서도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비장감 같은 것이 감돌고 있었다. 누가 뭐라 하든 실망할 것도 없고 들뜰 것도 없다는 그 차분함 속에 흐르고 있는 비장감은 박태준의 카랑카랑한 연설이 남긴 여운이었다. 박태준이 주문하고 기획관리부장 황경노가 쓰고 다시 박태준이 감수한 창립기념사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성공여부는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직접적인 사명이며, 따라서 우리 자신의 잘못은 영원히 기록되고 추호도 용납될 수 없으며 가차 없는 문책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협의 또는 교섭 과정에서 한국적 행정풍토를 정확히 파악하고 납득하며 선의의 적응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은 부문관리자급 이상의 재치 있는 사리판단에서만 기대할 수 있으며, 일에 대한 소신과 책임감으로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창업의 기반을 흔드는 전통적인 한국적 사회폐습의 침투력에는 과감히 도전하여 창업 시에 경험하는 사회사업적인 인사관리나 예산회계관리, 물자관리가 되지 않도록 확고한 신념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집행해나가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삼아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너무나 실용적인, 그래서 쇠토막처럼 딱딱하고 강건한 문장이요 선언이다. 직접적인 사명,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 가차 없이. 이 말들에는 벌써 목숨을 걸자는 비장미가 엿보인다. 한국적 행정풍토에 선의의 적응을 하고 한국적 사회폐습에 과감히 맞서야 한다는 주문에는 부정부패를 철저히 불식하고 인사 청탁이나 이권 청탁을 단호히 배격하자는 굳센 결의가 드러난다.

이렇게 비장한 창립을, 그 책임자가 하필 만우절로 잡는 것에 대하여 염려를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들도 있었다. 창업 준비를 맡은 실무자들이 회사 창립일을 잡아 보라는 박태준의 지시를 받은 것은 3 월 20 일을 지난 바로 다음이었다. 그날은 정부 출자금 3 억 원과 대한중석 출자금 1 억 원을 최초 자본금으로 삼아 포스코 창립 주주 총회가 열린 날이었다. 실무자들은 뚜렷한 기준을 잡기 어려워서 유명한 역술인을 찾아갔다. 갓난아기의 작명에도 온갖 정성을 바치는 우리 풍속이니까 살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택일 후보는 셋으로 나왔다. 3월 26일, 4월 1일, 4월 4일. 역술적 길일(吉日)이라는 것을 제외시키더라도 저마다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들이었다. 3월 26일은 건국(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생일이고, 4월 1일은 진정한 봄의 시작이고, 4월 4일은 청명이었다. 그러나 찜찜한 맛을 풍기는 날들이기도 했다. 이승만은 그 말년에 다가설수록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길로 빠져버렸고, 만우절에는 어떤 약속을 걸든 허튼 수작으로 미끄러질 수가 있고, 청명은 그 말뜻이야 기가 막히게 좋지만 한국인의 기분에 '4'자의 겹침만은 피하고 싶은 것이고.... 그런데 박태준은 4월 1일을 찍었다. 속으로 3월 26일이 좋겠다면서 만우절만은 피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실무자가 조심스레 반문을 했다.

"4월 1일은 만우절 아닙니까?"

그러나 박태준은 단호하게 반문을 던졌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만우절이 있었어?"

이래서 포스코 창립일은 4월 1일로 결정됐다. 그때 실무자들은 미처 짐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지만, '종합체철소' 건설의 책임을 짊어진 박태준의 머릿속에는 철과 안보(국방), 철과 경제의 분리할 수 없는 상관성에 대한 생각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려는 예비군 창설에 생각이 엉켜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십여 년이 지난 뒤, 한 언론인이 박태준과 대담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된다.

"4월 1일이면 만우절인데, 포항제철만은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얘기군요."

그는 작가이며 조선일보 주간인 선우휘였다.

박정희와 박태준의 약속, 그리고 세 번 토의

예비군 창설과 포스코 창립이 같은 날에 이뤄진 것은 우연의 일치처럼 보인다. 하지만 박태준이 추천 받은 세 개의 날짜 중에 4월 1일을 택하면서 그날이 만우절이라는 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깔아뭉갤 때는 예비군 창설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철과 안보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었다는 반증의 하나이다. 실제로 1968년 당시에 남한과 북한의 국력 비교에서 북한이 우위였다. 국방력뿐만 아니라 조강 생산 능력이나 일인당 국민소득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앞서 있었다. 박정희의 베트남 파병 후에 급증한 김일성의 대남 도발 배경에는 그가 전후에 치열하게 전개된 일련의 권력투쟁에서 완승을

거두고 호전적인 '빨치산파'를 대남전략의 전면에 배치한 시기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지만, 군사력을 포함한 총체적 국력에서 남한보다 우월하다는 자신감도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포스코 창립일과 일치했더라면 먼 후일에 한국 산업화 시대의 국가적 기념일로 지정해도 좋을 만한 기념식이 그보다 두 달 앞서 열렸다. 1968년 2월 1일 착공한 경부고속도로가 그것이다. 야당의 극렬한 반대와 1.2 사태의 후유증 속에서 박정희가 의연히 밀어붙인 경부고속도로. 서울 영등포구 원지동(현 서초구 양재동 K 호텔(구 교육문화회관) 부근)에서 서울-수원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에서 그는 말했다.

"북한 공산당은 입으로는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표와 전략은 해방되던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추호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본 전략이 무엇이냐 하면 전쟁 준비를 해서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적화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중략) 우리는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건설 사업을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은 한쪽으로는 공산주의자들과 투쟁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싸우면서 건설해 나가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정희는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에서 1.21 사태에 대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토로했다. 머잖아 '싸우면서 건설하자'를 국가적 계몽 슬로건으로 등장하게 만드는 연설이었는데, 마치 적화통일을 막아내기 위하여 고속도로(경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1965년 6월 고속도로와 종합제철소 건설을 기획하는 박정희의 머릿속에는 '반공' 또는 '승공'의 목표보다 '경제 개발'의 목표가 뚜렷이 박혀 있었다. 승공은 경제 개발의 중요한 부수효과의 목록에 포함된 것이었다.

1965년 5월 하순 미국을 방문한 길에 그때 세계 철강의 메카로 불린 피츠버그로 찾아가 종합제철소 건설의 꿈을 구체화시킨 박정희는 귀국하기 바쁘게 대한중석 사장 박태준을 청와대로 불러 특별한 임무를 내렸다. 일본 가와사키제철 사장 니시야마를 모셔 오라는 것이었다. 니시야마가 청와대를 방문한 것은 6월 23일이었고, 그를 안내해 박정희를 만나고 나온 박태준은 이튿날부터 그와 함께 제철소 입지로 거명되는 해안 지역들을 둘러보았다. 니시야마는 아주 가까운 지인의 부음을 받고 예정보다 앞당겨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박태준에게 들려준 충고와 조언은 박태준의 정리를 거쳐 박정희에게 올려졌다. 가장 가치 있는 내용은 '시작 규모를 조강 연산 100만 톤으로 해야 경제적'이라는 것과 '제철 원자재가 절대 부족한 국가에서는 모든 것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니 대형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항만시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1969년 10월 17일 박정희의 3선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투표율 77.1%에 찬성 65.1%, 반대 31.3%)한 직후 상공부 장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1972년 00월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김정렴이 "공기업 사장들 중에 유일하게 박태준 사장만 대통령과 독대했다"라는 증언을 남겼다시피 박정희는 박태준에게 독대의 특권을 부여했다. 이것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두 사람만의 특별한 인간관계를 들여다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

니시야마가 일본으로 돌아간 1965년 6월 하순, 박정희는 박태준을 청와대로 불렀다. 대통령과 대한중석 사장, 두 사람만의 독대였다. 탁자에는 엇그제 박태준이 올린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기록자가 없어서 애당초 가치 높은 사초(史草)로 남을 수 없었던 그날 두 사람의 대화에서 박정희가 내비친 결심은 장차 이룩할 한국 산업화의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을 담고 있었다.

"이제부터 임자는 제철소 건설을 맡는다고 생각해. 계획 단계부터 참여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야 돼. 아무리 둘러봐도 이 일을 맡길 사람은 임자밖에 없어. 나는 고속도로를 직접 감독할 거야. 임자는 제철소를 맡아."

"황무지를 개간하라고 하시는군요."

"그래. 황무지를 개간해. 임자의 능력과 독심을 믿어. 고속도로가 되고 제철소가 되면 우리의 공업국가의 꿈은 실현되는 거야. 철을 만들어서 고속도로로 싣고 달려야지."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박태준의 기억은 세월이 물같이 흐른 뒤에도 지워지지 않았다. 공업국가(산업화)를 향한 박정희의 뜨거운 집념과 순수한 염원을 새삼 확인하는 자리여서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더 두터워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일말의 어떤 의심도 없이 한결같은 신뢰를 보내주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비록 짧은 대답이었지만 '알겠습니다'라는 한마디에 담았던, 소명을 받아 도전해서 성공하겠다는 대통령과의 굳은 약속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박정희가 박태준을 공식적으로 '종합제철소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한 때는 1967년 9월 11일이었고 그로부터 두 달 지난 11월 8일 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러니까 1965년 6월부터 대강 30개월에 걸쳐 박태준은 박정희의 특명만 받아둔 채 종합제철소 프로젝트에 관한 어떤 공식적 직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대한중석 사장으로서 그 엄청난 국가대사에 관여하고 있었다.

종합제철소 프로젝트 추진에서 1965년 6월부터 1967년 10월까지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매우 답답한 준비의 과정이었다. 자금과 기술이 전무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 기간 동안에

진행된 주요 사안은 크게 4 가지로, 서방 5 개국의 8 개 철강사로 구성된 대한제철국제차관단(KISA) 출범, KISA 와 한국 정부의 계약 체결, 제철소 부지 선정(포항 영일만), 10 월 3 일 포항에서 거행된 기공식 등이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종합제철소 건설에서 준비 과정의 그러한 일들은 사안의 성격상 정부 관료들이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 있었다. 물론 방금 말했듯이 그 기간 동안의 박태준은 아직 종합제철소 건설에서 공식적 직책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박정희는 이미 박태준을 마음에 찍어두었고 박태준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조용히' 구경만 할 수는 없었다. 특히 공부를 중시했다. 대한중석 사장으로서 박태준은 1965 년 7 월 대한중석 부설 금속연료종합연구소 소장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제철소 예비건설계획을 작성하고 매주 진행상황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려두고 유럽이나 일본으로 출장을 나가면 제철소 견학을 거의 빼먹지 않는 사람이었다.

1965 년 7 월부터 1967 년 10 월까지의 종합제철소 준비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일단 뒤로 미뤄두고, 그보다 먼저 박태준이 종합제철소건설추진위원장에 임명된 1967 년 11 월부터 1968 년 4 월 1 일 포스코 창립일 직전까지 전개된 주요 사안들과 '박정희와 박태준'의 몇 차례 만남에 대하여 살펴보자. 박태준이 박정희에게서 종합제철소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1967 년 11 월 8 일부터 이듬해 3 월 31 일까지 '종합제철'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포철 사장'의 만남은 다음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정부관료, 학자, 민간인 대표 등 12 명으로 구성되어 정부 부처 간 업무조정과 외부자금 조달에 대한 자문 기능을 맡았다. 그는 이틀 만에 곧바로 첫 실무회의를 소집했다. 주제는 종합제철소건설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규모와 정부의 예산규모에 대한 논의였다.

그의 예상대로 첫 실무회의부터 관료와의 격렬한 설전이 벌어졌다. 공무원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 단일 프로젝트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려는 관료주의와의 첫 논쟁의 대상은 '항만시설의 규모'였다. 건설장관은 항만규모를 일차로 5 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건설하고 나중에 증설이 필요해지면 8 만 톤 또는 10 만 톤급 규모로 늘려가자고 했다. 추진위원장은 10 만 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만들고 앞으로 25 만 톤급 규모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건설해야 한다고 맞섰다.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먼저 고려하는 쪽은 제철소 현실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포부가 없는 반면, 상대는 그 둘을 겸비하고 있었다. 세계 각국의 제철소 실태를 조사한 박태준은 5 만 톤급 규모의 항만시설은 너무 협소하여 제철소규모도 확장할 수 없으며 경제성도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챙기고 있었다. 또한 그는 제 2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의 핵심 사업인 대규모 종합제철소를 성공시켜

단순히 수입대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철강을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고 있었다.

‘저비용 고품질’의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대한민국. 이 꿈이 불혹(不惑)의 생일을 막 넘긴 그의 가슴에 커다란 알처럼 숨쉬고 있었다.

첫 실무회의의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려고

‘종합제철건설일반지침’을 관계자들에게 배포했다. 제철소 건설에 실수요자의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부담한계를 초과한 부족액은 정부가 보전하며, 국내 철강업의 합리적 육성을 위해 철강공업 육성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박태준은 추진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률행위와 금융행위에 장애요소가 많다고 판단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중심이 되어 회사설립의 문제를 검토하게 만들었다. KISA의 야박하고 모호한 태도로 차관 도입이 여전히 불안한 미해결의 과제로 남긴 했지만, 이렇게 1967년 11월 들어 포항에 종합제철소를 세우겠다는 유사 이래 최대 공사는 ‘뭔가 실제로 되어가는 모양새’를 갖추는 중이었다.

박태준 앞에는 종합제철소 건설과 관련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당장 덤벼야 할 시급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다. 대한중석 주주 설득, 회사설립의 형태, KISA와의 교섭.

대한중석에는 민간 주주들이 있었다. 당연히 그들은 대한중석의 이익 잉여금과 보유자금을 종합제철소 건설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대주주인 정부의 일방적 횡포라면서 먼저 주총을 열어 현재의 사업항목에 종합제철사업을 추가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부터 물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자신들의 배당금을 날리고 회사의 경영상태를 다시 악화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이는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훨씬 더 중시하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에서 비난할 수 없었다.

박태준은 민간 주주들의 우려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유일한 방법은 설득이었다. 설득에 성공하려면 실리적 대안과 정서적 접근이 동시에 필요했다. 그가 마련한 실리적 대안은 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 즉 종합제철사업을 대한중석의 신규사업으로 추가하지 않고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되, 종합제철 회사가 설립될 때까지만 대한중석이 제철 업무를 대행한다는 것. 그가 들고 나간 정서적 접근은, 반(反)자본주의적 요소로 분류해야 하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조국산업화의 명운이 걸린 대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적 희생을 감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 그의 설득은 효험이 있었다. 정치권력이 거의 절대적 권위주의를 행세하는 세태에서도 권력에 의지해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지 않고 합리적 방법의 최선을 선택한 박태준의 방식이 작은 성공을 거두는 순간이었다.

종합제철을 어떤 형태의 회사로 설립할 것인가. 대통령은 ‘특별법에 의한 국영기업체’로 하자고 주장했고, 추진위원장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매우 중대한 선택이었다.

회사설립 형태에 따라 경영통제, 의사결정, 정부간섭, 자금조달, 세금혜택, 배당정책 등 관리운영의 모든 요소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국영기업체 형태는 감시와 통제가 심해 관료적인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단점이 있지만, 재정지원과 조세감면의 혜택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민간기업체 형태는 경영효율성을 살리고 시장의 상황에 민첩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부터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자금을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조달하기에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박태준은 대한중석을 경영하는 수업에서 관료주의와 정부의 간섭이 국영기업체에 끼치는 폐해를 체험했기에, 종합제철은 정치적 영향과 관료의 간섭을 적절히 막아낼 수 있는 민간기업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를 놓고 두 차례나 박정희와 길게 토론했다. 대통령이 좀처럼 물러서지 않을 눈치였다. 그는 양보하거나 포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청와대에서 세 번째 토론이 벌어졌다.

여러 개비의 담배를 태운 박정희가 결론을 내리듯 걱정스레 말했다.

“명치 30년 이후 세워진 일본 제철소들을 보아도 50년 이내에 적자를 모면한 제철소가 없었어. 자네는 민영기업으로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종합제철 설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것에 근거해서 회사를 만들고, 단서 조항에다 매년 회사를 경영한 결과를 정부 감사기관이 감사하기로 하고, 감사 결과 경영진이 올바르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적자가 난 것은 정부의 예산으로 보증할 수 있다고 달아놓으면 돼. 이러면 자네도 회사를 경영하기가 쉽지 않나?”

박태준은 자신의 장래까지 염려해주는 대통령의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부분의 약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염려해주시는 마음은 잘 압니다. 바로 그러한 단서 조항 같은 것 때문에 여태껏 국영기업체들이 적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최고관리자의 책임의식이 희박해져서 그렇다고 봅니다. 모든 책임을 맡겨주십시오.”

책임감. 이 말은 그의 진심이였다. 민영기업의 형태로 가야 자신과 함께 하는 동료들의 책임의식도 그만큼 강렬해질 것이었다. 제철소에 인생을 건다는 각오를 세운 그가 내친걸음에 제철소 장래의 비전을 피력했다.

“우리가 국내 수요만 생각하는 제철소를 만들 수야 없지 않습니까?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서 수출해야 합니다. 수출 대상 국가를 감안하면 일차적으로는 일본과 미국입니다. 일본은 차치해도 미국에 수출한다고 했을 때, 특별한 설립법에 따라 설립된 제철소는 반드시 심각한 문제와 부딪칩니다. 미국은 무역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한국정부가 경영하는 제철소라 하면 규제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덤핑 제소 같은 말썽이 생기게 됩니다. 제철소 장래에 대한 이런 고려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내 수요도 충당하고 수출도 당당하게 해내는 제철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박정희가 미소를 머금었다.

“임자한테 졌어. 좋은 방법을 강구해봐.”

대통령을 설득한 박태준은 설립형태의 장단점을 세밀히 비교해 장점만 결합한 제 3의 회사형태를 고안했다. 상법상의 민간기업 형태로 설립하되,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배주주가 되도록 지분을 인수한다는 방식이었다. 정부 관리들은 반대했다. 그는 종합제철소 건설계획에 성공하려면 경영의 자율성, 경영자의 책임감, 조직의 기동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후의 선택은 대통령의 몫이었다. 박정희는 박태준의 주장을 지지했다.

종합제철소 건설에 소요될 자금 조달. 이 과제에서 심각한 불안덩어리는 여전히 KISA의 태도였다. 미국보다 더 적극적이고 우호적이던 독일의 태도에도 적신호가 들어와 있었다. 작곡가 윤이상 선생을 끝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이른바 ‘동백림 사건’이 양국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중앙정보부가 여름에 발표한 ‘동베를린 거점 북괴 대남적화공작단 사건’에 대해 1967년 12월 13일의 선고공판에서 사형 2명, 무기징역 4명 등 피고인 3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같은 분단국가로서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를 대거 받아들이고 KISA에서도 한국을 두둔하는 편에 섰던 서독이 항의를 하는 중이었다.

박태준 위원장은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다. 한국의 종합제철소 건설을 위해 KISA가 수행했던 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용역’을 주기로 한 뒤, 이에 대해 미국·독일·영국·프랑스·호주·일본 등 10개국에 제안서를 발송했다. 4개국이 긍정적 답변을 보내왔다. 1968년 1월 15일에, 용역의 조건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을 담은 일본이 결정되었다. 원료부족과 지형조건 등 철강산업의 환경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 철강자문 용역단이 1월 29일 우리 조건에 합당한 계약서를 보냈다. 후지제철, 야하타제철, 니혼강관 등 일본의 대표적 철강기업 3사가 합동한 용역단은 사업발전계획, 일반기술계획, 최종 외환비용, 재무계획 등 총체적 검토 작업을 수행했다. 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 용역은 일본에만 맡겨둘 수 없는 사안이었다. KISA가 기피할 염려도 있었고, 우리가 비교해볼 또 하나의 객관적 자료도 있어야 했다. 박태준은 미국의 바텔연구소를 추가했다. KISA와 관계 깊은 바텔연구소를 택한 것은 그들의 인심을 얻어보려는 구애작전이기도 했다. 일본측과 미국측 양쪽 다 계약 날짜는 2월 2일이었다.

정부는 1월 25일 대통령령에 의거해, 종합제철공장 건설사업추진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여 추진위의 법적 권한을 뒷받침했다. 2월 14일 추진위는 사무실을 대한중석에서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으로

이전했다. 이날 종합제철 회사의 최초 자본금인 정부 출자금 3억 원과 대한중석 출자금 1억 원이 불입되었다. 이제 회사 탄생은 시간문제로 남아 있었다. 정관작성, 발기인대회, 총회, 상호결정, 창립식, 설립공고 등. 여전히 KISA의 차관도입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결로 남을 테지만…….

3월 4일 추진위는 4차 회의를 열어 일정을 확정했다. 3월 6일 발기인 대회, 15일 창립총회, 20일 설립공고. 회사설립에 따른 발행주식의 모집방법은 재무장관으로부터 주식청약서를 받도록 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회사 이름의 시안은 세 가지로 나왔다. 고려종합제철, 한국종합제철, 포항종합제철. 선택은 대통령에게 맡겼다. 박정희는 박태준에게 주저없이 말했다.

“포항종합제철이 좋아. 이름을 거창하게 짓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야.”

박태준은 실질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뜻을 새삼 확인했고, 비로소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POSCO)’란 이름이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이름을 거창하게 짓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며 제3안을 집어준 박정희의 선택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느끼며 군말 없이 받아들인 반면, 회사의 설립형태에 대해서는 박정희의 견해를 수용하지 않고 세 차례나 독대 토의를 벌여 대통령을 설득한 박태준. 대통령과 공기업 사장의 독대도 특별한 경우지만 두 사람이 국가대사를 놓고 허심탄회한 토의를 벌일 수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 청와대의 귀감으로 남겨도 좋을 것 같다.

여기서 궁금증이 솟아난다. 왜 박정희는 박태준을 그렇게 대우할 수 있었을까? 박정희와 박태준, 이들 두 사람의 어떤 인간관계와 상호 신뢰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지속될 수 있게 만들었을까?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1948년 남조선경비사관학교 강의실로 거슬러 올라가야 실마리를 잡을 수 있으며, 그것을 천천히 잡아당겨 그로부터 두 사람의 이십여 년 세월을 만나봐야 한다.

박정희와 박태준의 첫 만남

“……견딜 수 없는 바를 견디고 참을 수 없는 바를 참아갑시다.”

일본 왕 히로히토의 저 목소리가 라디오 전파에 실린 것은 1945년 8월 15일 정오였다. 이른바 ‘무조건 항복’ 선언. 이것을 박태준은 일본 산골의 온천마을에서 들었다. 도쿄에서 와세다대학

기계공학과 1 학년을 다니다 미군의 대공습을 피해 소개된 지역에서 방공호 따위나 파며 견뎌내는 중이었다. 그가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것은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북받쳐오르는 감격이었다. 일본인의 땅, 일본인의 집에 있어서 차마 날릴 수 없는 감격이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눈물로 흘러내렸다.

해방 후, 1945 년 가을에 박태준 가족은 가장의 술가를 따라 ‘되찾은 빛’이 비치는 광복의 땅, 고향(현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으로 돌아왔다. 1927 년에 태어난 박태준의 나이는 만 18 세. 신체도 정신도 청년의 기골을 완성하고 있었다.

해방 첫해가 저물어가는 12 월 하순, 박태준은 생애 처음으로 서울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몇 달에 걸친 고민의 해답을 찾기 위해 상경한 걸음이었다. 와세다 선배를 만나보고 경성대학을 찾아갔다. 그러나 공부의 길도 취업의 길도 보이지 않았다. 눈앞이 온통 자욱한 안개로 덮힌 것 같았다. 진로시계(進路視界) 제로 상태였다. 그러나 광복의 조국은 그를 쏙 빼놓은 채 한창 시골벽적했다. 세밀의 서울 거리에는 시위인파가 휩쓸고 있었다. 1945 년 12 월 27 일 보도된 모스크바협정(모스크바 3 상회의)에 5 년 동안 조선을 신탁통치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었다.

이념의 대결의 한복판으로 나가거나 현실 정치로 뛰어들 세계관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한 박태준은 다시 현해탄을 건너기로 했다. 일본에 돌아가서 대학을 마치고 실력을 갖춘 인재가 되어 조국으로 돌아와 동량이 되겠다는 계획이었다. 1946 년 봄, 그는 도쿄에 도착했다. 도쿄 역시 서울에 못잖은 아수라장이었다. 진보와 보수가 상충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건의 의지는 살아 있었다. 그 의지는 특히 평범한 여성들의 자궁 속에 새 생명처럼 잉태된 것 같았다. 쓰레기더미에서 쓸 만한 목재를 골라내 임시 판잣집을 짓는 여성들, 길을 정비하고 하수도를 고치고 치안 대책까지 협의하는 여성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으나 패배의 통한과 전투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집안에 엎드려 있는 남편이나 아들에게 짜증내지도 않는 여성들이 일본의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박태준은 도쿄에서 몇 번의 계절을 보냈으나 자신의 학구열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일자리가 어찌되든 공부가 어찌되든 조국으로 돌아가 인생의 길을 결정하기로 했다. 와세다대학 2 학년에서 중퇴한 그는 다시 고향으로 1947 년 가을과 겨울을 농사나 거들면서 칩거생활을 했다.

새봄이 돌아왔다. 어느덧 박태준은 만 21 세였다. 해방을 맞았을 때보다는 세상을 읽어내는 눈이 한층 더 밝아져 있었다. 이제 그의 시선은 분단 확정의 초읽기에 몰린 신생독립 조국의 초체한 물골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중이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해답을 찾았다. 군인이 되자. 마침 부산의 국방경비대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 병사들 중에 사관학교 후보생을 발탁한다는 것도 들어 있었다.

“아버지. 군인이 되겠습니다. 건국(建國)에는 반드시 건군(建軍)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조국에서 뜻깊은 일을 하겠습니다.”

아버지(박봉관)는 똑똑한 장남이 군인의 길을 택하는 것이 탐탁하게 여겨지지 않는 않았다. 그러나 장성한 자식의 의사를 존중할 줄 아는 아버지였다.

“몸이나 조심해라.”

박태준의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첫 관문은 부산 국방경비대 정문이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 천 리 길 떨어진 서울 태릉 골짜기의 남조선경비사관학교에서 속성 장교들을 길러내고 있었다. 박정희는 박태준보다 정확히 열 살이 많았다. 아직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단 한 번 옷깃이 스친 적도 없는 두 사내의 첫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인생이 인연의 자계(磁界) 안에서 이뤄지거늘, 박정희의 인생을 위해서든 박태준의 인생을 위해서든, 흑인 장차 두 사람이 가슴에 품게 되는 새로운 시대의 개혁을 위해서든, 어떤 불가사의한 운명이라는 것이 개입한다면 미상불 두 사내는 기필코 돈독한 인연을 맺게 될 것이었다.

어쩌면 박정희의 보이지 않는 자력(磁力)이 조금은 미쳤을까. 부산 국방경비대 훈련병 박태준은 남조선경비사관학교에 응시할 후보로 뽑혔다. 뒷날 육군사관학교로 바뀌는 그 사관학교가 1기생 80 명을 받아 문을 연 것은 1946 년 5 월 1 일이었다. 6기생 277 명은 1948 년 5 월 6 일에 입교했다. 2 년 동안에 5 기까지 배출했다. 학병으로 일본군대를 체험했거나 일본군 장교 경력을 지닌 ‘군인 출신’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6 기는 달랐다. 국방경비대 각 연대의 하사관이나 사병 중에서 선발했다. 입시 경쟁률은 4 대 1. 시험과목은 국어, 국사, 영어, 수학, 논문 등 필기고사와 구두시험, 신체검사. 6기생의 특징은 모두가 해방된 조국에서 처음 군복을 입은 청년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메이드 인 코리아’라 부르며 자부심을 뽐내기도 했다. 그러나 6기생이 입교한 날에 아직은 분단의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탄생되지 않았다. 제헌의회 선거를 거치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 그들은 비로소 최초의 ‘메이드 인 코리아 장교’로 태어난다. 갓 소위 계급장을 달고 건국 대통령의 취임식장을 빛내게 되는 것이다.

최초의 메이드 인 코리아 장교. 그러나 장교가 되기에는 한참 모자라는 청년들을 메이드 인 코리아 장교들로 길러내는 교사 역할은 일본군 출신의 한국인(조선인) 장교들이 맡아야 했다. 그들 중에 바로 박정희가 있었다.

박정희의 이력은 널리 알려져 있다. 1917년 구미시 상모동에서 막내로 태어나 구미보통학교를 나와 5년제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문경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스스로 던져 버리고 1940년 4월 만주제국 육군사관학교 2기생으로 입교한다. 만주계 240명, 일본계 240명. 만주계에 포함된 조선인 11명에는 뒷날에 그와 희비의 인연을 이어가는 이한림, 강창선 등이 있다. 그의 뒷날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는 동기생보다 5기 정일권, 9기 백선엽 등 이른바 만주군 인맥이 더 중요하다. 그의 군대 인맥은 일본 육사로도 뻗어 나간다. 만주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하여 일본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일본 육사 2년을 더 거쳐 되어 다시 중국 대륙으로 나온 박정희는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이 중국으로 밀고 들어온 그때 만리장성 인근의 반백산에 만주군 8단 단본부에 근무하고 있었다. 계급은 중위. 소련군의 참전 소식은 가장 먼저 들었던 그는 폭우 속으로 반백산에서 상륙까지 험한 산악지대 60km 행군을 거의 마친 8월 17일에야 무전기에 잡힌 중국 방송을 통해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들었다. 조선 해방이 이틀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그 방송이 세상을 바꾸었다. 중국인인 만주군 8단장이 박정희 등 조선인 장교 4명과 일본인 장교 13명의 무장을 해제시켰다. 이들은 모두 상륙 소재 일본군 계도(下道)부대에 인계되었다. 그런데 만주군 8단이 일본군 계도부대의 무장을 해제시키게 되었다. 박정희는 일본 장교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며칠 전까지도 일본군과 만주군은 동맹관계였지만 바뀐 세상에서는 졸지에 적대관계가 되었다. 다만 만주군 8단장은 인간적이었다. 그가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전우였다는 사실을 배려하여 무사 퇴거를 보장했으며, 박정희 등 조선인 장교들에게는 손님처럼 병영에 남게 해주었다.

해방의 기쁨을 맛볼 여유도 없이 ‘막막한 전도’부터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박정희가 동료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한 때는 9월 27일이었다. 조선의 해방은 벌써 40일을 넘어서고 있었다. 만주·중국 전선에서 광복을 맞은 조선인 장병들이 속속 베이징으로 몰려들었다. 수십 명이 덕경루에서 기숙했다. 상해임시정부가 그들을 광복군에 편입시키려고 했다. 박정희는 광복된 뒤에 광복군에 들어가는 것이 속스러웠지만 광복군의 장교가 되었다. 광복된 뒤에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 장교들로 편성된 베이징의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 제3지대 주(駐) 평진대대’로 불리게 되었다. 평진대대는 베이징 시내 북신교라는 곳에 위치한 제지공장과 마당을 병영으로 썼다. 박정희는 2중대장을 맡았다. 이 평진대대 내부의 특이한 점은 좌익과 우익의 경계가 생겨난 것이었지만, 박정희 같은 장교들에겐 부하들을 굶기지 않는 일이 급선무여서 베이징에 거주하는 조선인 동포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다. 다행히 그 손에는 ‘광복군’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상해 임시정부는 광복군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당당히 조선으로 들어가려던 거사 계획을 이루지 못했으나 중국에서 10만 명 규모의 광복군을 편성하여 단체로 귀국한다는 포부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의 미 군정 당국이 임시정부 요인들까지도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라는 방침을 정한 터에 애초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었다. 다만 미 군정 당국은 수송선을 배치하여 중국의 조선인들을 열심히 실어 날랐다. 평진대대는 1946년 4월 29일 베이징을 떠나 텐진에서 1주일을 기다렸다가 5월 6일 미 해군 수송선에 올랐다. 박정희에게 미국과의 첫 대면이었다.

5월 8일 박정희 일행은 부산항에 도착하여 배에서 이틀을 더 대기하다가 10일에 조구의 따을 밟게 되었다. 지독한 환영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염병을 예방하겠다는 미군 검역 당국자들이 박정희에게도 사정없이 온몸에 디디티(DDT) 가루를 덮어쓴 것이었다. 그것이 미국과의 두 번째 만남이었다. 그는 미군이 제공한 여비를 받아 동료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 장충단 근처의 귀국자임시수용소에 며칠 머물다가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는 군대생활의 기념품 같은 지휘봉 하나만 달랑 쥐고 있었다. 어머니가 지키는 구미 고향집은 여전히 빈한했다. 옆집에는 그가 존경한 형님(박상희)이 살고 있었다. 박상희는 여운형이 조직한 건국준비위원회 구미지부를 이끄는 인물로서 구미 일대에서 신망 받는 지식인이었다.

읽던 신문으로 얼굴을 덮고 잠을 자거나 고향 친구들과 기타를 치거나 대구로 내려가 대구사범 동기생들을 만나거나 하면서 빈둥빈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던 박정희가 서울로 올라가 만주군관학교 동기생 이한림을 만난 뒤에 남조선경비사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한 때는 1946년 9월 24일이었다.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사에 이은 세 번째 사관학교. 박정희가 단기 과정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 대구에서 10·1 사태가 일어났다. 이 사건은 남한의 좌익세력이 척결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좌익세력의 청년들이 피신처 삼아 군대로 잠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생 한국군 내부에 좌익조직이 더욱 번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한 분위기가 박정희의 감성과 사상을 건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남긴 것은 형의 죽음이었다. 대구의 지척인 구미, 구미의 대표적 활동가 박상희. 그의 죽음이 박정희의 정신에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 한 언론인은 이렇게 썼다.

조선경비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박정희가 형의 죽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확실치 않다. 장례식에 참석하지는 못했고, 그 며칠 뒤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올라갔다고 한다. 박정희는 대통령이 된 뒤 가족들에게 “내가 그때 형의 죽음에 대하여 알아보러 다녔다고 해서 나중에 김창룡으로부터 추궁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준홍에게 “형님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사람이 좋고 여러 사람들이 따르다 보니까 그 사건에 휩쓸려 든 것이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박정희가 마음속으로 어렵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존경했던 박상희의 비극적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때까지 박정희는 사상문제에 있어서는 방관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여운형의 중도좌파 노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면서도 공산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형의 죽음은 그러한 박정희를 왼쪽으로 확 밀어버리는 역할을 했다. 박정희는 형의 죽음을 우익경찰과 그 배후인 미군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되었다. 박정희는 장교가 된 뒤에는 미군들과 부딪치면서 그런 증오심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그에게는 미군이 일제를 대체한 또 다른 외세에 지나지 않았다. 심정적으로 왼쪽으로 기운 그를 공산당 조직으로 엮어버린 것은 박상희의 친구들과 만주군 출신 좌익인맥이었다.

-조갑제, <박정희> 제 2 권

2 기생 졸업을 앞둔 12 월, 내무반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박정희의 대구사범 후배인 서억균이라는 생도가 일본군 소위 출신의 이 모 생도대장의 불합리한 억압을 참지 못하여 한밤에 자고 있는 그를 찾아가 목총으로 머리를 난타한 것이었다. 부상자는 후송되어 소생하고 가해자는 퇴교를 당했다. 그 서억균을 박정희는 뒷날 대통령이 되어서 많이 도와준다.

2 기 생도는 1946 년 12 월 14 일 졸업했다. 교육 중 69 명이 이탈하고 194 명이 성적순으로 군번을 받았다. 박정희는 3 등이었다. 한국군 소위로 거듭난 박정희의 첫 배속은 춘천에 본부가 있던 8 연대였다. 8 연대 1947 년 2 월 미군이 일부 이관한 38 선 경비업무를 받아 다섯 곳에 경비초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때 박정희는 미군 고문관 브라운의 간섭에 대해 “미국놈”이 왜 간섭을 하느냐고 대들었다가 짧은 소동을 겪는다.

박정희가 건군 장교들의 저질을 개탄한 것은 8 연대가 7 월 22 일부터 사흘간 강릉과 후포 사이의 동해안에서 실시한 야외 기동훈련과 함께 벌인 모의 전투였다. 그는 ‘교육실시 후 소감’에서 <군대 지휘관으로서 치열한 책임감이 결핍됨. 매사에 진취 적극성이 부족함. (중략) 장교단 교육의 부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음. 건군의 초석이 되겠다는 것을 군인으로서 신양시할 만큼 투철한 신념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여기에 귀일함.>이라는 소회를 남겼다.

장교단 교육의 부진을 통탄하고 장교에게 건군의 신념을 심어줘야 한다는 박정희. 이 젊은 장교에게는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훨씬 어울릴 것이었다. 누가 그의 저 소감을 챙겼을까. 박정희는 소위에서 중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위로 승진한 뒤 1947 년 9 월 27 일 남조선경비사관학교 옮겨 1 중대장이 된다. 2 중대장은 강창선. 그는 박정희의 만주군관학교 동기생이다.

유일하게 창씨개명을 거부한 생도로서 박정희와 함께 여운형 계열의 만주군 내 비밀항일조직에 들어 있었다. 특기할 것은 1 중대장 박정희, 그 밑의 2 구대장 황택림 중위, 2 중대장 강창선, 그 밑의 2 구대장 김학림 대위 등이 남로당에 포섭돼 있었다. 이들은 1 년 뒤 숙군(肅軍) 수사 때 체포되고 박정희만 살아남는다.

5 기생 420 명은 10 월 23 일에 입교했다. 5 기생부터는 엔간히 사관의 틀이 잡히기 시작하여 교육기간도 3 개월에서 6 개월로 늘었다. 남조선경비사관학교로 전근하고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모집한 5 기생(약 3 의 2 는 월남한 북한 출신 청년들)을 훈육한 것은 박정희의 앞날에서 매우 중요한 인연이었다. 무엇보다도 5.16 쿠데타 당시에 결정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장교들이 5 기생이었다. 혁명군 지휘소로 쓰인 6 관구사령부의 김재춘 참모장, 서울에 진입한 5 사단의 채명신 사단장, 해병여단과 함께 한강을 건넌 박치옥 공수단장, 육군본부를 장악한 6 군단 문재준 포병사령관 등이다. 그리고 이듬해 입학할 6 기에는 5.16 직후 박정희가 첫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며 산업화의 대장정에서 철강 신화를 쓰게 되는 박태준 생도가 포함된다.

부산 국방경비대를 거친 박태준이 남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학한 1948 년 5 월에 박정희는 1 중대장이었다. 박태준은 강창선 대위의 2 중대 소속이었다. 박태준이 박정희와 조우할 시간이 다가왔다. 이들의 첫 만남에서 주체는 박태준이었다. 박정희에게는 눈에 띄는 제자들 중의 하나가 박태준이었지만, 박태준에게는 강렬한 첫인상을 남긴 유일한 교사였기 때문이다. 박태준이 처음 박정희와 마주치는 장면은 어떠했을까?

탄도학 첫 시간.

강의실에 들어서는 박정희 교관을 쳐다본 순간, 박태준은 싸늘한 새벽 공기가 앞문으로 불어닥치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신선한 긴장감으로 돌아났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뻗뻗이 고쳐 앉았다. 간간하게 생긴 교관의 작은 체구는 온통 강한 의지로 똘똘 뭉쳐진 것 같았다. 강의실 공기가 삼시간에 팽팽해졌다. 목소리도 카랑카랑했다.

탄도학은 대다수 생도들에게 버거운 과목이었다. 탄도궤적 계산법에는 해석기하학, 미분, 삼각함수 등 각종 수학 원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강의 중간에 박정희가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적었다.

“어느 생도가 나와서 풀어보겠나?”

아무도 선뜻 손을 들지 않았다.

“자원이 없으면 지명해야지.”

강의실을 탐조등처럼 훑어나가던 교관의 시선이 박태준 생도의 동공에 딱 머물렀다. 수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박태준에게 벅찬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를 술술 풀어내자 교관의 차가운 얼굴에 살짝 미소가 피었다. 무언의 칭찬 같았다.

그날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이었다. 박태준은 복도에서 박정희와 스치듯 지나쳤다. 생도가 거수경례를 붙였다.

“탄도학 문제를 푼 생도로군.”

교관이 미소를 지었다. 이번엔 눈웃음도 곁들였다.

박정희와 박태준, 이들은 이렇게 허술한 교정의 허술한 강의실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 인연의 끈으로 두 사람은 1950년대 막바지부터 한 사람이 먼저 생을 마치는 날까지 20여년간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해간다.

-이대환, 평전 『박태준』에서

그날 이후 중대장 박정희의 생도 박태준의 영혼을 건드렸다. 박태준은 박정희가 예사로운 인물로 보이지 않았다. 비범해 보였다. 무언가 속이 짝 차고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였을까. 많은 장교들 중에 유독 그의 눈에 자주 띄는 장교가 박정희였다. 그가 내무반을 사열하러 실내에 들어서면 갑자기 한 줄기 신선한 기운이 불어오는 것 같았다.

박정희와 박태준은 키가 작았다. 164 센티미터와 165 센티미터. 체격은 박정희가 좀 마른 편이라면 박태준 아주 다부진 편이었다. 얼굴 생김새는 달랐다. 박태준은 전형적인 남방형으로 이마가 넓고 눈이 굵고 귀가 크고 인종이 유난히 길었다. 그런데 사내와 사내, 선배와 후배, 스승과 제자, 상관과 부하의 인간관계에서 신체와 생김새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신체나 생김새보다는 차라리 술잔을 얼마나 함께 기울일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는 신념과 정신이며, 더 나아가 당대를 감당해 나가는 비전과 이상이다.

남조선경비사관학교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난 박정희와 박태준은 탄도학 강의실에서 눈빛을 마주친 그 이상의 특별한 사연을 남기지 않는다. 이것은 박태준의 행운이었는지 모른다. 그가 박정희와 자주 눈빛이 마주쳤다면, 그래서 어떤 비밀 회합에 한 번 기웃거리기라도 했더라면 햇병아리 장교 시절에 숙군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태준의 행운은 또 있었다. 소위로 임관되고 1연대 2대대에 배속되어 서울 용산에 근무하면서 전남 남해안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것이다. 1968년 여수·순천 반란사건 때 사건이 일어난 14연대에서

6 기생 출신의 중.소대장 7 명이 피살되고 진압부대로 동원돼 초급 지휘관을 맡았던 6 기생 출신 10 명이 전사했던 것이다.

어쨌든 박정희는 소위 계급장을 달고 1948 년 8 월 10 일 제 1 여단 제 1 연대로 배치되면서 박정희의 시야에서 일단 사라지게 된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태릉의 여섯 달이 박정희에게는 박태준이라는 뚝뚝한 제자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게 하고, 박태준에게는 박정희라는 특출하고 유능하고 인격적으로 감화를 주는 선배의 이름과 얼굴을 각인하게 했다.

1948 년부터 십여 동안에 한국 군대는 격랑의 한복판을 헤쳐 나간다. 육군의 회오리바람이 몰아친 다음, 그 후유증을 제대로 다 수습하기도 전에 6.25 전쟁이 발발한다. 패전과 후퇴의 연속, 유엔군의 참전과 역전과 승승장구, 중공군의 개입과 후퇴, 느려터진 휴전협정과 치열한 소모적 국지전, 그리고 휴전. 전후의 폐허와 빈곤, 그 속에서 오히려 창궐한 군대의 부정부패, 희망 없는 정치를 지켜보는 양심적인 군부의 분노, 정치참여에 대한 갈등....

군대란 조직은 넓은 것 같아도 좁은 사회다. 육군으로 한정하면 더욱 좁아진다. 어느 장군은 어떠하고, 어느 장교는 어떠하다. 누구나 고급장교는 그러한 소문의 평판을 일상으로 듣게 된다. 물론 위로 올랄수록 소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빈도가 높아진다. 박태준은 박정희에 대한 평판을 듣고 있었다. 박정희도 박태준에 대한 평판을 듣고 있었다. 물론 계급이 높아질수록 소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빈도가 높아진다.

불가사의한 시간의 운영이 박정희와 박태준에게 아주 가까워서 나날이 함께 생활하게 되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은 박태준이 소위 계급장을 부착한 날로부터 무려 십여 년이 더 흐른 다음이다. 그때는 인연의 끈을 걸어 당기는 쪽이 박정희다.

다른 길을 걸어와서 다시 만나다

1957 년 가을, 박태준 대령은 국방부 인사과장이었다. 뒷구멍을 몰래 열어두면 마치 부엌의 음식을 훔쳐 나르는 영특한 쥐를 키우는 것처럼 청탁의 재물들을 소복하게 쌓을 수 있는 요직이었다. 하지만 그따위 뒷구멍을 경멸하고 그런 쥐새끼들을 박멸하려는 장교에게는 차라리 지겨운 자리였다. 1956 년 11 월 1 일에 부임하여 어느덧 일 년. 박태준은 동료들이 ‘노른자리’라고 부러워하는 자기 자리의 비린내에 질리고 있었다. 국무위원, 경무대, 국회의원, 고위관료, 그리고 장성까지. 그들이 들이치는

청탁의 행태에도 신물을 내고 있었다. 부패한 사회의 그릇된 통념이 금은보화를 챙기는 자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요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따분한 어느 날이었다. 박태준 대령은 아주 오랜만에 박정희 장군을 만났다. 두 사람만 마주서는 일은 평생 처음 같기도 했다. 국방부에 들렀던 1 군 참모장이 일찍이 ‘탄도학 시간에 찍었던 제자’인 인사과장을 일부러 찾은 것이었다. 제자는 제자대로 뜻밖의 재회가 정말 반가웠다.

“자네 소문은 잘 듣고 있었어. 얼굴은 못 봤지만 자주 만나온 사람 같아.”

“감사합니다.”

박태준은 육사 시절의 은사 앞에서 환한 웃음을 지었다.

“1 군으로 오지?”

“방법을 강구해주시시오. 따분하고 지긋지긋해서 어서 떠나고 싶습니다.”

“우리 25 사단에 참모장이 필요해. 문제가 많은 사단인데, 참모장이 중요해. 참모장 다음엔 연대장으로 나가야지. 조금씩조금씩, 그러면서 빨리 나가야지.”

박정희의 간결하지만 따뜻한 대화. 그의 가슴은 여전히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격적 감화의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악수를 나누고 금세 헤어진 두 사내. 1948 년 여름에 헤어진 뒤로 한 번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다. 같은 대한민국 육군 장교지만 그 격변의 세월을 가로질러 나오는 길은 달랐다.

박정희는 1948 년 숙군 재판에 회부되어 000 형을 받는다. 하지만 만주군관학교 출신 백선엽 장군의 선처를 받아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000 로 감형되고 군복을 벗긴 해도 군무원 신분으로 군에 남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6.25 전쟁을 맞은 그가 주변 장교들로부터 좌익 혐의를 벗은 것은 서울을 점령당한 다음이었다. 박정희가 진짜 사회주의자요 공산주의자라면 인공치하의 서울에서 탈출할 것이 아니라 거기 남아서 완장을 차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강을 건너 자신의 부대에 합류했다.

박정희는 1952년 0 월 다시 군복을 입는다. (육영수와 결혼 등 보완.....) 그리고 1952 년 10 월 대령 박정희는 포병으로 전과하고 포병단장 요원에 선발돼 광주 포병학교에서 6 달간 교육을 받고 이듬해 2 월 2 군 포병단장으로 부임한다. 5 월에는 3 군단 포병단장으로 전보된다. 두 포병단은 신설(新設)이었다. 휴전 직전인 1953 년 7 월에는 광주에서 창설한 3 군단 포병요원들을 인솔하여 강원도 양구로 이동한다.

광주 포병학교의 박정희는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밤에 교관을 숙소로 불러 과외공부도 해가며 2 등으로 졸업한다. 포병 전과와 지독한 공부는 동료들보다 인생의 곡절이 깊어서 나이에 비해 장군

진급이 늦어진 박정희가 그래도 별을 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보병이나 정보 병과보다는 경쟁이 덜 치열한 것이다. 박정희는 1953년 11월 25일 드디어 준장으로 진급한다. 미국 육군 포병학교 고등군사반 유학으로도 뽑힌다. 그러나 육군특무대가 두 가지 좋은 일을 그르치려 했다. 그의 남로당 연루 경력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이번에도 백선엽 장군이 그것을 무마시켰다. 1954년 1월 미국 유학을 떠났던 박정희는 그해 10월 광주포병학교 교장이 된다. 그리고 5사단장, 진해의 육군대학교 입교, 7사단장, 1군단 참모장 등을 거치게 된다.

박태준은 일선 중대장으로 6.25 전쟁을 맞아 미아리까지 밀려나는 사나흘 동안에 구사일생의 고비를 넘기고 포항 형산강전투까지 후퇴했다가 인천상륙작전의 동력을 받아 청진 너머까지 북진했으나 중공군의 개입에 다시 밀려 강릉으로 내려온다. 이 한반도 종단의 전선을 따라 오르내리며 무공훈장들을 받은 것이 휴전 협정 개시 전에 그가 감당한 6.25 전쟁이었다. 휴전 후 그는 육군대학에 입학하여 수석으로 졸업하고 육사 교무처장, 국방대학 1기 졸업과 국방대학의 국가정책 수립담당 제2과장 책임교수, 국방부 인사과장 등을 지낸다. 가는 곳마다 박태준은 우수하고 청렴한 고급장교라는 평을 듣는다. 장교 생활 10년째에 접어드는 그의 내면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역량이 쌓여 있었다. 전쟁을 겪으며 체득한 ‘짧은 일생을 영원 조국에’라는 확고한 인생관과 신념, 사단 대병력 이동 작전이나 진해의 육사를 태릉으로 옮기는 이전작전계획을 통해 발휘한 기획능력, 육군대학에서 배운 지휘개념, 국방대학에서 공부한 국가경영 목표와 운영, 국방부에서 익힌 인사관리 능력 등 여러 무형의 자신들이 그의 내면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성장하고 있는 것이었다.

박정희가 언제부터 ‘거사’를 꿈꾸며 군부의 ‘내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했을까? 1956년 5월 15일 제3대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란 민주당 신익희 대통령 후보·장면 부통령 후보의 한강 백사장 유세에 수십 만 청중이 운집했다. 전군(全軍)에 선거 열풍이 몰아쳤다. 그 열풍이란 이승만을 지지하는 부정선거 획책과 실행이었다. 송요찬 3군단장이 예하 부대를 순방하면서 이승만 지지를 독려했다. 당연히 그 아래의 박정희 5사단장도 선거운동을 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그는 그 문제를 참모회의에 부쳤다. 순종할 수 없다는 사단장의 뜻을 헤아린 참모들도 있어서 찬반이 엇갈렸다. 이런 가운데 5사단 작전장교가 가짜 출장 명령서를 만들어 조선일보 편집국을 찾아가 부정선거를 폭로했다. 일종의 양심선언이었다. 박정희는 사단 특무대장의 의견과 반대로 문제의 작전장교를 헌병대 장교숙소에 연금하여 사실상 보호를 해주었다. 이러한 박정희의 비협조적 태도는 그를 5사단장직에서 쫓아낸다. 그해 7월 15일 그는 진해의 육군대학교에 입교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휴전 직후에

박태준이 입교하여 수석 졸업한 육군대학을, 박정희는 장군이 되어 입교한 것이다. 명백한 보복성 좌천 인사였다. 장군이 학생이 된 것도 처음 생긴 일이었다.

바로 그 즈음에 이르러, 박정희 전기를 쓴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956년 5월에 있었던 부정선거와 부하들의 잇따른 월북과 양심선언 사건은 박정희 사단장이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을 심어 준다. ‘난들 어쩌란 말인가’란 자조(自嘲)가 보름 사이 ‘나라가 꿈을 대로 굶도록 내버려둔 다음 수술을 해야 희생이 덜하다.’라는 냉철한 계산으로 바뀐 것이다. 박정희는 권력을 잡아야 이 모순 덩어리의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때 이후 박정희의 태도는 달라진다. ‘내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조갑제 <박정희> 제 3 권

그러니까 국방부 인사과에서 ‘탐나는 제자’ 박태준과 마주선 박정희는 달라져도 확실히 ‘달라진 박정희’였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손을 넣어 박태준은 국방부 인사과장이란 황금의 요직을 버리고 1 군단 산하 25 사단의 참모장으로 옮겼다. 그때 25 사단은 1 군 전투서열의 꼴찌였다. 육군 2 개 사단 해체결정에서 간신히 빠진 사단이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새 보직의 가장 큰 의미는 박정희를 동일한 명령계통의 상관으로 모시면서 가끔씩 연락하고 아주 가끔씩 만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두 사내가 서로의 깊은 내면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5 사단 참모장 박태준 대령. 그에게 초겨울과 함께 첫 시련이 찾아왔다. 사단 장병의 월동준비에서 가장 긴요한 김장이었다. 그가 부임했을 때는 각종 김장 재료들이 납품돼 김장 담그기가 막 진행되려는 참이었다. 그는 현장으로 나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왕릉같이 쌓여 있는 고춧가루자루에서 전혀 매운 냄새가 나지 않았다. 옆에 선 병참장교에게 지시했다.

“저거 하나 가져오고, 물 한 양동이 떠와봐.”

대뜸 살벌한 분위기가 잡혔다.

“고춧가루를 부어봐.”

순식간에 ‘이적(異蹟)’이 일어났다. 말간 맹물이 빨갱게 물들어버렸다. 그는 소매를 걷고 양동이에 팔을 넣었다. 그의 오른손에 집혀 올라온 것은 톱밥 같은 물질이었다.

“이런 걸 병사들에게 먹여? 이런 개돼지 같은 새끼들!”

그가 오른손의 젖은 톱밥을 병참장교의 가슴에 뿌렸다. 이승만 정권 말기의 부패가 일으킨 이적의 실체가 하급 관리인의 양심을 때린 것이었다.

박태준은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사병식당의 위생상태와 주방설비를 살펴보았다. 식당 뒤편의 잔반통에는 소금에 절여진 배추들로 넘쳐났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모든 장병들의 한결같은 첫 번째 소원이 배불리 실컷 먹어보는 것일 텐데, 군대 잔반통에 멀쩡한 배추가 쓰레기로 쌓인다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는 사병식당으로 갔다. 점심을 먹고 있던 병사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신임 참모장에게 거수경례를 올렸다.

“모두 김치에는 손도 대지 않았군. 왜 김치를 안 먹나?”

사병식당이 쥐 죽은 듯 잠잠해졌다.

“왜 김치를 먹지 않나?”

그의 날카로운 추궁이 벽면을 울렸다. 병사들은 잠자코 입을 다물었다.

“이봐, 자네.”

신임 참모장의 지휘봉이 한 지점을 가리켰다. 하사 한 명이 냉큼 일어섰다.

“정직하게 말해봐. 도대체 귀한 음식을 버리는 이유가 뭔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으니까 어서 말해봐.”

하사가 천장을 향해 외쳤다.

“결코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식당의 김치는 맵지가 않습니다. 맛도 없고, 먹고 나면 소화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군인답게 남김없이 먹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도 가짜가 판치고 있었구먼.”

그는 취사장 창고에 보관된 김치도 조사하라고 했다. 식당엔 긴장감만 팽배했다.

“제군들! 당분간 김치엔 손도 대지 말고, 다른 건 남기지 마라!”

그는 찌렁찌렁 울리도록 소리를 질렀다. 고개를 갸웃거린 병사들이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다. 기대 반 회의 반, 꼭 그런 표정이었다.

그는 울화통과 분노가 치밀어올랐다. 본때를 보이자면 당장에 줄줄이 불러들여 가짜 고춧가루를 한 줍씩 그 입에다 때려넣고 싶었다. 신속하게 사후 처리에 착수했다. 가짜 고춧가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라. 납품업자의 신상을 들고 오라. 병참계통의 관련자들을 조사하라.

재고 물량부터 파악했다. 김장용을 빼더라도 30 포대 정도가 남아 있다고 했다. 곧 납품업자의
신상보고도 올라왔다. 보나마나 줄줄이 엮어져 있을 것이었다.

그는 ‘가짜 고춧가루사건’을 사단장에게 보고했다. 어쩐지 반응이 미땃했다. 뭐 그만한 일로
흥분하느냐고 은근히 책망하는 김새마저 풍겼다. 적당히 넘어가는 게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암시
같았다. 만만한 일은 아니겠군. 그는 아무지게 입술을 다물었다. 30 분쯤 지나 더 높은 상부의 전화가
걸려왔다. 납품업자를 교체하지 말고 앞으로는 진짜 고춧가루를 납품하겠다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여
마무리하라는 압력이었다. 그는 전화통을 집어던지고 싶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또 전화가 왔다.
육군본부의 어느 높은 나리도 똑같은 내용을 중용했다.

그날 저녁이었다. 박태준의 숙소로 낯선 사내가 방문했다. 문제의 납품업자였다. 자꾸만 머리를
조아리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자신도 억울한
피해자라고 했다. 듣다 못해 버럭 고함을 질렀다.

“적반하장이란 말 정도는 알 만한 놈이!”

“아닙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도 중간상인한테 속은 겁니다. 물품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제
잘못이지만, 우리 업계의 관행상 서로 믿고 하기 때문에…….”

“야, 이 새끼야, 말로 할 때 썩 꺼져!”

그의 부리부리한 눈이 매섭게 번뜩였다. 문득 납품업자의 입가에 배시시 미소가 피었다.

“참모장님, 다 저의 잘못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번에 참모장님이 저의 뒤를 봐주시면 저는 두고두고
참모장님의 뒤를 봐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세상 이치 아닙니까? 절대로 후회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매끄러운 하소연을 마친 사내의 오른손이 익숙하게 자신의 품으로 들어가더니 두툼한 봉투를 물고
나왔다. 박태준의 눈에서 팍팍 불꽃이 튀었다.

“야, 이 새끼야! 그 더러운 돈 가지고 당장 꺼져! 쏘아 죽이기 전에 다시는 우리 부대 근처에
얼짹거리지도 마!”

사내가 부리나케 봉투를 집어들었다. 문을 닫지 못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 납품업자의 뒤를 봐주는 고위장교는 몇 명이나 될까? 그가 터득했던 ‘세상의 이치’에 따라 그의
뒤를 봐주는 그들은 또 얼마나 될까?

이튿날 오전에 1 군 참모장 박정희의 전화가 걸려왔다.

“오늘 회의에 보고가 올라왔던데, 큰일 하나 저질렀다며?”

“큰일은 아닙니다. 김장을 제대로 담그려는 것뿐입니다.”

“나중에 김치 맛보러 가야겠구먼.”

두 사람은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정작 박태준을 어렵게 만든 일은 따로 있었다. 상부의 압력 앞에서는 분노 때문에 짙은 눈썹을 까딱거릴 수밖에 없었지만, 기존 납품업자를 쫓아낸 다음 어마어마한 양의 진짜 고춧가루를 구하는 일에서는 눈썹을 휘날려야 했다. 기존의 납품계약을 파기한 후 병사들의 사기와 건강을 위해 한시바삐 진짜 고춧가루부터 들여와야 했다. 며칠 만에 우선 급한 대로 10 포대는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직한 계약자를 찾아야 했다.

‘가짜 고춧가루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나흘 지나서였다. 트럭 한 대가 연병장으로 들어서자 휴식을 취하고 있던 병사들이 너도나도 환호성을 질렀다. 지나가는 바람에 매콤한 냄새가 묻어왔던 것이다. 진짜 고춧가루의 입영을 뜨겁게 환영하는 병사들의 모습, ‘만연한 비리’와 ‘창궐한 부패’의 권력세계가 병영에서 연출한 웃지 못할 희극의 한 장면이었다.

가짜고춧가루 사건은 박태준의 정신세계에서 부패에 대한 혐오와 경멸의 강도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상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기개도 드러낸다. 또한 박정희가 남조선경비사관학교 사제지간의 인연을 바탕으로 박태준을 진정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이유가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다. 박태준의 머리와 능력을 이미 알고 있는 박정희는 그에게서 신념, 애국심, 이상, 의리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의 인간성도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내가 하나의 길을 영원히 동행하는 필수조건에는 두 사내의 이상과 가치와 신념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들이 다르면 틈이 생기고 날이 갈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관계의 특징이다. 가령, 박정희는 올바른 신념을 품고 있는데, 박태준은 그렇지 않다고 하자. 이것은 큰일을 함께 도모할 기초가 없는 것이다. 경우가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박정희도 지휘관으로서 군의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을 지키려는 일화들을 남겼다. 1954년 광주 포병학교 교장 시절에는 유류(油類) 현황을 보고하는 참모를 꼼짝 못하게 했다. “지난주에 232 드럼 남았다고 하더니 오늘까지 추가 소모가 없었는데 왜 잔고가 212 드럼이 됐어? 20 드럼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식의 정확한 기억을 통해 흐트러진 군기를 바로 잡았다. 1955년 강원도 인제의 5사단장으로 옮겼을 때는 생면부지의 윤필용 대대장을 군수참모로 발탁했다. 그것은 술선수범으로 부대를 깨끗하게 운영하겠다는 선언적 행동이었다. 당시 사단 업무의 80%는 군수와 관련된 것이었고

그만큼 부정이 개입될 소지도 넓었다. 자유당 정권 시절에 그를 가까이서 보좌했던 장교들이 남긴 증언은 일치한다. 부하들을 종처럼 부리고 군수물자를 빼돌려 자기 재산으로 둔갑시키는 따위의 부정부패를 거침없이 저지르는 고위 장교들이 많았지만 박정희는 그런 대세를 홀로 거스르고 있는 고독한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의 살림살이는 가난했다. 그의 청령을 아는 동료와 선배들이 ‘쌀값 봉투’를 보내곤 했다.

박정희는 ‘명령은 5%고 확인과 감독이 95%’라고 강조했다. 그 말이 그에게는 군 생활에서 하나의 지침이었다. 그는 야외 훈련을 할 때는 ‘날아가는 새는 얇은 자리가 깨끗하다. 사람은 얇은 자리보다 떠난 자리가 깨끗해야 한다’는 일본 속담을 인용했다. 그래서 주둔하던 부대가 떠날 때는 취사장과 화장실이 있던 자리를 꼼꼼히 확인했다. 그의 참모들 중에는 엄격하고 돈을 모르는 지휘관 밑에서 일하기를 꺼려 전출운동을 하는 이도 있었다. 박정희의 그러한 청결과 현장 확인, 완벽한 점검과 청령은 흡사 박태준의 복사판이다. 아니, 박정희가 십 년 선배니까 박태준을 그의 복사판이라 해야겠다. 그렇게 두 사람의 성품은 닮은 데가 있었다. 그러나 청결과 완벽 경쟁에서는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밀릴 것이다. 뒷날에 포스코의 박태준은 포스코 임직원들에게 완벽주의와 청결주의를 철저히 요구한다.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1959년 3월 29일 육군본부 인사처리과장으로 부임한 박태준은 그해 8월 16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미국 연수를 다녀온다. 9월 17일 귀국. 자리는 변함이 없었다. 사람들이 ‘요직’이라 부르는 꼭 그만큼 그에게는 따분한 자리였지만 미국 구경 덕분에 석 달쯤 남은 비운의 1950년대를 거뜰히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드디어 1960년대의 막이 올랐다. ‘대망의 60년대’란 말을 썼다. 상투적인 그 ‘대망’은 두 갈래였다. 전쟁과 부패와 독재의 그늘을 걷어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 그리고 이승만의 영구집권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기득권 세력의 집요한 욕망.

새해에 한국 민심은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에 등을 돌렸다. 전쟁의 마취에서 풀려났다는 증거였다. 새봄의 길목엔 총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심을 잃은 통치권력이 온갖 부정을 자행할 것이란 예상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정치적 상식이었다.

바지런한 사내들이 먹을 갈아 대문에 ‘입춘대길(立春大吉)’을 붙이는 절기의 어느 날이었다. 인사서류를 만지고 있는 박태준의 어깨를 툭 건드리는 손이 있었다. 약간 놀라며 고개를 돌린 그가 벌떡 일어섰다. 박정희였다.

“좋은 자리에 와 있구나.”

“이런 데가 좋은 자립니까?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박태준의 말씨와 표정엔 년덜머리가 묻어 있었다. 박정희가 피식 웃었다. 부당한 압력과 싸움, 부정한 청탁과의 싸움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다는 눈치였다.

“부산 안 갈래?”

쿵 찌르듯 내민 제안. 박태준은 알고 있었다. 박정희가 부산에 신설된 군수기지사령부 사령관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그는 애타게 기다려온 것처럼 대뜸 반색을 했다.

“갈 수만 있다면 당장 내려가겠습니다.”

“이 사람아, 부산은 좋아. 회도 좋은 게 많고 술도 좋은 게 많아.”

“우리 인사참모부장께 허락을 받아주시시오.”

박정희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방으로 직행했다. 그의 부탁은 간단명료했다. 신설부대엔 인사참모가 중요하다, 그래서 박태준 대령을 쓰고 싶다, 본인의 동의는 구해놨다. 상대는 쉽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태준의 처지로만 재면 자원한 좌천인사나 마찬가지로 시비거리가 따라붙을 게 없었다.

그의 발걸음은 모처럼 가벼웠다. 육사 생도 시절부터 존경해온 선배를 직접 모신다는 기쁨, 막연하긴 해도 뭔가 큰일을 도모하게 될 듯한 설렘, 그리고 고향 근처로 간다는 즐거움. 그의 아내도 환한 낯으로 살림 보따리를 챙겼다. 오랜만에 부모형제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이 무조건 즐거웠다.

1960년 2월 7일, 박태준 대령은 박정희 사령관의 부산군수기지사령부 인사참모로 부임했다. 신설부대의 조직을 짜는 임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육군 전체의 인사이동, 승진, 보직 등을 다뤄온 업무에 비하면 휘파람 불어가며 처리할 일거리였다. 박정희의 참모들은 박정희 사람들로 짜였다. 참모장 황필주-김용순 준장, 인사참모 박태준 대령, 작전참모 김경옥 대령, 헌병부장 김시진 대령, 비서실장 윤필용 중령, 공보실장 이낙선 소령. 이들은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뒤에도 대통령의 측근에서 보좌하게 되는 면면이다.

박정희는 군기(軍紀) 담당이기도 한 박태준에게 두 가지 지시를 내렸다.

“후방부대는 일선과 멀리 떨어져 있고 대민(對民) 접촉이 많으니 적절한 훈련을 통해서 규율을 확립하도록 하고, 우리 예하 부대와 부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동대신동 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계획을 세워 보라.”

며칠이 지났다. 박태준은 참모들끼리 모이는 술자리에 나갔다. 다음날 아침에 사령관에게 보고해야 할 일거리가 있어 빠지고 싶었지만 뿌리치지 못했다. 그런데 좀 수상쩍은 김새였다. 묘하게 술잔이 자꾸만 자신에게 집중되었다. 술을 피할 그는 아니었으나 급히 계락을 세웠다. 주는 대로 받아 마시되, 돌려주는 잔은 약해 보이는 사람부터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다섯 개의 술잔이 차례차례 건너오면 그걸 빠짐없이 비우고 한 사람에게만 차례차례 넘겨주는 전술. 과연 그 계락은 적중이었다. 그가 찍어둔 차례대로 나가떨어졌다.

‘박태준 뺑게 만들기’의 술자리에서 거꾸로 최후의 생존자로 남은 그에게 주어진 당장의 임무는 뺑은 동료들을 숙소까지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일이었다. 소란스럽지 않게 동료들을 지프에 태워보내고 사무실로 갔다. 자정이 임박했으나 잠자리로 들어갈 형편이 아니었다. 군수본부의 장비소요계획서를 작성해서 다음날 아침 8 시에 보고하려면 찬물로 세면부터 하고 책상에 앉아야 했다.

인사참모가 보고서를 끼고 사령관실로 들어섰다. 박정희는 반가움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자네는 무쇠덩어린가? 어젯밤에 뒤치다꺼리까지 했다면?”

“벌써 보고를 받았습니까?”

박정희가 빙긋이 웃었다. 비로소 그는 간밤에 자신이 ‘사령관의 계락’에 걸렸다가 무사히 벗어났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사실이었다. 그것은 박정희의 박태준에 대한 시험이었다. 인사참모에게 까다로운 보고서를 다음날 아침 8 시까지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후, 다른 참모들에겐 ‘오늘밤 박태준에게 술을 실컷 먹여서 뺑게 해보라’는 비밀 특명을 내렸던 것이다.

한가로운 후방부대에서 거사를 꿈꾸는 박정희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했다. 그는 능력과 신의와 신념을 공유할 진짜 동지를 발굴해야 했다. 이제 박태준은 그의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한 셈이었다. 박태준에 대한 인물평을 박정희 전기는 이렇게 쓰고 있다.

박태준 대령은 그때 한국군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새로운 엘리트 집단을 대표하고 있었다. 미군 보병학교와 행정학교에 두 번 유학하여 현대적 전술학뿐 아니라 조직관리학을 배운 그는 1956 년 수색에서 국방연구원(현 국방대학원의 전신)이 개교하자 국가정책 담당 교수가 되었다. 그때

교수부장은 유병현(합창의장, 주미 대사 역임) 대령, 경제정책 담당 교수는 이훈섭(철도청장 역임) 대령과 최영두(군정내각통제실 요원) 대령이었다. 이 학교는 고급 장교들에게 국가전략, 경제, 행정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시각을 제공했다. 이들은 5.16 뒤 국정운영에서 이때 얻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었다.

--조갑제 <박정희> 제 3 권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회도 많고 술도 많다고 했던 부산.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안가 어디에 회가 없고 술이 없으랴. 그러니 술을 좋아하는 그들이 그 말의 사실성을 입증한 것이기도 했다. 부산군수사령부의 관사는 동래 온천장 동네였다. 박정희는 흔히 술집의 일차를 마치면 얼큰한 술기운 속에서 자기 관사로 참모들을 몰고 갔다. 대화도 노래도 참으로 편한 장소였다. 우리 집으로 가자, 나를 따르라. 이 취중 호기를 부리던 박정희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것은 비상 상황 발생 탓이었다. 군수 사령부에 도둑이 들지 않은 다음에야 무슨 비상이 걸리겠는가. 그 비상은 군대의 비상이 아니라 가정의 비상이었다. 술을 마시고 사령관 관사로 몰려가는 일행이 발길을 딱 멈추는 경우는 서울에 있어야 할 육영수 여사가 내려와서 기다리는 날이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내려와 기다리는 밤, 박정희는 참모들에게 이랬다.

“오늘은 안 되겠다. 비상이야 비상.”

술을 즐기며 울분을 삭이고 거사의 그림을 그려 나가는 부산 시절의 박정희. 그는 여야 정치인들의 청탁에 대해 원칙에 의해서 처리했다. 합리적인 것이면 야당 의원이라도 들어주고 무리한 것은 여당 의원이라도 묵살했다. 자유당 실세 의원의 친척이 관련된 군내 부정사건도 철저히 수사하게 했다. 그 의원이 항의하러 사령관실을 찾아오자 몇 시간이고 기다리게 해놓고는 끝내 만나주지도 않았다. 이 무렵, 박태준의 내면에 박정희는 어떤 사람으로 각인되고 있었을까? 뒷날, 그는 이렇게 밝혔다.

“제가 육사에서 생도 교육을 받을 때 그분은 중대장으로서 포병술을 강의했습니다. 어린 소견으로도 많은 장교들 속에서 그분만이 반짝반짝하는 것 같고 어쨌든 눈에 자주 뜨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무 사열을 하러 실내로 들어오면 어떤 기(氣)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군수사령관으로 모셔보니 ‘아, 이 분은 이 정도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단박에 할 수 있었습니다.”

--조갑제 <박정희> 제 3 권

2월의 마지막 날이 저무는 일요일 오후였다. 박태준은 심상찮은 소식을 들었다.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이 데모를 일으켰다고 했다. 그는 한숨을 몰아쉬었다. 나라가 격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는 예고 같았다. 그랬다. 1960년 2월 28일 한낮에 경북고교, 대구고교, 경북여고, 경북대 사대부고 등 고등학생 천여 명이 ‘민주주의를 살리자’는 구호를 외치며 시내 중심가로 행진한 것은 ‘꼭 와야 할 것이 드디어 온다’는 신호탄이었다.

2월 28일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일요시위’는 한 편의 희극 대본이 연출자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뒤집어진 경우였다. 학생들을 자극한 직접적 계기는 ‘일요등교’였다. 2월 28일 일요일은 민주당 부통령후보 장면이 대구에서 선거유세를 열기로 되어 있었다. 자유당 정권은 교장들을 소집해 고등학생들의 정치집회 참가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일요일에도 등교시키라는 긴급지시를 내렸다. 경북고교는 학기말 시험을, 대구고교는 토끼사냥을, 경북대 사대부고는 임시수업을, 대구상고는 졸업생 송별회를 내세웠다. 그러나 학생 대표들은 비밀회합을 갖고 하교 뒤에 항의시위를 벌이자는 결의를 했다.

마침 3·1 운동 41 주년을 맞은 한국 신문들이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장쾌한 행동에 대해 비민주적 경향에 커다란 각성의 기회를 준 것이라며 적극 옹호했다. 대구의 ‘2·28’은 물고였다. 학생시위의 불뿔이 터졌다. 3월 5일 서울운동장에서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며 학생을 비롯한 천여 명이 가두시위를 벌였고 3월 8일에는 대전고교, 3월 10일에는 대전상고·수원농고·충주고교, 3월 12일에는 청주고교와 부산의 해동고교, 그리고 선거를 하루 앞둔 3월 14일에는 포항고교, 원주농고, 동래고교, 문경고교 등 전국 각처의 고등학생들이 민주주의와 공명선거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아직 대학에서는 두드러진 움직임이 없었다. 1960년, 건국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한 대학생들은 머리를 군인처럼 밀고 다니는 후배들의 행동을 기특하게 여기며 지켜보는 중이었다.

3월 15일 방방곡곡 폭력과 테러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 자유당의 상상력을 자랑하는 온갖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 3인조 공개투표, 대리투표, 환표, 환함……. 마산의 민주당은 ‘4할 사전투표함’을 발견했다. ‘선거포기’를 선언했다. 투표소로 가지 않는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왔다. 바로 이 시위에 열일곱 살 김주열 학도의 죽음이 있었다.

한 청년의 꽃다운 얼굴을 처참히 짓이기고 사라졌던 최루탄. 그의 시신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과 더불어 어마어마한 민주주의의 기폭제로 거듭났다. 마산의 시위는 나날이 부상하였다. 4월 18일 한낮 고려대 학생 3천여 명이 교정에 운집하여, ‘대학은 반항과 자유의 표상이니 진정한 민주역사

창조의 역군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총궐기하라'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4·19 의거, 4·19 운동, 4·19 혁명으로 명명된 역사의 새 지평이 두근두근 열리려는 참이었다.

4.19 비상계엄. 박정희가 부산 지구 계엄사무소장이 되었다. 박태준은 부산시청 통제관으로 나갔다. 여기서 박태준은 충격을 받는다. 공무원들의 후진성 또는 낙후성을 목격한 것이었다. 군대에서는 이미 미군 제도를 받아들여 행정전문가 시스템을 통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데, 민간 관료들의 행정은 일제시대의 방법을 답습하고 있었다. 문서 작성만 해도 그랬다. 군대에서는 한글 타자기로써 요점 위주의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펜대로써 '수제지건(首題之件)에 대하여'로 시작되는 유장한 작문을 하고 있었다.

박정희의 계엄업무는 이승만의 하야 이전과 이후로 대비되었다. 하야 이전에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작전으로 나아갔고, 하야 이후의 극열 시위에는 훈계하고 해산하는 작전으로 나아갔다. 4월 28일 트럭 100대를 빼앗아 타고 마산, 밀양, 창녕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형무소와 경찰서를 습격하고 약탈을 일삼고 있을 때, 박정희는 39사단 병력을 출동시켜 난동자 86명을 붙잡는 소탕전을 벌였다.

그 중대한 역사적 고비에서 박정희가 그랬듯이 군부는 시위대의 편으로 기울었다. 서울에서는 시위대가 악덕과 부패의 대명사 이기봉의 집을 포위했을 때 출동한 계엄군은 국군 만세를 외치는 비무장의 가슴으로 총부리를 겨누지 않았던 것이다.

1960년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박태준은 부산 군수기지사령부에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승만의 하야 방송을 들었다. 여러 느낌이 뒤엉켰다. 역사에 건국의 아버지로 기록되어야 하는 인물이 초췌한 몸골로 쫓겨나는 모습이 착잡하고, 전쟁까지 겪었지만 부정부패에 휘말려 나라를 망쳐놓은 것이 원망스럽고, 마음 한편엔 모락모락 희열이 피어오르기도 하고…….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3월, “겁 없는 고등학생들이 겁 많은 장교들보다 낫군.” 하고 씩씩히 웃었던 박정희는 이렇게 말했다. “정치권에 현 시국을 극복해나갈 능력이 있겠나? 심중팔구 그게 아닌데……. 학생들이 단기적으로는 강한 일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을 어렵게 꼬이게 한 거야.” 박태준의 뇌리에 번개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아, 일단은 명분을 잃었다는 거구나. 하지만 머잖아 다시 명분이 쌓이게 된다는 거구나.’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이렇게 시작되는 불세출의 가수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훨씬 더 세월이 흐른 뒤에야 우리 국민의 심금을 울리게 되지만, 동백섬을 바라보며 무수한 술잔을

기울인 박정희의 가슴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박태준의 가슴에도 꽃은 피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준비는 정밀하고 과감한 적기(適期)의 행동을 요청했다.

미지수 시간대의 짧은 작별

고통과 감격의 4월이 저물었다. 자유당 정권은 붕괴했다. 거리엔 환희가 넘쳤다. 승자들의 성급한 열망과 지도력이 새로운 질서를 부여할지, 승리의 세력이 스스로 오만을 경계하여 자율의 질서를 잡을지는 엄연한 미지수인 채…….

그 미지수 속에서 4·19의 장면 정권이 ‘바쁘고 귀중한 시간을 소독 없이 낭비’하는 동안에 박정희는 부산에서 차분히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막막해 보이는 준비의 시기에 박태준은 ‘누란의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구출해야 한다는 그의 대의(大義)에 공감하는 핵심참모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회도 많고 술도 많다’는 박정희의 제안은 ‘은밀히 할 일이 많다’는 뜻이었던 것이다. 자기 안에서 희망을 키워야 한다는 선배의 말을 후배는 내면 깊이 잘 간직하고 있었다. 그 희망이 바로 혼란과 무능, 빈곤과 부패를 청산할 ‘봄’이었다.

4·19의 신선한 기풍이 군부에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했다. 군부는 변해야 했다. 이승만의 부패 정권과 공생하며 군부 권력은 타락해 있었다. 박정희는 주도면밀하고 과감한 행동을 결심한다. 그것은 5월 2일 계엄사령관 송요찬 육군참모총장에게 용퇴 건의의 편지를 인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송요찬은 박정희의 승급을 밀어준 은인이었다. 박정희를 1군 참모장으로 발탁하고 부산군수기지 사령관으로 밀어준 것도 송요찬이었다. 더구나 이승만 하야 후 송요찬은 시민사회에서 거의 영웅 대접을 받는 중이었다. 시위대에 끝까지 발포하지 않고 대통령의 하야를 건의한 것이 그의 영웅적 공로로 칭송되고 있었다. 그러나 송요찬이 과거의 부정선거에 깊숙이 연루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부패하고 무능한 자유당 정권의 지속과 연명에 공로를 세운 대표적 군부 권력자였던 것이다. 박정희가 격랑의 시대에 뛰어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던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다.

4.19 사태를 민주적으로 원만히 수습하신 각하의 공적이 절찬에 값하는 바임은 물론이오나 3.15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도 또한 결코 면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 공과(功過)는 상쇄(相殺)가

불가능한 사실에 비추어 가급 조속히 진퇴를 영단(英斷)하심이 국민과 군의 진의에 영합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현명한 상관은 부하의 성심(誠心)을 수락함에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별한 은혜를 입은 부하로서 각하를 길이 받들려는 미충(微忠)에서 감히 진언드리는 충고를 경청하시어 성심에 답하는 재량(載量)이 있으시기를 복망(伏望)합니다.

이 편지가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한 날, 부산에는 대학교부터 중학교까지 40 여 개 학교 학생들이 2 만여 명이 시내로 쏟아져 나와 ‘국회 해산’ 등을 외쳤다. 휴교 15 일 만에 개학한 중고교의 교문이 시위거리를 향해 열린 형국이었다. 같은 날, 허정 과도정부 내각 수반은 이종찬 전 육군대학 총장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다. 1952 년 부산 정치 파동 때 박정희와 함께 이승만 정권의 전복을 생각했고 한때는 많은 청년 장교들에 의해 군사 혁명의 지도자로 지목받았던 이종찬. 그의 국방부 장관 취임은 박정희에게 격려가 되었다. 박태준에게도 기쁜 일이었다. 이종찬이 육군대학 총장으로 재임한 당시에 첫 수석 졸업자가 바로 박태준이었고, 그때부터 이종찬은 박태준에게 남다른 관심을 보내주고 있었다. 5.16 뒤에 주이탈리아 대사로 나갔을 때는 박태준에게 “자네는 우리 육군을 위해 군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당부 편지를 보냈을 정도였다.

박정희의 편지를 읽은 송요찬은 분개했다. 분을 못 이겨 문제의 편지를 회람시키기도 했다. 물론 박정희의 거사 김새를 경계하는 장성과 고위 장교들만을 골랐다. 그의 분개는 더 나아갔다. 육본의 전 장병을 연방장에 집합시켜 ‘하극상’이라는 말까지 동원하여 박정희에게 찢린 급소의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미 군심은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

5 월 8 일 육사 8 기생 김종필 중령 등 동기생 여덟 명이 연판장을 쓰기로 합의한다. 정군(整軍)을 통하여 부패한 장성들을 군에서 추방하자는 운동의 서막이 열린 것이었고, 박정희의 거사를 획책하는 김종필의 행동이 개시된 것이었다. 육군의 정군운동과 비슷한 움직임이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도 일어났다. 해병대에서는 해병 제 1 상륙사단장 김동하 준장이 상관인 해병대 사령관 김대식 중장의 즉각 해임을 권유했다. 이승만이 임명한 공군 참모총장 김창규 중장은 6 월 16 일 해임됐는데 후임자는 다름 아닌, 이승만의 불운한 정적이었던 김구의 아들 김신 중장이었다. 이런 사태는 해군에서도 일어났다.

송요찬의 분개는 박정희를 괴롭히는 양태로 진행되었다. 부산의 시위가 격화되는 터에 일본 조총련이 개입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졌다. 이것은 ‘박정희의 전력’을 의심하고 공격하면서 그의 연루 의혹을 부풀리기에 딱 알맞은 소재였다. 부산의 민주당 두 국회의원이 허정에게 박정희가 조총련 자금

10 억환을 받았다는 밀고까지 했다. 이종찬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송요찬은 적극 동조하여 부산에 추가파병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이종찬에게 추가파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유엔비어의 위력은 힘이 조금 떨어져 송요찬이 부산에 감찰을 파견하게 되었다. 이때 미 8군 사령관(대장)도 매그루더도 박정희의 전력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최영희 중장과 서종철 소장이 부산으로 내려왔다. 최영희의 뜻에 따라 두 장군은 갈라졌다. 최영희가 단독으로 박정희를 만났다. 함께 근무한 적이 없는 사이였다. 그러나 사흘 술잔을 기울인 그는 박정희를 이해하고 두둔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키가 훌쩍 크고 덩치가 좋은 서종철 접대는 박태준이 맡았다. 박태준은 서종철을 직속상관으로 모신 적이 있었다. 25 사단에서 사단장과 참모장이었던 것이다.

서종철은 박태준의 영접이 반가웠다. 사단장 시절에 톡톡히 신세를 졌던, 꼴찌 사단을 일등 사단으로 거듭나게 만든 ‘일등공신’이었던 후배와 오랜만에 만났으니 술이라도 한턱내고 싶은 심정이었다.

박태준은 한때 직속상관을 생선회 좋은 술집으로 모셔갔다.

“갑자기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해병대다 뭐다, 여기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정보가 올라와서 말이야. 야, 박 대령, 여기 이상한 사람들만 모이고 있던데, 정말 뭐 하는 거 아니야?”

“하긴 뭘 한단 말씀입니까? 송요찬 참모총장께서 우리 사령관의 서신 때문에 화가 나서 분풀이를 하시는 거지요.”

서종철은 박태준을 괴롭힐 마음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공식적 대화’는 그런 수준에서 더 나가지 않았다. 거구의 서울 손님은 사람 좋게 물렁물렁했다.

부산에서 박정희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변혁의 인자’로 박혀 있는 박태준. 그에게는 거사에 동참할 ‘귀한 손님맞이’도 신중히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였다. 1960년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동안 부산 군수기지사령부를 들락거린 대표적 인물은 육군 김종필 중령과 해병대 김동하 장군이었다.

최영희 장군에 이어 송요찬이 직접 비행기로 내려왔다. 그러나 그는 군수기지사령부 장병들 앞에서 박정희의 계엄업무에 대해 칭찬을 보냈다. 권력 상층부와 군부의 대세가 그의 반대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종찬 국방장관도 부산을 시찰하러 내려왔다. 5월 9일에는 정부 대변인이 부산 시위에 공산 세력이 개입했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박정희가 유엔비어의 마술에서 공식적으로 해방된 순간이었다.

5월 27일 터키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 터키 군부는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다가 학생 시위를 야기한 멘데레스 정부를 타도한 것이었다. 한국 신문이 크게 보도했다. 터키 근대혁명의 아버지 케말 파샤를 연구해온 '박정희의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뉴스이기도 했지만 정부와 군부의 고위층이 그들을 더욱 경계하게 만드는 뉴스이기도 했다.

정군 파동의 연판장을 돌린 김종필과 석정선은 신임 최영희 육군참모총장을 찾아가 나라의 혼돈을 군대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서야 되겠느냐고 건의하듯 따진 일도 있었지만, 6월에도 방첩대는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장교들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더러 올리고 있었다. 육군 수뇌부가 그런 보고를 마냥 깔아뭉갤 수는 없을 것이었다. 잡아가두든가, 옷을 벗기든가, 쪼개버리든가.

1960년 7월 하순, 박정희는 참모들과 출입기자들을 데리고 부산 송도해수욕장 근처의 음식점에서 회식을 열었다. 박정희 전기는 그날의 풍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기자들은 과묵하고 딱딱한 박정희가 노래를 잇달아 부른 것을 보고 놀랐다. 박정희는 느릿한 '낙화유수'를 주먹을 흔들면서 군가식으로 바꾸어 불렀다. 참모들이 '하나, 둘, 셋' 하면서 장단을 맞추어 배꼽을 잡게 했다. 박정희는 둥근 방석을 머리에 이고는 수근으로 질끈 동여매더니 '안남춤'이란 걸 추기도 했다. 박정희는 원래 술자리에 앉으면 사람이 달라진 듯 상하 관계를 무시하고 풍류와 흥에 겨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인데 기자들에게는 이것이 뉴스였다. 박정희가 육본으로부터 인사 발령을 전해 들은 것은 이 자리에서였다. 7월 28일자로 광주에 있는 1관구 사령관으로 부임하라는 것이었다. 명백한 좌천이었다. 울적해진 박정희는 이날 인사불성일 정도로 술을 마셔 부하들에게 업혀나갔다.

--조갑제 <박정희> 제3권

이튿날 박정희는 사령관실로 박태준을 따로 불렀다.

"광주로 같이 가자. 참모장을 맡아줘."

어느덧 박정희는 박태준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다.

"회는 없어도 술이야 많지 않겠습니까?"

박정희가 미소를 지었다. 박태준은 이미 운명의 나침반을 고정시킨 사람이었다. 그것은 박정희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였다. 거사의 꿈을 품었으나 성공의 길은 요원해 보이는 상관. 어쩌면 숙청을 당하거나 예편 당할지도 모르는 상관. 그러나 박태준은 '꿈'을 품고 그 실현의 길을 모색하는 쪽으로 주사위를 던져 버렸다. 그는 박정희의 제안을 거절한 적도 있었다. 25사단에서 참모장,

연대장을 지내던 시절의 일이었다. 1 군 참모장 박정희는 박정희에게 "함께 일하자"고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스승이 본부사령직을 제안했더니 제자가 "그건 밥장사 아닙니까" 하면서 거절한 것이었다. 군단 참모장으로 마땅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하나 골라본 자리였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태준의 뜻을 상부가 막아섰다. 장도영 2 군 사령관이 박정희에게 지금 광주 1 관구 사령부의 참모장은 내가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으니 계속 써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부산을 떠나 스스로 광주로 따라간 참모는 윤필용이었다.

박정희에게 부탁하는 장도영의 마음에도 들어 있었던 것이겠지만, 군에서는 한 자리에서 최소 여섯 달을 못 채우면 장교의 인사고과에 반영되지 않아 '경력 낭비'로 여겨지고 있었다. 박정희가 부산을 떠난 지 한 주일이 되지 않아 박태준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인편으로 온 박정희의 짧은 육필이었다.

자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네. 자네마저 6 개월을 못 채우고 부산을 떠나게 된다면, 그건 경력에도 포함되지 않을 테니, 자네를 부른 나의 마음은 괴롭다네. 자네의 다음 보직을 걱정하면서도 그걸 도울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주게.

즉시 박태준은 만년필을 잡았다. 거침없는 필치에 당당한 목소리를 담았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저와 같은 경력의 소유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어디론가 쫓겨가겠지만 좋은 데로 가게 될 테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박정희에게 보낸 박태준의 큰소리가 허장성세는 아님을 증명하듯, 1960 년 8 월 하순에 그는 '미국 육군 부관학교'로 연수 가겠느냐는 제안을 받는다. 뛰어난 능력과 경력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아끼는 이종찬이 국방장관이었다. 박태준은 곧바로 수락하고 싶었다. 일 년 전의 한 달간 미국 여행에서 얻은 신선한 충격을 새로이 체험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거사'가 염려되었다.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

박태준은 광주부터 다녀오기로 했다.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 열차였다. 부산에서 경부선으로 대전까지 올라갔다가 대전에서 호남선으로 갈아타고 광주로 갔다.

박태준을 맞이한 박정희는 손가락으로 육갑을 짚듯 찬찬히 셈을 했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거사일정에 후배의 일정을 견주는 모양이었다.

“내년 1월에 돌아온다고 했나?”

“예.”

“그럼 됐어.”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래, 넉넉해. 나도 1955년에 미군 포병학교 고급반에서 공부한 적 있었는데, 양놈들한테 배울 게 많아.”

“알겠습니다.”

박태준이 일어섰다.

“자네 시간 없는 사정을 내가 맨입에 보내는 핑계로 삼는구먼.”

“아닙니다.”

“가서 잘 보고, 잘 배워. 나중에 다 나라를 위해 쓰일 날이 올 거야.”

박태준의 거수경례를 박정희가 거수경례로 받았다. 그것만으로는 뭔가 허전하여 굳센 악수도 나누었다.

1960년 9월, 박태준은 아내와 어린 딸을 서울에 두고 장도에 올랐다. 가난한 나라의 젊은 대령이 두 번째로 미국에 발을 디딘 기념으로 꼬박 하루를 바쳐 샌프란시스코를 돌아보았다. 금문교를 자랑하는 도시는 그의 가슴에 쓰라린 한 문장의 회원으로 남았다.

‘우리는 언제쯤에나 이런 문명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까…….’

샌프란시스코에서 고급열차에 올라 미 육군부관학교가 있는 인디애나폴리스로 가는 사흘 여정 내내 박태준은 우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광활한 미국의 ‘문명’이 조국의 초가집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처럼 보였다.

강대한 부자 나라의 육군부관학교에서 박태준은 최신 행정이론과 관리제도를 중점적으로 배웠다. 오퍼레이션 리서치(Operation Research), 군사물자의 효율적 배치와 관리에 필요한 공정관리기법(PERT)과 선형계획법(LP)……。 뒷날에 경영자로 나서는 그에게 보탬이 된, 한국군 장교로선 처음 공부하는 과정이었다.

박태준이 미국에서 선진문물을 습득하는 동안, 박정희는 광주에서 ‘거의 잠깐’이라 부를 만하게 근무하고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옮겨가 있었다. 1960년 10월과 11월, 그의 심기는 불편하고 불안했다. 김종필 중령을 주동한 이른바 ‘하극상 16인’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된 것이었다. 매그루더 사령관이 장면 정부의 권중돈 국방장관과 최경록 참모총장에게 박정희를 예편 조치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박정희는 초조했다. 군법회의에 회부된 김종필 등 '박정희의 사람들'은 불원한 최소한 군복을 벗게 될 상황에서 자신에게도 일대 위기가 닥쳐온 것이었다. 박정희는 앉아서 비수를 받을 수는 없었다. 구명운동에 나서야 했다. 나락으로 떨어질 그가 붙잡은 끈은 국회 국방위원장 이철승 의원이었다. 다행히도 그때 그는 장면 총리에게도 말발이 먹히는 의원이었다.

1961년 1월 귀국하는 박태준의 가방엔 '금속제 모형선박'이 들어 있었다. 아내를 위한 선물이었다. 미제 화장품을 기대하고 있던 아내를 시무룩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공학도'다운 선물. 그나마 공돈으로 산 것이었다. 미군 안내자가 한반도의 촌놈들을 기죽이려고 돌아오는 길에 데려간 라스베이거스, 그 도박의 요지경에서 그가 빙고에 덤벼 단번에 왕창 따먹은 돈이었다.

박태준이 미국 육군 부관학교 연수교육을 마치고 귀국한 무렵, 한국 육군 수뇌부엔 중요한 인사가 이루어졌다. 장면 정권이 최경록 육군 참모총장을 2군 사령관으로 좌천시키고 장도영 장군을 그 자리에 앉힌 일이었다. 광주로 밀려나 있다가 최 참모총장의 배려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올라와 있던 박정희는 다시 그를 따라 대구로 내려가야 했다. 이종찬과 함께 군부의 두터운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던 최경록. 곧 옷을 벗어 버리는(1961. 2. 17.) 그는 몇 년이 지난 뒤 '장면 정부로부터 군사자금에서 17억 환(약 250만 달러)을 헌납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경북 구미 출신으로 일찍이 대구사범을 졸업한 박정희가 서울 육군본부에서 밀려나 고향과 진배없는 대구로 내려온 것은, 몇 달 뒤로 잡힌 '거사'를 위한 동지규합이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다. 지방에서는 거사를 일으켜보았자 기껏 '반란'을 벗어나기도 어렵겠거니와 '거의 모든 한국군대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는 거사의 조건'을 상실한 것이었다.

미국에서 서울로 돌아온 박태준은 가장 먼저 대구로 내려갔다. 박정희는 그의 귀국 환영연을 '청수원'에서 베풀었다. 술한 술잔이 오갔으나 박정희는 '거사'와 '혁명'의 첫 글자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동지규합이 꼬이게 되어 근심이 많은지, 그저 묵묵히 때만 기다리고 있는지, 설부른 짐작을 경계하는 박태준에게 술잔과 질문만 자꾸 이어졌다. 혁명의 꿈을 깨끗이 포기한 사람처럼 박정희는 미국에 대한 질문이나 던질 따름이었다.

1월 13일 박태준은 육군본부 경력관리기구 위원에 뽑혔다. 미국에서 공부한 보따리를 풀어놓으라는 명령 같았다. 그는 미 국방부에서 널리 사용하던 OR 기법을 바탕으로 인사관리의 새로운 시스템을 정립하기로 했다.

‘지휘 실권이 없는’ 박정희는 대구에서 거사 진행표를 짜고 있었다. 2월 17일 김종필은 예비역에 편입되었다. 해병 소장 김동하도 예비역이었다. 이들에게 ‘병력동원’ 문제는 가장 불리한 여건이었지만 ‘민심의 향방’은 가장 유리한 여건이었다.

박정희가 거사의 청사진에 세부 터치를 가하던 1961년 3월, 질 좋은 지하자원(텅스텐)을 팔아 달러를 벌여오는 대한중석은 또다시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렸다. ‘국영’ 대한중석을 ‘민영’으로 불하하려는 계획단계에서 장면 총리 연루설이 제기되었다. 장면을 공격하는 최선봉에는 김영삼 의원이 서 있었다. 그는 집권 민주당에서 갈려나와 야당으로 변신한 ‘신민당’(1960. 9. 22.) 소속이었다. 그로부터 30년이 더 지나 대통령에 오르는 김영삼은 ‘민의원 중석수출계약사건조사위원회’ 신민당 소속 조사위원 자격으로 장면 총리를 목표물로 삼았다. 민주당측 조사위원 3인은 3월 21일 아침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야당 조사위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장면 총리 연루설을 유포한 것은 정치적 작희(作戲)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영삼 위원은 장 총리의 관련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그러한 성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부정을 은폐하려는 자유당식 수법이라고 응수했다.

장면 정권의 막바지에 불거져나온 대한중석 스캔들은 몇 가지를 시사한다. 정치자금 조달에서 장면 정권도 도덕성의 의심을 받고 있었다는 것, 원래 한 몸으로 있다가 두 몸으로 갈라진 민주당과 신민당의 갈등과 대립이 극점에 도달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최고 국영기업인 대한중석이 운영자금을 다급히 조달해야 할 정도로 변함없이 부실경영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 그런 기업이 정치자금의 보이지 않는 젖줄 역할을 하면서 정치권력에 휘둘리고 있었다는 것.

‘거사 명단’에는 빠졌던 비서실장

흔히 사람은 가장 절박한 시간을 가장 믿는 이와 함께 있으려고 한다. 임종을 앞둔 부모가 자식을 찾고 입원한 지아비가 지어미를 찾는 것도 사람의 그러한 심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널리 알려진 대로 5.16 쿠데타는 그때의 정치군사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복기해 볼 때 상당히 무모한 강행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총리 장면이 수녀원으로 숨지 않았거나 수녀원으로 숨었더라도 전화로 진압을 지시했거나, 대통령 윤보선이 진압에 동의만 했더라도 ‘박정희의 혁명군’은 1군 사령관 이한림의 표현대로 ‘한 줌의 반란군’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5월 17일은 박정희에게 혼돈과 불안의 절정이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긴 했으나 굴러 떨어지는 것이 시간문제라 느껴질 지경이었다. 미군이 이한림의 1군 병력을 동원해 서울을 포위하는 작전을 곧 실시할 것이라는

첩보를 접한 박정희는 서울지구 방어군사령부에 진지구축을 명령하고 1군 예하의 친혁명군인 채명신 장군의 5사단을 포천에서 서울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박태준은 어디에 있었을까? 1961년 3월부터 5월 15일까지 박정희의 거사 준비에 좀처럼 이름을 보이지 않는, 아니 사라진 것 같은 박태준은 어디에 있었을까? 물론 그의 이름은 이른바 ‘5.16 거사 명단’에 빠져 있었다.

5월 16일 새벽, 박태준은 전투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배웅을 나온 아내에게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인사도 남겼다. 죽음이나 숙청을 각오한 그가 달려간 곳은 군사혁명위원회였다.

박태준은 박정희와 마주쳤다.

“기어이 왔군.”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 기다려야 합니까?”

“우선 상황을 완전히 장악해야지. 여기가 자네 위치야.”

즉시 박태준은 계엄사령부 요원이 되어 자연스레 비서실장 역할을 맡았다.

5월 18일은 쿠데타가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선 날이었다. 1군 사령관 이한림 체포와 압송, 장면의 출현과 내각 총사퇴 의결, 육사 생도들의 혁명지지 가두 행진 등이 그날 하루에 이루어졌다. 미 8군 사령관 매그루더는 당황했다. 무력을 버리고 대화를 택해야 했다. 이날 아침에는 김정렬 전 구방장관이 나서기도 했다. ‘미군이 쿠데타군을 진압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하루 늦게 듣고는 매그루더와 관계가 좋은 자신이 나서서 난제를 풀어보려는 것이었다. 이 장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그(김정렬)는 박정희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던 박태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매그루더를 만나러 간다고 알린 다음 용산 8군 사령부로 들어갔다. 사령관 매그루더와 부사령관 멜로이 장군이 이례적으로 현관까지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군 측이 상당히 다급한 사정이라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사람은 사령관 집무실로 들어가 앉았다.

매그루더는 “박정희는 지금은 내색을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공산주의자로서의 본색을 드러낼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말부터 꺼냈다. 김정렬은, 일본 육사 후배인 박정희 소장이 군내 남로당 조직원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자신이 나서서 구명운동을 벌인 과정을 설명해 주면서 안심시키려고 했다.

김정렬은 매그루더에게 박정희를 만나보라고 했다. (중략) 매그루더는 “박정희 장군을 만나면 잡아간 이한림 장군을 석방해줄 것을 부탁해 주시오.”라고 했다. 김정렬은 박정희를 만나서 매그루더의 뜻을 전했다.

--<박정희> 제 4 권

5 월 18 일 저녁, 박정희가 이미 비서실장과 다름없는 박태준을 따로 불렀다. 한숨을 돌리긴 했으나 긴장과 피로가 범벅된 얼굴들이었다.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의자를 권했다.

“이제 한 고비 넘겼으니 우선 할 얘기가 있어.”

박태준이 의자에 앉자, 그가 담배에 불을 당겼다.

“내가 왜 혁명동지 명단에서 자네 이름을 뺀 줄 아나?”

박태준은 눈동자를 고정시켰다.

“바로 자네를 아끼는 마음 때문이었네. 국가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야. 국가적인 이유는, 우리 계획이 중도에 실패로 돌아가면 자네라도 무사히 살아남아서 우리 군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였어. 개인적인 이유는, 내가 혁명에 실패해 군사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 내 처자를 돌봐달라고 자네한테 부탁하려 했던 거야.”

박태준은 콧잔등이 시큰했다. 박정희가 연기 한 모금을 길게 불었다.

5 월 19 일,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되었다. 이어서 20 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의장을 장도영으로 하고 5.16 의 실질적 지휘자 박정희를 부의장으로 하는 혁명내각을 구성하고, 21 일에 각료 취임선서식을 가졌다.

청신한 기풍을 진작하겠다는 혁명공약 제 3 항의 한 조목이 가장 먼저 거리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21 일, 사회악으로 지목되던 강패 두목 150 여 명이 “나는 강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하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시가행진을 벌이는 진풍경이 펼쳐졌고, 비밀 댄스홀에서 춤을 즐기던 남녀들이 줄줄이 구속되어 곧 열리는 군법회의를 기다려야 했다.

월 24 일, 박정희가 다시 박태준을 불렀다. 혁명의 첫 단계를 성공했다고 확신한 그의 얼굴엔 피로가 걸려 있었다.

“오래 계획해온 우리의 역사적 임무가 이제 막 시작되었네. 자네가 내 비서실장으로 와야겠어.”

박태준은 갑작스런 제안에 좀 어리둥절했지만 얼른 생각해보아도 호락호락하게 덤벼들 자리가 아닌 듯했다. 그가 한 발 물러섰다.

“저는 여러모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박정희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여보게, 우리가 택한 길은 결코 권력이나 영광을 탐하는 길이 아니야.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국가의 골격을 바로 세우고 기아선상의 국민을 구하는 것이야. 기필코 절대빈곤의 사슬을 끊고 모든 국민의 의식주부터 해결해야 돼. 그래서 무엇보다 시급한 게 가능한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야.”

“저는 군인입니다.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겸손은 미덕이 될 수 없어. 대의를 위해 신명을 바쳐야 할 때야. 국가 장래에 대한 신념과 열정으로 목숨을 걸고 한번 하는 거지. 이건 명령이야.”

박태준은 군인의 일생을 마치기로 했던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길목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박정희의 비서실장으로 옮겨갔다. 한국 산업화의 대들보가 되어야 하는 시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격적으로 그의 삶으로 들어온 순간이었다.

아직은 군복을 입고 있지만 그의 책임은 막중했다. 군사정부 최고실권자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좌하고 적재적소의 인재를 물색하여 추천하는 자리였다.

박정희는 호랑이 등에 완전히 올라탔다. 물론 앞길에 숯한 구덩이들이 숨어 있겠으나 전진을 멈출 수도 스스로 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문제는 실력이었다. 이른바 혁명공약에서 ‘절망과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라고 천명한, 이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실력을 갖추었는가. 그가 말한, 그들이 말한 ‘총력’에는 어떤 실체가 있는가. 쿠데타는 군이 일으켰다. 만약 그 실력과 그 총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아무리 신성하고 순정한 사명의식을 품고 있다고 할지라도 끝내 그것을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박정희의 쿠데타는 정권 찬탈의 저급한 쿠데타로 결말날 것이요, 만약 그 실력과 그 총력을 갖추게 된다면 신성하고 순정한 사명의식을 구체적 현실체로 실현함으로써 박정희의 쿠데타는 정권 찬탈을 넘어 시대적 혁명으로 거듭날 것이었다.

그 실력, 그 총력은 사람들의 힘이다. 자본이 없고 기술이 없어도 사람들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어떤 목표든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사회의 특징이다. 쿠데타는 군인이 일으킨다. 일단 권력을 잡은 군인이 국가 통치를 위하여 널리 민간 부문의 인재를 발탁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군이

민간에 못잡은 인재풀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행운의 카드를 쥐고 있었다. 역설이게도 그 카드는 그가 그토록 싫어한 ‘양놈들’이 제공한 것이었다.

창군 이래 1960 년 말까지 육군에서 도미(渡美) 유학한 장병(대다수가 장교) 누계는 7,049 명이었다. 미국 보병학교 유학생이 1,551 명, 포병학교가 1,202 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교들이 다녀온 학교의 이름만 살펴봐도 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참모학교, 화학교, 이어서 공병, 군의, 병기, 병참, 통신, 부관, 경리, 군종(軍宗), 기갑, 정훈, 헌병, 고사포, 수송, 심리전, 항공, 군수, 여군, 법무학교.

이 한국군 장교들은 미국 여행을 통해서 전술학뿐만 아니라 조직, 경영, 기술을 배웠고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돼지우리 같은’ 조국을 개혁해야 한다는 울분을 품고 귀국하기도 했다. 외무부 공무원보다 한국군 장교단의 도미 유학자 비율(약 10%)이 더 높았다. 1953 년의 경우 우리나라 민간인 유학자 수는 모두 613 명이었는데 이 해 장교 유학자는 983 명이나 됐다.

-〈박정희〉 제 3 권

1961 년에도 산업화, 민주화, 사회제도 등 근대화의 초석들이 깔리지 않은 20 세기의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에서 선진국 유학 인력이 국가 재건이나 개조의 정책수행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자산인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대강 100 년 앞에 있었던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1868 년에서 1902 년까지 발급된 유학생(미국, 유럽) 여권은 실로 11,248 건에 달했다. 그때 조선이 공식적으로 발급한 여권은 몇 건이었는가? 민간인에게 발급한 여권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는가? 그 기간에 있었던 여권 발급 건수의 어마어마한 격차는 고스란히 일본과 조선 간 근대화의 격차, 국력의 격차로 이어졌다.

박정희, 박태준을 경제 방면으로

1961 년 7 월 20 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전체회의가 열렸다. 중대한 회의였다. 정소영, 김성범, 백용찬 등 민간에서 발굴한 경제전문가 3 인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최고회의 종합경제재건계획'에 대한 브리핑이었다. 백용찬은 박태준이 천거한 사람이었다. 설명은 정소영이 맡았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었다.

"불균형성장정책을 통해 우리가 강구해야 할 전술적 목표는 다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2 차 산업을 제일 먼저 육성하되 수출주도형으로 합니다. 방식은 모방성장 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을 빨리 모방해 가격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립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라디오를 생산하더라도 수백 가지 기초자재를 우리가 다 만들면 수출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많으니 우선부품을 수입한 뒤 조립해서 수출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처음에는 부가가치가 작게 발생하더라도 고용효과가 크고, 수출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윤이 축적되면 단계적으로 국산화 비율을 늘리고 그러면 언젠가는 순수 국산 라디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받아 적기도 하던 박정희가 함박웃음을 머금고 벌떡 일어나 맨 먼저 박수를 쳤다. 이틀 뒤 공식 출범할 경제기획원이 수립할 '5 개년 종합경제기획안'과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 등의 기초를 거머쥔 것이었다. 그것을 작성하는 과정에는 이승만 정권의 '경제개발 3 개년 계획'과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새로 작성한 장면 정부의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도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두 계획안에 대해 정소영은 "검토는 했지만 이용가치가 없어 새 계획을 짰던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와 최고회의 군인들의 박수 속에서 앞으로 추진할 한국경제정책의 핵심은 '수출주도형'으로 확정되었다. 7 월 22 일 경제기획원이 창설되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 두뇌가 탄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앞길은 캄캄했다. 1961 년 한국경제의 각종 수치들이 그것을 말해준다. 1 인당 GNP 83 달러, 국내 저축률 3.9%, 투자율 13.1%, 수출 약 4088 만 달러, 수입 3 억 1600 만 달러. 한마디로 참담했다. 무엇보다 자금이 필요했다. 일본에 가서 식민지 배상금도 받아내고, 미국에 가서 원조가 아닌 돈이 나올 구멍도 알아봐야 하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분단국가 서독에 가서 차관 교섭도 해봐야 했다. 시급한 일이었다. 더 이상 경제개발계획을 '찬란한 문서'로만 쳐박아둘 수는 없었다.

8 월 10 일 박태준은 준장으로 진급했다. 그 이틀 뒤에 박정희는 정권이양시기, 정부형태, 국회구성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담은 '정권이양시기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혼란 속의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군정 안에는 인간적 갈등도 있었다. 특히 반혁명 대열에 섰던 장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을 거듭하는 박정희에게 비서실장 박태준은 미국으로 보내라고 건의한다. 용기를 담은 그의 차분한 건의는 미래지향적이었다.

“혁명의 취지와 목표를 구현해나가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화해하고 협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 대사관의 협조를 얻어 미국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그쪽 대학에서 공부하는 길을 열어준다면, 후일에는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몇 달 더 지나 5·16에 반대한 장성들이 미국으로 떠난다. 이한림, 강영훈, 김웅수, 장도영……。 그들 가운데는 뒷날 조국으로 돌아와 정부에 협조한 이도 있고, 미국에 남아 대학 교수로 살아간 이도 있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기틀을 잡아가지만 '정권이양에 관한 성명'이 단적으로 보여주듯 신성 군부정권에게는 '정치적'으로 다뤄야할 사안들이 급증하고 있었다. 박태준은 자신보다 한국의 정치적 환경에 잘 적응할 정치적 적성을 갖춘 사람이 의장 비서실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뜻을 그는 광복절이 지나 박정희에게 털어놓았다.

9월 4일 박태준은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서실장에서 재정경제위원회 상공담당 최고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드디어 박태준이 국가경제의 일선에 나서게 되는 그 인사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박정희와 박태준의 관계’를 역사의 어두운 그늘에 들어서지 않게 만든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박태준의 능력을 ‘정치’ 방면으로 활용하기보다는, 5·16 거사의 최고 명분이자 가치라 할 ‘경제’ 방면으로 활용하겠다는 박정희의 포석인 것이다. 이는 5·16을 통해 어느 누구보다 크게 돋보인 김종필을 박태준과 나란히 세울 때 확연히 드러난다. 박정희의 용인술은 김종필을 정치 방면으로, 박태준을 경제 방면으로 배치했다고 볼 수 있다.

1961년 11월 11일,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빠빠로 데이'라 부르는 그날, 강마른 채구의 박정희가 통치자로서 최초의 해외 순방에 나섰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을 방문하는 길에 도쿄에 들러 일본 이케다 총리와 만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정래혁 상공부 장관과 박태준 상공담당 최고위원 등은 차관 도입 교섭을 위해 서독(독일)을 방문하게 되어 있었다.

널리 알려진 내용은 아니지만, 그해 11월 12일 전격적으로 성사된 박정희-이케다 회담의 사전 정지작업에는 박태준의 손이 깊숙이 들어갔다. 박태준이 일본 정재계 거물들을 움직일 수 있는 막후 실력자인 야스오카의 지원을 끌어낼 한국인을 일찌감치 도쿄로 보내뒀던 것이다. 군사정부가 발행한 제 1호 출국허가를 받았던 그의 이름은 박철언. 1926년 평남 강계에서 태어난 박철언은 해방공간의 혼돈 속에서 김일성과 소련군의 평양을 버리고 월남했다가 다시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들어가 맥아더 사령부의 문관으로 취직한 후 한국 판문점에 근무한 적도 있는 '특이한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일본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양명학의 대가로 알려진 야스오카의 문하생이 되었다. 장면 정부

시절에는 대일 교섭에서 막후 핵심 역할을 했다. 5.16 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장면 총리가 그에게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서울의 전차 수입권을 주겠다는 언약도 했다. 박정희가 아니었으면 서울에서 큰 사업가가 되었을 것이다. 박태준은 25 사단 참모장 시절부터 박철언과 친교를 맺었다. 최고회의 안에서 박철언의 사람됨과 능력을 가장 잘 아는 이가 박태준이었다. 그래서 그는 박정희-이케다 회담의 성사를 위해 박철언을 미리 도쿄로 보내뒀던 것이다. 도쿄에 머무르는 박철언의 활약에는 물론 야스오카의 조력이 가장 중요했다. 최고회의가 한일 정상회담의 조율 차원에서 ‘통치권자를 대신한’ 이용희 교수를 전권대사로 10 월 4 일 비밀리 도쿄로 파견할 때는 이미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었다.

11 월 12 일 저녁에는 박정희 초청의 형식으로 영빈관에서 만찬이 열렸다. 이케다 총리, 고사카 외상을 비롯한 일본의 정재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만찬을 마친 뒤에는 초청한 재일동포 50 명과 만났다. 그날의 저녁 자리에는 박태준도 참석했다. 날이 밝으면 행선지가 갈라진다. 박정희는 미국으로, 박태준은 서독으로.

서독 차관 교섭. 한국측 대표는 정래혁 상공부 장관이었다. 그러나 막후의 실력자는 따로 있었다. 유대인 사울 아이젠버그였다. 그로부터 십여 년 뒤에는 포항제철 후판공장 설비를 박태준과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되는 아이젠버그는 특히 서독 정부와 한국 군사정부를 끈끈하게 맺어준 인물이었다. 한국 정재계에서 '괴상(怪商)'이라 불리기도 한 그 특이한 인물은 누구인가?

박정희의 근대화 혁명, 그 뒀안길에 등장하는 흥미 있는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아이젠버그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1997 년 사망한 아이젠버그는 독일 출생의 유대인으로서 나치의 박해를 피해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일본에서 돈벌이에 성공한 거상이었다. 그는 6.25 전쟁이 터지자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장사를 시작했다. 주로 수입품의 중계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 1959 년에 도입된 서독 지멘스사의 전화교환기도 아이젠버그가 중계한 것이다. 그는 일본, 한국뿐 아니라 중남미, 동남아, 중동 등지에서도 많은 사업에 관여했다. 그는 주로 자금이 달리는 개도국에 진출, 정부-기업-은행-건설회사 등을 서로 연결시켜주면서 자금도 마련해주고 사업도 성사시키는 ‘일괄 거래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오스트리아와 이스라엘의 2 중 국적 소지자였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프란체스카 여사와도 친분이 두터웠다고 한다.

아이젠버그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은 5 · 16 이후 박정희 정권이 외자 도입에 의한 경제성장 정책을 밀고 나갈 때였다. 아이젠버그는 주로 서독 차관을 많이 끌어와서 우리나라의

기간산업 건설에 연결시켜주고 많은 커미션 등 이문을 남겼다. 그가 ‘일팔거래’ 방식으로 엮어준 사업 목록은 한국 기간산업 총람으로 보일 정도이다.

영월화력 2 호기, 부산화력 3 · 4 호기, 영남화력 1 · 2 호기, 인천 화전, 월성 원전 3 호기, 동해화력 1 · 2 · 3 호기, 쌍용시멘트, 도양시멘트, 한일시멘트, 일신제강, 유니온 셀로판, 피아트 자동차, 석탄공사의 채탄시설 현대화, 중앙선 전철화, 포항제철 증설 등등. 미국으로부터 원조가 줄어들 때라 박정희 정권은 아이젠버그가 주선하는 차관이 이자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젠버그가 처음으로 서독 차관 도입을 중계한 것은 1961 년 가을이었다.

--<박정희> 5 권

아이젠버그의 주선으로 정래혁과 박태준의 최초 서독 방문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크루프, 지멘스, 하노버 조선소 등 독일의 우수한 공장들을 둘러보고 차관 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이었다. 에르하르트 경제담당 부총리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서독이 장기차관과 민간투자를 합쳐 3750 만 달러(그해 한국의 수출 총량에 거의 육박하는 금액) 상당의 마르크화를 1962 년에 한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것은 최고회의 혁명정부가 도입한 최초의 공공차관이었다.

워싱턴의 박정희 일행은 환대를 받았다. 베트남(월남)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미군 파병을 고심하고 있는 케네디에게 박정희는 논리가 정연하게 ‘대범한 제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었다. 미국이 혼자서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자유세계의 각국이 할 수 있는 부담을 나누어 져야 자유세계 전체의 힘이 증강될 것이다. 한국이 한일 국교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국은 잘 훈련된 100 만 장병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승인하고 지원한다면 한국 정부는 월남에 부대를 파견할 용의가 있고.... 물론 케네디는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 회담, 한일 정상 회담, 그리고 서독 차관 도입.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의 원년(1962 년)을 앞두고 박정희는 그렇게 자금을 끌어들이기 기본 포석을 놓았다. 박태준은 세밑에 다시 유럽으로 날아갔다. 구라파통상사절단 단장이었다. 통상도 통상이지만 선진국의 산업현장을 견학할 좋은 기회였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을 진리로 신봉하는 목적의식은 ‘통상’보다 오히려 선진국의 공장들을 살피는 데 있었다. 두 번 미국 연수를 갔을 때처럼 그를 자극한 여행이었다. 조선시대 500 년의 ‘사농공상’이 우리를 얼마나 낙후시켰는가를 새삼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우거진 숲도 우리의 벌거숭이 민둥산과 대비되어 참 부러웠다. 서독에서는 베를린장벽의 철조망도 보았다. 눈 덮인 냉전체제의 상징물은, 한반도에 비하면 장난감 같았다.

이 서유견문에서 박태준은 그리운 선배와 재회했다. 허정 임시내각에서 국방장관을 지내고 장면 정권 때부터 이탈리아 대사로 나와 있는 이종찬 장군. 그는 아끼는 후배를 따뜻하게 맞았다. 이탈리아에서 비행기 타면 바보라며 승용차를 내줬다. 박태준은 그 차를 얻어타고 피사의 사탑을 보았다. 꼭대기를 쳐다보는 동방의 상공담당 최고위원은 거기 올라가 중력실험을 했다는 갈릴레이의 일화를 떠올리며, 우리에게 언제 그런 과학시대가 열릴까 생각하고 쓴맛을 다셨다.

녹색혁명의 출발선상에서

단기를 버리고 서기를 처음 도입한 1962 년 새해가 밝았다. 박정희는 신년대담에서 여러 가지 정치일정을 언급했지만 힘주어 말한 키워드는 단연 '경제부흥'이었다. 국가경제 방면의 주요 책임자의 한 사람인 박태준도 열심히 뛰어야 하는 한 해였다. 박태준도 박정희처럼 현장제일주의였다.

1962 년은 한국사회가 오천 년 농경사회의 막을 내리고 산업사회로 진입하려는 국민 총동원의 체제로 굳어지는 시기이면서, 박태준이 군인에서 정치인이 아닌 경제인으로 변모하면서 인생의 새 지평으로 돌진해간 시기였다. 박태준의 특장(特長)이 형성되고 훈련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는 업무추진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었다. 완벽한 과학주의, 확고한 신념, 강력한 추진력, 그것의 삼위일체. 이것은 날이 갈수록 특장으로 자라났다. 그는 경제이론과 열악한 현실 사이의 모순을 통찰하면서, 모순이 상충으로 치달지 않고 상보(相補)로 나아갈 수 없는가를 고민할 때가 잦았다. 이론과 현실의 변증법적 통합을 '완벽한 과학주의'라고 생각했다.

박태준은 결재서류에 도장이나 찍고 회의나 주재하는 '최고위원'과는 거리가 먼 권력자였다. 신념과 추진력이 스스로를 그런 인간형으로 버려두지 않았다. 경제개발 5 개년 사업의 핵심 현장을 찾아 전국을 누비면서, 중요한 기공식엔 반드시 참여하고 이후 네댓 번씩 현장을 찾아 확인, 독려, 애로사항 경청을 되풀이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경영수업'의 제 1 장이 되었다.

1962 년에는 우리 경제가 일차방정식도 필요 없을 만큼 단순하고 왜소했다. 텅스텐 같은 귀중한 지하자원과 싱싱한 해산물을 몽땅 팔아보았자 수출은 4 천만 달러였다. 전력은 20 만 킬로와트가 전부였고 시멘트 생산은 16 만 톤에 불과했으며 철강 생산력은 6 만 5 천 톤에도 못 미쳤다. 도로는 일제시대의 신작로 수준이었고, 철도는 그럭저럭 깔려 있었으나 공항과 항만 시설은 형편없었다. 한국경제는 한마디로 '무(無)'의 상태에 널브러져 있었다.

박태준의 현장 방문에는 술한 일화가 생겼는데, 울산공업지구 부지조성과 삼척 삼화제철에 얽힌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에서 울산공업지구는 핵심산업을 건설할 지역으로, 일정대로 추진하려면 부지조성과 지원설비가 녹장을 부리지 않아야 했다. 박태준은 직접 현장을 찾았다. 확인, 독려, 애로사항 경청을 위한 방문이었다. 그런데 공사 진도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는 감독을 제치고 기술자들을 불렀다. 전기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했다. 그의 짙은 눈썹이 꿈틀거렸다. 상공부의 관료는 전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했던 것이다.

박태준은 서울 사무실로 돌아온 즉시 전력국장을 불러 매섭게 다그쳤다. 기록에 나온 발전용량은 20 만 킬로와트인데 실제 발전량은 왜 13 만 킬로와트밖에 되지 않는가. 전력국장의 답변은 상상을 초월했다. 자유당 때 다 빼먹고 지금은 그것밖에 안 남았다고 했다. 당황한 나머지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둘러댔는지, 군인이니까 전기에 대해 모르리라 짐작했는지. 그는 더 따지지 않고 호통만 쳤다.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국가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고.

상공담당 최고위원이 아니라 의장이 직접 호통을 치더라도 없는 전기가 나올 턱은 만무했다. 그렇다고 공사지연을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박태준은 궁리했다. ‘궁즉통’의 답을 구하는 머리로 번개 같은 묘안을 얻었다. 오키나와의 미군 발전선! 그는 지체없이 미 8 군의 요로에 협조를 요청했다. 며칠 지나 울산 앞바다엔 미군 발전선이 정박했다. 비로소 공사현장엔 활력이 살아났다.

철(鐵)이 있어야 철길도 깔고 교량을 만들어 도로도 연결하고 항만설비도 갖추 수 있다. 철이 있어야 건물도 짓고 공장도 짓고 학교도 짓는다. 철이 있어야 선박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밥 지을 솥도 만든다. 하물며 못도 바늘도 철이 있어야 만든다. 한국은 빗을 내더라도 철을 수입해야 했다. 그래서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에 ‘제철공장 건설’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1962 년 5 월 삼척에서 열린 삼화제철 용광로 화입식에 박태준은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갔다. 회사 대표와 함께 불을 넣고 사진을 찍고 박수를 쳤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비록 소규모이지만 기대를 걸었다. 잘되라고 속으로 빌기도 했다. 이튿날, 삼척 소식이 궁금했다. 그런데 믿기 싫은 소식이 돌아왔다. 쇳물이 끓지 않고 고로의 불이 꺼져버렸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제철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1963 년 9 월에 혁명 2 년간의 성과를 집대성한 그의 보고서에는, 1962 년부터 6 년간 울산에 건설할 제철소는 연간 30 만 1 천 톤을 생산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날에는 연간 외화 약 2 천 120 만 달러를 절약하게 됨은 물론 2 천여 명의 고용도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있다.

선철(鐵) 25 만 톤, 강괴(鋼塊) 22 만 톤 생산 규모의 울산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은 그러나 수포로 돌아갔다. 주(主) 차관선인 미국의 국제개발처(AID)가 ‘그 정도 규모의 제철소를 돌리는 데는 철광석과 석탄 수입에만 연간 3,500 만 달러가 필요한데 한국은 연간 수출 실적이 4,200 만 달러(1961 년)밖에 안 되니 도저히 원료수입을 감당할 수 없다’며 반대한 것이었다. 그 뒤 박정희는 울산 종합제철소 계획을 더 면밀히 추진했다. 부정축재 기업인 8 명에게 종합제철 건설 투자공동체를 설립하게 하여 서독으로 보내 차관교섭을 벌이게 하는 한편, 민국으로도 민간 교섭단을 보내 투자자를 찾아보라고 했다. 이렇게 서독과 미국의 조건을 비교하여 미국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1962 년 12 월 30 일 김유택 기획원 장관, 이정림 한국종합제철 사장, 포이 미 투자공동체 대표 간에 한미종합제철 건설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연산 31 만 톤 규모, 외자 1 억 1,780 만 달러, 내자 49 억 549 만 원(3,780 만 달러)을 들여 42 개월 내에 울산에 짓기로 한다는 것. 미국 투자공동체는 외자의 75%를 미국 외국인투자기관인 국제개발처(AID) 차관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기본계약도 AID 의 차관 제공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국가경제가 ‘무(無)’에서 고통대던 시절에 박정희는 고작 연산 조강 30 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소 건설에 장밋빛 희망을 걸었으나 그마저 이루지 못한 박정희. 그로부터 고박 30 년이 흐른 뒤에는 그가 지목했던 박태준이 연산 조강 2 천 100 만 톤의 세계 최고 종합제철소를 완공하게 되고…….

1967 년 가을의 일이지만, 박태준은 ‘제철소’란 굴레가 자기 운명으로 다가왔을 때 대뜸 ‘숲속의 사원주택단지’와 제철소의 ‘녹화’를 꿈꾸었다. 하지만 이전에도 국토녹화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한국의 야산들이 겨울나기의 땀감을 대는 창고였던 1962 년 당시, 국내 형편에서 ‘연료문제’의 대전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토녹화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민둥산을 푸르게 가꾸려면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 아무리 심어봤자 땀감으로 써버리면 헛수고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나무를 대신할 연료정책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함수관계를 박태준은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과 같은 증언이 있다.

5.16 혁명 직후 산업관련기관은 모두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활발한 업무활동을 시작했으나 지질연구사업만은 계획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국립지질광물연구소는 더욱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취급되어 전 직원은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허탈감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62 년 1 월 5 일자로 동 연구소장 서리에 임명된 나는 어떻게든 지하광물자원을 경제개발 5 개년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묘안을 짜내기 위해 부신했다. 결론적으로 ‘산림녹화를

위해서는 국내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무연탄을 쓰면 자원도 되고 산림녹화도 된다.’는 취지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기로 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상부기관에 보고할 브리핑 자료를 마련했다.

나는 초면인 박태준 위원 앞에서 1 시간 30 분에 걸쳐 당시 3 천만 톤에 불과했던 무연탄 매장 발견량을 15 억 톤으로 늘릴 수 있으니 이를 위해 연구소 인원을 25 명에서 220 명으로 늘리고 연간 3 억 원씩 5 년간 15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박 위원의 반응은 의외로 무표정했고 가부의 말없이 그냥 돌아가 있으라고만 하기에 광물자원 개발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낙담한 채 돌아왔다. 그런데 이틀 후 예고도 없이 박 위원이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을 모시고 남영동 소재 연구소를 직접 방문해 “지난번 보고한 내용을 자세하게, 그리고 소신껏 박 의장께 보고드리라.”고 일러주었다. 그 자리의 참석자들은 모두 군장성급들이었고 공무원복 차림은 나를 포함한 두 명뿐이어서 긴장감이 더했다.

열과 성을 다한 설명 및 건의가 끝난 뒤 박 의장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그 자리에서 연구소 정원을 나의 건의대로 220 명으로 대폭 늘리고 연간예산도 전년의 2 천만 원에서 15 배로 올려 3 억 원으로 늘리도록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기존기관의 인원 및 예산이 이런 정도로 크게 확대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던 만큼 다른 기관들의 부러움도 대단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박 의장의 순시를 계기로 그때까지 부진했던 지질조사 및 광물개발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게 됐고 1 차 5 개년계획이 끝날 무렵에는 우리나라 가용 무연탄 매장량은 62 년 초의 3 천만 톤에서 16 억 톤으로 무려 50 배가 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단위 탄좌회사가 국책으로 설립됨으로써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연탄이 중요한 에너지자원으로 쓰여온 것이다. 이러한 배후에는 당시 박태준 최고위원의 지하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이해가 숨겨져 있었다.

--이정환(당시 동력자원연구소 고문), 1984 년 10 월 19 일자 한국경제신문

박태준은 이정환의 캐치프레이즈를 보는 순간 지음(知音)과 만났다는 확신을 얻어 박정희에게 방문을 건의했고, 박정희는 박태준의 설명에 귀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구상하고 있던 국토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밀어붙이게 된다.

무연탄 개발로 전국 각처에 연탄공장이 탄생했다. 십구공탄. 서민의 온갖 애환을 태우는 19 개의 조그만 불구멍. 1970 년대에도 연탄을 싣고 가는 달동네의 리어카는 빈곤과 소외의 상징이었고, 술한 연탄가스중독 사고 뉴스가 가슴 아프게 했다. 그런 쓰라린 사연을 뒤로하고 벌거숭이 붉은 산들은 푸르게 푸르게 우거져갔다. 이 땅에 녹색혁명이 이뤄지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치는 싫다는 박태준을 일본으로

1962년 막바지에 ‘내각제 폐지와 대통령중심제 채택’을 골격으로 한 개헌안이 국민투표(12월 17일)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미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정치 방면은 복잡하고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었다. 1963년은 새해 벽두부터 ‘정치의 계절’이 열릴 수밖에 없었다. 그해 8월 30일에 이뤄지는 박정희의 육군 대장 ‘예편’에 이르기까지 주요 일지만 정리해도 정치의 무대가 얼마나 긴박하고 소란스러웠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5·16의 새벽에 해병대를 이끌었던 김동하 중장의 최고위원직 사퇴와 공화당 참여거부 선언(1963. 1. 21.), 박정희의 민정불참과 정국수습 9개 방안 성명 발표(2. 18.), 군정 1년 6개월 동안 내각수반·외무장관·국방장관을 역임한 송요찬 장군의 ‘민정이양에 관한 혁명공약의 이행 촉구’와 공화당 참여거부 선언(2. 21. 오전), 김종필의 당직 등 공직사퇴선언(2. 21. 오후), 공화당 창당대회(2. 26.), 박정희의 군복귀 의지 천명(2. 27.), 박정희의 ‘군정 4년 연장’ 성명 발표(3. 16.), 박정희의 ‘군정연장 국민투표 9월까지 보류 및 정당활동 재개 허용’ 성명 발표(4. 8.), 박정희의 연내 민정이양 재천명(5. 16.), 제3공화국 대통령 선거일 10월 15일로 결정(8. 15.), 박정희의 육군대장 예편(8. 30.)…….

1963년 2월, 박태준은 온건파 최고위원이었다. 온건파의 주장은 2월 18일에 발표된 성명에 거의 담겨 있었다. 박정희는 2.18 성명에서, 민간 지도자들이 군정 지도자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군복 벗은 지도자들의 자발적 정치참여를 허락하고 새 헌법을 준수하고 한일회담의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명한다면 자신이 물러나겠다고 했다. 서명을 하는 쪽이든 서명을 요구하는 쪽이든 한국정치의 현장에서는 어차피 지켜지지 않을 ‘순진한 요구들’이었다. 이 성명이 나오기 전야(前夜), 한국 권력 핵심부의 한 단면은 이렇게 포착돼 있다.

2월 17일,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서는 박 의장의 민정불참 결심을 촉구하기 위한 최종 회합이 열려 ‘최후까지 나라를 위한 건의를 하나 박 의장에 대한 충성에는 변함이 없음’을 거듭 다짐하고 마지막 건의를 하기로 했다. 모인 사람은 김종오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각 총장과 최고회의 쪽에서 류양수, 박태준 두 최고위원, 그리고 김재춘 씨였다.

우선 대표로 김종오 장군이 의장공관에 갔다. 각군 수뇌를 망라한 그들의 의견이 어떻다는 뜻을 전하고 박 의장의 최종적인 결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 좋소. 밤 9 시에 모두들 이리 오시오. 공연히 요란스레 하지 말고 모두 두어 차로 합해서 들어오시오.”

김종오 장군은 곧 모두가 기다리는 육군공관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문이 제기되었다. 아직 9 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고, 그 사이 반대편에서 무슨 작용을 할지 모른다는 것.

사태는 급변해 있었다. 김종필 씨를 비롯한 길재호, 김형욱, 홍중철 씨 등이 박 의장을 둘러싸고 자리를 비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9 시가 지나고 밤 12 시가 되도록 그들은 물러가지 않았다.

가까스로 2 시경에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새벽 2 시에 의장공관을 찾아간 사람은 각 군 총장과 류양수, 박태준, 김재춘 씨 등이었다. 박 의장은 시종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듣고 있었다.

“좋소. 나도 그만둘 생각이오. 아니, 그만두겠소. 그리고 모든 부정을 뿌리뽑읍시다.”

이리하여 이후락 공보실장이 미리 마련해뒀던 민정불참 성명문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느라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역사적인 2·18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신동아』1964 년 10 월호

2 월 27 일, 박정희는 민정불참 선언을 했다. 온건파의 주장이 한층 더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 최고회의나 군부의 의견이 조율된 것은 아니었다. 군부에는 군정을 연장해야 한다는 세력이 있었고, 최고회의 안에는 김종필 중심의 민정 참여파가 건재했다. 박정희는 딜레마였다. 고심을 거듭하던 그가 3 월 16 일 ‘4 년간 군정연장’의 초강력 칼을 빼들었다. 발표에 담은 그대로 국민투표에 부치면 통과될 것이라는 확신에 의지하고 있었다. 야당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군정연장은 군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고 공격했다. 최고회의가 발끈했다. 3 월 22 일 국방부에서 전군 지휘관 회의가 열렸다. 김성은 국방장관 지휘관 160 여 명이 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우리 군은 박정희 의장의 3.16 군정연장안을 지지하며 군의 단결을 해치는 어떤 언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 무렵의 한국 정치를 <뉴욕 타임스>는 ‘일종의 연극과 같은 것’이라고 비꼬았다. 3 월 30 일부터 박정희, 윤보선, 허정이 사흘 연속으로 청와대에서 담판을 벌였다. 박정희는 화가 나 있었다. 3.16 성명에 대한 미국의 혁명정부 비판 성명을 재야 정치인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것은 자주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몰아쳤다. 이러한 가운데 정구영 공화당 총재, 윤보선, 허정 세 사람이 막후협상을 통해 ‘2.27 민정불참선언’과

‘3.16 군정연장안’을 상쇄시켜 떨어버리고 민정이양 기한을 8월 15일에서 연말까지로 연기하자는 합의를 했다.

이 절충안을 놓고 박정희는 최고회의 안에서 온건파인 박태준, 유양수, 유병현, 그리고 김재춘 정보부장과 둘러앉았다. 온건파들은 공화당과는 별도로 민간정치인들도 참여시키는 군민 합작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곧 검토와 준비에 돌입했다. 박태준, 유양수, 유병현, 김재춘 등 온건파 위원과 공화당에서 박준규, 김재순, 야당인 민정당에서 김용성, 이상신 등 민간 정치인이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결국 공화당 해체는 이뤄지지 않았다. 소동 속에서 2.27 민정불참선언이 낙엽처럼 사라지고 혁명주체세력의 민정참여와 박정희의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로 굳어졌으니 굳이 새 정당까지 만들 필요는 없었고, 유난히 공화당에 애착이 강한 김종필도 달래는 방법이었다. 다만 박정희는 김재춘 정보부장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

“공화당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족세력이 계보나 파벌을 떠나 한데 뭉치는 애국정당 조직이 되게 해야 한다.”

1963년의 봄이 완전한 무렵, 박태준은 박정희와의 독특한 관계에서 제2막에 들어서고 있었다. 1948년 육사(남조선경비사관학교)에서 처음 얼굴을 익힌 박정희와 박태준의 만남에서 그 서막이 완결된 것은 1960년 부산 군수기지사령부에서 사령관과 인사참모로서 ‘거사’의 확고부동한 동지적 인연을 맺은 뒤에 헤어진 지점이었다. 그리고 제1막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비서실장에서 출발하여 박정희가 박태준을 경제 방면으로 재배치함에 따라 그가 맹렬히 활약한 것이었다. 1963년 여름에 접어든 즈음, 박정희와 박태준의 제2막은 진행되고 있었다. 그때 박태준은 권좌에서 멀어지는 방향을 바라보는 중이었다. 그는 미국 유학을 생각했다. 젊은 시절에는 전쟁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공부에 뒤늦게 덤벼들고 싶었다. 경영학이든 뭐든 국가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제대로 해서 돌아오겠다는 그의 계획이 8월 하순에는 결심의 수준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되어서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박정희가 박태준의 진로를 생각하며 그를 장충동 의장 공관으로 부른 때는 1963년 9월 초순이었다. 대통령선거일을 달포 남짓 앞두고서 공화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이 긴장에 돌입한 때였지만, 두 사람은 오랜만에 푸근한 자리를 누렸다. 서로 속내를 툭툭 털어놓을 차례에 이르러 여당 총재인 박정희가 먼저 말머리를 틀었다. “나는 자네를 놓기 싫은데, 자네는 요즘 자꾸 멀어지려는 것 같아. 앞날의 계획은 세웠나? 군으로 복귀할 건가?”

박태준은 담백하게 말했다.

“이제 군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군 복귀를 원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고, 제가 원한다 해도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국군최고통수권자이기도 한 박정희가 의아한 눈빛으로 되물었다.

“저는 이미 순수한 군인정신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훈련장에서 땀 흘리는 동안 저는 밖에 나와 최고위원이랍시고 권력의 단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군으로 복귀해 동료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저는 나쁜 놈이 되고 군에는 새로운 불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박정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면?”

“미국 유학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태준은 공관을 빠져나와 다시 생각해보았다. 혁명공약 제 6 항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군으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선배가 섭섭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무렵 박태준에게 ‘군으로의 복귀’를 권유하는 선배가 또 있었다. 민정이양의 구체적 일정이 발표된 다음 이탈리아에서 편지를 보낸 사람. 이탈리아 대사 이종찬이었다. 육군대학을 수석 졸업한 박태준을 곁에 두려 했다가 육사의 박병권 교장에게 양보했던 선배로, 1961 년 세모에 후배가 구라파통상사절단장으로 이탈리아에 들렀을 때 진심으로 반가이 맞아주었다. 그의 편지는, “부디 자네만은 군으로 돌아가 불행했던 우리 군대를 건지는 일에 앞장서라.” 하는 간곡한 당부로 넘쳐났다. 존경해온 선배의 과분한 기대와 배려에 후배는 가슴이 뭉클했지만, 뜻을 바꿀 수가 없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박태준은 다시 장충동 공관으로 불려갔다. 박정희는 모종의 결심을 세운 표정이었다. “군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 변함없는가?”

“예, 그렇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예.”

직선적 질문에 박태준은 명쾌히 답했다.

“여보게, 자네 왜 그러나? 나를 도와줘. 군으로는 복귀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나와 함께 정치에 뛰어들기로 해. 우선 다가오는 총선에 우리 당 후보로 출마하는 거야. 이미 조사시켜봤어. 자네 고향에 출마한다면 당선에 아무 문제 없어.”

두 사람 관계의 제 2 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다. 박정희의 명령에 가까운 제안을 박태준이 매력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마지못해 순종한다면, 두 사람의 미래는 ‘권력층의 통속적 역학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지점이었다. 그러한 길로 진입하느냐, ‘경제부흥의 창조적 역학관계’의 길로 진입하느냐. 박태준은 어느덧 갈림길에 서고 말았다. 선택권은 막 예편한 국군최고통수권자 앞에 앉은 현역 육군 준장의 의지에 맡겨졌다. 더구나 그것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었다. 최고권력자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느냐 최고권력자에게 스스로 다가서느냐, 즉 자신의 미래 전체를 걸어야 하는 선택인 만큼 신념과 직결된 것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박태준은 짐짓 부드럽게 미소지었다.

“배려에 대해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정치를 옆에서 봐왔습니다만,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불합리의 종합판 같았습니다. 특히 정치인은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당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당이 결정해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번번이 반대할 놈인데, 그런 일이 자꾸 생기면 얼마나 불편해지겠습니까? 제 성미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골치 아픈 말썽꾸러기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네의 그 못 말리는 성미를 내가 이기려고 덤벼드는 꼴이군.”

“제 앞날에 대해선, 저놈이 공부할 욕심이 있구나 하고 봐주십시오. 대선에서 승리하는 일이 급선무 아닙니까? 열심히 도와드리고 유학 떠나겠습니다.”

정치로 나서지 않겠다는 박태준의 결심은 확고했다.

9월 15일 대통령후보 등록 마감, 법정 선거운동 기간은 한 달, 10월 15일 선거. 치열한 선거전은 처음 예상대로 윤보선 후보와 박정희 후보의 각축전이었다. 10월 2일엔 허정 후보가 윤보선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퇴했고, 8일엔 송요찬 후보가 사퇴했다. 자금과 조직은 박정희 후보가 월등히 앞섰으나 서울의 기류는 윤보선 후보 쪽으로 기울어갔다. 박 후보의 민정이양 약속에 대한 번의가, 상대적으로 정치의식이 높은 서울시민의 비판을 샀다고 풀이할 만한 대목이었다.

마침내 ‘5·16의 2년 6개월’을 국민에게서 심판받는 날이 밝아왔다. 선거운동기간 중의 공화당 활동에 대한 부정시비의 논란이 일어났지만 선거 자체에는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었던 대통령선거가 남한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되어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날이 저물어 최고위원들이 속속 최고회의 개표상황실로 모여들었다. 대부분이 이길 것이란 기대감을 앞세운 표정이었다. 박태준도 서울이 걱정되긴 하지만 이길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개표는 출발부터 불안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의 집계 소식이 먼저 날아들면서 윤보선 후보가 선두로 치고 올랐다. 한 번 앞선 윤 후보는 꾸준히 선두를 지켜나갔으며, 박 후보도 꾸준히 뒤를 따라붙었다. 부지런한 두 거북이의 경주 같았다. 자정이

지나도, 16 일 오전 1 시가 넘어도 역전의 기미가 없었다. 최고회의 상황실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예감이 나빴다. 아무래도 근소한 표차의 패배를 면할 수 없을 듯했다.

‘그렇다면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박태준은 앞설 줄 모르는 박정희의 득표수를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미국 유학은 불가능해질 것 같았다. 거사의 명단엔 빠졌다 해도 명백한 ‘거사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사태를 맞이할 것 같았다. 윤보선의 새 정권이 ‘혁명’을 ‘반란’으로 전락시키면 틀림없이 법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었다.

오전 2 시가 지나도 박정희 후보는 뒤지고 있었다. 박태준은 새삼 마음을 담담하게 정리했다. 지금 귀가한다고 바뀔 것도 아니고 감옥으로 가게 되면 당당하게 갈 것이니, 개표는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심판대에 올랐다가 투옥되는 자기 모습을 상상해보는 박태준에게 힘을 준 원천은 ‘사심 없었던 헌신’이었다.

‘그래, 최선을 다했고 나쁜 짓 하지 않았다. 부정축재처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손을 더럽히지 않았고, 상공위원으로서도 최선을 다했다. 새로운 공부와 체험도 많이 했다. 그래, 후회는 없다.’

여명이 밝아왔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박정희 거북이’가 문득 막걸리를 얻어마신 것처럼 술술 속력을 더 내는 게 아닌가. 그 기운을 아침까지 버텨준다면 ‘윤보선 거북이’를 따라잡고 급기야 앞지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박태준은 주먹을 쥐었다. ‘박정희 거북이’에게 응원을 보내는 두 주먹에 흥건히 땀이 고였다. 남해안과 서해안의 섬을 출발해 육지에 닿은 투표함들이 아침에도 ‘박정희 거북이’에게 한 주전자씩 막걸리를 먹여주었다.

일 정오가 지났다. 아슬아슬한 박빙의 승부는 역전되어 있었다. 작은 리드지만 대세는 박 후보 쪽으로 기울어진 듯했다. 그래도 마음 놓고 승리를 장담하기엔 조심스러웠다. 실제로 민정당 윤 후보측이 패배를 자인한 시각은 16 일 오후 4 시 40 분이였다. 그 시간에 박 후보는 윤 후보보다 겨우 5 만 5 천여 표를 앞서고 있었다.

박정희와 윤보선. 끝까지 아슬아슬하게 자웅을 겨룬 두 후보의 득표상황은 특이하게 나타났다. 박 후보는 영남과 호남에서 압승을 보였고, 윤 후보는 서울을 비롯한 충청도와 강원도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표차는 불과 15 만 6 천 28 표. 그러나 낙선자는 깨끗한 승복의 표시로 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냈다.

이 대선의 특징은 이른바 ‘정치적 지역감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이었다. 1963 년 가을에 만약 소백산맥과 섬진강으로 갈라진 정치적 지역감정이 선거를 좌우했다더라면 박정희 후보는 윤보선 후보에게

완패를 당했을 것이다. 전남이 당선자에게 57.2%를 몰아줬듯이, 아직은 전라도의 투표민심에 ‘반(反)경상도’ 정서가 없었다. 아직은 충청도의 투표민심에 ‘친(親)김종필’ 정서도 없었다.

11월 어느 날, 조각을 구상하고 있는 박정희가 박태준을 불렀다. 곧 민선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정통성 시비에서 벗어난 통치자가 될 박정희, 하지만 박태준에게는 저 해운대에서 동백섬을 바라보며 우국충정의 술잔을 기울이며 거사를 꿈꾸던 그날들과 다르지 않은 따뜻한 상관이요 스승이었다. 선거 후일담 몇 마디가 오간 뒤에 박정희가 불쑥 뱉었다.

“국회의원이다 정치다 그딴 거는 싫다고 했으니 상공부 장관을 맡아서 도와줘야겠어.”

박태준에게는 전혀 뜻밖의 제안이었다. 그러나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각하의 배려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할지, 또 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지금 당장은 적합한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각하의 그 마음만은 다시 한 번 저의 마음에도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각하, 저는 장관을 맡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가집니다. 첫째, 군복을 벗었다고는 하지만 저와 같은 사람이 장관을 맡으면 국민들에게 각하의 민간정부가 군정의 연장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줄 것입니다. 둘째, 저의 나이 아직 마흔도 안 됐는데, 장관 하다가 물러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 이해해 주십시오.”

“다들 일등공신이라고 한자리 달라고 아우성인데, 자네를 본받으라 해야겠구만. 알았어. 기어이 미국 유학이야?”

“네. 새해에 준비되는 대로 떠날 계획입니다.”

“미국 어디로?”

“김웅수 장군이 계신 시애틀 워싱턴대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공관을 나서는 박태준은 비로소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마음은 한없이 포근했다. 박정희의 배려와 신뢰가 마치 따끈한 손바닥이 자신의 가슴을 쓰다듬고 있는 것 같았다.

1963년 12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제5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박정희의 권좌에 크게 결핍되었던 ‘정당성’을 주입하는 행사였지만, 박태준에게는 스스로 권좌와 이별하는 행사였다. 제3공화국 출범을 앞둔 12월 12일, 박태준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상공담당 최고위원을 물러나 소장 진급과 함께 군복을 벗음으로써 ‘권좌와 군인의 신분’을 동시에 벗고 ‘홀가분한 민간인’으로 돌아왔다. 1948년 육사에 입교하면서 벗었던 민간인 복장을 15년 만에 다시 입은 그는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을 때 이미 미국으로 유학 떠날 준비를 마무리 지었다.

그의 새로운 선택을 도와준 사람은 주한 미대사관의 문정관 해리슨이었다. 한국말에도 능숙한 그는 박태준을 특이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국무총리 최두선, 부총리 김유택, 외무장관 정일권 등을 발탁한 제 3 공화국 초대 내각의 명단과 얼굴이 신문을 도배한 12 월 14 일 토요일, 박태준은 유학 준비를 최후 점검하는 용건으로 오전에 해리슨과 만났다. 그가 고개부터 가웃거렸다.

“왜 그래요?”

박태준이 의아하게 물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은 보셨나요?”

“봤지요.”

“기분이 묘하지 않아요?”

“무슨 뜻인가요?”

박태준은 짐짓 되물었다.

“장관들의 명단을 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분들이 잘해나가겠지요. 명실상부한 민정이양이 되었으니 경제재건의 목표를 완수해나가야지요.”

“당신은 정말 특이합니다. 군정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되겠다, 장관이 되겠다, 또 뭐가 되겠다, 모두 감투를 쓰겠다고 뛰어다니는 판에 당신은 이상한 고집을 피우는군요.”

유학 관계의 일로 공화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이 끝나갈 즈음 만났을 때도, 해리슨은 왜 감투를 찾지 않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왜 하필 미국 유학을 선택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시대에 무엇보다 미국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길게 보면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슨이 고개를 가웃거렸다.

“그 뜻을 이해하겠습니다만……. 준비는 차질없이 됐습니다. 모든 수속이 잘됐으니까 서울 떠날 날짜만 잡으면 됩니다.”

박태준은 새해 1 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유학 보따리를 꾸릴 계획이었다. 아내와 어린 딸들을 서울에 남겨두고 떠난다는 죄책감이 괴롭혔지만, 못 다했던 공부에 대한 열망과 미래를 위한 준비를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 없었다.

박태준이 백악관과 가장 먼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대학을 택한 데는, 인간관계와 의리를 중시하고 인연에 소홀하지 않으려는 성품이 작용했다. '5·16의 박정희'에 반대했다가 미국으로 떠난 김웅수 장군. 그는 6·25 전쟁 때 38 선 인근의 파주에서 동해 남단의 포항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용케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은 박태준을 자기 밑의 인사참모 보좌관으로 끌어쥔 인물이다. 바로 그가 1963년 12월 시애틀 워싱턴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박태준은 그 인연의 자계(磁界)를 따라 움직일 생각이었다. 년 새해 설날이었다. 박태준은 집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이후락의 전화를 받았다. 박정희의 저녁초대였다. 어둠이 깔리는 무렵, 그는 청와대에서 보낸 지프를 탔다. 현관에 경호실장 박종규가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영문인지 그는 집무실이 아닌 2층의 사택으로 안내했다. 대통령 내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세배를 올렸다. 작별인사를 하기엔 안성맞춤의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이내 술상이 나왔다.

“요즘도 많이 드세요?”

청와대 안주인이 눈을 곱게 흘기며 손수 첫 잔을 따라줬다.

“마셔야 할 때는 사양하지 않습니다.”

박정희가 받았다.

“그래? 그거 잘됐네. 오늘 한번 마셔보자고.”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사이에 분위기는 따뜻하고 편안해졌다. 딱끈한 정종 한 주전자를 거의 비운 다음이었다. 박정희가 불쑥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이거 한번 읽어봐.”

붓글씨로 쓴 일본어 편지. 그것은 일본 자민당 부총재인 오노의 친필이었다. 요점은 명확했다. 한국의 현 정세로 볼 때 가장 시급한 일은, 한일국교정상화를 이루고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밑천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현재 한국의 신용으로서는 외국은행이나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담고 있었다. 박태준의 판단에도 그의 논리나 주장은 옳아 보였다. 경제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의 여망은 있어도 그것을 밀고 나갈 자금, 국제적 신인도, 기술력이 거의 제로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압력이 아니더라도 서둘러 일본의 지원을 받아내야 할 형편이었다.

“잘 봤습니다.”

박태준이 편지를 돌려줬다.

“어때?”

“좋은 충고 같습니다.”

“편지에 내가 특별히 파견할 사람의 조건이 나와 있었지?”

“예, 있었습니다.”

오노가 제시한 ‘대통령이 일본으로 파견할 사람’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였다.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 통역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인물, 가능하다면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던 인물.

“그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자네야.”

박태준은 얼떨떨해졌다.

“예에? 현 내각이나 그 주변엔 동경대, 와세다대, 경도대 나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 중에서 찾아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첫째 조건이 안 맞아.”

박정희가 고집을 부리려 덤비는 후배를 힐끗 쏘아보았다. 명령이나 질타와는 먼 눈빛이었다.

“일본도 낯은 사람을 원하지 않아. 명치유신 때 자기네가 그랬던 것처럼 신진기예를 원해. 자유당, 민주당을 거쳐온 인물을 원하지 않아.”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정희가 타이르듯 말했다.

“이보게, 우리 국민들은 일본과의 회담조차 싫어하지만,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네. 한일국교정상화는 경제발전의 첫 고비를 넘어서는 일이야. 마침 일본정부가 나를 대신할 인물을 요청해왔어. 이 일은 공식적인 국교정상화를 위해 일본측에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임무야. 일본 지도층에도 반한파가 만만찮아. 그들의 반대를 최소화해야지. 이 일에 자네를 능가할 사람을 찾을 수 없었네.”

“저는 미국 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일본 가서 열 달쯤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된다면 미국 가는 것보다 열 배, 백 배 더 공부가 될 거야.”

대통령의 결심이 확고해 보였다. 박태준의 마음에 균열이 일었다.

“언제 떠나야 합니까?”

“가능한 한 하루라도 빨리.”

“혼자 갑니까?”

“김종필이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거명한 두 인물을 박태준은 잘 알고 있었다. 최고회의에서 함께 지내왔기에 썩 내키지 않았지만, 선택권이 없었다.

“한참 동안은 매국노로 찍힐 수밖에 없는 임무로 보입니다.”

“그럴 거야. 아마 한바탕 대격전을 치르게 될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박태준은 말을 삼켰다.

“이거 받게.”

대통령이 부드럽게 봉투를 내밀었다.

“자네는 여태 집도 없더구먼. 고생만 시키고, 내가 너무 무심해서 애들 엄마한테 미안하게 됐어. 게다가 오래 나가 있게 되는데, 자네 집사람은 집이라도 있어야 애들 잘 키울 거 아닌가. 집이나 장만하게.”

박태준은 정중히 받았다. 출지에 아득히 잊고 살아온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맞았다. 신접살림을 육사 관사에서 편안하게 출발한 이래 문간방 사글세에서 첫딸을 잃고 열다섯 번의 셋방살이를 전전해오다가,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단독주택을 잡게 되었다. 대통령의 하사금과 전세 뺀 돈을 절반씩 넣어 마련한 집에 가장 없이 여자 네 식구만 짐을 풀었다.

1964년 1월 초순 박태준은 도쿄 하네다공항에 내렸다. 오노가 일본 중의원 의장, 내각 대신 2명과 같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태준 일행도 넷이었다. 김종필이 천거한 2명과 회계담당 비서 최정렬.

박태준이 일본에서의 긴 잠행을 위해 도쿄에 도착했을 때, 서울에서는 ‘김종필 파문’이 술렁이고 있었다. 1월 17일 김종필은, 한일회담이 6월 중에 타결되지 않더라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는 일본에서 공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곤궁함과 대일청구권 자금의 절박함을 강조하면서 ‘대일 의존’의 속내를 뒤집어보이는 발언이었다. 실정이 그렇더라도 스스로 민족적 자존심을 할권 부적절한 발언은 의혹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친한파에서 반한파까지의 술한 일본 지도층 인사와 접촉하여 그들이 평소보다 한국에 대해 한 걸음 진전된 호의를 갖도록 하는 일, 이것이 박태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박태준은 각오를 단단히 했다. 한국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반응은 다양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그들을 만나야 했다. 가능한 한 그가 한국인의 전형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하고, 한국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로 손색없는 인품을 보여야 했다.

1964년 백두의 일본은 도쿄올림픽 준비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나라였다. 도쿄 중심가에서 하네다공항까지는 동양 최초의 모노레일이 깔리고, 도쿄와 오사카 구간에는 시속 250킬로미터의 초고속 열차운행을 위한 광궤철로(신간선) 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도쿄의 겉모습은 패전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곳곳에 건설용 크레인이 허공을 지키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집들이 급증하고 있었다. 흑백 텔레비전을 컬러로 바꾸는 시험방송도 시작했다. 한마디로 일본은 융성의 대로에 진입한 것 같았다. 박태준은 그런 모습이 부러웠다. 우리도 하루 빨리 분발해서 이렇게 일어서야 한다는 각오와 다짐이 솟기도 했다.

박태준은 도쿄에서 사흘째 되는 한낮에 자신의 세 동행자와 떨어져 박철언과의 약속장소로 나갔다. 1961년에 미 극동군 총사령부 문관을 사임한 그는 1962년부터 도쿄에서 개인사업에 열중하는 가운데 야스오카와 변함없는 친분을 유지했다. 일의 실마리를 쉽게 풀어가려면 누구보다 먼저 야스오카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야 했다. 미리 박태준의 연락을 받은 박철언은 야기 노부오와 상의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두었다. 장면 총리의 특사 유동진, 박정희의 전권대사 이용희, 그리고 박정희의 특사 박태준. 그들 모두에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일의 관문과 같은 존재 야스오카.

과연 야스오카는 어떤 인물인가? 박철언의 정리가 단아하다.

야스오카는 1904년 일본 중부지방의 호족 홋타씨 가문에 태어났다. 소학교 시절에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등 사서를 배워 익혔다. 나아가 『태평기』, 『일본외사』, 『십팔사략』, 『삼국지』 등 한서를 탐독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일고, 동대라는 최고 엘리트길을 걸었다.

그가 고등학교 재학중에 쓴 장편의 논문 「소동파의 생애와 인격」이 동경대학 학지 『동대문학』에 실린 적이 있다. 그 논문은 학계의 관심 대상이었고, 세간에 화제가 되었다. 읽는 이들은 동경대학의 전공교수가 쓴 논문으로 믿었다고 한다. 그는 1922년 대학을 졸업했는데, 재학중에 출판한 저서 『중국의 사상 및 인물 강화』는 당시 학계나 경제계에서 경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26세가 되는 어느 가을 해군대장 야시로 로쿠로와 첫 대면을 했다. 야시로 제독은 자타가 공인하는 양명학의 대가였다. 그 양명학이 두 사람 사이의 논제가 되었다. 저녁 술상을 놓고 시작한 토론이 격화되어 자정이 넘어도 그치지 않았다. 제독 부인의 만류로 새벽 녘 가까이에 양쪽이 다 이견(異見)을 안은 채 헤어졌다.

다음날 야시로는 야스오카를 찾아왔다. 야스오카는 자기를 찾아온 연장의 야시로는 상좌에 앉기를 권했다. 야시로는 사양하고 낮은 자리에 앉아 입을 열었다.

“야스오카 선생, 이제부터 저는 귀하를 선생으로 모시겠습니다. 일생, 선생의 학문에 사숙하고자 합니다. 잘 지도해주십시오.”

--박철언, 『나의 삶, 역사의 궤적』

그렇다면 박태준을 처음 만난 야스오카는 한국 통치자의 신뢰가 유난히 돈독하다고 알려진 젊은 일꾼을 어떻게 보았을까? 야스오카의 박태준에 대한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다. 초면의 두 사람은 일말의 예견도 잡지 못했겠지만 그로부터 4년 뒤 ‘포스코의 운명’을 결정짓는 인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박철언이 증언을 남겼다.

나는 박태준을 선도해서 동경 분교쿠 하쿠산의 자택으로 야스오카 마사아쓰를 찾았다.
“어서 오십시오. 원방래(遠方來)한 벗을 만나는 기분입니다.”
야스오카는 멀리서 온 벗을 맞아 기쁘다는 고구(古句)가 섞인 말로 박태준을 초면의 어색함 없이 맞았다. 야스오카와 박태준 사이에는 광범위한 문제가 화제로 꽃피었다. 예정시간을 훨씬 넘긴 회견이 계속되었다.
“침착 중후한 인물이오. 마치 큰 바위를 대하는 듯한 무게가 있었오.”
박태준을 만나고 난 야스오카가 배석했던 야기와 나에게 한 말이었다. 박태준, 야스오카 양자의 이때의 해후는 뒤에 오는 포항제철 건설 문제에서 그 성패를 가늠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앞의 책

박태준은 박정희의 밀사로서 일본 정부, 정계, 언론계 요인들과 만나고 다녔다. 그가 식탁 위에 올려놓는 가장 중요한 화제는 늘 한일국교정상화담에 임하는 한국 측의 입장이었다. 그러한 박태준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실록도 남아 있다.

2월 초 도쿄 아카사카 거리의 한 요정에서 있었던 환영모임엔 자민당의 거두 오노 반보쿠 부총재를 비롯하여 후나다 중의원의장, 시나 외상, 나카가와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태준은 그 뒤 나카소네 의원(뒤에 총리), 기시 전총리, 오히라 의원(뒤에 총리), 사토 의원(뒤에 총리)등 자민당의 실력자들과 자주 만나고 지방을 돌면서 유지들과 접촉했다.
이때 박태준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인물은 양명학의 대가인 야스오카였다. 그는 역대 총리들에게 자문을 하는 등 우익 정객들 사이에선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야스오카는 '일본은 한국을 돕는 차원에서 국교정상화를 해야 한다' 면서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박태준에게 많은 요인들을 소개해주기도

했다. 야스오카는 그 뒤 박태준이 포항제철을 건설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박태준은 월 1 회 정도 자신의 활동상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서 박대통령에 보고했다.

그가 만나본 바로는 기시 전 총리와 오너 부총재가 가장 협조적이었다. 박태준은 자신의 임무를 마친 다음에는 나카가와 의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두 달 동안 일본 전국의 산업시설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 박태준은 '불과 20 년 사이에 일본이 이룩한 눈부신 성장의 연장을 가보니 피라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도성 편저 <<실록-박정희와의 한일 회담>>에서 인용, <박정희> 제 7 권 재인용

그때의 건문이 박태준에게 조국근대화 의지를 더욱 불태우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었다. 그는 귀국하여 박정희에게 산업 시찰에서 받은 인상, 특히 종합제철소에서 받은 강렬한 인상도 피력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포항제철의 대임'을 맡기는 박정희의 선택이 그때 그의 건문 소감을 깊이 고려한 결과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 대임을 맡기는 과정에는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오직 박정희와 박태준 아는, 둘이서 무슨 일이든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두 사내 사이의 특별한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 박정희가 박태준의 능력과 순수한 열정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그 대임을 맡길 수 없었을 것이고, 박태준이 박정희의 조국근대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신념에 대하여 일말의 회의라도 품었더라면 대통령의 명령으로 그 대임을 맡았더라도 그렇게 처음부터 목숨을 걸지는 못했을 것이다.

박태준, 대한중석을 구하며 경영수업을 하다

1964 년 10 월, 박태준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쳤다. 미국 유학보다 열 배 더 공부가 될 거라고 한 대통령의 예언이 빗나간 것 같지 않다고 느꼈다. 산업화하는 일본을 보고, 여러 방면의 사람을 사귀고, 자기와의 싸움을 잘 견디어 한결 성숙해진 것을 보람으로 여겼다. 그러한 뿌듯함을 안고 서울에 돌아왔다.

가을날의 서울 거리는 차분해 보였다.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며 한일협정을 반대하던 격렬한 학생운동이 일찌감치 동면에 들어간 것 같았다. 새삼 일본에서의 착잡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십 보 전진을 위해 다섯 보라도 양보하여 우리 민족의 저력과 우수성을

한번 믿어보자는 호소라도 하고 싶었으며, 학생들의 뜨거운 민족적 자존심을 협상의 유리한 카드로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나라의 빈궁한 물골이 쓰라리기도 했다. 북아현동 산기슭 언덕배기의 ‘내 집’에서는 네 식구가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온 아버지의 첫눈에는 초등학교 2학년생 만딸이 의젓해 보였다. 만이 구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뚜렷했던 모양이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봐야지.”

그는 아내를 향해 미소 짓고는 어린 세 딸을 차례로 머리 위로 안아 올렸다. 하지만 아이들에겐 차마 말 못할 갈등이 있었다. 국내에 남느냐, 미뤄둔 미국 유학을 재추진하느냐. 그는 후자 쪽으로 기울었다. 석 달쯤 쉬었다가 떠날 계획을 잡았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문제는 식구들이었다. 열 달의 긴 이별을 마치기 바쁘게 다시 몇 곱절 더 긴 이별을 준비해야 함을 털어놓자, 아내는 섭섭함과 서러움을 뒤로 한 채 남편의 장래를 위해 받아들였다.

미국 시애틀로 떠나려는 박태준의 앞길은 열려 있었다. 거의 1년 동안 묵힌 서류를 꺼내 먼지만 털면 되었다. 그해 12월 초에 청와대의 전갈을 받았다. 박정희는 서독 방문을 앞두고 있었다. 박태준은 자신의 뜻을 대통령에게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마침 대통령의 표정도 평안해 보였다. 그는 자기 계획을 솔직히 밝혔다. 그런데 박정희는 전혀 다른 제안을 쥐고 있었다.

“대한중석을 맡아줘야겠어.”

후배의 유학을 가로막는 선배의 논리는 간단하고 명료했다. 민간기업들은 구멍가게 수준이고 국영기업들도 적자에 허덕이는 실정에서 ‘달러박스’ 대한중석이라도 정상화해야 하는데, 그것을 책임지라는 거였다. 박태준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치’의 자리가 아니라 ‘경제’의 자리였다. 숨을 들이쉬었다. 자기 인생과 미국 유학은 인연에 없는 일로 여겨야 했다.

“서독 갔다 와서 만나자. 그 사이에 이것저것 좀 알아봐.”

“네. 잘 다녀오십시오. 각하의 방문을 우리 광부들과 간호원들이 정말 기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고생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지.”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1964년 세모의 어중간한 시기에 박태준이 접한 새 자리에는 모종의 권력투쟁도 개입되어 있었다. 5·16 거사에는 무임승차한 처지에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를 꿰차고 앉아 날이 갈수록 권세를 키워가는 이후락. 이 사람을 김종필은 꺼림칙하게 보고 있었다. 그를 대체할 만한 인물을 물색하던 터에 마침 박태준이 돌아왔다. 김종필은 새해 기념으로 청와대 분위기를 쇄신하는 인사에 박태준을 천거할 작정이었다. 그의 눈에 박태준은 썩 매력적인 카드로 보였다. 정치적 야망이 없어 보여 뒤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했고, 그 자리의 경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신임도 유난하니까. 이러한 김새를 맡은 이후락이 선수를 쳤다. 박태준을 정치 방면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심중을 꿰뚫은 그가, 박태준을 대한중석 사장으로 보내면 어떻겠냐고 건의했다. 마침 그를 경제 방면으로 활용하려고 그 자리를 고려하던 박정희가 쉽게 낙점을 했다.

군정 시절과 달리 정치적 권모술수가 빈번할 자리에 박태준의 성품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박정희는, 미국과 좀더 수월히 연결되는 '끈'을 원했다. 이후락의 남다른 용도는 그 '끈'에도 있었다. 군사영어학교 출신으로 군번은 79 번. 6·25 전쟁 후에는 미대사관 부무관으로 3 년간 해외근무도 했던 그는, 장면 정권이 미국 CIA 의 요청에 따라 설립한 '79 부대'(자신의 군번을 붙임)의 책임자로 활약하면서 그쪽과 질긴 끈을 달아두었다. 그런 경력이 5·16 직후에는 짧은 옥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박태준의 성품, 박정희의 안목, 권력 핵심부의 암투. 이 세 요인이 하나로 얹혀 박태준의 미국행을 가로막았다.

중석(重石), 텅스텐. 이 광물은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구국의 자원'으로 대접 받았다. 태백산맥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을 캐서 그것을 팔아 비료를 사겠다고 생각한 시대. 그래보았자 남한에서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광물은 중석, 금, 석탄 정도였다. 그때 이승만의 광산 전문팀이 주목한 광물이 일제 때 개발된 중석 광산이었다. 중석에는 회중석이 있고 흑중석이 있다. 상동광산에서는 주로 회중석이 생산되었다. 거의 방치된 상동광산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 기술자들이 철수한 뒤라서 회중석 선광법을 아는 기술자를 찾아내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텅스텐의 쓰임새는 전구 필라멘트이지만 우주선 로켓의 어느 부위에도 들어갈 만큼 귀한 광물이다. 무기 제조, 특히 대포의 포신(砲身) 제작에는 필수 소재이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 정부에 상동광산의 매각을 요청했는데, 우리 정부가 그것을 거부하여 1953년에는 한미 중석협정이 체결되기도 했다. 이 협정이 체결되어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자 이승만은 대한중석 사장을 끌어안고 "내 아들이" 하고 좋아했다고 한다. 가난한 나라의 초대 대통령을 감격하게 만든, 바로 그 광물을 캐내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대한중석이었다.

1934 년 경북 달성광산과 강원도 상동광산을 합병해 양질의 텅스텐을 생산해온 고바야시광업주식회사는 1949 년 10 월부터 상공부 직할의 국영기업으로 변신하면서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로 거듭났다. 대한중석은 1960 년대 초반의 한국경제에서 연간 국가 총수출액 4 천만 달러 중 가장 큰 액수를 점유할 만큼 막강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승만 정권과 장면 정권 하에서 정치적 스캔들에 말려들곤 했다.

박태준은 새해의 정식 취임에 앞서 대한중석을 살펴보았다. 현황, 경영상태, 인사체계, 인력보강의 필요성……. 회사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춘 뒤 경영원칙부터 확립하기 위해 청와대로 들어가 서독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박정희와 독대했다.

“어때?”

박정희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래도 직전 사장은 열심히 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전임은 공군 참모총장 출신이었다.

“장난칠 사람이 아니지.”

“그렇습니다. 능력도 있는 분인데, 제가 자리를 빼앗은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립니다. 비료공장도 두 개나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맡겨도 그분에게 훌륭하게 해내실 겁니다. 또 그렇게 해주시면 인간적인 부담도 덜 것 같습니다.”

“그래?”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이래서 박태준의 전임 대한중석 사장은 신설 ‘영남비료’ 사장으로 옮겨간다.)

“건의가 있습니다.”

“뭔가?”

“과거에 대한중석은 정치적 스캔들에 휩싸이기 일쑤였고 부패의 온상이 되어왔습니다. 그것이 부실경영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저에게 맡긴 이상 앞으로는 정부나 여당에서 일절 회사경영에 간섭하지 않도록 보장해주시요.”

“약속하지.”

기본 좋게 청와대를 물러난 박태준에게는 드디어 ‘경영의 실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군에서 육군대학·국방대학·참모·지휘관을 두루 거치며 갈고 닦은 실력,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서실장과 상공담당 최고위원으로서 국가경영에 참여한 경험, 그 기간에 보충학습처럼 배운 경제·경영학 지식 등을 총동원했다. 그럼으로써 어떡하든 만성적자의 부실경영에 허덕여온 ‘최대 달러박스’ 국영기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했다.

박태준은 경영 실재를 손대기에 앞서 ‘사람’을 가장 중시했다.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외압배격과 투명인사의 원칙 확립,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회계관리, 영업원리의 개선, 사원의 후생복지 개선 등 그 모든 일을 일사불란하게 개선해나가려는 자신의 철학과 원칙을 실행할 ‘사람’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사람’이 그냥 굴러들어오는 금덩어리는 아니었다. 안에서고 찾고 밖에서도 찾아야 했다. 빈곤한 한국에서 수출의 주력을 담당하는 기업답게 대한중석엔 신임사장의 눈에 띄는 쓸 만한 사람들이 박혀 있었다. 우선, 그가 국방부 인사과장 시절 물동과장으로 함께 일했던 고준식이 전무로 있었다. 뉴욕에 나가 있는 안병화, 상동광산을 관리하는 박종태, 런던에 나가 있는 조용식, 최영춘, 장경환……。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특히 회계관리와 인사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듯했다.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박태준은 임자를 밖에서 찾기로 했다. ‘밖’이란 군대였다. 육사 교무처장 시절에 부하로 있었던 황경노를 떠올렸다.

“나하고 같이 가자. 군대보다 장래가 밝고 보람도 있는 일이야.”

황경노가 흔쾌히 중령 제복을 벗기로 했다. 미국 육군경리학교에 유학한 경리 방면의 전문장교로 대학에 출강도 하던 그는 내친걸음에 친구 한 사람을 천거했다. 황경노와 비슷한 경력의 노중열이었다. 군복을 벗은 두 예비역 장교는 대한중석의 과장으로 임명됐다. 한국 최고의 수출기업에서 ‘구식 부기’가 사라지고 현대식 관리기법이 도입된 날이었다. 지난해 일본열도를 같이 종주했던 인사관리의 베테랑 최정렬도 합류하였다. 몇 달 뒤에는 경리장교 홍건유도 군복을 벗고 입사했다. 박태준과 기존 대한중석 인재들의 만남에 막 삶의 길을 바꾼 예비역 장교들이 합세한 일은 대한중석의 인습을 깨뜨리는 작은 성과에만 머물지 않았다. 팀워크를 맞추고 새로운 국가목표에 정신적 공명을 일으킨 그들은 불과 3년 뒤에 영일만 모래벌판으로 이동하게 된다.

대한중석 사장에 부임한 박태준은 ‘철저한 공정인사’와 ‘인사청탁 배격’을 내걸고 이를 어기면 가차없이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신임사장은 명예와 진퇴를 건 폭탄선언이었지만, 곧이곧대로 듣는 분위기가 잡히지 않았다. 불과 며칠 만에 청와대 고위인사의 메모가 사장실로 들어왔다. 특정인 하나를 승진시키라는 압력이었다. 시험당하는 기분이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즉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절차를 거쳤다. 바깥의 줄을 끌어들이면 불이익을 돌려주겠다던 공약에 따라 그 ‘특정인’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조롱당한 권력자가 양전히 넘어갈 리 만무했다. 박태준은 냉큼 받아쳤다.

“청탁을 말려야 할 분이 너무 심하지 않소? 그 사람에게 실력껏 일하면 능력대로 대접받게 되어 있다는 이치부터 가르치는 게 좋겠소. 그리고 각자 맡은 일이나 제대로 합시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인사보다 훨씬 상대하기 어려운 이가 찾아왔다. 쫓겨날 사원의 어머니. 초로의 여인은 다짜고짜 눈물을 앞세웠다. 6·25 전쟁 때 남편을 잃고 혼자 키운 외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한 보람 하나로 살아가고 있으니, 어미의 불쌍한 처지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달라는 것이었다.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모정이 박태준의 가슴을 울렸다. 반칙을 시도했다가 시범 케이스에

걸려든 사원은 부산의 명문 고교를 거쳐 서울대를 졸업한, 학벌로만 따지면 이른바 ‘일류’인 사람이었다.

그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새로운 기풍을 위해 인정을 희생해야 할 때였다. 그러나 뇌리에는 전쟁미망인의 하소연이 가시로 박혀, 몇 년 뒤에 문제의 젊은이를 찾아내 영일만으로 부르게 된다.

청탁배제와 능력본위의 인사원칙 확립은 대한중석의 기강을 바로잡는 기초작업이었다. 박태준의 머리엔 사명의식 고취, 후생복지 제고, 현장중시 경영, 경영관리 합리화 등이 정돈되어 있었다.

박태준은 ‘현장’으로 달려갔다. 대한중석의 모든 현황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현장은 바로 중석을 캐내는 광산이었다. 강원도 상동광산은 ‘세계 굴지의 텅스텐 광산’이란 명성에 어울릴 만큼 외형이 웅장했다. 그러나 신임사장의 첫눈에 비친 종업원들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작업의 피로와는 다른 종류 같았다. 그는 막장까지 직접 내려갔다. 안전관리 시스템과 굴착기를 유심히 살폈다. 비교적 양호해 보였다.

지상으로 올라와 산기슭의 사원주택단지를 둘러보았다. 일제 때 지은 다락집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한결같이 헛간 수준이었다. 분노가 울컥 치밀었다. 종업원들의 얼굴에 어른거리는 그들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서둘러 재건축 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다락집들은 모조리 헐어버려야 했다.

형편없는 사택 앞의 개울에서 빨래하고 있는 광부 부인들 곁으로 다가갔다. 새로 부임한 사장이니 건의가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라고 하니 데면데면한 표정이었다. 여러 번 권유하자 몇 사람이 망설이듯 입을 열었다.

“사택에 빈대약 좀 쳐주세요.”

“빈대가 하도 많아서 식구들이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별안간 박태준은 빈대떼가 자신의 얼굴을 물어뜯는 듯했다. 즉시 관리사무소로 발길을 돌렸다. 책임자는 행정부소장이었다.

“대체 업무가 뭐야? 빈대 때문에 직원들이 밤잠을 설친다, 이게 말이나 돼? 어서 해지기 전에 DDT 구해서 사택에 뿌려.”

“하지만 사장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더구나 DDT는 시중에 없어서 암시장에서 구해야 하는데 값이 엄청나고, 회사 규정상 암시장 구입은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당장 사택에 DDT를 뿌려. 그리고 사택을 새로 짓는 데 필요한 예산과 절차를 급히 보고해.”

“사장님, 안 됩니다. 우리 회사는 수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해서 매달 직원들에게 제때 봉급을 주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회사경영은 내가 책임져. 지금 당장 사원사택 지을 계획을 시작하겠나, 아니면 사표를 쓰겠나? 이 자리에서 결정해.”

최후통첩과도 같은 사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행정부소장이 머리를 숙였다.

회사가 운영하는 병원과 학교도 사택과 마찬가지로 엉망이었다. 병원과 학교에 필요한 기자재뿐만 아니라 의사와 선생님도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모셔오도록 지시했다. 종업원 후생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회사방침으로 바뀐다는 선언이었다.

박태준은 종업원의 후생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경영의 불합리성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개혁해나갔다. 물론 황경노, 노중열, 안병화, 홍건유 등 그의 인재들이 제대로 솜씨를 발휘해야 성공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일상업무와 전략업무의 분리, 그 절차의 표준화, 미국 육군부관학교 유학에서 배운 최신 관리기법 도입, 관리회계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주먹구구식 재래적 경영형태’를 ‘선진적 경영체계’로 고쳤다. 또한 중석의 매장 분포도를 조사해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상동광산에는 두 종류의 중석이 매장되어 있었다. 지표면에 가까운 광상엔 중석함유율이 1%나 되는 고품위 광석이, 땅속 깊이 있는 광상엔 중석함유율이 0.3%에 불과한 저품위 광석이 매장되어 있어서 수익성 좋은 지표면만 채광하는 관행이 있었다. 0.3%의 저품위 광석을 사장해온 낭비를 일거에 없애는 방법은 간단했다. 고품위 광석과 저품위 광석을 혼합하여 함유율 0.6~0.7%의 광석분말을 만들면 되었다.

박태준은 정신적 쇄신을 불어넣었다. 총체적 경영관의 확립을 강조하고, 관료주의와 부서이기주의의 추방을 역설했다. 현장제일주의도 빼놓을 수 없는 방침이었다. 현장에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생산 관련 부서들을 서울 본사에서 광산 현장으로 내려보냈다. 이를 거부하는 간부들은 떠나야 했다.

1965년 가을 어느 날 박태준은 청와대로 불려갔다. 그가 맡은 대한중석이 적자의 터널을 탈출하여 흑자체제를 굳히는 즈음이었다.

“우리나라에 동양챔피언 있는 거 알아?”

“무슨 챔피언 말씀입니까?”

“김기수란 친구가 있어. 물건이야. 이게 굉장히 세다는데, 우리 국민의 사기진작을 위해 세계챔피언도 나와야지. 지금은 우리 민족이 뭐든 우수하다는 자신감이 절대 필요해.”

혹 먹이는 시늉을 보인 박정희가 멋쩍게 웃었다. 대한중석을 구했으니, 덤으로 김기수도 세계 최고로 키워보라는 뜻이었다. ‘헝그리 복서’란 말이 회자되는 시절, 말 그대로 배고픈 권투선수. 오늘의 상처와 내일의 골병을 감내하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하는 프로복서의 길. 열 명 태어나면 여덟 명은 출생기념으로 빈곤의 굴레를 짊어졌던 1960년대 한국엔 주먹깨나 쓰는 배고픈 소년들이 더러 챔피언을 꿈꾸었다. 김기수도 마찬가지였다.

박태준은 즉시 김기수를 데려오게 했다. 주니어미들급이라는데, 과연 신체 좋은 친구가 나타났다. 악수를 나누었다. 아주 크고 뾰뾰한 손이었다.

“어디 출신인가?”

“함흥에서 내려왔습니다.”

“1·4 후퇴 때?”

“예, 흥남에서 배를 탔습니다.”

·4 후퇴 때 배를 타고 내려오다가 강릉, 포항에 못 내리고 여수까지 가게 되었다고 했다.

“복싱은 언제 배웠나?”

“여수 여항중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박태준의 가슴으로 묘한 기운이 번지고 있었다. 1·4 후퇴, 함흥, 흥남……. 이런 단어들이 김기수에 대한 관심을 더 자극했다. 1950년 겨울의 그는 원산, 함흥, 성진을 거쳐 청진까지 북진했다가 1·4 후퇴 때 맹장수술을 받은 직후의 환자 상태로 흥남에서 통한의 철수에 올라야 했으니…….

“지금 너의 상대가 어떤 놈이야?”

“이탈리아의 니노 벤베누티라는 놈입니다.”

“그런 놈이 있어? 자신 있나?”

“한 6개월 연습에 전념한다면, 얼마든지 붙어볼 자신 있습니다.”

박태준은 김기수에게 필요한 것을 다 말하라고 했다. 무엇보다 도장이 급하다고 했다. 집이 어디냐고 물으니 경희대 근처라고 했다. 그가 총무이사를 불러 집과 가까운 곳에다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도장을 지어주라고 지시했다. 며칠 뒤 신설동에 터를 잡고 공사에 돌입했다. 근사한 권투체육관이 생겼다. 개관식을 앞두고 그에게 ‘작명 의뢰’가 들어왔다. 전혀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주먹으로 세계 일등이 되라’는 기원을 담아 ‘권일(拳一)’이란 이름을 선물했다.

김기수의 주니어미들급 WBA 세계타이틀매치는 1966년 6월 25일, 전쟁 16주년 저녁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박정희도, 박태준도 관전했다. 비슷비슷하게 맞고

때리는 예측불허의 승부였다. 대통령 앞의 큰 재떨이에 공초가 수북해졌다. 밤 10 시가 넘어 15 회전이 끝났다. 한국 심판은 ‘김기수 승’, 이탈리아 심판은 ‘벤베누티 승’을 알렸다. 라디오에 귀를 대고 있는 모든 국민이 초조했다. 코쟁이 주심이 ‘김기수 승’을 내놔다. 까짓, 텃세가 좀 붙었으면 어쩐가. 박태준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한국 최초의 세계챔피언 탄생. 온 국민은 오랜 가뭄 끝에 한바탕 소나기가 지나간 것처럼 신명을 올렸다.

박태준은 정치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대한중석의 경영지표에 몇 달 만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출구가 보이지 않던 적자의 터널을 벗어나는 조짐이었다. 대한중석이 회생의 기운을 차릴 때, 미국방문을 앞둔 박정희가 박태준을 찾았다. 대한중석을 민간에 불하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장면 정권이 추진하다가 말썽만 놓고 유산시킨 그 일에 박태준은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광산업에 덤벼드는 민간기업은 일반적으로 단기적 수익성에 매달리는 속성이 있어서 경제성 높은 지표부터 집중적으로 파내어 한 밀천 잡은 뒤에는 폐광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내 고개를 끄덕인 박정희가 불쑥 ‘종합제철소’란 단어를 꺼냈다.

“미국 가면 피츠버그를 가게 돼. 종합제철소 때문에 가는 거야. 철강인들과 만나서 얘기해봐야지.”

“좋은 착안이십니다.”

박정희의 날카로운 시선이 박태준의 반짝이는 동공을 쏘았다.

“자네도 일본 가면 다시 제철소를 잘 살펴봐. 우리에겐 종합제철이 절대적 급선무야.”

박태준은 등골이 오싹했다. 문득 벌겋게 달궈진 칼이 눈앞을 스친 듯했다.

박정희가 미국방문에 올랐다. 박태준은 일본으로 날아갔다. 제철소에 대한 정보수집과 견문축적을 위해.

6 월 22 일 ‘한일조약’이 조인되었다. 7 월 들어 교수·종교인·문학인의 시국성명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14 일엔 예비역 장성 11 명이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국방장관을 지낸 예비역 육군중장 박병권, 군정 내각수반을 지낸 예비역 육군중장 송요찬, 5·16 직전의 박정희를 참모로 불렀던 예비역 육군중장 최경록 등 박정희와 인연 깊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그들은 무상원조 3 억 달러와 유상원조 2 억 달러로써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문화의 강탈에 대한 청구권에 대차한다는 것은 민족의 역사가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거침없는 흑백논리가 세워지고 있었다. 한일조약의 비준을 반대하는 사람은 ‘정의와 자주’의 민족주의 세력, 한일조약의 비준을 찬성하는 사람은 ‘불의와 매판’의 대일종속 세력.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진 사회에서 무더운 여름의 퇴각은 더디게 느껴졌다. 8 월 11 일 밤 11 시 10 분 공화당은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비준안을 1 분 만에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8 월 14 일 공화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한일조약 비준의 국회통과를 기념하는 듯, 바로 이날 대학가엔 때 아닌 된서리가 덮쳤다.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 발표한 ‘인민혁명단 사건’. 이는 중정이 송치한 47 명 중 13 명만 기소되고 1 심에서 무려 11 명이 무죄선고를 받아 그 날조가 폭로되면서, 앞으로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해나갈 하나의 전형적 상징을 제시했다. 인혁당 사건이 발표되어도 진정될 기미가 없던 한일조약 비준반대 시위는, 8 월 26 일 서울 전역에 위수령이 내려져 또다시 군대가 캠퍼스를 장악하는 사태에 이르러 진압되었다.

그런데 한일조약의 국회비준과 위수령선포 사이에서 한국 현대사의 매우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8 월 18 일 국회가 2 만 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킨 것. 더구나 벌써부터 예고된 대사건이었다. 1965 년 5 월 박정희의 방미, 존슨과의 정상회담도 한국정부의 베트남 파병 결정에 대한 미국정부의 답례 초청으로 이뤄졌던 것이다.

굴욕의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울분의 물결이 다른 약소민족을 침략하게 되는 결정에 대한 이성적 관심을 마비시켰던 1965 년 여름, 민족의 자존심을 부르짖는 뜨거운 목소리들이 베트남 파병의 침략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덮어버린 모순의 계절. 시위대가 안고 있었던 그 모순은, 이쪽도 저쪽도 박정희 정권에는 경제개발을 위한 등직한 ‘밀천’이었다. 그리고 대일청구권 자금과 베트남 특수라는 두 밀천을 확보한 시기의 박정희 정권은 인혁당 사건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처럼 ‘경제개발과 민주주의 억압’이라는 모순을 잉태하고 있었다. 바야흐로 그것이 거친 황야와 같은 새 지평으로 열리는 1965 년 가을, 대한중석을 만성적자의 늪에서 구출해 흑자기업으로 바꿔놓은 박태준은 정치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존재의 뿌리를 내린 채 박정희의 종합제철소 건설에 대한 집념과 의지에 이끌리면서 서서히 철(鐵)에 관심을 기울여갔다.

다시 시작하는 종합제철

철강은 ‘산업의 쌀’이다. 철강 없는 산업화는 없다. 이것은 이승만도 알고 있었다. 오랜 미국 망명생활에서 터득한 하나의 지식이었다. 6.25 전쟁 후 1955 년부터 정부와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산업화에 눈을 뜨게 되지만, 정부가 부산을 피난수도로 삼고 있던 시절에도 전후 복구사업을 염두에 둔 긴급한 국책사업으로 '철강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은 읽어보자.

이승만이 철강산업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은 1953년 4월 4일이다. 이날 이승만은 내각에 다음과 같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

"전쟁이 끝나면 하루 빨리 부흥 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니 그 기초가 되는 철강 산업 진흥책을 마련하라. 특히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함석, 철판 등의 공급을 담당할 제강사업 건설계획을 우선적으로 강력히 추진하라."

관계부처는 철강 산업에 대한 기본 대책을 검토한 끝에 대통령령으로 인천의 대한중공업공사를 국영기업으로 출범시키고, 파괴된 공장 복구를 위해 연산 5만톤 규모의 평로(구식 용광로)를 건설하여 제강공장과 압연공장을 재건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우리 경제는 전적으로 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을 때다. 미국으로부터 오는 무상원조가 국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다. 그만큼 미국 원조당국의 입김에 세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계획은 미국의 경제 고문관에 의해 좌우되던 시절이다. 정부는 철강공장 건설계획을 수입한 후 미국 원조기관에 철강공장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 원조당국은 "지금 수백만의 피난민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무슨 철강공장인가. 시급한 민생문제부터 해결하라"면서 우리 측 요구를 거절했다. 보고를 받은 이승만은 "못이나 양철이라도 만들어야 판잣집이라도 지을 것 아닌가"하면서 "미국이 돈을 못 내줬다면 정부가 보유한 자체 보유 달러로 공장을 지으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극심한 달러 부족으로 장관이 외국 방문을 할 때면 손수 달러를 세어 주었던 이승만이 외환사정이 지극히 어려운 전시에 철강공장 건설을 위해 140만 달러를 투자기로 결정한 것은 역사적 결단이었다.

이승만은 전쟁 부상자 치료를 위해 부산에 와 있던 서독 적십자 병원장 후버 박사에게 한국의 철강공장 건설에 서독이 기술지원을 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승만이 서독과 교섭에 나선 이유는 미국이 철강공장 건설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서독은 2차 대전 패전 후 전후 복구가 한창이었다. 서독 기업들도 해외 공사를 수주하여 달러를 벌어들이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승만의 부탁을 받은 후버 박사는 한국의 철강 공장 건설계획을 서독 정부에 보고 했고, 서독 정부는 일본에서 활동하며 유엔군에 물자를 공급하던 유태인 중개상 아이젠버그를 교섭 상대로 내세워 적극적으로 수주활동을 벌였다.

1954년 실시된 대한중공업공사의 5만 톤 규모 평로 제강공사 국제입찰에는 미국, 스위스, 서독의 전문회사가 참여하여 경합을 벌였다. 그 결과 서독 최대의 제철시설 제조회사인 데마그사가 공사를 수주했다. 이어 1956년 2단계로 실시한 380만 달러의 압연공장 건설사업도 데마그사에게 돌아갔다.

이승만은 제강공장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인천의 대한중공업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작업을 독려했다. 마침내 1956년 하반기에 평로 제강공장 건설이 완공되어 첫 출강식이 거행됐다. 평로 제강공장에 이어 압연공장 건설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생산이 개시된 것은 1959년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철강 산업 발전의 결정적 전기가 된다.

정부는 철강공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산 20만 톤 규모의 제철소 건설 안을 마련하여 미국 국제원조처(ICA)에 건설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동해안에 건설하려 했던 이 제철공장은 코크스를 쓰는 용광로 제철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활용하는 전기제철공장 건설 안이었다. 문제는 이 공장에 소요되는 전력을 공급하려면 신규 발전소를 새로 건설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1958년 들어 대한중공업공사의 압연공장 건설공사가 진전되자 김일환 상공부장관이 서독을 방문하여 데마그사와 연산 20만 톤 규모의 제철소 건설문제를 협의하고 서독,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이 힘을 합쳐 국제차관단 조직 문제를 협의했다.

우리 정부가 6.25 직후에 외국 차관 한 푼 안들이고 순수한 우리 자본으로 제강공장을 건설한 것은 2차 대전 종전 후 후진국에서 벌어진 최초의 중공업 프로젝트였다. 이승만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를 물리치고 자체 보유 달러로 철강공장 건설이라는 결단을 내릴 정도로 국가 근대화에 모든 것을 걸었다.

철강공장 건설과정에서 수많은 한국의 기술자와 관리자들을 선발하여 국비로 서독에 유학을 보냈다. 김재관이 당시 국비 유학생으로 독일 유학생들을 경무대로 불러 일일이 장학증서를 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너라. 우리가 참다운 독립국가가 되려면 제철공장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그걸 해 내야 한다"며 어깨를 어루만져 주었다고 한다.

이 유학생들이 현대식 철강 산업을 배우고 돌아와 대한중공업 철강공장을 건설하는 주역이 됐고, 박정희 정권 시적 포항제철 건설에 대거 참여하여 '포항제철 신화'를 만드는 주인공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산업계 인사들은 "이승만이야말로 우리나라 중공업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라고 평한다.

- 김용삼 <이승만과 기업가 시대>

인용의 결미에 담긴 평가는 다소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히 한국 철강사에서 기억할 만한 일이다. '다소 무리한 평가'라는 것은 백덕현의 회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덕현은 포항제철 창업요원으로서 종합제철 설비기본계획을 최초로 만진 엔지니어였다. 뒷날에는 포항제철 기술부문 총괄담당 부사장과 포항제철소장을 지내고 대한금속학회 회장(1993년)도 역임했다. 그는 1932년 경기도 평택에서 출생해 6·25 때 고등학교도 덜 마치고 입대하여 통역장교가 되었으나 휴전 후 군복을 벗고 서울대학교 금속학과에 들어갔다. 1957년 대학을 졸업한 그의 첫 직장이 대한중공업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1957년, 한국은 '산업화'와 멀리 떨어져 전후의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나라였다. 다행히 나는 전공을 살릴 직장만 만났다. 대한중공업. 뒷날에 인천중공업, 인천제철, INI 스틸로 이름을 고치는 그 회사에서 중유를 때는 평로(철광석을 넣고 한쪽 면에서 연료를 공급, 가열하여 쇠물을 뽑아내는 편평한 용기형태의 로)가 있었다. 정부는 고철 수출을 금지하였고, 평로가 전국에서 실려 온 고철들을 녹여 댔다. 그러니까 창설 포스코의 기술부 차장을 맡은 당시, 나는 한번도 고로를 직접 본 적이 없는 엔지니어였다.

상공부 금속과장에서 옮겨 온 유석기 기술부장, 대한중석에서 옮겨 온 이상수 기술부 차장, 그리고 나. 포스코 최초의 설비기본계획을 맡은 우리 셋은 '이래선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데, 마침 박태준 사장의 방침에 따라 일본 연수를 떠날 수 있었다. 1968년 11월 김학기, 김종진, 김성수, 성병재 씨 등과 같이 출발한 우리 팀은 이듬해 2월에 돌아왔다.

처음 본 상대는 히로하타제철소. 고로 넷에 제강 둘의 조강 연산 400만 톤 규모였으니, 그때 수준으로는 세계적 대형 제철소인 셈이다. 무로랑제철소에도 갔다. 비로소 우리는 제철소에 대한 실감을 챙길 수 있었다.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이대환 편저 <쇠물에 흐르는 푸른 청춘>

출국과 귀국에서 루프트한자 항공기를 빌려 타고 1964년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 남짓 서독을 방문한 박정희의 뇌리에 강렬히 박힌 것은 최소한 세 가지였을 것이다.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 제철공장, 그리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피땀을 흘리는 우리 광부들과 간호사들. 아마도 눈물의 호수를 이루었던 광부들·간호사들과의 만남은 기필코 여러분의 조국에도 고속도로를 깔고 제철공장을

지를 것이며 반드시 근대화에 성공하겠다는 결의를 더욱 강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진정한 재건을 위해서는 국가이익 앞에 사리(私利)를 희생시키는 전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익을 위한 사리 희생, 국익 최우선주의. 이것은 박정희의 것이기도 하지만 박태준의 것이기도 했다. 박태준은 박정희 사후에도 34년을 더 지상에 머물렀지만 저 원칙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서독 방문 중에 박정희가 제철공장 건설에 대한 집념을 새삼 나타낸 것은 12월 11일 저녁이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1964년 12월 11일 박 대통령 일행은 베를린 공과대학을 방문한 뒤 지멘스 공장, AEG 전기공장, 독일개발협회를 방문·시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철강 산업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박 대통령을 공장으로 안내한 지멘스사의 브레마이어 소장은 “각하, 철강이 없으면 근대화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박정희는 브레마이어에게 “저건 짓는데 얼마나 됩니까”, “저건 어떤 요도로 운영되니까”등등 상세하게 질문을 했다.

오후 5시경, 박정희는 독일개발협회 시찰을 마치고 나오다 순간적으로 휘청거렸다. 박종규 경호실장이 박 대통령을 부축했다. 28시간의 불편한 비행, 그리고 방독 5일째까지 거의 휴식 없는 강행군으로 누적된 피로 때문이었다. 숙소로 돌아온 박정희는 이날 밤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주치의 지홍창 박사가 절대 안정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장기영 부총리와 박충훈 장관을 방으로 불렀다. 박정희는 두 사람에게 “기간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제철공장 없이는 안되겠구먼. 우리도 제철공장을 지어야겠소. 돌아가면 제철공장 건설계획을 세워 보고하시오.”라고 지시했다.

--<박정희> 제 7 권

12월 13일 아침의 교포 유학생 초청 조찬회에는 ‘한국 강철 산업 발전계획 시안’을 박정희에게 선물한 학자도 있었다. 그가 김재관 박사다. 뒷날에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한국표준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게 되는 그는 1962년 독일의 철강회사들이 한국의 울산종합제철소 건설 계획에 참여한 당시에 데마그 철강회사 소속으로 활동한 적도 있었다. 박정희와 김재관은 그날 아침에 짧은 대화를 나누고 굳센 약속을 하듯 악수를 나누었다.

“각하, 철강재는 공업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자금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입니다. 제 논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돌아가서 꼭 철강회사를 만들 생각입니다. 잘 보겠습니다.”

철강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박정희의 대답은 진심이였다. 자기 약속이고 자기 다짐이기도 했다.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확정할 때부터 포함시켰던 종합제철소 건설이었던 것이다. 그때 근대화를 성공하기 위한 기간산업 중의 기간산업으로 기름과 철강을 꼽으면서, 정유공장과 종합제철공장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박정희였다. 정유공장은 처음 의도와 달리 미국 자본을 끌어들이며 추진을 했지만, 제철공장은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실질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철은 산업의 쌀이다. 바늘, 나사에서 자동차와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조선, 철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에 철이 있어야 한다. 철이 없이는 생활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여전히 철기시대고, 철기시대에 철은 국가 기간산업 중의 핵심이다. 모든 산업을 이끌어 나갈 기초소재이기도 하다. 여기서 철의 가격과 질이 중요하다. 그것은 다른 산업의 성장과 직결된다. 그래서 종합제철공장은 산업의 견인차다.

종합제철은 철 생산의 모든 공정을 일관으로 처리하는 설비를 두루 갖춰 모든 형태의 제품을 생산함을 의미한다. 지금이야 ‘제철’ 하면 으레 종합제철을 말하지만, 1960년대에는 둘의 개념을 구분했다. 당시 한국에는 종합제철에 명실상부하는 제철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선·제강·압연 공정을 다 갖춘 종합제철소를 세워 안정적으로 ‘산업의 쌀’을 공급해야 했다.

한반도에 근대적 제철소가 처음 등장한 때는 1918년 6월로, 일본이 중국대륙을 지배하려는 장기적 포석으로 황해도 송림에 검이포제철소를 건설했다. 1일 생산량 150톤의 미국식 제 1고로를 세우고, 이어 같은 용량의 제 2고로까지 세워 쇳물을 생산했다. 후판공장은 5만 톤 규모로, 주로 함선 제조용 후판을 생산하다가 제 1차 세계대전 후에 군비를 축소하며 일본 해군 88함대 건조를 중지하자 1922년 조업을 중단했다.

만주사변(1931)에 이어 중일전쟁(1937)을 획책한 일본은 군사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937년에 쇳물을 연간 35만 톤 생산할 규모의 청진제철소를 건설했다. 항만을 갖춘 함경도 청진은 무산 지역의 철광석과 만주 길산의 연료탄을 활용하기에 알맞은 위치였다. 청진제철소가 제대로 가동되는 무렵에 이미 긴장을 넘어 대립으로 치달던 미·일 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미국은 대일 철강 수출을 축소하고 일본에 대한 전면적 고철 금수 조치를 단행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1943년 삼척에 제철소를 신설한 것도 군수용 철의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일본의 군사적 목적에 따라 한반도 북부지역에 근대적 제철소를 만들었으나 일본이 패망하여 일본인 제철 기술자들이 한꺼번에 돌아갔다. 광복 직후 분단된 남한엔 철강산업의 공동화 사태가 일어났다.

이는 그 후 20 년간 세 가지 문제를 고착시켰다. 철강산업 분야의 민족자본 전무, 철강산업의 북한지역 편중으로 남한 제철산업의 열세, 철강 기술 인력의 절대적 부족.

6·25 전쟁의 기억이 고스란히 반공으로 뭉친 남한에서 ‘눈앞의 적’이 월등한 철강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보 불안의 요인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방 이후의 20 년 동안 남한 정권이 철강산업에 무심했던 것도 아니었다.

이승만 정권은 1949 년 10 월부터 연산 1 만 톤 규모의 선철 생산을 목표로 삼화제철 삼척공장 20 톤급 소형 용광로 8 기, 조선이연금속 인천공장 50 톤급 평로 2 기 제강설비 보수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해 미완에 그쳤으며, 돌아가지 않는 제철공장마저 전화를 입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1952 년 ‘철강업 재건계획’을 입안해 삼화제철 삼척공장 복구공사를 시작했고, 전쟁 고철을 재생할 방안을 강구하려고 1953 년 6 월 조선이연금속 인천공장을 모체로 한 대한중공업공사를 발족했다. 휴전협정을 조인한 뒤에도 제철소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1954 년 9 월에 독일 데마크가 고철을 원료로 한 50 톤급 평로 1 기와 압연설비를 지었는데, 빈곤한 우리 정부의 외환보유고에서도 530 만 달러나 투입됐다. 1956 년 8 월에는 ‘철강개발 5 개년계획’을 입안하여 상공부가 1957 년 국제협력기금(ICA)과 접촉했다. ICA 자금 300 만 달러로 목호에 연산 5 만 톤 규모의 선철공장을 1962 년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1958 년에 ICA 자금 3 천만 달러와 내자 248 억 원을 들여 1965 년까지 연산 선철 20 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양양에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두 번의 희망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규모 제철소 건설 계획이었지만 외국 투자기관은 한국 제철산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물며 대형 종합제철소 건설을 꿈꿀 수 있었겠는가.

경제개발을 지상 최고의 가치와 명분으로 내건 박정희 군정은 1961 년 7 월 22 일 발표한 5 개년종합경제재건계획에 종합제철소 건설을 포함했다. 이는 1962 년 확정된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에서 핵심 사업의 하나로 확정된다. 연산 선철 25 만 톤, 강괴 22 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소를, 외자 3 천 200 만 달러와 내자 300 억 원(약 2 천 300 만 달러)을 들여 1962 년부터 1966 년까지 울산공단 안에 비료공장, 화학공장, 시멘트공장, 정유공장 등과 함께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외자는 외자유치위원회가 차관을 끌어오기로 하고, 내자는 부정축재자처리법이 환수한 국고를 바탕으로 주식 공모를 통해 유치하기로 했다.

군정은 제철산업의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이동준, 이정림 등 종합제철공장 건설팀은 서독에서 공장 건설에 필요한 상업차관을 도입하려고 당시 세계적인 철강기업인 독일의 데마크, 크루프, GHF 등

3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일부는 미국 철강업계와의 교섭을 추진했다. 1962년 3월 20일 교섭단의 일원으로 방미중이던 남궁연과 블로녹스의 스나이더 사장이 공동으로 '울산 철강공장건설 사업계획'을 발표했으며,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미국측에서 경제사절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1962년 4월 11일 최고회의는 종합제철소와 비료공장 건설에 우선 투여할 '부정축재 환수를 위한 회사설립 임시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4월 30일에는 종합제철 투자공동체 대표 이정림을 주축으로 한 '한국종합제철주식회사'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내자 총당의 구체적 절차를 밟았다. 5월 11일에는 6·25 전쟁 때 유엔군 사령관을 지냈던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을 단장으로 한 미국경제사절단 28명이 내한했다. 5월 15일에는 한국종합제철에 제 1회 불입금 약 39억 원이 입금되며 동시에 이정림이 사장으로 임명됐다. 5월 17일에는 미국경제사절단에 포함된 미국 철강업계 관계자들과 한국측 대표들이 만나 종합제철 건설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의 블로녹스, 코퍼스, 웨스팅하우스, 국제투자회사 등 4사가 공동 투자하고 코퍼스는 경영과 기술 협력을 담당하며 제철소 규모는 연산 35만 톤으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건설자금 중 외자 8천만 달러는 AID(미국의 국제개발처)차관 75%, 미국 민간자본 25%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박태준은 아직 이런 활발한 움직임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외자 도입의 길이 막혔다. AID가 한국의 제철소 건설을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자연자원이 빈약하고 원료수입을 감당할 수 없으며 일본과 상대가 되지 않아 건디지 못하므로 한국은 철을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했다.

1964년 11월 장기영 경제기획원 부총리는 침통한 표정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종합제철소 프로젝트를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올렸다. 박정희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12월 4일 제 102차 경제장관회의의 주요 안건은 '종합제철'이었다. 미국과 서독에 거절당한 한국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로 한다. 그러나 그저 원칙적인 방향의 되풀이에 불과했다.

이 경제회의가 끝난 직후, 박정희는 박태준에게 대한중석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임무를 맡겼다. 이때 그는 박태준을 대한중석에서 시험해보고 종합제철소를 맡겨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임명권자가 사장 내정자에게 앞으로 해외출장 나갈 기회가 있으면 선진 제철소를 유심히 살펴보라는 특별한 당부를 했기 때문이다. 제철소 건설을 위한 요란한 발표들이 모두 허사로 돌아간 직후, 드디어 박정희가 '박태준과 제철소'의 공합을 맞춰보는 것이었다.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종합제철을 맡기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때는 1965년 5월이었다. 그때 박정희는 한국의 베트남 파병 결정에 대한 미국 존슨 대통령의 답례 초청을 받아 방미 장도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무렵의 어느 날, 대한중석을 적자의 뉘에서 건져내는 데 몰두하고 있던 박태준이 대통령의 호출을 받았다. 대통령과 대한중석 사장의 독대. 이 자리에서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질문을 던졌다.

“전후 일본에선 제철소를 가장 잘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나?”

“제철소는 가와사키가 단연 최고인데, 니시야마 야타로 사장의 집념이 가와사키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박태준은 얼른 대답했다. 일본에 특사로 나가 있던 시절에나 대한중석 일로 출장 나간 동안에는 제철소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이다.

“니시야마 사장을 우리나라로 불러올 수 없겠나?”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제철소 건설 계획이 무산되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준은 종합제철소 건설에 대한 자신의 정리된 생각을 피력했다. 종합제철소는 소규모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장기적 안목에서 대규모로 건설해야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고 국가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자본도 기술도 선진국에 기대야 하는데,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의 장래와 직결된 문제이니 멀리 내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대한중석 사장은 종합제철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일차적 역할을 분담했다. 박정희는 방미 일정 중에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시 철강공업지대를 방문해 미국 철강업계의 지도자들과 접촉하기로 하고, 박태준은 일본 가와사키제철 니시야마 사장의 방한을 성사시키기로 했다.

일본은 패전 후에 조강 생산 능력이 연산 200 만 톤까지 떨어졌다가 1950 년에 500 만 톤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때 철강 강국은 미국, 소련, 독일, 프랑스, 영국 순이었다. 일본은 영국의 30%에 미달하는 수준에서 세계 6 위를 기록했다. 아직 중국엔 대규모 종합제철소가 없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중공이 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없다는 맥아더의 판단은 조강 능력만 봐도 정확한 것이었다.

6·25 전쟁의 특수와 더불어 경제 발전의 가속을 확보한 일본은 1960 년에 연산 2 천 200 만 톤을 돌파하여 미국, 소련, 독일, 영국에 이은 세계 5 위에 진입하고, 1964 년엔 연산 3 천 900 만 톤 규모에 이르러 독일을 제치고 세계 3 위의 철강대국으로 떠올랐다. 이때 미국은 연산 1 억 1 천 500 만 톤, 소련은 8 천 500 만 톤을 기록했고, 남한은 군소 제철소의 조강 능력을 합쳐도 간신히 연산 20 만 톤을 채우는 수준이었다. 북한은 연산 200 만 톤 이상을 생산하여 조강 능력에서 남한보다 10 배쯤 우위에

있었다. 전후 10여 년이 지난 1964년을 기준으로 보면, 조강 생산 능력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보다 상당히 열세였다.

그런데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탄력받는 한국에는 철강수요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었다. 1966년의 국내 조강 생산력을 고작 21만 톤으로 예견했지만 수입해야 할 철강은 45만 톤으로 전망했다. 더구나 산업화 궤도에 진입하면 철강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었다.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는 5월 22일 아침 일찍 피츠버그의 존스앤드 로린 철강회사에 들렀다. 그는 부러운 표정으로 공장 내부를 돌아보고, 수행원들은 단 하나라도 좋으니 우리도 이런 공장을 가져보았으면 원이 없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박정희는 박태준에게 일본 가와사키제철소 니시야마 사장을 방한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965년 6월 23일 니시야마는 청와대를 방문한 뒤 박태준과 함께 며칠 동안 한국에서 종합제철소 입후보지로 거론된 인천, 포항, 울산 등 5개 지역을 둘러보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박정희는 다시 박태준을 청와대로 불렀다.

“임자가 제철소 건설 계획단계부터 참여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해.”

“황무지를 개간하라고 하시는군요.”

“황무지는 뭐든 개간해야지. 나는 고속도로를 직접 감독할 거야. 임자는 제철소야. 고속도로가 되고 제철소가 되는 그날에는 우리도 공업국가의 꿈을 실현하게 되는 거지.”

박정희의 비밀 지시가 떨어졌다. 박태준의 공식 직함은 국영기업 대한중석 사장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동지적 연약이었다. 때가 무르익으면 박정희는 박태준에게 종합제철소 건설의 공식 직함을 부여할 테지만, 그 연약에 의해 이미 박태준에게 종합제철소 대임이 맡겨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종합제철소 건설에 대한 공식 직함이 없는 것. 이는 오히려 박태준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다. 만성적인 불합리 구조를 과감히 뜯어고쳐서 흑자체제로 돌려놓은 대한중석 경영에 전념하는 가운데 제철과는 한 걸음 비켜선 자리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견문하면서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물론 박정희도 박태준에게 바로 그러한 배려를 했을 것이고.

그날, 박태준은 연약 실행을 위해 즉각 ‘조용한 행동’을 했다. 대한중석 사장실로 돌아와 대한중석 부설 금속연료종합연구소 소장을 불렀다. 소장의 귀에는 전혀 뜻밖의 지시가 떨어졌다.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제철소 예비 건설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매주 진행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김철우 박사 회고>

2013년 12월 김철우 박사가 일본 도쿄에서 별세했다. 향년 86세(1926년 생). 그의 부음을 알리는 한국 언론은 ‘포항제철 1기 건설의 숨은 공로자’라는 감사의 말을 바쳤다. 재일 선인 2세 김철우, 용고로의 권위자. 2005년에 남긴 그의 회고에는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있다. 1960년대 중반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후락이 일종의 비선으로 가동했던 롯데제과 신격호 사장의 종합제철소 건설 타진, 그 시절의 박태준과 김철우의 도쿄 만남, 김철우의 개인사, 그리고 포항제철 1기 고로 건설에 크게 기여했으나 엄혹한 냉전시대에 오랜 기간 영어의 몸이 되어야 했던 김철우의 비극적 개인사 등이다. 1971년부터 포항제철 기술담당 이사로 있다가 1973년 졸지에 구속되어 1979년 석방된 그는 1982년부터 포항제철에 복직하여 1989년까지 부사장대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초대 원장 등을 역임했다.

사람에게는 탄생 선택권이 없다. 나는 1926년 3월 일본에서 태어났다. 집안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경남 의령, 어머니는 합천이 고향이다. 일찍이 부모께서 부관연락선에 몸을 실은 까닭은 순전히 ‘생계’문제였다. 일본으로 들어온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으나 가난을 벗진 못했다.

생활이 빈궁해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나는 금속학도의 길을 택했다. 도쿄공업대학, 도쿄대학 대학원을 거쳐 도쿄대 생산기술연구소에 자리를 잡았다. 첫 봉급은 1만 2000엔. 적었지만 드디어 식사는 제대로 할 만한 수준이었다. 장차 18년을 근무하게 되는데...

대한중석 박태준 사장과의 첫 만남은 1965년에서 1966년에 걸친 언저리였다. 대한중석의 도쿄 주재원 주영석 씨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고 약속된 호텔 식당으로 나갔다. 나의 봉급으로는 출입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이미 박 사장은 제철소에 관심이 많았다.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의 언질을 받았을 것이다. 나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후식으로는 못 본 과일이 나왔다. 내가 이름을 물었더니, 박 사장이 ‘망고’라고 알려 줬다. 이렇게 우리의 첫 만남에는 망고가 남았다. 가난하게 살아온 나는 그것을 ‘대단한 사람’이나 먹는 거라고 알았던 것이다. 그 뒤로는 대단해 보인 박 사장과 자주 만나게 되었다.

그때 박 사장이 왜 나를 찾았을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지만, 당시의 롯데 신격호 사장을 얼른 떠올리게 된다. 벌써 40년도 더 지난 어느 날, 신 사장이 비서를 시켜 만나자는 연락을 넣고 차를 보냈다. 울산이 고향인 그는 나에게 동향의 이후락 씨로부터 “한국에서 제철소 해 봐라. 박 대통령이 어떡하든 하라는 엄명이다”라는 부탁을 들었다며 도움을 청해 왔다. 나는 조국을 위해 좋은 일이니 도와 드리겠다고 답했다. 내 주변의 제철 전문가는 20명쯤 되었다. 특히 후지제철소 기술본부장으로 있는 은사가 중요했다.

은사의 소개로 신 사장과 함께 후지제철 나가노 사장을 만나러 갔다. 이때 나가노 사장에게 터키에서 온 제철소 관계자 얘기를 들었다. 50 만 톤짜리 제철소를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서 뜯어먹혀 20 만 톤도 어려우니 도와 달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나는 제철소 건설과 못난 권력의 위험한 관계를 알아챘다.

초콜릿과 껌과 과자로 일본에 널리 알려진 신 사장은 나가노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얇은 것은 잘 만들지만 두꺼운 것은 못 만드는데 한국 청와대에서 김철우 박사를 만나면 잘 풀릴 거라고 하여 오늘 여기 같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가노 사장이 소개한 사람이 뒷날 포스코의 JG 단장으로 오는 아리가 부장이었다. 그도 돕겠다고 했다. 물론 롯데와 제철소는 멀어졌다. 국가 기간산업을 개인 기업에 못 맡긴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윤동석 박사와 최형섭 박사는 나와 친했다. 두 사람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출장 가는 길에 중간기착지인 도쿄에 내리면 나를 찾곤 했다.

1967 년 어느 날이었다. 일본 제철소에 연간 10 만 톤의 철광석을 수출한다는 강원도 함태탄광의 김 사장이 나를 찾아왔다. 수입처에서 불순물을 핑계로 자꾸 가격을 깎으려 덤비니 우리 광석의 성분을 분석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조사해 보니 그런 것은 없었다. 오히려 슬래그를 부드럽게 해 주는 성분이 높았다. 그가 부탁한 내 이름의 확인서도 발부해 줬다.

이런 인연으로 도쿄에 들어오면 나에게 불고기를 대접해 준 그가 ‘제철소를 세우고 싶다’고 했다. 물론 소규모였다. 빙글빙글 돌려서 쇠물을 만드는 독일의 그룹식 제철법이어야 했다. 일본에는 한 곳이 있었다. 그의 초대를 받아 나는 일본인 전문가 한 명을 데리고 김포공항에 내렸다. 약속한 목적지는 강원도 함태탄광. 그런데 그쪽 임원이 아닌 두 사람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낯익은 쪽은 윤동석 박사, 낯선 쪽은 청와대 경제비서.

나는 윤 박사를 상대했다. 어떻게 알고 나왔느냐, 우리 정보기관이 다 안다. 웬일로 나왔느냐, 각자가 제철소 얘기를 듣고 싶어하신다…. 이런 대화를 나눴다. 나는 거절했다. 함태탄광 일로 약속했으니 거기 먼저 갔다가 시간이 남으면 얘기해 보자고 했다. 마중 나온 임원이 찢찢했다. 우리 일은 나중에 보아도 좋으니 어서 가 보라는 식이었다. 하지만 나는 강원도로 먼저 갔다.

그때 청와대로는 가지 않았다. 마침 베트남 대통령의 방한기간이라 박 대통령의 일정이 빡빡했다. 도쿄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서울로 돌아와 동행을 먼저 보내고 남산의 외교구락부로 갔다. 박태준 사장, 박충훈 상공장관, 윤동석 박사, 공항에서 기다리던 경제비서 등과 만났다. 기술문제가 대두됐다. 나는

교육을 시키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사람보다 한국인이 월등히 빨리 익힐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두뇌의 문제로 보았다.

KISA의 GEP 검토는 나에게도 맡겨졌다. 나는 후지제철소로 가져가 살펴보았다. 문제가 많았다. 기술도 최신이 아니었다. 이런 문제는 포스코에 전달됐다.

한국이 제철소 건설에 일본의 배상금을 쓰기로 하는 과정에 나는 큰 걱정부터 앞세웠다. 대표적으로 그때 인도네시아 정권은 권력자 개인과 정당이 그 돈을 뜯어먹었던 것이다. 나의 염려에 박 사장은 단호히 답했다.

“그런 실례가 있기는 있는데, 내가 맡은 이상 그렇게 못합니다. 김 박사는 나를 잘 모르실 겁니다. 한국에 오셔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박 사장에게 감명을 받았다.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놓았다.

1971년 도쿄대학에 휴직을 했다. 박 사장이 나를 포스코로 부른 것이다. 나는 비즈니스에는 소질이 없는 데다 학문의 길로 가겠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었기에 휴직을 했던 거고, 박 사장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 기술고문인 줄 알고 왔더니 기술담당 상무이사라는 명패가 책상에 놓여 있었다. 270만 톤 계획위원장도 겸했다. 박 사장의 뜻이었다.

그러나 나는 1973년 출지에 영어의 몸이 되었다. 북송선을 타고 떠났던 혈육들과 만나기 위해 1970년 북에 다녀온 사실이 나를 그렇게 몰아갔고, 출지에 나는 10년형을 선고받아 6년 6개월 지난 1979년 8월 15일 석방되었다. 곧이어 ‘법원의 판결을 무효로 한다’라는 사면복권을 받았다.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모르고 살아온 나의 실수가 그토록 가혹한 상황으로 몰아갔던 것은 분명히 극단적 냉전체제의 비극이었다. 일본 친구들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회복해 도쿄대에 복직한 나는 1980년 완전히 귀국하여 포스코로 돌아갔다. 나로 인해 출지에 고생한 고향 친척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다시 땀땀해져야 했다.

여든을 헤아리는 지금, 나는 대전에서 재단법인 한국테크노마트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아시아지역의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기술이전기관이다. 1964년에 우리말을 거의 못하는 공학도로서 처음 조국에 들어왔을 때, 나는 부산의 제일제당, 대구의 제일모직, 영월의 화력발전소 등으로 안내받았다. 기껏 그게 자랑거리인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 보여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는데... 오늘날의 번영 앞에서 나는 박 대통령의 공적을 높이 평가한다. 비록 그때 냉전체제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나긴 고생을 강요했지만 말이다.

“임자를 잘 알아. 말아! 뒤에는 내가 있어!”

국회에서 한일협정 비준안이 날치기로 통과돼 간신히 한일국교정상화의 길이 열린 1965년 9월, 정부 차원에서는 중합제철소 건설의 협조를 얻으려고 IBRD(세계은행)와 접촉하며 포이 회장과 만나는 등 다각적인 철강외교를 전개하고 있었다. 성과가 나왔다. 코퍼스는 한국의 중합제철소 건설을 지원할 국제차관단을 구성하려는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고, IBRD는 한국의 100만 톤 규모 중합제철소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피츠버그의 한 귀퉁이를 한국의 어느 해안에 옮겨놓는 일과 진배없는 대역사의 엔진에 막 시동이 걸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번엔 순탄하게 전진할지, 과거에 그랬듯이 얼마 못 가서 다시 시동이 꺼질지 아직 판단할 수 없었다. 다만 희망을 걸어야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에서, 1965년 늦가을 청와대와 한국 경제부처는 중합제철소 건설에 대해 ‘이제 뭔가 되어가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이 시기에 박태준은 박정희의 승인을 얻어, 일본정부에 중합제철소 건설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단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9월 16일 니혼강관의 도야마를 단장으로 하고 일본 내 철강 대기업 6개사에서 추천한 조사단 10명이 서울로 왔다. 그들의 역할은, 미국과 유럽이 내놓은 타당성 조사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최적의 비교자료를 만드는 것이었다. 마침 대한중석은 만성적자를 완전히 벗어나 순이익 12억 원의 흑자를 향해 순항하고 있었다.

중합제철소 건설계획의 실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가까스로 ‘사업타당성 조사 실시’라는 첫 관문을 통과하던 1965년 10월,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은 벌써 1967년 5월의 대통령선거와 6월의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할 계획을 짜고 있었다. 1965년 12월 김종필이 당의장에 복귀하였다. 1966년 중반까지 이·동 단위 세포조직까지 만들어 120만 당원을 확보하려는 공화당의 계획은 막대한 정치자금을 부르고 있었다. 그것이 나울 큰 구멍은 셋이었다. 민간기업에 상업차관의 길을 열어주고 챙기는 알선 수수료, 국영기업에서 빼내기, 은행대출의 알선 수수료.

1966~67년의 한국에는 그러한 구멍들이 갖춰져 있었다.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의 선물이었다. 1966년에 1차 연도 청구권 지불을 시작한 일본은 1967년까지 2년 동안 총 1억 850만 달러의 민간차관을 제공했으며, 1965년에 이은 1966년의 대규모 베트남 파병을 통해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 의사를 확인한 여러 서방국가는 한국에 대한 상업차관 제공을 주저하지 않았다. 1968년판

『합동연감』에 의하면, 1966~67 년의 한국은 미국에서 1 천 990 만 달러, 서독에서 5 천 310 만 달러,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390 만 달러, 영국에서 250 만 달러, 기타 국가에서 4 천 120 만 달러 등 총 2 억 5 천 610 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들여올 수 있었다. 외국 차관을 들여오는 한국 기업은 정부의 인가를 얻으려고 일정비율의 뇌물을 바쳐야 했다. 반대급부의 비율을 10%로 잡아도 2 천 560 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셈이다. 이렇게 1966 년의 집권당은 이승만 정권처럼 군부까지 들볶을 필요도 없이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이 불러들인 경제부흥의 조류에 그물을 쳐두고 적절히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한국경제가 성장의 토대를 준비하고 한국정치는 갈등의 뿌리를 키우던 1966 년, 박태준은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제인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 대한중석을 단기간에 정상화하면서 흑자로 전환시켜, 실제 경영수입 기간에 탁월한 성적을 거둔 최고경영자로 거듭났다. 대한중석을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는 종합제철소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1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의 종료를 여섯 달쯤 앞둔 1966 년 6 월부터 종합제철소 건설계획의 속도가 다시 붙었다. 정부는 몇 차례 회의를 거쳐 국제차관단 구성을 더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6 월 22 일 경제기획원 부총리 이름으로 미국의 코퍼스·블로녹스·웨스팅하우스, 독일의 데마크·지멘스, 일본의 야하타제철·히다치조선소·미쓰비시전기공업 등 8 개사에 국제차관단 구성에 관한 동의서를 발송했다. 7 월 21 일 경제기획원은 차관단에 종합제철소 건설사업을 위임한다는 계획안을 확정했다. 50 만 톤 규모의 1 차 설비를 1966 년에, 같은 규모의 2 차 설비를 1970 년에 각각 착공하고 외자 1 억 3 천 892 만 5 천 달러와 내자 2 천 350 만 8 천 달러를 조달하며 입지 후보지는 울산 태화강 동쪽, 부산 해운대의 공업지대, 삼천포, 기타 순위로 조사한다는 내용이었다. 1965 년 늦가을의 ‘뭔가 되어가는 분위기’가 비로소 계획서로 등장한 것이었다. 다만 이번에도 변하지 않는 문제의 핵심은, ‘한국 종합제철소 탄생’이 ‘외국인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점이었다.

경제기획원은 의욕적으로 계획을 밀고 나갔다. 8 월 9 일 미국 코퍼스를 중심으로 9 월 15 일까지 국제차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10 월 들어도 성사는 불투명했다. 일본이 소극적으로 나왔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한국정부 요청으로 사업조사단을 파견하고 조사보고서까지 제출하며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일본은, 차관단 구성의 주도권이 미국 코퍼스로 넘어간 것이 불만이었다. 11 월 16 일 장기영 부총리는 일본 업계의 참여를 기다리지 말고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회사들을 망라한 국제차관단을 조기에 구성하라는 공한을 코퍼스 포이 회장에게 발송했다. 이에 따라 미국 피츠버그에서 한국 종합제철소 건설 지원을 위한 국제차관단 구성회의가 개최되었다. 코퍼스·블로녹스·웨스팅하우스

등 미국의 3 개사, 독일의 데마크·지멘스, 영국의 엘만, 이탈리아의 임피안티 등 4 개국 7 개사가 나흘간 협의 끝에 마침내 대한국제제철차관단(KISA : Korea International Steel Associates)을 정식으로 발족했다. 한국 언론에 ‘종합제철소 건설의 찬란한 무지개’처럼 보도되었던 제 1 차 KISA 회의 합의사항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을 위해 차관단이 1 억 달러, 한국이 2 천 500 만 달러를 출자하여 차관단과 한국 정부가 합의한 장소에 1967 년 봄까지 공장을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었다.

해가 바뀌었다. 한국이 종합제철소 건설의 운명을 백인들만으로 구성된 KISA 의 손에 맡겨놓은 1967 년 새해 벽두, 북한은 철강 생산에 신명을 올리고 있었다. 1967 년 1 월 2 일 노동신문은 제 1 면을 ‘철’로 장식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튼튼히 틀어쥐고 새해, 새 전투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는 제하에 황해제철소 천리마강철직장 2 고로 철로공들의 새해 첫 작업 모습의 사진을 곁들였다. 황해제철소 강철전사들은 새해 첫날 계획을 강철은 106.7%, 선철은 114.3%로 넘쳐 수행했다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필요한 강철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는 데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것을 의심할 바 없다고 했다. 이른바 ‘천리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전후복구사업의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한 경제로 진입하려고 몸부림치는 평양 정권도 철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967 년 1 월 16 일 독일 뒤스부르크에서 제 2 차 KISA 회의가 열렸다. 프랑스의 앙시드가 추가로 참여해 KISA 는 5 개국 8 개사가 되었다. 제철소 건설에 필요한 제반 설비의 국가별 공급내역을 할당했고, 영국은 2 천만 달러 차관제공에 대한 정부 승인을 통보했으며, 2 차 회의의 후속조치로 코퍼스 대표단이 내한하여 소요내자 조달 방안과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제 3 차 KISA 회의는 3 월 13 일부터 사흘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한국의 제철소 건설에 필요한 외자 규모를 총 1 억 달러로 정하고 미국 30%, 독일 30%, 이탈리아 20%, 영국 20% 등으로 분담할 것을 확정했다. ‘뭔가 확실히 되어가는 분위기’가 잡히고 있었다. 그러나 모호했다. 무엇보다도 ‘책임소재’가 빠져 있었다. 제때 조달하지 못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것이 없었다.

3 월 7 일 한국정부는 기쁜 소식을 받았다. 한국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GATT)에 가입되었다. 1995 년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될 때까지 세계무역의 질서를 관장한 GATT. 자주와 주체를 외치는 평양 정권은 가입할 생각도 없고 가입할 방법도 없는 GATT. 여기에 세계 70 번째 나라로 가입한 대한민국. 이 가난하고 조그만 신생독립의 분단국가가 세계로 진출할 그 장사의 길을

민족중흥의 기회로 삼겠다며 주먹을 쥐고 술잔을 올렸다. 그 결의가 식지 않은 서울로 KISA 일행이 들어왔다. 4월 6일 오전 8시 30분 경제기획원에서 한국 장기영 부총리, KISA 대표 포이 회장이 ‘종합제철소 건설 가협정’을 체결하였다. 포이가 최종으로 내놓은 예비제안서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였다. 1차 50만 톤 규모 건설비에서 외자 소요를 2천 500만 달러 더 늘린 1억 2천 500만 달러로 추정한 것, 차관단이 소요 외자에 대한 차관을 주선한다는 것. 더구나 ‘차관’의 조건까지 등장했다. 미국과 서독이 각 30%, 이탈리아와 영국이 각 20% 조달하되 조건은 연리 6%로 3년 거치 12년 상환으로 한다는 것. 서명을 마친 두 사람이 환히 웃는 모습은 길이 남을 만한 역사적 장면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소요예산 추정치는 박태준이 용역을 맡긴 일본조사단의 그것보다 너무 높았다. 단번에 100만 톤을 짓지 않고 두 단계로 나눈 경우에도 일본의 것이 35%쯤 낮은 건적이었다. 한국정부는 깜짝 놀랐다. 박태준이 ‘속지 않기 위한 장치’를 적기에 잘 마련해둔 것이었다. 이래서 박정희는 그에게 “계획 단계부터 직접 챙겨 보라”는 지시를 했을 것이다. 몇 달 뒤에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 의뢰한 ‘종합제철소 건설계획 타당성’ 조사결과도 나왔다. KISA의 계획대로 50만 톤씩 쪼개서 건설하지 않고 단번에 100만 톤 규모로 건설하면 총 공사비의 30~35%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견해였다. 이것이 알려지자 한국 언론들은 KISA의 건설비 추정치와 높게 책정된 차관금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종합제철소 건설은 때마침 불어오는 ‘선거의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아가고 있었다. KISA와의 가협정에 나온 대로 7월에 착공하자면 입지 선정을 더 늦출 수 없는 시기였다. 이미 자료는 준비되어 있었다. 몇 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 보고서, 2월에 내한했던 코퍼스 기술진이 남한 전역을 답사한 결과 보고서. 가장 유력한 종합제철소 후보지는 삼천포와 울산으로 떠올라 있었다. 포항, 포항의 북방 20km에 위치한 월포, 군산, 보성도 포함되었다. 울산은 곧 제외되었다. 제철소까지 유치하기에 울산공단은 협소하다는 의견이었다. 5월 11일, 제 6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바로 그날, 건설부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이들 5개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와 비교검토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 후보가 재대결한 대선의 결과는 1963년에 비해 판이해졌다. 4년 전에는 박 후보가 윤 후보를 아슬아슬하게 역전승한 박빙이었지만, 이번엔 박 후보가 유효투표의 51.4%를 획득하여 41%를 얻는 데 그친 윤 후보를 압도했다. 도시지역 득표율에서도 박 후보가 윤 후보를 앞질렀다. 1963년엔 도시지역에서 37.7%밖에 득표하지 못한 박 후보가 이번엔 50.4%나 얻으면서 서울에서도 49%를 득표한 윤 후보에 비해 3% 뒤진 4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경제개발’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반영한 결과였다.

6월 8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다. 종합제철소 후보지로 떠오른 지역의 여당 후보는 '제철소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객관적 실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던 삼천포의 공화당 중진 김용순 후보는 그것을 제 1 공약으로 내걸었다.

6월 21일 종합제철소 부지선정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부지조성, 공업용수, 항만, 전력 등 4개 부문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포항이 1위를 차지했다. 위치는 현재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정동과 동촌동 일대의 영일만 안쪽 모래사장. 남한 10대 하천에 꼽히며 일찍이 찬란한 신라문화의 젖줄이 되었던 형산강 하구 옆의 모래로 된 대지였다. 신라인이 일본에 빛(문명)을 전하고 그곳의 왕과 왕비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삼국유사』의 첫 장을 장식하는 「연오랑·세오녀 설화」. 그것의 배경인 곳이다. 삼천포의 김용순은 지역민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삭발했다. '영일만 모래밭'에는 일찍이 그 모든 것을 예언한 시(詩) 한 편이 있었다.

竹生魚龍沙 어링불에 대나무가 나면
可活萬人地수 만 사람이 살 만한 땅이 된다
西器東天來 서양문물이 동쪽나라로 올 때
回望無沙場 돌아보니 모래밭이 없어졌구나

정확한 연대는 미상이지만, 조선 후기 풍수지리가로 알려진 이성지가 송정동 일대의 영일만 백사장을 둘러보고 남긴 예언의 시다. '어룡사'란 그 백사장의 이름이다. 포항 사람들은 바다와 백사장을 통틀어 '불'이라 했다. 그래서 어룡사는 '어룡불'로 불렸고, 그것이 간이화 발음으로 '어링불'이 되었다. '죽'은 제철공장의 숯한 '굴뚝'을 비유하고, '서기'라는 서양문명은 물론 '종합제철소'를 뜻한다. 몇 년 뒤의 일이지만, 그의 예언대로 과연 '어링불'은 가뭏없이 사라져버렸다.

제철소 입지 결정은 결과적으로 비정치적이고 과학적이었다. 그러나 과정에는 김용순 의원의 삭발 사과가 보여주듯 정치권력의 치열한 유치경쟁이 개입했다. 박태준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다. 아직 종합제철에 대한 어떤 공식적 직함도 없었지만, 그래서 정부 관료들의 회의에 직접 참석한 적도 없었지만 '박정희와의 그 언약 실행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기 위해서라도 정치논리가 입지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과 합리성을 갈아뭇개는 것을 막아내는 데 적극 앞장서야 했다. 제철소는 입지선정이 곧 성패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공부해둔 사람으로서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을 찾아가기도 했다. 이런 증언이 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포항이 아닌 곳을 지목했다. 경제기획원은 삼천포를 지목했다. 박태준은 박 대통령에게 포항이 제철소가 들어서야 할 적지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당연히 다른 지역을 천거한 각료나 의원들로부터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의 주장은 후에 입증되었다시피 정말 타당했다. 최종 선정지가 포항으로 결정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서, 무엇보다 그에 대한 박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맹기(전 해군 제독), 『우리 친구 박태준』

종합제철소 부진 선정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도 남았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박태준도 가장 적합하다고 한 ‘포항’을 택하기 위한 박정희의 기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당시 정계 실력자들 사이에서는 종합제철소 유치경쟁이 치열했다. 충남 비인은 김종필 의장의 연고지, 울산은 이후락 실장의 고향, 삼천포는 박 대통령의 대구사범 동창생이자 재계의 막후인물인 서정귀의 연구지 하는 식이었다. 포항만은 아무도 미는 사람이 없었다. 정부가 후보지 18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포항이 가장 적합한 곳으로 나타났다.

어느 날 박 대통령은 황병태 국장을 부르더니 김포로 가는 자신의 차에 동승하게 했다. 차중에서 대통령은 황병태의 무릎을 잡으면서 말했다.

“황 국장, 소신대로 이야기해주어야겠어. 종합제철 입지를 놓고 말이 많은데 어디가 제일 좋아?”

“다른 데는 미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포항이 제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용역회사 보고서도 수심이 깊은 포항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알았네. 포항은 미는 사람이 없으니 자네가 미는 걸로 하지. 나중에 경제동향보고회의 때 자네를 부를 테니, 그때 소신대로 이야기하게.”

며칠 뒤 월례 경제동향보고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황병태는 맨 뒷자리에 있었다. 보고를 경청하고 지시를 내리던 박대통령이 갑자기 “뒤에 황국장 있나. 이리 나오게”라고 말했다.

“요새 종합제철소 입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떨가.”

“실무적 입장에서는 포항이 적지라고 판단됩니다.”

“왜?”

“바다 수심이 깊어 배가 드나들기 용이하고……”

황 국장은 미리 준비한 대로 자세하게 설명해갔다. 다 듣고 나서 박 대통령이 말했다.

“좋아. 그러면 포항으로 하지.”

아무도 이견을 말하지 못했다.

--<박정희> 제 8 권

KISA와 맺은 가협정이 출발 단계부터 말썽을 일으켰던 탓이었을까. 제철소 입지선정을 마친 뒤 그들이 약속한 ‘착공의 7월’을 맞았으나, 7월이 다 지나도 한국정부와 KISA는 가협정 다음의 기본협정조차 체결하지 못했다. 초조한 쪽은 한국정부, 특히 청와대의 주인이었다. KISA와의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단을 미국으로 급파할 수밖에 없었다.

1967년 8월, 경제기획원 경제협력국장 황병태를 단장으로 한 실무교섭단이 도미를 앞두고 청와대로 들어섰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는 마침내 승부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참석자들에게겐 불쑥 내민 것으로 보였겠지만 비장의 카드였다.

“대한중석은 2년 반 동안 박태준 사장이 경영을 잘한 결과 재무상태가 매우 건실해졌고, 더구나 박 사장은 제철소 프로젝트에 필요한 리더십과 뛰어난 경영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KISA와 체결한 문서가 정확한 눈과 처음 만날 시간이 다가오는 즈음, 대한중석 사장 박태준은 아시아, 미주, 유럽을 순방하고 있었다. 이듬해의 중석판매 협상을 위한 긴 여행이었다. 9월 8일 런던 메탈마켓센터에서 한창 협상을 진행하던 박태준은 한 통의 전문을 받았다. 장기영 부총리의 지시를 받아 대한중석 고준식 전무가 띄운 것.

대한중석이 종합제철소 건설사업의 책임자로 선정되었음. 박태준 사장은 종합제철소 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었음. 즉시 귀국 바람.

3대 조건도 담고 있었다.

대한중석은 외국차관협상과 교섭문제를 관장한다.

대한중석의 정부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은 제철소건설 프로젝트로 전용기로 한다.

대한중석이 종합제철소 건설자금의 내자 충당분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를 정부의 재정자금에서 충당기로 한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기어코 올 것이 왔다고 받아들인 박태준은 문득 자신의 나이를 생각했다. 마흔 살, 공자 말씀의 불혹(不惑)이었다. 흔들림 없이 무슨 일에도 도전할 나이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여유와 심사숙고로 이어졌다. 더구나 종합제철이 하루 아침에 될 것도 아니고 이미 대통령에게 받아둔 특명이었으니 남은 일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회신은 간단했다.

정부가 제시한 3대 조건대로 한다면 그 일을 맡겠음. 그러나 즉시 귀국하기는 불가능함.

대한중석 사장으로선 박태준에겐 아직 만나기로 약속한 한국산 텅스텐 수요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고로의 원조로 알려진 영국의 종합제철소도 살펴보고 싶었다.

종합제철소건설추진위원장 내정자가 유럽을 돌아다니고 있는 동안, 미국 피츠버그로 날아갔던 황병태 일행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9월 25일 코퍼스 샌드빅 부사장을 비롯한 KISA 대표 3명이 기본계약서 수정안을 들고 서울로 들어왔다. 다소 진전된 안이었다. 1억 3천 70만 달러를 들여 연산 60만 톤 규모의 1단계 제철소를 1972년 9월에 완성하며, 국제차관으로 9천 570만 달러, 한국 정부가 내자 3천 500만 달러를 조달한다는 것. 처음 제시했던 안보다 생산규모는 20% 늘리고 건설비용은 20%쯤 줄인 내용이었다.

샌드빅 부사장은 IBRD의 건의서도 지참했다. 차관의 열쇠를 쥔 것과 진배없는 IBRD는 네 가지 주의점을 환기시켰다.

공장을 두 단계로 건설할 것(단계적 제한 계약으로 할 것).

계약 수행을 위해 국제적인 컨설턴트를 고용할 것.

최근에 차관단이 건설한 터키, 브라질, 인도의 제철소를 견학할 것.

제철소 가동 초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부기관과 관리 용역 계약을 할 것.

한국정부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IBRD의 충고는 한마디로 ‘너희는 외자도입과 거대 제철소에 대한 경험도, 능력도 없으니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하고 먼저 지은 공장에 찾아가 착실히 견학부터 해두라’는 지시였다. 한국의 상공부는 순순히 터키 에르데미르제철소로 방문단을 파견했다.

9월 28일 KISA 대표와 한국 협상대표가 기본계약서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언론사의 카메라들이 출동해 그 모습을 담았다. 한국산업화 역사의 귀중한 사료로 남을 만한 장면이었다. 5·16 이후부터 계산해도 장장 7년 가까이 끌어온 대규모 종합제철소 건설계획. 마침내 기공식의 팡파르만 남겨둔 것 같았다.

9월 30일 박태준은 김포공항에 내려 장기영 부총리실로 갔다. 포항종합제철 기공식을 사흘 앞둔 날이었다. KISA와의 합의각서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거행되는 기공식. 날짜의 명분은 ‘개천절’이었다. 단군 이래 단일 규모의 최대 역사, 단군 이래 최초의 현대적 일관제철소 건설, ‘산업의 쌀’을 생산하는 국가기간 공장 건설. 이것만으로도 개천절에 기공식을 열어야 하는 이유는 충분했다.

장기영은 기나긴 산고를 거쳐 귀하다 귀한 옥동자를 얻은 어머니 같은 표정으로 박태준을 맞아 KISA와의 합의각서를 내밀었다. 건설추진위원장 내정자이니 당연히 서명해야 한다고 했다. 부총리가 귀국선물처럼 내놓은 그것을, 그러나 박태준은 그대로 받을 수가 없었다. 전혀 뜻하지 않은 거절에 장기영은 어안이 병병할 노릇이었다.

“아직 정식발령을 받지 않았으니 서명할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합의각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함과 완벽함을 일의 원칙으로 삼는 박태준의 의사는 완강했다. 전자는 명분이었고, 후자는 속뜻이었다.

“박 사장, 기공식이 사흘 앞입니다. 기공식 행사는 물릴 수 없습니다. 우선 건설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여기에 서명하시고, 합의각서는 천천히 검토하시는 것이 어떨소?”

“아닙니다, 추진위원장에 임명되면 저는 제철소 건설에 대한 전부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각서를 세밀히 검토하고 나서 다음의 일을 결정하겠습니다.”

부총리 집무실을 나온 박태준은 기본계약서 합의각서 사본을 들고 미국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를 찾았다. 김흥한 변호사가 있었다. 그는 곧바로 달려갔다. 여독이 덮쳐왔으나 합의각서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청와대로 불려갔다. 박정희가 따뜻하게 맞았다. 대한중석의 합리화에 대한 덕담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종합제철 사명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선언했다.

“오래 기다리고 준비했는데 이제 때가 됐어. 나는 임자를 잘 알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떤 고통을 당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기 한몸 희생할 수 있는 인물만이 할 수 있어. 아무 소리 말고 말아. 임자 뒤에는 내가 있어. 소신껏 밀어붙여 봐.”

박태준은 가슴이 멎었다. 순간적으로 내면의 저 밑바닥에서 불덩이 같은 무엇이 솟아올랐다.

이튿날 박태준은 김홍환 변호사를 만났다. 김 변호사의 의견은 그의 우려와 일치했다. 합의각서에는 5 개국 8 개사의 자금 조달시기·배분율, 책임소재 등에 대한 명시가 없다고 했다. 특히 자금도입에 대해 한국정부가 ‘공동책임’을 진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차관이 안 e]는 경우에 한국정부의 무능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함정이었다. 언제든 KISA 가 마음대로 발뺌해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제약을 걸 수 없는 약정이었다. 이런 문서에 등장하는 ‘최선을 다한다’란 말과 똑같은 차원의 치명적 결함이었다.

박태준은 부총리 집무실로 찾아갔다. 합의각서의 심각한 결함에 대해 단단히 확인할 작정이었다. 미리 약속 안 된 내방객을 비서가 막아섰다.

“지금은 만날 수 없습니다.”

박태준은 눈썹을 치켜세웠다.

“이봐, 제철소는 국가적 중대사야! 그런데 도대체 진전은 없고 합의각서도 엉터리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직접 물어보려고 왔어!”

그의 목소리가 비서실을 찌렁찌렁 울렸다. 다른 사무실의 귀들을 쫓긋 일으키기에 충분한 고함이었다.

“아무리 그러시더라도 갑자기 오셨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합니다.”

“뭐? 안에 손님이 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들어가신 분이 나가셔야 합니다.”

“웃기지 마! 어제 기분 나쁘게 했다, 이거잖아. 저리 비켜!”

거듭된 그의 고함에 다급한 구둣발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옆방에 있던 김성곤이었다.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정치자금 문제로 박태준을 괴롭힐 악역이 되는 이가 갑작스런 소란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부리나케 달려 나온 것이다.

“어디 한번 봐!”

박태준이 부총리실 문을 열었다.

“야, 임마! 손님이 어딤어! 너희 같은 인간들을 그냥 두면 내가 역적이 되는 거야!”

그의 손목을 붙잡는 손이 있었다.

“박 장군, 참아야 합니다.”

김성곤이었다.

이 일화는 날이 갈수록 퍼져나가 포항제철이 종합착공식을 할 무렵엔 한국 재계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장기영은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박태준에게 기공식에 참여하라는 종용을 접지 않았다. 그는 귀를 닫았다. 이번엔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았다’는 명분을 아예 들먹이지도 않았다. 종합제철소 건설의 실질적 책임자가 될 사람으로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도 없이 무작정 기공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뚝 부러지게 밝혔다.

그의 기공식 불참 통보는 곧 박정희의 귀에 들어갔다. 10 월 2 일 오후에 그는 청와대로 불려갔다. 대통령이 화를 삭이는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왜 반기를 드나? 이것 봐,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 그렇게 해서 적을 너무 많이 만들면 일도 제대로 끌고 갈 수 없잖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포항 가서 기공식부터 원만하게 끝마치고 오게.”

그는 애써 언성을 낮추는 대통령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민망스러웠다. 그의 속엔 두 세력이 겨루고 있었다. 국가대사를 위해 이실직고하느냐, 상대가 없는 자리에서의 비판을 자제하느냐. 그는 몇 번이나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남을 혈투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공연한 트집을 잡고 싶은 생각은 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각서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첫걸음부터 허술하면 국가대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박태준은 찬찬히 합의각서의 허점을 지적했다. 주의 깊게 듣는 박정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내가 한번 볼 테니 놓고 가게.”

종합제철소건설추진위원장 내정자 박태준은 포항으로 내려가지 않을 결심이었지만, 대한중석엔 이미 종합제철 실무팀이 구성되어 있었다. 9 월 11 일 대통령이 월간 경제동향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한중석을 종합제철의 실수요자로 지정한다고 공표한 뒤, 대한중석 고준식 전무가 유럽에 체류 중인 사장과 연락을 취해 진작부터 구상해 두었던 조직을 즉각 가동했던 것이다. 종합제철 실무팀은 고준식 전무 밑에 황경노 관리부장이 팀장, 노중열 개발실장이 부팀장을 맡았다.

1967 년 10 월 3 일 뜻깊은 개천절 오후 2 시에 종합제철 기공식이 포항시 공설운동장에서 성대히 열렸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기획원 부총리, 건설장관, 상공장관, 재무장관 등 정부 각료들이 천막을 지키고 코퍼스의 샌드빅 부사장을 비롯한 KISA 대표단, 전력회사·건설회사·무역회사의 임원들 등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했다. 내빈 소개를 맡은 경북 지사가 종합제철추진위원장을 호명하지

않았지만, 주민들과 내외 귀빈들은 그 점을 의아해하지 않았다. 한 사람만 확실히 알고 있었다. 장기영 부총리. 기공식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자신의 해임소식을 들었던 그는 대범하게 감격적인 치사를 했다.

한반도에 하늘과 땅이 열린 지 4 천 300 년 만에 우리는 마침내 선진국들의 도움을 받아 종합제철소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제 2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의 성패가 이 제철소 건설에 달려 있는 만큼 강철같이 굳센 책임감과 철석같은 단결로 우리의 과업을 성취해나갑시다.

그때 박태준은 서울 대한중석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장기영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한 노릇이었으나 국가대사를 위해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당시 그에게 남은 인간적 과제는 해임된 부총리와의 악연 아닌 악연을 푸는 일이었고, 들이닥친 태산 같은 국가적 과제는 기공식까지 거행했는데도 자금, 기술 모두 오리무중에 빠져 있는 종합제철소의 암담한 내일을 타개해나가는 일이었다.

10 월 8 일 대한중석은 KISA 와의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권을 위임받았다. 박태준은 KISA 와의 기본협정 체결을 연기하면서 굴종에 가까운 타협을 단호히 배제했다. 생각할수록 KISA 가 괴심했다. 감정을 앞세울 일은 아니지만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새로운 실무책임자로서 KISA 에 합의각서의 내용과 조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외국차관 도입 보장’을 요구했다. 5 개 회원국이 못하면 8 개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5 개국이든 8 개사든 ‘책임조달’을 약속하지 않았다. 자금 회수가 불확실한 가난한 나라의 대형투자에 들어갔다가 크게 손해 보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박태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합의각서에 나온 대로 기본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우리의 요구조건을 강력히 밀어붙여 관철해야 한다고 버텼다.

11 월 8 일 박정희는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박태준을 종합제철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추진위원회는 정부관료, 학자, 민간인 대표 등 12 명으로 구성되어 정부 부처 간 업무조정과 외부자금 조달에 대한 자문 기능을 맡았다. 그는 이를 만에 곧바로 첫 실무회의를 소집했다. 주제는 종합제철소건설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규모와 정부의 예산규모에 대한 논의였다.

박태준의 예상대로 첫 실무회의부터 관료와의 격렬한 설전이 벌어졌다. 공무원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 단일 프로젝트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려는 관료주의와의 첫 논쟁의 대상은 ‘항만시설의 규모’였다. 건설장관은 항만규모를 일차로 5 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건설하고 나중에 증설이 필요해지면 8 만 톤 또는 10 만 톤급 규모로 늘려가자고 했다. 추진위원장은 10 만 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만들고 앞으로 25 만 톤급 규모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건설해야 한다고 맞섰다.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먼저 고려하는 쪽은 제철소 현실에 대한 공부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포부가 없는 반면, 상대는 그 둘을 겸비하고 있었다. 세계 각국의 제철소 실태를 조사한 박태준은 5만 톤급 규모의 항만시설은 너무 협소하여 제철소규모도 확장할 수 없으며 경제성도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챙기고 있었다. 또한 그는 제 2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의 핵심 사업인 대규모 종합제철소를 성공시켜 단순히 수입대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철강을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고 있었다. ‘저비용 고품질’의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대한민국. 이 꿈이 불혹(不惑)의 생일을 막 넘긴 그의 가슴에 커다란 알처럼 숨쉬고 있었다.

첫 실무회의의 결과를 보고받은 박정희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제철건설 일반지침’을 관계자들에게 배포했다. 제철소 건설에 실수요자의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부담 한계를 초과한 부족액은 정부가 보전하며, 국내 철강업의 합리적 육성을 위해 철강공업 육성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박태준은 추진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률행위와 금융행위에 장애요소가 많다고 판단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중심이 되어 회사설립의 문제를 검토하게 만들었다. KISA의 야박하고 모호한 태도로 차관 도입이 여전히 불안한 미해결의 과제로 남긴 했지만, 이렇게 1967년 11월 들어 포항에 종합제철소를 세우겠다는 유사 이래 최대 공사는 ‘뭔가 실제로 되어가는 모양새’를 갖추는 중이었다.

박태준 앞에는 종합제철소 건설과 관련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당장 덤벼야 할 시급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다. 대한중석 주주 설득, 회사설립의 형태, KISA와의 교섭.

대한중석에는 민간 주주들이 있었다. 당연히 그들은 대한중석의 이익 잉여금과 보유자금을 종합제철소 건설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대주주인 정부의 일방적 횡포라면서 먼저 주총을 열어 현재의 사업항목에 종합제철사업을 추가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부터 물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자신들의 배당금을 날리고 회사의 경영상태를 다시 악화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이는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훨씬 더 중시하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에서 비난할 수 없었다.

박태준은 민간 주주들의 우려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유일한 방법은 설득이었다. 설득에 성공하려면 실리적 대안과 정서적 접근이 동시에 필요했다. 그가 마련한 실리적 대안은 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 즉 종합제철사업을 대한중석의 신규사업으로 추가하지 않고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되, 종합제철 회사가 설립될 때까지만 대한중석이 제철 업무를 대행한다는 것. 그가 들고 나간 정서적 접근은, 반(反)자본주의적 요소로 분류해야 하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조국산업화의 명운이 걸린 대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적 희생을 감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 그의

설득은 효험이 있었다. 정치권력이 거의 절대적 권위주의를 행세하는 세태에서도 권력에 의지해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지 않고 합리적 방법의 최선을 선택한 박태준의 방식이 작은 성공을 거두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대로, 회사 설립형태는 박정희와 세 번 토의를 거쳐 정부가 최대주주가 되지만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결정되었다.

박태준의 롬멜하우스, 박정희의 쓸쓸한 독백

1968년 4월 1일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POSCO)는 서울 유네스코회건 3층에서 탄생했다. 그 자리에서 박태준은 네 가지 운영목표를 제시했다.

인화단결과 상호협조, 기술자훈련의 적극추진, 건설관리의 합리화, 경제적 투자체제의 확립. 이에 따라 창설 회사의 조직은 2실 8부로 구성되었다. 비서실, 조사역실, 기획관리부, 총무부, 외국계약부, 업무부, 기술부, 생산·훈련부, 건설부, 포항건설본부.

창립요원엔 대한중석의 인재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고준식 전무이사, 황경노 기획관리부장, 노중열 외국계약부장, 안병화 업무부장, 장경환 생산·훈련부 차장, 홍건유, 김규원, 이종열, 이원희, 심인보, 김완주, 도재한, 이상수, 현영환, 이영직. 창립요원이었으나 곧 퇴사한 5명을 뺀 34명 중 사장까지 16명이었다. 박태준의 육사 후배이며 1958년에 박철언을 소개해준 정재봉도 창립요원으로 참여했다.(그 외 : 윤동석, 이홍종, 김창기, 배환식, 유석기, 최주선, 김명환, 이관희, 백덕현, 이건배, 육완식, 여상환, 권태협, 신광식, 박준민, 안덕주, 지영학.) 창립식에는 빠졌지만, 박태준이 대한중석의 장래를 위해 차마 뽑아내지 못한 박종태(상동광산 관리책임자)도 제 발로 찾아와 야전 출신답게 포항 현장의 초대 소장으로 부임했다. 달포 뒤에는 박태준의 고향 후배이자 회계전문가인 박득표가 입사한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무엇보다 미래가 불확실한 신생조직의 인화단결과 상호협조에 기여할 자산이었다.

5.16 이후로만 따져도 장장 8년에 걸쳐 몇 번의 잉태와 유산을 경험한 포철이 간신히 법인으로 탄생했을 때, 포항 현지에선 이미 경상북도 주관으로 국유지 11만 8천 800평을 포함한 총 232만 6천 951평 공장부지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포철의 장래는 여전히 암울한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자꾸만 안개를 퍼올리는 곳은 포철의 외자도입을 맡은 KISA의 애매한 태도였다. 특히 미국과 독일이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포항 1기 건설의 총 소요예산 외자 1억 900만 달러 중 도입이 확정된 것은 영국 1천 500만 달러, 프랑스 1천 300만 달러, 이탈리아 1천 500만 달러

등 겨우 4 천 300 만 달러였다. 나머지 더 큰 차관이 무산될 경우 확정된 그것마저 날아갈 처지였다. KISA 를 통한 외자도입이 실패하고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한다면, 고작 4 억 원의 자본금으로 태어난 포철은 ‘신생아’ 단계에서 굶어죽는 운명을 맞아야 했다.

4 월 8 일 경제기획원은 KISA 측에 기본협정상 권리와 의무를 포철이 승계했음을 통보했다. 일본 철강자문 용역단, 미국 바텔연구소와의 용역계약도 포철이 이어받았다. 이제 앞으로는 박태준과 그의 동료들이 ‘신생아 포철’의 어버이로서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박태준은 치밀하게 희망의 시간표를 작성했다. 방대한 업무를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정부 관료들과 함께 KISA 와 접촉하면서 외자도입을 위해 노력해 나갔다. KISA 의 태도를 불신한 정부는 4 월 16 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IECOK(대한국제경제협의회. 1966 년 12 월 파리에서 결성) 2 차 총회에 기대를 걸고 종합제철 차관 1 억 916 만 9 천 달러를 포함한 총 6 억 7 천만 달러의 경제개발 차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겨우 4 천 269 만 달러의 차관제공을 통보받았으며, 종합제철 차관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태준은 종합제철소 건설의 첫 단계에서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들을 고민하고 있었다. 4 월 22 일 일본 용역단의 GEP(일반기술계획)를 받은 그는 27 일 일본철강연맹의 초청으로 일본에 가서 GEP 의 사전검토, 기술자 훈련문제, 항만과 공장 건설의 공정관리 등을 의논했다. 잇따라 5 월 7 일엔 윤동석 전무를 단장으로 8 명의 GEP 예비교섭단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용역단과 GEP 주요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고 첨단 제철소인 후지제철의 무로랑제철소를 견학했다. 그들은 일본 용역단 6 명과 함께 5 월 18 일 미국으로 건너가 바텔연구소 요원 3 명과 결합해 20 일부터 피츠버그에서 KISA 의 GEP 초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북한 124 군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 소련파, 남로당파, 연안파를 차례로 숙청하고 평양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김일성 항일 빨치산 출신들이 일으킨 1·21 사태, 1 월 23 일 미국 정보수집 보조함 푸에블로호 나포. 그에 정비레한 박정희의 반공 강화(김일성 규탄 궐기대회, 향토예비군 창설, 학생군사훈련 실시 등). 4 월에 발표된 미국의 베트남 평화협상 추진……. 1968 년 상반기를 어렵게 넘어서 한국은 초여름부터 국내 정치적인 불안에 휩싸였다. 야당의 저항은 덮어두고 여당 내부만 보아도 후계자 문제로 분열과 파벌의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대통령 3 선 불가’를 규정한 헌법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 일어난 박정희 후계자 선정 문제. 이는 협상보다 헤게모니 선점을 위한 권력투쟁으로 접어들 공산이 높았다. 실제로 그런 파장이 일어났다. 1968 년 5 월 24 일 국회의원 김용태는 김종필 의장을 박정희의 후계자로 옹립하려다가 공화당에서 제명됐다. 5 월 30 일 김종필은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당 의장직을 사퇴하고 탈당함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했다. 여당 내부에는 김성곤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화되었다.

서울 정치권이 권력투쟁과 여야대결로 혼미에 빠져들었지만, 박태준이 이끄는 종합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봄이 무르익은 영일만 현장에서 포철은 장차 ‘회사 재산 1 호’로 꼽게 되는 초라한 건물 한 채를 신축했다. 5 월 1 일 육완식 공사부장이 100 만 원으로 현재 제 1 열연공장 가열로와 제 1 분괴공장 사이의 언덕에 지은 ‘포항사무소’. 이것은 슬레이트 지붕의 60 평짜리 2 층 목조건물로, 조만간 ‘롬멜하우스’란 애칭을 얻으면서 포철 건설 초기의 온갖 애환과 영광을 품게 된다.

공사 진척 상황을 둘러보려고 현장을 방문한 건설장관 주원은 영일만의 황량한 모래벌판을 중국의 황진만장(黃塵萬丈)에 빗대어 ‘사진만장(沙塵萬丈)’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보안경을 사줄 것을 당부했다. 식당이 없어 마을 어귀의 작은 절 부연사에서 밥을 사먹으며 게릴라 전투하듯 일을 추진해나간 시절, 포항사무소는 낮에는 건설지휘 사령탑이요 밤에는 여남은 직원들이 책상을 침대 삼아 모포 몇 장으로 새우잠을 자는 숙소였다. 철거와 부지정지 작업에 나선 건설요원들은 사막전에 투입된 병사 같은 고된 작업을 계속해야만 했는데, 어느새 현장 직원들은 건설의 사령탑인 포항사무소가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사막의 영웅 롬멜 장군의 야전군 지휘소와 흡사하다고 ‘롬멜하우스’라 부르고 있었다. 1969 년 봄에는 주변에 중장비들이 늘어서면서 사하라사막에 진을 친 기계화 부대를 닮기 때문에 애칭은 더욱 실감났다.

6 월 24 일 유네스코회관에서 YMCA 회관으로 이주한 서울의 포철 본사도 7 월 8 일부터 뜨거운 여름을 맞고 있었다. KISA 의 이컨 대표가 제출한 GEP 4 권(약 1 만 쪽)에 대한 전면검토를 시작한 것이다. 10 일에는 아리가를 포함한 일본 용역단 9 명도 합류했다. 이 작업으로 포철은 기본협정에 명시된 내용과 비교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문제점 20 개를 망라하여 ‘메모 A’로 정리했다. 연산 60 만 톤 능력을 원활히 달성하는 데 필요한 설비사양의 추가, 변경된 레이아웃에 대한 대안 등 75 개 문제점은 ‘메모 B’로 정리했다. 이는 7 월 31 일에 KISA 측에 제시하여 차관과는 별도의 협상으로 진행했다.

7 월 8 일부터는 롬멜하우스에도 활력이 일었다. 공장부지 내 지상물(가옥 533 동, 그 몇 배의 무덤) 제거, 부지조성공사 관리 등 현장작업이 개시된 것이다. 보상에 순순히 응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거세게 저항하는 주민도 있었다.

1968년 여름방학이 끝나기 바쁘게 철거될 송정국민(초등)학교 교사들은 전학업무에 매달려야 했다. 전학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영원한 폐교’ 직전에 ‘대송국민학교 송정분교’에서 승격된 송정국민학교는, 최고 학년이 4학년이고 전기와 상하수도 없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었다. 학생의 절반은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에 속한 전쟁과 빈곤의 고아들이었다. 6·25 전쟁의 총반격 북진 직후에 학교보다 먼저 들어선 수녀원은 학교와 가깝고 성당·고아원·양로원·의무실·운동장 등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현대적 시설의 그곳에서 신부 2명과 수녀 160명이 500명 넘는 고아와 노인을 보살폈다. 이 학교와 수녀원이 철거 대상에 속했다.

수녀원 철거는 까다로웠다. 1965년 육군본부의 예산담당 장교로 근무하던 중 황경노의 뒤를 따라 대한중석에 입사하여 포철 창립요원으로 동참한 홍건유. 뒷날 포철 총무이사를 거쳐 도쿄사무소 책임자로 오래 일하게 되는 그는, 1968년 수녀원 길 신부와는 쉽지 않은 협상의 일차적 책임자였다. 그때 본사는 서울에 있었다. 서울에서 밤 10시 열차를 타고 대구에 내리면 새벽 4시, 잠시 눈 붙이고 도청에 들러 경북 지사와 몇 가지 협의하고 나면 11시, 포항에 도착하면 오후 2시, 다시 오후 7시 포항발 대구행 막차를 타고 가면 좀 쉬었다가 밤 11시에 미군 열차를 얻어타고 서울로. 이런 생활의 반복이었다. 그래도 그는 프랑스에서 귀화해 ‘길’이란 성을 얻은 신부와 몇 번이나 만났다. 신부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 우리 외무부로 압력을 넣기도 했다. 나중엔 박태준이 직접 길 신부와 총장수녀를 찾아가 나라의 장래가 걸린 사업임을 환기시키면서 설득해내기에 이른다. 수녀원을 철거하는 날, 길 신부는 19년간 정들었던 건물을 폭파시킬 다이내마이트의 도화선에 직접 불을 붙였다.

철거를 당하는 주민들과 철거를 지켜보는 포항 시민이 포항종합제철 건설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1968년 여름, 실상 포철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했다. IECOK에게 차관 도입을 외면당한 후 KISA와 GEP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외자 도입이 난관에 봉착한 채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태준은 묵묵히 ‘희망의 시간표’에 따라 포철 건설의 중요한 결정들을 밀고 나갔다. 부지정리 공사가 마무리되면 대규모 건설공사에 투입할 사원을 대거 뽑아야 했다. 문제는 사원의 급증에 따른 ‘주택’과 ‘학교’였다. 유능한 인재들을 동해 남단 변방의 황량한 사막과 진배없는 230만여 평 모래밭으로 불러 모으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한 번 들인 발길을 붙잡아두기도 어려운 노릇이었다.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 제대로 길러야 성공할 수 있다’는 명제 앞에서 박태준은 스스로 세 가지 원칙을 확정했다.

첫째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 이는 대한중석 사장 시절에 체득하여 부분적으로 실천한 원칙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소망에 부응하는 경영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 미래를 보장하는 안정된 직장을 얻으려는 소망, 내 집을 소유하려는 소망, 자녀를 좋은 학교에서 공부시키려는 소망 등 60년대 기성세대가 지닌 보편적 소망을 주시하여 정한 원칙이다. 셋째는 길게 내다보면서 교육시설과 주거환경을 세계 최고로 가꿔나가야 한다는 것. 구라파통상사절단장이나 대한중석 사장으로서 몇 차례 유럽을 방문했을 때 그는 짬을 내어 공장과 제철소만 둘러본 것이 아니라 숲속의 주택단지와 학교도 유심히 살폈다. 시샘 나도록 부러운 환경을 바라보며 언젠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런 환경에서 살게 해야 한다는 포부가 생겼다. 그때의 포부를, 박정희의 굳건한 신념적 동지로서의 그 포부를 이제부터 적어도 자기 영역 안에서 모범적으로 실현해나갈 것을 각오한 것이다.

1968년 포항시는 조악한 주택이나마 보급율이 60%에 못 미쳤고 초등학교 공나물교실도 학생수용력이 50%에 미달하여 2부제 수업으로 꾸려나가는 형편이었다. 자연환경은 양호한데 위생 상태는 열악했다. 깨끗한 바다, 길고 넓은 백사장,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국내 최고의 해수욕장을 보듬고 있지만, 여름엔 ‘베트남 모기와 사돈을 맺어야 한다’고 할 만큼 독한 모기가 들끓고 겨울엔 사막을 방불케 하는 모래바람이 몰아쳤다. 하수시설이 형편없는 시가지와 주택단지도 파리와 모기의 요람이었다. 시가지를 벗어나 포철 부지로 가는 도로변에는 갈대밭이 우거져 있었다.

포항에 모여든 포철 사원들 대부분은 가족을 두고 혼자 먼저 와 하숙하거나 여인숙에 기거하면서 밥을 사먹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박태준은 후생복지의 기본적 인프라부터 시급히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자금이었다. 내자조달의 속도가 느리고 외자도입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어디서 돈을 구할 것인가. 무턱대고 은행의 문을 두드려보기로 했다.

행장실의 문은 열려도 금고의 문은 쉬이 열리지 않았다. 행장 두 사람을 만났지만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가난한 회사의 사장에게 퇴짜를 먹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한일은행 하진수 행장을 찾아갔다. 집무실은 롬멜하우스와 비교할 수 없게 호화스러웠다. 한가운데에 놓인 반질반질한 티크재 대형책상, 책상 뒤의 번듯한 책장, 그 안의 유명 경제서적들……. 은행장 집무실 인테리어를 한눈에 살피면서 새삼 궁색한 포철의 현실을 실감했다.

“박 사장님, 포철은 잘돼갑니까?”

질문이 떨어지길 기다린 박태준은 포철의 진척상황과 장래계획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용건을 밝혔다. 하 행장이 미소를 머금었다.

“담보가 없어서 규정상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박 사장님의 열의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외 경우를 적용해서 특별히 20 억 원을 대출해드리겠습니다. 박 사장님의 열의를 담보로 하니, 반드시 성공하셔서 우리 손으로 철강을 생산해주세요.”

포철에는 가뭄의 단비였다. 사원주택단지의 부지를 마련할 길이 열린 것이다. 현재 포철의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옛 한일은행)인 데는, 당시 행장에게 보은하기 위해 한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한 내력이 있었다.

박태준은 ‘내 집 마련’ 제도를 만들었다. 사원주택단지에 자기 집을 갖겠다는 직원들에게 회사가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조건을 포함했다. 그는 임대주택이나 회사주택을 거부했다. 소유권을 가져야만 ‘내 집’이란 애착으로 열심히 관리할 테고, 인플레이션이 심한 시기에는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포철은 사원의 ‘내 집’을 임대주택이나 사택과 구분하기 위해 ‘자가주택’이라 불렀다.

그는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후보지 물색을 서두르며 직접 현장답사에 나섰다. 고려할 요소는 많았다. 출퇴근 거리, 단지규모, 자연환경, 학교위치, 교통편, 각종 인프라설비, 비용 등. 직접 짚은 곳은 포항시 효자동 야산 지역이었다. 나무들이 덩성덩성 박힌 야산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다. 공동묘지를 꺼리는 반대 의견이 나왔으나 명쾌하게 반박했다.

“우리나라 양지 바른 야산에는 반드시 묘지가 있다. 더구나 묘소를 명당에 쓰는 풍습이 있지 않나? 그러니 틀림없이 명당이야. 조상들의 안목을 받드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1968 년 9 월 10 일 포철은 1 차로 포항시 효자지구에 20 만 평을 1 억 3 천 700 만 원에 매입하여, 사원용 주택단지 조성공사와 건설용역에 투입할 외국인 기술자를 위한 주택공사의 막을 올린다. 이듬해 다시 효자지구에 15 만 평, 포철 정문과 인접한 인덕동에 6 만 4 천 평의 주택부지를 매입하고, 정문 앞의 동촌동에 독신자용 주택부지 2 만 5 천 900 평을 추가로 확보한다.

국회부터 시끄러웠다. 박태준은 귀가 아플 지경이었다. 공장 지을 돈도 없는 형편에 집 짓고 외국인 숙소 지을 돈이 어디서 났느냐는 힐난에서, 제철공장 지으라고 보내놔더니 엉뚱하게 부동산투기나 하고 있다는 모함까지. 그의 인격은 국회에서 하루아침에 박살났다. 그는 모욕을 참았다. 박정희도 그런 비판엔 귀를 열지 않고 한마디 잔소리도 보태지 않았다. 그것은 믿고 맡겼으니 소신대로 밀고 나가라는 격려와 다름없었다.

포철의 성장과 더불어 ‘낙원 같다’는 세평을 얻게 되는 효자지구 사원주택단지. 그것의 조성은 공장 세울 말뚝을 박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기존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온갖 나무를 심어 철저히 가꾸고, 인공연못을 꾸미고, 숲속 산책로를 내고, 국내외 내빈들과 외국 기술자들의 숙식문제를 해결할

호텔이 없는 형편을 감안해 고급의 영일대·청송대·백록대를 하나씩 짓고, 단독주택·아파트·쇼핑센터·아트홀을 배치하고, 사원의 자녀들을 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국내 최고 수준으로 차례차례 설립했다. 포철의 기초를 닦아나가는 박태준의 영혼에는, 포철 가족들에게 유럽 최고 수준의 전원단지와 교육단지를 제공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그것의 세부를 늘 점검하고 수정해나갔다. 바야흐로 포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접어들 때는 위대한 설계도까지 함께 완성된다. 포항공과대학교(이하 ‘포항공대’로 약칭),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방사광가속기를 탄생시키는 설계도.

1982년부터 광양제철소를 건설할 때도 박태준은 포항에서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한다. 공장이든 주택단지든 학교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스포츠시설이든, 포항에서의 아쉬움마저 다 해소하는 레이아웃과 디테일로.

포철 주택단지에는 술한 방문객이 다녀갔다. 누구든 둘러보면, ‘사람은 누구나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모범사례를 접한 감흥에 탄성을 아끼지 않았다. 1992년 7월에는 모스크바대학 빅토르 사도브니치 총장이 방문한다. 그는 러시아에서 물리학·정보과학·응용수학 방면의 저명한 학자로서 2004년 현재도 총장으로 재직할 만큼 행정에도 유능한 인물이다. 박태준은 귀국하는 길의 귀빈을 서울 성북동의 포철 영빈관(영광원)으로 초대해 작별의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빅토르 사도브니치가 조용히 물었다.

“제철소와 가깝게 있으면서도 사원주택단지가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쾌적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주택은 회사의 소유입니까, 사원 개인의 소유입니까?”

“개인의 소유입니다.”

박태준은 ‘자가주택’을 위한 회사의 금융대출제도, ‘내 집’을 소유하게 됐을 때의 안정감이나 자주관리 등 장점을 들려줬다. 빅토르가 문득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다.

“레닌 동지가 꿈꾸고 추구한 이상향을 저는 포철에 와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꿈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박태준은 빅토르의 눈물에서,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에 실패하고 말았던 소련의 좌절과 고통을 엿보게 되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몰라도 고르바초프가 외친 그 주의는 실현하기 어려운 이상일 것이란 생각도 스쳐갔다.

1968년 가을에 포철 사원주택단지를 설계한 박태준. 그의 영혼에는, 올바른 지도력과 각성된 시민의식이 결합하면 빈곤과 억압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고 나아가 사람다운 삶도 열린다는 신념이 자리잡고 있었다.

1968년 11월 5일 박태준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지난 7월 31일 KISA 측에 제안한 GEP가 설왕설래를 거쳐 일괄 타결되었다는 것. 공장 일반배치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88만 5천 달러를 포철이 부담하는 대신, 포철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제강공장 설계변경과 가스홀더공급·균열로 3기를 KISA가 무상으로 추가하겠다는 합의가 그 핵심이었다.

여름 한 달을 이열치열로 검토한 GEP 협상안이 타결되었으니, 남은 과제는 정말 ‘돈 조달’이었다. KISA의 5개국 8개사가 약속한 대로 차관만 제공해준다면, 포철 사장이 담보도 없이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는 공상스러움은 더 보이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

그러나 차관 조달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둡기조차 했다. 누구보다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IBRD가 한국정부의 차관요청 심사에서 종합제철소 프로젝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IBRD의 실무담당자인 영국인 자폐가 1968년 한국경제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의 제철공장은 엄청난 외환비용에 비추어 경제성이 의심스러우므로 이를 연기하고 노동·기술 집약적인 기계공업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고 정리했다는 것. 자폐의 의견이 그대로 채택되면 차관도입은 무산되고 포철은 수많은 주민의 보금자리만 파괴한 채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었다.와 GEP협상은 타결됐으나 차관 도입의 길이 막혀 있던 11월 12일 아침 8시, 포항사무소장 박종태가 긴급히 서울 사무실의 박태준 사장을 찾았다. 금일 오전 11시에 대통령이 헬리콥터 편으로 포항 현장을 불시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포항경찰서장에게서 막 들었다고 했다. 박태준은 잠시 아찔했다. 포항 현장은 부지조성공사와 항만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황량한 모래벌판이었다. 건물이라곤 롬멜하우스뿐이었다. 그러니 대통령을 안내할 곳이라곤 거기뿐이었다. 그는 두 가지 지시를 내렸다. 보고드릴 차트를 준비할 것, 헬리콥터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물을 뿌려 H자를 크게 표시할 것.

박태준은 군부대의 도움을 받았다. 민간항공기가 없는 시대에 포철 사장이 대통령보다 먼저 롬멜하우스에 도착할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보다 먼저 서울을 이륙하는 것이었다. 군용 경비행기 세스나를 얻어 타고 포항 해병사단에 내린 그는 곧바로 보고를 준비했다.

박태준은 대통령을 롬멜하우스 2층으로 정중히 모셨다. 박정희의 표정이 어두웠다. 폐허의 모래벌판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장교 시절부터 빈틈없는 브리핑으로 명성이 높았던 박태준의 보고가 ‘외자조달 문제’로 끝을 맺었다. 박정희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보고가 끝났습니다.”

“응, 그래.”

박정희가 무겁게 몸을 일으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 두 손으로 난간을 짚었다. 옆에 박태준이 섰다. 초가집을 헐어낸 자리, 준설선이 바닷물과 모래를 함께 퍼올린 늪과 비슷한 자리, 여기저기 찌꺼기를 태우는 불에서 꾸역꾸역 피어오르는 연기, 이따금 길다란 모래먼지를 일으키는 세찬 바닷바람……. 그 을씨년스런 풍경은 치열한 전투 후의 사막 같았다. 모래바람이 유리창을 때렸다. 문득 그가 쓸쓸한 혼잣말을 했다.

“이거, 남의 집 다 헐어놓고 제철소가 되기는 되는 건가.”

순간 박태준은 모굴이 송연해졌다.

박태준의 환호

차관도입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불쑥 영일만으로 날아와 박태준을 오싹하게 한 박정희. 그 장면에서 그는 빈곤을 동시대인이 이겨야 하는 악으로 규정하여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지도자였다. 또한 동시대인을 억압하게 될 또 하나의 악인 독재체제를 차후의 문제로 간주하여 ‘민주주의체제의 일정한 유보와 희생 위에서 빈곤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지도자였다. 그러므로 1968년 11월 룸멜하우스에서 박정희가 무심결에 내놓은 그 쓸쓸한 독백에는 산업화에 맹진하는 시대의 모순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경제개발’과 ‘민주주의 발전’이 동일한 역사의 무대에서 상충하는 모순…….

어서 차관만 들어온다면……. 이 염원을 간직한 박태준은 자기 시간표에 따라 과감히 ‘기술연수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차관 제공에 애매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KISA는 주제넘게도, 초기 몇 년간 외국 전문기술단과 운영계약을 맺고 공장관리와 직원교육을 맡기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그것이 초래할 장기적 기술식민의 상태를 주목하고, 기술식민의 제철소는 제철보국의 제철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박태준은 기술력 축적에 대한 단기·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단기 목표는, 첫 가동 단계부터 우리 손으로 직접 공장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 여기엔 무엇보다도 포철이 직접 선진 제철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지름길이었다.

1968년 10월 24일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연수원부터 착공한(이듬해 1월 15일 완공) 박태준은, 회사 장래에 교육이 지극히 중요함을 확신하고 그해 11월에 직원 9명을 1개월간 가와사키제철소로 연수를 보냈다. ‘기술연수교육’의 막을 올린 것이다. 곧이어 6명이 3개월간 후지제철소로 연수를 떠났다. 1969년 4월에는 14명이 뒤따랐다. 이렇게 일본, 호주, 서독 등에 다녀온 포철 기술연수생은 포철 제 1기 공사가 마무리된 1972년까지 600명에 이르렀고, 비용도 500만 달러나 지출했다.

박태준은 유학 가는 기술연수생들에게 늘 강조했다.

“여러분은 연수기간 동안 연수규정에 어긋난다 해도 무슨 수를 써서든 철강기술에 대해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두 배워 와야 합니다. 포철을 키워줄 기술들을 머릿속에 듬뿍 담아 오시오.”

‘무슨 수’는 기술력 무(無)에서 출발하는 포철의 절박한 현실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포철 사원의 해외연수엔 여러 일화가 생겼다. 비밀 도면을 훔쳐보려고 상대를 술자리로 유인하고, 보여주지 않는 공장을 보려고 기지를 발휘하고……. 당사자들 누구나 연수생이 아니라 산업스파이로 나선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긴장에 휩싸여야 했다. 최고경영자의 명확한 판단과 과감한 투자, 직원들의 투철한 사명과 근면한 자세. 이를 바탕으로 포철은 1970년 4월 1일 포철 제 1기 착공식에서 ‘첫 조업부터 우리 손으로 가동하자’는 박태준의 포부를 실현한다.

박태준의 기술력 축적에 대한 장기 목표는 세계 최고 기술력 확보였다. 그거야말로 결코 몇 년 사이에 이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기술력 개발을 위한 부단한 투자, 경험축적, 정보화와 과학화……. 박태준의 원대한 목표는 그로부터 15년쯤 지난 뒤 광양제철소에 집대성되고, 1992년 파이넥스 공법의 상용화 연구에 도전하는 것으로 거듭나며, 마침내 포스코는 2007년 5월 세계 최초로 파이넥스 공법의 150만 톤 용광로에서 쇳물을 뽑아내는 쾌거를 거둔다.

1968년 세모, ‘자금 없는 포철 사장’ 박태준에게 희망적인 일이 생겼다. 12월 18일 서울에서 KISA 측과 만나, 연산 조강 60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위한 추가협정서에 서명했다. 이 서류는 최종 차관규모를 1억 306만 7천 달러로 확정하고 앞으로 4년간 이자조정 폭을 8%로 합의했다. 포철로 자금이 들어올 서류가 완성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제 KISA의 재무계획과 최종계약서를 받는 절차만 남았다. 그러나 그는 KISA를 신뢰하기 어려웠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태도가 미심쩍었고, 자폐가 작성했다는 IBRD의 보고서가 아무래도 수상쩍었다.

박태준은 더 이상 그대로 앉아 기다릴 수가 없었다. 더 늦기 전에 KISA 대표와 직접 담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69년 1월 하순에 담판을 위한 장도에 올랐다. 그는 비밀리에 기획관리부장

황경로에게 “회사 청산 절차를 준비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그만큼 비장했다. 배수진을 치는 출장이었다. 정부에선 경제기획원 차관보가, 포철에선 정재봉이 함께 나섰다. 홋카이도의 무료랑제철소에 파견돼 연수받고 있던 최주선이 도쿄에서 통역담당으로 합류했다. 그들의 일차 목적지 피츠버그엔 안병화와 노중열이 설비문제 실무협의를 위해 미리 나가 있었다. 이차 목적지는 IBRD와 미국수출입은행이 있는 워싱턴이었다. 도쿄에서 사흘을 기다려 미국 비자를 받은 일행은 1월 31일 마침내 포철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박태준은 착잡하고 초조했다. 차관 제공에 나설 의향을 주저하는 KISA를 설득할 수 있을까? KISA가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면 IBRD나 수출입은행은 만날 필요도 없지 않는가? 그렇다고 KISA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도 없었다. 처음부터 허술하게 출발한 계약서에는 KISA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한국정부나 포철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이란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는 도덕적 항의밖에 없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가난한 나라의 서글픈 하소연으로나 들릴 것이었다.

피츠버그에 도착한 박태준은 현지의 두 직원과 합류했다. 숙소는 현지 철강업계의 배려로 미국 철강산업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듀케인클럽에 마련되어 있었다. 그는 첫 상대로 KISA 대표자라 할 포이를 찍었다. 3년 전 피츠버그를 방문한 한국 대통령에게 종합제철소 건설에 대한 협력과 지원의 추파를 던졌던 코퍼스 대표. 백발이 성성한 백인 노신사는 다부진 체격의 동양인 젊은이와 예의바른 태도로 대화를 나눴다.

“KISA가 포철에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IBRD도 차관 제공을 결정할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종합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것입니다. 종합제철을 하나의 대형사업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대화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도 깊이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준의 표정과 말씨는 진지하고 당당했다. KISA의 다른 회원사 대표들과도 똑같은 자세로 만났다. 철강업계의 거구들을 설득하는 일에 꼬박 이틀을 바쳤다. 그러나 그들이 외교적 수사로 꾸민 답변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자폐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IBRD의 보고서 내용인 한국의 종합제철소 프로젝트는 경제적 타당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한결같이 인용했다. 그것은 차마 딱 부러지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나 명백하고 확실한 ‘No’ 사인이었다.

다시 날이 저물었다. 방으로 돌아온 박태준은 허탈하고 서글펐다. 자본주의 진영 5대 강대국의 세계적 8개 철강업체로 구성된 KISA. 그 부자들과 맺은 예비계약서만 믿고, 그나마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서류만 믿고 초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술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부지조성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은행 융자를 내서 사원주택단지를 매입하고 직원을 뽑고 해외 기술연수를 보내고 있건만,

그 모든 일이 물거품으로 사라질 위기를 맞은 밤. 그는 부자나라의 호화로운 침대에 드러누워 길게 한숨을 쉬었다. 날이 밝으면 IBRD와 미국 수출입은행을 설득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었다. 아무래도 그 일정은 부질없는 시간낭비 같았다. KISA가 포기한 지원을 철강업계보다 훨씬 까다로운 금융기관이 받아줄 리 만무해 보였다. 밤이 깊었다. 우아하고 안락한 침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엔 어둠과 함께 무거운 침묵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대로는 더 견딜 수가 없었다. 약자의 설움에 짓눌려 있을 것이 아니라 최후의 오기라도 부려야 무슨 길이 뚫릴 것만 같았다. 그는 최주선을 찾았다.

“포이 회장에게 지금 당장 만나자고 전화해.”

“이 늦은 시간에 노인을 깨워도 되겠습니까?”

자정이 임박한 시간이었다.

“돈은 있고 신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 이대로는 못 가. 30분만 만나자고 해. 이게 KISA와는 마지막이야.”

이제 막 잠자리에 들었다는 포이는 당장에 만나자는 제안에 깜짝 놀라서 시간을 물리려 했다. 내일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에 일찍 시간을 내겠다는 것. 박태준은 지금 꼭 만나야겠다고 버텼다. 이윽고 정장으로 차려입은 노신사가 젊은이의 심야 무례를 점잖게 받았다.

“박 사장님,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박태준은 사업과 다른 차원의 설득을 시도했다.

“다른 나라들은 몰라도 미국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최일선 방어벽 역할을 하면서 산업화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랜 빈곤에서 벗어나려고 온 국민이 발버둥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종합제철소를 갖지 못한다면 한국 산업계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특수한 사정을 혈맹국의 입장에서 고려해주시고, 회장님께서 직접 대표들을 설득해주시길 희망합니다.”

백전노장의 자본가 포이는 담담하고 냉정했다.

“이것은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애국심을 존중하고 실망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만간 발표될 IBRD의 한국경제에 대한 최종보고서 내용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IBRD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 마지막 기회로 내일 워싱턴에 가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심야의 대화가 길어졌다. 포이의 마음은 이미 잠겨 있었다. 자신의 마음을 다시 열어줄 열쇠는 워싱턴의 두 은행이 맡고 있다고 했지만, 박태준은 서양 노신사의 점잖은 발뺌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포이의 마음이 잠겨 있다는 것은 KISA의 문도 잠겨 있다는 뜻을 명확히 인식했다.

날이 밝았다.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운 박태준은 최주선에게 말했다.

“워싱턴 일정은 취소야.”

“대표단은 워싱턴으로 간다는데, 사장님도 같이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뻔해. 내가 포이에게 IBRD를 설득해달라고 하니 포이는 나한테 IBRD를 설득하여 다시 찾아오라고 하는 식인데, 퇴짜가 뻔해. 퇴짜 맞으러 왜 가? 짐이나 싸자. 돌아가서 생각하자.”

아침에 포이가 박태준의 방에 들렀다. 노신사는 아들 또래밖에 안 되는 가난한 나라의 사장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사업적으로야 어쩔 수 없더라도 인간적으로는 가슴에 가시 박힌 듯했다.

“워싱턴의 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노신사가 내민 손을 박태준은 정중히 잡았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워싱턴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표단은 가겠지만, 저는 의례적 절차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귀국해서 다른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노신사는 따뜻한 눈빛으로 아주 영동한 제안을 내놓았다.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자기네 부사장의 콘도가 있으니 돌아가는 길에 거기 들려 며칠 휴식하면 어떠하겠느냐는 것. 박태준은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다. 지독한 실연에 빠진 젊은이처럼 지칠 대로 지친 몸, 허탈의 웅덩이에 빠진 정신부터 수습해야 했다. 아니, 폭 쉬면서 절망에서 빠져나갈 구원의 동아줄을 찾고 싶었다. ‘절대적 절망은 없다’고 6·25 전쟁에서 말짱히 살아남은 직후 정한 그 좌우명에 의지하고 싶었다.

피츠버그에서 시카고로, 시카고에서 다시 하와이로. 비행기 안의 박태준은 천만 근의 쇠덩어리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압박감과 좌절감의 무게였다. 워싱턴으로 날아간 대표단의 교섭에는 한 가닥의 미련도 두지 않았다. KISA의 완전한 배신, IBRD의 명백한 차관 거부. 양측이 서로 맞물고 있는 그 결정이 포철 앞의 엄연한 장벽이었다. 이를 애써 외면한 채 ‘백의 하나로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기대하는 것은, 그가 늘 거부하며 살아온 ‘요행수’에 매달리는 꼴이었다.

포이가 주선한 콘도는 힐튼하와이빌리지 호텔과 가까운 와이키키의 중심지였다. 백사장과 쪽빛 바다와 하얀 파도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바로 옆의 호텔은 미국의 대중연속극 「하와이 눈동자」의 중심무대였고, 하와이 태생의 유명가수 돈 호가 노래를 불러 더 유명해진 곳이다.

박태준은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는 와이키키 해변으로 나갔다. 비키니를 입은 나신의 여성들이 백사장을 차지하고 있었다. 백인은 거의 대부분 본토에서 온 휴양객이고, 동양인은 일본인과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십여 년 전 이곳을 잠시 들렀던 때의 추억을 떠올려보았지만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그때와 지금, 그새 강산이 한 번 변하는 세월이 가로놓여 있건만 변함없는 것은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란 신세였다. 변한 것이 있다면, 그때는 돈 없는 장교였는데 지금은 자금 없는 사장이라는 점이다. 또한 그때는 국가적 빈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지도력에서 빈약했으나 지금은 그것이 국가적 목표로 확고히 세워져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1 억 달러가 없었다. 그놈의 차관 1 억 달러가 없어서 지도력에 큼직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제철에 인생을 건다고 했는데, 1 억 달러를 못 구해서 이렇게 나가떨어져야 한단 말인가?’

박태준은 하늘을 쏘아보았다. 강렬한 햇빛이 사정없이 눈을 찡그리게 했다. 농성을 벌이고 싶었다. 하늘을 상대로 농성을 벌이다 보면 하늘에서 1 억 달러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어처구니없는 착각마저 스쳐갔다.

대체 얼마 동안이나 하늘을 원망하고 있었을까. 별안간 일본 가서 돈을 구해볼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냥 답답한 나머지 한번 해본 생각이었다. 일본에 가서 차관 얻을 생각은 늘 괄호 밖으로 밀어냈다.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대일청구권 자금에다 상업차관까지 받아냈으니, 일본의 외환보유고 수준으로 보든 우리의 자존심으로 보든 일본 가서 새로 돈 꺾을 생각은 터무니없고 염치없는 수작 같았다.

‘일본 가서 차관은 무슨 차관…….’

박태준은 일본을 한쪽으로 밀어내며 몇 번이나 아쉬움의 침을 삼켰다. 그런 다음이었다. ‘일본’이란 단어가 사라진 자리에 전광석화처럼 ‘대일청구권 자금’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순간, 전율했다.

“그래, 바로 그거다! 이제야 그 생각이 떠오르다니!”

박태준은 벌떡 일어섰다. 미친 듯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대일청구권 자금 전용. 하와이 와이키키의 뜨거운 해변에서 거머쥔 이 아이디어를 뒷날 포철은 ‘하와이 구상’이라 부르게 된다. 이는 한국 산업화 역사에서 중대한 이정표로 삼아도 좋다. 그 자금의 일부를 밀천으로 삼아 어렵게 일어난 포철이 결과적으로 한국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대일청구권 자금을 포철 1 기 건설에 투입하자는 박태준의 절묘한 아이디어는 확인하나마나 현실성을 담보했다. 3 억 달러의 무상자금만 해도 1966 년부터 10 년간에 걸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아직 절반은 남았을 터, 대외경제협력기금(유상자금) 2 억 달러에서도 여유가 있을 터. 더구나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조건이 좋았다. 미국수출입은행의 차관이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상환기간 10년에 확정금리만 연 6.29%였지만, 그것은 거치기간 7년을 포함해 상환기간 20년에 확정금리가 연 3.5%에 불과했다.

‘하와이 구상’을 서둘러 실현하려면 장애들을 넘어야 했다. 기술지원 등 일본철강업계의 협력을 받아내는 것. 이 문제에 대해 박태준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KISA의 기본기술계획을 일본철강업계에 검토시킨 인연과 돈독한 인맥이 있는 것이었다. 한일(韓日) 양국 정부가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고 합의해둔 자금의 용처를 바꾸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동의인데, 대통령의 중합제철에 대한 집념과 의지가 워낙 강열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았다.

박태준의 귀국 보고를 듣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경청한 박정희는 “좋은 아이디어지만 4월 파리에서 열리는 IECOK 총회가 끝날 때까지는 결정을 보류하고 종래의 방침을 지속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만약 방향을 틀게 되는 경우에는 일본과의 막후 협상을 임자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김학렬 경제수석이 대일청구권자금 중 8000만 달러쯤 남아 있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은 일단 동결하라고 지시했다. 박태준과 따로 만난 김학렬이 “대일청구권 자금 사용 문제는 이미 용처가 정해졌고, 아직은 KISA의 태도가 분명치 않으니 4월 열릴 IECOK 회의의 결과를 보고 대통령께 정식 보고를 올리자”고 정리했다. 국회의원의 80%가 농촌 출신이며 그들이 농업지원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는 정치적 지형도를 감안할 때 대일청구권 자금 전용 문제는 무엇보다 박정희의 결심에 달린 문제였다.

“그 친구 원래 그래. 건드리지 마!”

1969년 2월 하순, 박태준은 포철 공채 1기 신입사원을 뽑았다. 새로운 무지개를 바라보는 그는 그해 2월과 4월 사이에 일본을 자주 찾았다. 물론 대일청구권 자금 전용을 위한 사전 포석을 놓는 일이었다. 그는 맨 먼저 박철언과 야기 노부오의 안내를 받아 야스오카를 찾아갔다. 야스오카는 직접 응접실 앞까지 나와 손을 잡으며 박태준을 맞이했다. 그리고 손님의 설명을 경청하고 나서 흔쾌히 조력자로 나서겠다고 했다. 대일청구권 자금을 전용할 수 있게 일본 내각을 설득하려면 우선 일본 철강업계의 확고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박태준의 말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즉시 일본 재계의

지도자 이나야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나야마는 일본철강연맹 회장이며 일본에서 가장 큰 제철공장인 야하타제철소 사장이었다.

“지금 제 사무실에 한국 포항제철의 박태준 사장님이 와 계십니다. 그에게 당신의 충고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한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좋은 구상을 갖고 있으니, 가능하시면 박 사장의 구상이 실현되도록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야하타제철소 본사는 야스오카의 사무실에서 겨우 몇 블록 떨어져 있었다. 이나야마의 응접실은 편안한 분위기였다. 바닥에 깔린 질푸른 카펫에 대한 인상이 오래 남았다. 박태준은 이나야마 사장의 인품에 대해 귀동냥하긴 했으나 직접 만나기는 처음이었다. 이나야마는 박태준을 정중히 맞이했다. 곤경에 빠진 젊은 동업자의 사정을 충분히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중도 폐기할 위기에 빠진 프로젝트를 구할 좋은 구상을 가지고 오셨군요. 복잡한 국제컨소시엄을 결성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설사 건설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사고방식, 기술, 관리방식 등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 제철소를 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이나야마의 격려와 위로는 따뜻했다. 박태준은 마음을 열고 일본이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가를 타진해보았다.

“기술협력은 고도의 정치성을 띠기 마련이지요. 나의 생각에는 한국의 제철소가 일본의 설비, 기자재, 기술 등을 가지고 세워지면 양국 모두의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따르는 문제점도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첫 만남에서 한국의 종합제철소 프로젝트에 적극 관심을 표명해준 이나야마. 과거의 한일관계에 편견이 없고 오히려 사과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가난한 사장’은 그에게 더 호감을 느꼈다.

박태준이 일본에서 기초적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4월 20일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ECOK 회의에 참석했던 박충훈, 김학렬, 오원철 등 한국정부 관료 일행이 귀국하는 길에 잠시 도쿄에 내렸다. 그들은 종합제철 차관 도입에서는 빈손이었다. 아니, 다음과 같은 ‘불가 통보’를 쥐고 있었다.

한국은 그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실시로 고도성장을 달성했으나, 현재까지 누적된 외채 중 70%가 상환 조건이 불리한 중단기 외채로서, 1970년대 이후 한국은 외채상환 능력이 한계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제철소 건설은 막대한 자본이 집약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박태준은 호텔에서 그들과 만났다. 대화 분위기는 밝을 수 없었다. 인도의 종합제철소 건설 실패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말이 변호처럼 스쳐간 그 자리에서 대일청구권자금 전용 문제가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아직은 선불리 상황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박태준의 표정은 그저 무거운 따름이었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3월 10일부터 4월 15일에 걸쳐 경제기획원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차관 교섭단이 포이의 개별교섭 권유에 따라 KISA 5개국을 차례로 순방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것도.

그런데 세계개발은행(IBRD)은 한국에 약을 올렸다. 브라질의 이파팅가 우지미나스제철소 건설에 차관을 제공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 4월 29일 미국 수출입은행이 한국의 종합제철소 건설은 경제적 타당성에서 의문이 제기된 상태이므로 차관을 제공할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긴 여정을 마치고 거의 빈손으로 귀국한 경제부총리 박충훈이 김포공항에서 종합제철 차관도입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알리며, 종합제철의 사업규모와 건설시기를 재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언에 박정희는 심기가 몹시 불편했다.

미국 철강업체와 금융기관이 한국의 종합제철에 돈을 댔다가 떼일 염려에 빠진 즈음, 세계인의 시선은 때마침 허공의 달에 집중되어 있었다. 유인우주선 아폴로 10호가 달 표면에 다가서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아득한 격차를 깨우쳐주는 빅 뉴스였다.

박충훈의 발언에 대해 박정희가 따끔하게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포항시내엔 ‘종철이 공장에 말뚝도 박기 전에 망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포철의 현장 직원들은 의기소침해져 자신의 미래와 회사의 미래를 불안해했다. 박태준은 밝힐 수 없는 비장의 카드를 가슴에 품은 채 언론이 뭐라 하든 정부가 뭐라 하든 포철은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고 피력했다.

5월 22일 박정희가 경제 각료들을 청와대에 불러 모았다. 박충훈 부총리, 김정렴 상공부 장관, 이한림 건설부 장관, 그리고 박태준 포철 사장. 종합제철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은 박정희가 강력히 지시했다.

첫째, 종합제철의 필요성이나 경제성, 차관, 상환능력 등의 검토를 세계은행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검토를 강화하여 입증 자료를 제시, 차관단을 설득할 것. 둘째, 종합제철 건설에 관련하여 추진중인 항만, 도로, 부지 공사는 계속 강력히 추진할 것. 셋째, 종합제철이 국제 경쟁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정부 투자는 정부 보조로 전환시킬 것.

박정희의 종합제철에 대한 거의 절대적 집념으로 이뤄진 그 지시는 ‘대일청구권 자금 전용’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었다. 그래서 ‘둘째’도 가능했을 것이다.

5월 27일 박태준은 부총리와 함께 KISA 대표 7명을 경제기획원에서 만났다. 그의 목표는 명료했다. KISA와의 계약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후 수순으로 강력히 책임 추궁을 해둠으로써, 조만간 일본과 본격적으로 접촉해나가는 과정에 제기될지 모르는 ‘성가신 이의 제기’를 미리 예방하겠다는 것. 이번에도 KISA 대표는 희망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자금 없는 젊은 사장’은 차라리 후련했다.

그때 박태준의 안주머니엔 일본철강연맹 회장 이나야마의 통지가 들어 있었다. 일본정부가 대일청구권 자금의 제철소 전용에 동의한다면 일본철강연맹은 제철소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일본 6대 철강회사 중 어느 기업이 종합제철소 프로젝트에 참여할지를 개인적으로 알아봐주겠다는 약속이었다. KISA와 회의가 또다시 성과 없이 끝났다는 사실을 언론은 가만두지 않았다. 종합제철소 건설에 대한 비관론마저 제기했다.

제철소를 세우려 한다면 60만 톤 용량의 고로를 한 개 만든다 하더라도 외화만 약 1억 3천만 달러를 써야 하는데, 이를 마련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형세 하에서는 전혀 엄두조차 서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외화가 마련될 수 있다 하더라도 60만 톤이나 100만 톤 정도의 용량으로서는 국제경쟁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장난감 같은 것이므로 수입하는 것보다 두 곱 세 곱의 생산비를 넣어야 할 것인데, 이는 우리가 지금 한창 머리를 앓고 있는 부실기업을 하나 더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1969년 5월 30일자 동아일보

6월 2일 박정희는 ‘종합제철 재검토 발언’에 대한 질책을 담아 박충훈 부총리를 해임하고 후임에 김학렬을 기용했다. 그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부총리실로 옮기자마자 흑판에 ‘종합제철건설’이라 크게 쓰고, 종합제철이 완공되거나 자기가 퇴임하기 전에는 절대 지우지 말라고 엄명했다. 그만큼 종합제철소 건설에 대한 대통령의 집념이 강하다는 뜻이었다. 신임 부총리는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6월 7일 경제기획원 내 ‘종합제철건설 전담반’을 설치하고 각계 인사 14명을 초빙했다. 정문도 경제기획원 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그 조직에는 노중열, 김학기, 최주선, 조용선 등 포철 간부 네 명도 포함되었다. 김학렬은 “경우에 따라 시설 규모 같은 것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지 몰라도 종합제철 건설의 대원칙은 추호의 변동도 없다”고 뜻을 밝혔다. KISA의 차관 도입이 막히면 이미 마련해둔 마지막 카드를 빼내겠다는 속셈이었다.

7월 31일 정부 당국이 드디어 다음과 같은 공표를 했다. ‘중합제철 건설 전담반으로 하여금 약 2개월 동안에 걸쳐 건설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한 결과 KISA와의 기본협정은 포기하고 대일 청구권자금으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으며, 새로 마련된 계획은 중합제철의 시설규모를 당초의 연간 60만 톤으로부터 국제단위인 100만 톤으로 확장하고 청구권 자금으로 이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일본 정부에 이를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포철이 간판만 내걸고 공장 착공의 시기조차 예측할 수 없는 이 무렵, 국내 정치적 상황은 갈등과 혼란으로 치달고 있었다. 1969년 1월 공화당이 박정희의 3선을 허용하는 개헌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신민당은 개헌 저지를 위한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결사투쟁의 태세에 돌입해 있었다. 여당 안에서도 김종필파와 반김종필파의 암투가 전개되고 있었다. 이것이 극적으로 표출된 사건은, 4월의 ‘권오명 문교부장관 불신임안’ 통과였다. 제3공화국 출범 이래 최초로 가결된 국무위원 불신임안 표결 결과는 찬성 89표, 반대 57표, 기권 3표였다. 김종필파의 공화당 의원들이, 여전히 정부는 자기네 지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힘을 과시하려고 찬표를 던졌던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의원 5명을 제명했다. 여당에서 쫓겨난 김종필파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박정희는 국회의 개헌가능선 2/3 확보에 못 미치고 있었다. 박정희는 김종필을 청와대로 따로 불러서 태도를 돌려세운 뒤 7월 25일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통해 신임을 묻겠다는 요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한 것이었다. 국민이 3선 개헌안에 찬성해주면 대통령을 계속하고 반대하면 대통령도 그만두겠다는 선언까지 단서로 붙인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먼저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했다.

집권세력이 3선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선점해야 하는 여름, 그들의 입체적 총력전에는 예비역 장성들도 동원되었다. 더러는 능동적·적극적이고 더러는 수동적·소극적이던 ‘별들의 행동’을 한곳에 모으는 계책을 짜고 있던 여권 고위층. 그들의 눈에는 당연히 박태준 예비역 소장이 포착되었다.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3선개헌 지지성명서’에 그의 서명을 받으려고 포항으로 사람을 보냈다. 박태준은 거절했다.

“제철소 하나만 해도 바빠. 정치에는 끼지 않겠어.”

칼로 무를 베풀 서명요구마저 잘라버린 박태준. 박정희와 독특한 관계의 현재를 가능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박태준이 3선개헌 지지성명 서명에 거부했음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들의 목소리에선 ‘감히 그럴 수 있는가’ 하는 분개가 묻어났다. 그러나 박정희도 박태준처럼 딱 잘랐다.

“그 친구 원래 그래. 제철소 하게 건드리지 마.”

오히라의 실눈 뜨게 하기

‘건드리지 마라’는 박정희의 보호를 받은 박태준은 박정희 ‘특별담화’가 더욱 뜨겁게 달궀놓은 서울을 떠나 도쿄로 날아갔다. 8월 하순에 열릴 한일각료회담에서 ‘대일청구권 자금 전용’에 대한 합의를 끌어낸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니 박정희의 지시를 받아 소리 없이 수행해온 대일 물밑 교섭을 마무리할 시간이었다.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의 절박한 제안을 받게 만들자면, 무엇보다도 포철 건설에 대한 일본철강연맹의 ‘기술협력 의사표시’를 확보해둬야 했다.

8월 6일 연산 조강 103만 톤 규모로 늘린 종합제철 건설안을 들고 도쿄에 도착한 박태준은 목표가 명백했다. 일본의 3대 제철소인 야하타제철·후지제철·니혼강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일본철강연맹의 확약을 받아낼 것, 일본 내각의 대신들과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마음을 돌려놓을 것. 강력한 후원자는 야스오카. 지난번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해준 이나야마를 다시 찾아가는 길도 야스오카의 방을 거쳐야 힘이 더 붙을 수 있었다. 일단 그는 박철언과 야기 노부오부터 만났다.

야스오카는 즉각 주선의 손을 써서 박태준으로 하여금 정계에서 기시 노부스게, 가야 오키노리, 치바 사부로, 이치마다 나오토, 재계에서 해외경제협력기금 총재 다카스기 신이치, 경단련 회장 우에무라 코고로 등 주요 인사를 만나게 했다. 야스오카는 내각 총리대신 이케다 하야토에게도 말을 전하고 관방부장관 기무라 도시오, 외상 아이치, 대장상 후쿠다 다케오, 통산상 오히라 마사요시 등도 만나게 했다.

그때 일본에서 위에 적은 이름들이 차지하는 무게와 권위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 것이었다. 불혹의 한국인 박태준이 연일 이들을 차례차례 거침없이 만나고 다녔다면 누구나 쉬이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현실로 일어났고 이어졌다. 야스오카가 있었음으로, 그를 그리하게 한 박태준이 있음으로 가능했던 일이다.

--박철언, 『나의 삶, 역사의 궤적』

일본 정·재계 지도자들의 존경과 신망을 한몸에 받는 야스오카를 감동시킨 박태준. 그 저력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완벽한 일본어 구사 능력이다. 1933년에 임랑리를 떠난 이래 일본에서 성장하면서 습득한 일본어, 체득한 일본문화가 이윽고 ‘근대화 조국’을 위한 능력으로 발현된 것이다.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없었다면, 일본인의 문화적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야스오카에게 자신의 인격과 신념을 고스란히 알릴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는 강렬한 애국심이다. 대가는 대가를 알아보는 것처럼, 애국자는 애국자를 알아본다. 야스오카는 겨우 불혹을 넘어서 한국 젊은이와 대화하면서, 난국에 빠진 조국에 한몸을 바치겠다는 뜨겁고 순수한 영혼을 확인했을 것이다. 불타는 정열과 의지를 안으로 모을 줄 아는 침착성과 지혜도 발견했을 것이다.

셋째는 야스오카의 한국관과 박태준의 일본관이다. 한일관계를 일의대수에 비유하면서 일본의 과거를 사과하고 한국을 돕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야스오카의 사고, 일본을 알아야 이용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박태준의 용일주의(用日主義). 이것은 즐거운 손뼉소리를 낼 수 있는 정신적 조건이었다.

1969 년으로부터 무려 31 년이나 더 흐른 뒤의 일이지만, 2000 년 봄에 김대중 정권의 국무총리로 있던 박태준이 느닷없이 물러났을 때 일본의 최장수 총리였던 나카소네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귀하는 일본에 와서 하나라도 더 한국에 도움될 것을 가져가려고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귀하의 애국심에 나는 항상 감동합니다.

박태준은 한결같이 ‘일본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당당하게 역설했다. 일본에 대한 그의 기본적 태도는 지일(知日)·용일(用日)·극일(克日)의 3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것. 감정에 압도당하면 일본을 알 수 없게 되고, 일본을 모르면 일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없게 되며, 그러면 일본에 앞설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정돈된 그의 전략이 확실한 실천으로 확립된 공간은 포철이다. 영일만에서 얻고 배운 일본기술을 광양만에서 보기 좋게 활용하고 극복하여 우리 기술력으로 최첨단 광양제철소를 완성하게 된다.

1969 년 8 월을 도쿄에서 보내고 있는 박태준에게 가장 힘겨운 장애물은 통산상 오히려였다. 그의 비협조적 태도는 성명으로도 발표되었다. 대일청구권 자금 전용을 적극 지지하는 아이치 외무성 장관이 한국의 광복절을 축하하듯 8 월 15 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무성·대장성·통산성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합동회의를 한 결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졌고 22 일 일본 각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면 다 된 일이었다. 박태준이 도쿄의 거물들과 연쇄적으로 만나 거의 완벽하게 정지작업을 해뒀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실무 교섭단이 부지런히 뛰어다닌 결과였다. 그러나 오히라가 다 된 밥에 재를 뿌렸다. 아직 검토단계에 있고 최종결정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성명을 낸 것이었다.

일본각의가 열리는 8 월 22 일까지는 1 주일의 여유도 없었고, 한일각료회의까지는 딱 10 일이 남아 있었다. 박태준은 무슨 수를 쓰든 오히라를 설득해야 했다. 일본내각은 의사결정 구조가 전원합의체이므로 한 각료라도 비틀면 한국정부의 요청은 거부될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박태준에게 오히라와의 인맥은 허술했다. ‘무슨 수’를 쓰긴 써야 하겠지만 직접 만나는 ‘수’가 최선의 ‘수’요 유일한 ‘수’이기도 했다. 그는 오히라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전문가 오히라는 독특하게 생긴 인물이었다. 유난히 큰 얼굴에 눈이 너무 가늘어서 아예 감고 있는 것 같았다. 박태준의 의견을 들은 그가 경제학원론을 펼쳐놓았다.

“경제원칙에 의하면 산업화의 첫 단계는 농업자립화입니다. 농업자립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를 바탕으로 성숙한 시장경제가 들어서게 됩니다. 제철소 건설은 그 다음의 일이지요. 지금의 한국은 농업에 투자할 시기입니다. 비료공장, 농기계공장을 세워 농업부터 발전시켜야 합니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 은행들이 차관을 거부한 환경에서 제철소 건설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무모한 선택이 아닐까요?”

오히라의 실눈은 상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감겨 있었다. 그래서 눈빛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경제전문가로서의 판단에 따라 반대한다는 점을 간파할 수 있었다. 오히라가 ‘반한감정’을 앞세우지는 않음을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야 했다. 이것이 소득이었다. 박태준은 나쁜 인상을 남기지 않으려고 얄전히 물러났다.

‘농업자립화 우선’이라는 오히라의 주장은 장면 정권에서도 대두된 정책이었지만, 박정희 정권은 중화학공업에 최우선으로 힘을 모았다. 그 결과 이제 종합제철소만 건설하면 산업화의 확고한 기반을 다질 단계였다. 한국의 비료공장은 이미 갖춰져 있었다. 1966 년 9 월 ‘한비사건’이 터지긴 했지만, 이병철의 삼성그룹이 일본과 협력해서 울산공업단지에 세운 야심작 한국비료가 대표적인 공장이었다. 농업기계공장을 세워야 한다는 오히라의 충고도 틀리진 않았다. 몇 년 전부터 북한이 ‘도락도르’를 대대적으로 생산해 농업의 기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도 농기계 생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리 없었다. 하지만 농기계를 나무로 만들랴. 설령 나무로 만든다 해도 이제 겨우

국토녹화사업을 시작한 남한으로서는 나무를 수입할 수밖에 없을 텐데, 현대적 제철소가 없는 남한은 양질의 철을 생산해야 농기계 생산체제를 갖추 수 있을 것이었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오히라는 자신의 경제지식을 양보하지 않았다. 박태준은 그를 최후의 난관으로 규정했다. 어떡하든 꼼짝 못하게 항복시킬 논리를 찾아야 했다. 시간은 많지 않았다. 22 일 이전에 오히라를 설득하고, 22 일 전후로 일본철강연맹의 구체적 확약을 받아야 했다.

박태준은 오히라와의 세 번째 만남을 위해 그를 설득할 논리를 정리하면서 퇴락별의 도쿄 거리를 걷고 있었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섬광처럼 스친 아이디어. 자못 상기된 얼굴로 정부간행물보관소로 달려갔다. 대체 일본은 어느 정도의 경제규모에서 무슨 이유로 제철소를 건설했는지 그 자료를 찾고 싶었다. 그것을 찾지만 하면 당시의 일본과 오늘의 한국을 비교할 특별한 근거가 나올 듯했고, ‘철은 국가’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일본이 제철산업에 산업적 목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나올 듯했다.

박태준은 또다시 오히라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세 번째인데도 그는 선뜻 만나주었다.

“일 주일에 박 사장을 세 번째 만나는데, 이런 일은 당신이 처음이오. 내 원칙에는 아직 변함이 없어요.”

“덕분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청일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영국에서 군함을 차관으로 도입해왔습니다. 제철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청일전쟁을 통해 제철소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명치 30 년에 7 만 톤짜리 야하타제철소를 세웠습니다. 그 뒤에 러일전쟁을 준비하는 일본에게 제철소의 필요성은 다시 절실했고, 제철소 건설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단순히 산업적 목적의식에서만 제철소를 세웠던 것이 아니라, 안보적 차원을 더 깊이 고려했습니다. 그때 제철소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던 일본의 1 인당 GNP 는 오늘의 화폐가치로 100 달러 미만이었고, 한국의 현재 1 인당 GNP 는 200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히라의 실눈이 드러났다. 세 번의 만남을 통틀어 좁쌀 같은 눈동자가 처음 빛을 쏘았다.

“그걸 어디 가서 조사했어요?”

“정부간행물보관소를 뒤졌습니다.”

“정말 공부를 했군요.”

박태준은 한 발 더 나갔다.

“소련에서 지원받는 북한은 이미 남한보다 5 배 넘는 철강을 생산해서 대규모로 무기를 만들고 농기계도 만듭니다. 남한이 제철소를 짓겠다는 것은 산업적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보적 차원도 고려한 정책입니다. 남한의 안보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오히라의 눈이 다시 사금파리처럼 반짝거렸다. 그는 불쑥 엉뚱한 말을 했다.

“사실은 내 숙부가 한국의 동남쪽에 사셨던 적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일군 대송면의 국민학교에서 교장으로 봉직했습니다.”

“예에? 그렇습니까? 그곳이 바로 우리 공장이 들어서는 자리입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군요.”

“인연이 있는 겁니다.”

박태준은 급히 ‘남다른 인연’을 상기시키며 한숨을 돌렸다. 대일청구권 자금을 전용하기 위한 장도의 마지막 장애물을 한쪽으로 밀어낸 순간이었다.

‘일응’의 마라톤

8 월 22 일 일본철강연맹은 이나야마 회장의 주선으로 ‘한국제철소건설협력위원회’를 구성했다. 일본의 8 개 철강회사와 종합상사들로 짠 이 위원회는 설계·건설의 기술지원과 기자재 선정의 협력을 위한 조직이었다. 이날 일본정부는 한일각료회담의 의제를 검토하려는 각의를 소집하고 한국의 종합제철소 프로젝트를 상정해, 오히라 장관을 포함한 각료 전원의 지지를 확인했다. 23 일 박태준은 야하타·후지·니혼강관 등 3 개사 대표의 이름으로 된 ‘포항종합제철 계획의 검토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을 받을 수 있었다. 뿌듯한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오른 그는 야스오카와 이나야마의 은혜를 뽐낼 깊이 아로새겼다.

야스오카는 세계를 통찰하는 학자의 덕성과 안목으로 한국의 제철소사업을 적극 지지했고, 이나야마는 사업가이면서도 사업적 이해관계보다 한일 양국의 우호협력을 먼저 고려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똑같았다. 학자는 한국이 과거의 불행을 딛고 일어나 경제발전의 첫 단계인 종합제철소를 건설한다면 일본은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고 했고, 사업가는 일본의 과거 잘못으로 한국 국민이 겪은 불행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종합제철소 프로젝트가 잘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서울로 돌아온 박태준은 흥가분한 마음으로 부총리를 방문했다. 뜻밖에도 김학렬의 태도는 딱딱했다.

“일본정부가 22일 청구권 자금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의했지만, 양국 각료회담에서는 기술협력에 대해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본 철강업계의 확실한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걸 쥐고 있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일본 3대 철강회사 사장들의 서명이 담긴 기술협약 문서를 받아주세요.”

“일본인의 특성상 문서를 요구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 판단에는 언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태준은 항의하듯 말했다. 부총리의 요구가 일본의 사업 관행엔 결례였다.

“그래도 국가 간의 관계는 묘할 수 있습니다. 회담 개최 전까지 기술지원도 하겠다는 문서를 3대사 대표들의 공동서명으로 받아오세요.”

그는 불가능한 사유를 꼽았다. 일본 철강사 사장들이 이제 막 포철 일을 마치고 시골별장으로 휴가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한일각료회의가 겨우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그들의 신의를 의심하는 행동이 오히려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김학렬은 완강했다. 박태준의 마스코트와 다른없는 완벽주의를 들고 나왔다.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수고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박태준은 여장을 풀 겨를도 없이 다시 공항으로 달려갔다. 참으로 멧쩍고 민망한 심부름에 내몰린 아이처럼 낭패감과 수치심이 마음속 깊이 달라붙었다. 대의의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따위에 연연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길이 사흘에 걸친 ‘마라톤 장정’으로 바뀔 줄은 몰랐다.

이나야마는 도쿄 본사에 있었다. 박태준은 괴로운 숙제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서양인(KISA)과의 약속에서 너무 크게 당했기에, 만의 하나라도 대비하려는 한국정부의 노심초사를 이해해달라는 양해도 구했다.

“다른 두 분 사장님과 관계 요로의 입장을 확인한 다음에 내일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나야마가 호의를 무시당한 듯한 섭섭함을 참느라 말씨를 낮게 깔았다. 박태준은 난처했다. 한국의 누구보다 일본의 관행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더 매달리기 어려운 사정이었다.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해주시시오. 한국정부는 확실한 희망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골똘한 생각에 잠긴 이나야마가 입을 열었다.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두 분께 전화를 해볼 테니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시시오.”

대기실로 나온 박태준은 면목이 없었다. 초조하기도 했다. 여태껏 수많은 일본인과 접촉했지만 지금까지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행운은 여전히 박태준의 편이었다.

이나야마가 서명한 서류를 건네주면서, 후지제철소 사장과 니혼강관 사장도 마침 도쿄 사무실에 있으니 당장 찾아가라고 했다.

김학렬이 요구한 문서를 품에 넣고 곧장 도쿄 시가지를 빠져나왔다. 하네다공항에는 서울행 오후 5시 노스웨스트오리엔트 항공기가 있었다. 아슬아슬하게 잡아타고 저녁놀에 물드는 동해를 건너오는 동안, 가슴에 성취의 희열이 넘쳐났다. 그런데 김학렬이 새로운 문제를 집어냈다.

“서류에는 ‘100 만 톤 규모의 포항제철소 건설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응(一應)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하는 구절이 있군요.”

박태준은 잠자코 기다렸다. 부총리가 말을 이었다.

“일응 타당성이 있다? 이게 안 좋아요. ‘일응 타당성이 있다’, ‘일응’,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래서는 지원 의사가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일응’을 빼고 ‘타당성이 있다’고 쓴 문서를 가져오세요.”

박태준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가슴엔 분노와 실망이 교차했다.

‘일응을 불안해하다니……. 일응, 일정 정도, 이걸로 사람을 거둬 망신시켜야 한단 말인가!’

버럭 고함을 지르고 싶었으나 차분하게 두 가지 불가능한 사유를 댔다. 이번엔 정말 그들이 시골로 휴가를 떠났다는 것, 오늘이 24일이니 시간이 없다는 것. 김학렬은 ‘애매모호한 문서’라고 몰아세우며 ‘일응’이란 단어를 뺀 각서를 새로 받아와야 한다고 버텼다.

박태준은 이번에도 양전히 물러났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한일각료회담에 나를 대표로 보내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몸은 어느새 김포공항에 도착해 있었다. 도쿄에 내리자마자 급히 이나야마 사장에게 연락했다. 예상대로 그는 도쿄에 없었다. 비서가 하코네에 있다고 했다. 후지제철소 나가노 사장은 560 킬로미터나 떨어진 고향 히로시마에 가 있었고, 니혼강관 아카사카 사장만 도쿄에 머물러 있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나야마의 비서실에 들렀다. 사장에게 연락을 취해달라는 박태준의 부탁을 비서는 양전히 거절했다.

이제 구원을 요청할 곳은 딱 한 군데 남았다. 염치없는 부탁을 들고 야스오카를 찾았다. 야스오카는 휴가중인 이나야마에게 직접 전화하기엔 곤란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으나, 자신의 마음에 담아둔 젊은이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을 열었다. 야스오카의 전화를 받은 이나야마의 비서는 먼 곳의 사장에게 보고를 올렸다. 이나야마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박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게. 나가노 사장에게는 내가 전화할 테니, 아카사카 사장에게는 자네가 전화해서 상황을 잘 말씀드리고 승낙을 받아내게.”

남은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 박태준은 ‘일응’을 뺀 새로운 협조각서를 들고 자동차로 비행기로 세 곳을 찾아다녔다. 하루와 한 나절을 바친 일정이었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한일각료회담은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해냈어요?”

김학렬이 고친 서류를 보자고 했다.

“여기 있습니다.”

박태준은 점잖게 새 각서를 넘겨주었다. 피로가 몰려들었으나 마음은 잔잔해지고 있었다.

1969년 8월 26일 오후, 도쿄에서 제3차 한일각료회담이 열렸다. 한국정부의 대표단은 김학렬 부총리를 중심으로 외무장관 최규하, 재무장관 황중률, 농림장관 조시형, 상공장관 김정렴, 교통장관 강수종 등으로 꾸려져 있었다. 회담 사흘째, 드디어 종합제철소 프로젝트가 책상 위에 올랐다.

일본정부의 대표단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일본 철강업체와 상의한 후 자세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학렬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박태준이 여름 한복판을 마라토너처럼 뛰어다니며 확보한, 일본철강업체 3사 대표의 ‘협조각서’였다. ‘일응’을 뺀 그 문서에는, 100만 톤 규모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요지와 그들의 기술협력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해 8월에 도쿄에서 박태준을 만났던, 한창 전도양양했던 나카소네는 뒷날에 “뒤통수 해도 박태준 선생의 노력이 일본의 협력을 도출해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는 보는 이들이 오히려 안타까워할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녔다. 일본측은 박 선생의 진지한 노력에 감동을 받았다.”는 회고를 남긴다.

회담의 마무리로서 양국 대표는 각서에 서명했다. 8월 28일 일본 정부는 종합제철소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로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29일에는 야하타제철·후지제철·니혼강관의 사장들이 김학렬을 예방했다. 무려 10년 가까이 끌어온 한국의 종합제철이 극적으로 불임의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열린 시간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포철의 씨앗이 완전히 한국경제의 자궁에 착상된 상태는 아니었다. 일본조사단의 내한이 이루어져야 했고, 그들의 보고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문제였다.

식민지 배상금 전용의 협약을 맺다

1969년 여름에 일본 경제기획청 조정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아카자와.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상공성에서 관료생활을 한 뒤 물러나 일본무역진흥회 이사장을 역임한 그는 8월에 열린 한일각료회담의 팽팽한 긴장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나는 외무성, 대장성, 통산성을 뺏길나게 오가며 각료회의 공동성명 문안을 작성했다. 그런데 이 공동성명 문안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었다. 지금도 그 문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에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한국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었다.

김학렬 부총리가 김포공항의 귀국성명에서 “한일 양국은 종합제철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기본적인 합의를 했다.” 하고 발표했으나, 우리 일본측에서는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한 후 검토하기로 했다.” 하는 식의 발표를 했다.

어쨌든 우리 일본정부는 그 공동성명에 따라 20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는데, 내가 단장으로 임명되었다.

--아카자와 쇼이치, 『우리 친구 박태준』

일본조사단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9월 17일이었다. 그보다 보름 앞선 8월 26일, 박태준은 참으로 속이 시원한 문서를 받았다. ‘한국과 KISA 간 기본계약은 무효화한다’는 KISA의 통보였다. 그는 앞선 이가 빠진 것 같았다. 이제는 자금도 기술도 경험도 없는 포철의 운명이 꿈쩍없이 일본조사단에 맡겨졌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고비는 그들의 보고서였고, 책임자 아카자와의 시각이 가장 중요했다. 박태준은 의연하고 정중하고 진솔하게 그를 상대했다. 뒷달에 아카자와는 이런 글을 남겼다.

우리 조사단의 방한 일정 중에는 포항 현지시찰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교통편은 전세기를 이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포항 현지시찰 예정일 전날부터 호우가 쏟아져 비행기가 뜰 수 없었다. 당시 나는 도쿄에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기에 현장시찰을 중지하느냐, 귀국을 하루 이틀 연기하느냐를 놓고 고민을 했다. 그러나 그 고민은 아주 쉽게 풀렸다. 경제기획원으로부터 3량으로 편성된 특별논스톱 열차로 경주까지 우리 조사단을 수송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3량의 특별열차 중 한 칸은 우리 조사단이, 다른 한 칸은 한국측 사람들이 이용했으며, 가운데 칸은 식당차로 되어 있었다. 내가 박 회장과 친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열차 내에서였다. 빗속을 달리는 열차 안이어서였을까? 편안하고 여유 있게 나와 박 회장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신의 섭리라고나 할까, 아니면 사바세계의 인연에 의한 것이라 할까?

우리는 아주 오래 전에 만났던 사람들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때때로 차창 밖에 펼쳐지는 시골 풍경을 감상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한국의 경제, 포항제철의 구체적인 건설계획과 연료문제, 장차 대제철소로 발돋움할 포항제철과 일본의 제철회사 간의 관계 등 생각나는 대로 흥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 회장과와의 장시간에 걸친 대화를 통해서 나는 그의 인품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 대화 중 나는 박 회장이 참으로 솔직하며 오로지 제철산업의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순수하고 박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고,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많겠지만 박 회장이 지휘를 한다면 한국에서의 제철소 건립과 경영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경주에서 하루를 묵은 우리 조사단은 다음 날 포항 현지를 시찰할 수 있었다. 말이 현장시찰이지 그곳은 황무지 바로 그것이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황량한 풍경이었다. 그 황무지 위에 사람이 세운 것이라고 ‘롬멜하우스’라 불리는 목조건물 하나와 브리핑용 공장 조감도 하나뿐이었다.

우리 조사단 일행은 기가 막혔고 탄식이 절로 나왔다.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나는 담담했고, 이 일은 일본정부가 꼭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 이유는 박 회장이 나로 하여금 반하지 않고는 건딜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인품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결국 조사를 마치고 일본에 돌아온 나는 매우 긍정적인 보고서를 쓰기에 이르렀고,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포항제철 건설이 착수된 것이다.

--앞의 책

그 비 내리는 가을날부터 16 년이 지난 1985 년 4 월, 제 17 차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가 경주에서 열렸다. 그때 박태준은 한국측 대표로서 양국 대표단을 포항제철소로 초대해 성대한 리셉션을 베풀었다. 여기엔 아카자와도 참석했다. 박태준은 그에게 16 년 전의 은혜를 우정의 한마디로 갚는다.

“우리 포철은 제 1 고로를 ‘아카자와 고로’라 부릅니다.”

만장의 박수가 터졌다. 아카자와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재회한 죽마고우처럼 포옹했다.

아카자와가 인솔한 일본조사단이 포항을 다녀간 무렵, 박태준은 이미 건설기획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조직은 설계·공정 기획, 시공업체와의 계약업무 조정, 예산 통제, 설비구매 기획, 설비의

인도·설치기획 등에 대한 실무적 검토와 실행을 맡았다. 그러나 포철은 ‘무(無)’였다. 직원들이 여러 선진국 제철소에서 기술연수를 받고 있었지만, 순수한 포철의 힘으로는 건설공정 관리를 감당할 능력이 모자랐다. 박태준은 업무를 크게 둘로 쪼갰다. 설비선정과 설치에 대한 감독은 일본 기술자문단에 맡기고 부지조성, 공장건물 신축, 국내 건설업체 감독은 포철이 전담하기로 했다.

자동차공장, 섬유공장, 비료공장, 조선소보다 훨씬 복잡한 종합제철소 건설. 박태준은 침착하게 전체를 통찰하며 모든 공사를 동시에 추진해나갔다. 부지조성공사, 도로공사, 지원설비공사, 제철설비 선정과 주문, 기초공사와 제철설비 설치, 사양서 검토, 성능시험……. 험준한 산의 꼭대기에 포철을 짓는다고 비유하면, 수백 개의 등산로를 만들어 수백 개의 팀이 저마다 다른 장비를 짊어지고 한꺼번에 차근차근 정상으로 향해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머리는 늘 산정에 머물면서 긴장된 시선으로 아래를 골고루 관찰하고, 몸은 늘 수백 개의 등산로를 빠짐없이 찾아다니며 점검과 독려를 쉬지 않아야 했던 박태준. 무대는 꾸며져 있는 거나 진배없었다. 일본조사단이 포철 지휘자에게 큰 감화를 받고 돌아갔으므로, 그들의 보고서가 완성되어 한일 양국이 종합제철소 프로젝트에 관한 기본협약서에 사인하는 일만 남았다. 자금과 기술 문제에서 한숨을 돌린 박태준에게 계획서와 시간표를 세밀히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는 조성된 부지에 비행장 같은 도로를 닦았다. 항만청이 맡은 항만건설의 진척상황을 주시했다. 건설부가 주도하고 있는 산업용수 확보를 위한 안계댐 건설공사와 파이프라인 매설공사도 점검해나갔다. 장차 230 만 평이 넘는 부지에 세울 소결공장·석회소성공장·제선공장·코크스공장·주조공장·제강공장·빌레트공장·열연공장·후판공장·블룸/슬래브공장 등 1 킬로미터에 이르는 건물을 포함한 22 개의 대형건물, 그 안에 장착할 엄청난 무게와 부피의 설비들을 하나하나 카메라 찍듯 뇌리에 담았다. 1 천 200 평 원료야적장과 하역시설을 생각하면서 직원 연수제도와 복지제도를 구체화하고 사원주택단지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려는 작전계획을 수립하듯, 원료구매에 뛰어든 시기와 방법도 치밀하게 구상했다.

그뿐만 아니었다. 10 여 년 전 미 육군부관학교에서 처음 본 뒤 다시 몇 년 전부터 일본 월간지 『토목』에서 접해온 ‘복잡한 공정관리를 위한 PERT 기법’을 도입하려 했다. 그래서 관련 서적과 자료를 수집했으며, 책임자에게 교재로 만들어 교육시키게 했다. PERT 기법은 정해진 공기(工期)와 예산에 맞춰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공사 실행계획이다. 이는 공사일정과 전체적 공기를 산출하고 각 부문의 상호의존활동을 조정하는 업무에 안성맞춤이었다.

공사부장 심인보가 며칠을 공공댄 끝에 「새로운 공정관리기법」이란 교재를 만들었다. 박태준은 모든 간부를 불러모아 그의 강의를 듣게 했다. 그리고 못을 박았다.

“오늘 이 시점부터 모든 업무를 PERT 기법으로 관리하고 모든 추진계획을 PERT 기법에 의거해 보고하라.”

1960년 가을에 미국 연수를 떠나는 박태준에게 뭐든 잘 배워오면 국가에 쓰일 날이 올 것이라고 했던 박정희. 그의 작별사가 현장 책임자의 각별한 노력과 어우러져 멋지게 실현되는 것이었다.

포철이 공장 건설의 출발선을 향해 침착하게 다가가던 1969년 가을, 박태준이 전혀 기웃거리지 않은 정치계는 저항과 소란과 음모 속에서 3선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간신히 이루었다. 그리고 10월 17일 실시된 3선개헌안 국민투표는 투표율 77.1%에 찬성 65.1%, 반대 31.3%였다. 박정희에게는 불만스러운 결과였다. 정일권 총리 이하 내각과 이후락 비서실장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상공부 장관 김정렴이 비서실장으로 오고 이후락이 중앙정보부장으로 가는 후속 인사가 이뤄질 차례였다. 김정렴은 박정희 경제를 한층 더 강하게 할 것이고, 이후락은 박정희의 정치를 더 어두운 쪽으로 유인할 것이었다.

가을이 저물었다. 11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국민투표 후유증이 가라앉으며 한국경제 전망대엔 청신호가 켜졌다. 농업은 약 773만 7천 석의 벼수확을 올려 최대 풍작을 달성하고, GNP 성장률은 15% 이상 - 1969년 GNP 성장률은 역사상 유례없이 15.9%였음 - 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대에 머물러 1960년대를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할 것 같았다.

1969년 12월 3일, 종합제철소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한일기본협약이 조인되었다. 박태준 사장이 나란히 앉은 자리에서 김학렬 부총리와 가네야마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한 문서에는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일본측은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협정 및 관련 문서에 의거하여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을 위한 협력을 제공한다.

포철 1기 완공을 위해 3년에 걸쳐 일본이 제공할 자금은 총 1억 2천 370만 달러로, 청구권 자금 7천 370만 달러와 일본 수출입은행 상업차관 5천만 달러를 합한 액수였다. 청구권 자금은 유상 4천 290만 달러와 무상 3천 80만 달러. 1기에 소요될 내자 총액은 230억 원이었다.

종합제철소 건설의 복잡하고 난잡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통찰하여 하나의 지도를 그리듯 빈틈없이 완성해나가는 박태준. 그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천부의 명석한 두뇌가 바탕을 이루었지만, 군대와 군정과 대한중석을 거치며 절차탁마한 결과이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뒤 ‘지리산 잔비 토벌’을 위한 대규모 병력이동 작전계획을 수립해 정일권 군단장을 놀라게 했던 일, 육군대학과 국방대학에서 최고의 성적을 성취하며 배우고 익힌 군대경영과 국가경영의 지식, 진해의 육사를 태릉으로 옮기는 작전계획에 후퇴계획까지 포함시킨 완벽성으로 박병권 교장을 감탄시킨 일, 미 육군부관학교에서 최신 관리기법을 배운 일,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되어 국가를 총체적으로 통찰할 경험을 쌓은 일, 상공담당 최고위원으로서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학계·재계의 경제전문가들과 폭넓게 교류하면서 익힌 지식, 대한중석 사장으로서 실물경제를 이끌었던 체험과 여러 선진국의 경제현장을 직접 관찰한 ‘백문불여일견’의 지혜…….

그리고 그에게는 두뇌와 체험과 지식보다 더 귀중한 자산이 있었다. 바로 확고한 애국적 신념과 강력한 도덕성이다. 그것은 부정, 부패, 야합, 아부 따위를 혐오했다. 변방의 작은 갯마을에서 태어나 청년기에 갓 접어들 때 광복의 감격과 환희를 안은 후, 대한민국의 혼란·전쟁·폐허·빈곤·부패·무능의 시대를 관통해온 박태준. 그의 청춘은 ‘짧은 인생을 영원한 조국에’라는 투철한 애국심, 부패에 타협하거나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도덕성이란 두 레일을 타고 달려온 기관차 같았다. 이러한 정신적 특장이 박정희의 전폭적 신뢰를 받게 했으며, 그것은 근대화 혁명전선의 두 사내를 이체동심의 하나로 묶어주는 강철 같은 띠이기도 했다. 박태준의 애국심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국가주의의 부정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과거를 살피는 시각이 ‘당대의 조건’을 간과하면 출발 지점부터 오류에 빠지게 된다. 2014 년 현재 우리가 말하는 ‘민족주의’는, 1930 년대 독일의 히틀러가 독성 바이러스처럼 퍼뜨린 ‘민족주의’와는 근본이 다른 개념으로 소통되고 있다. 우리의 ‘민족주의’는 침략적 성격을 배제하고 방어적 성격에 국한되며, 분단극복의 의지와 통일지향의 염원을 담고 있다. 기필코 포철을 성공시켜 국민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게 하겠다는 박태준. 그의 국가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떳떳하게 쓰고 있는 ‘민족주의’의 개념에 대입할 수 있다. 그의 국가주의는 다른 국가를 침략할 강국을 만들자는 뜻이 아니었다. 6·25 전쟁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군인이었던 40 대 박태준의 이념에는, 북한을 겨냥한 반공주의가 하나의 핵으로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의 국가주의는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강국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남침을 저지할 자주국방의 강국을 만들자’는 것이었으며, 절대빈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사명감으로 불타는 것이기도 했다.

빼앗긴 국가, 부서진 국가, 갈라진 절대빈곤의 국가에서 42년 넘게 살아온 박태준의 영혼에는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야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했다.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포항종합제철 건설’의 착공식을 앞둔 42세 박태준은 확실히 ‘박정희의 영예’를 한층 더 영광스럽게 해주고 ‘박정희의 공로’를 한층 더 장대하게 해줄, 역사의 평가에서 ‘박정희의 가장 밝은 자리’에 우뚝 서게 될 수밖에 없는 정신의 소유자였다.

박태준의 우향우, 박정희의 종이마패

마침내 박태준은 종합제철소 건설의 출발선에 섰다. 포철 탄생의 첫 위기인 ‘KISA의 배반’을 ‘하와이 구상’의 실현으로 돌파한 그는 다시 내면을 가다듬었다. 이 단계에서 자신의 가장 절실한 의무는 무엇인지, 직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겨울바람 몰아치는 황량한 모래벌판에 직원들을 집합시킨 박태준은 알고 있었다. 입으로 하는 말은 잔소리에 그치면서 잊혀지기 쉽지만, 깊은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외침은 다른 존재의 내면에 안착한다는 것을.

“우리 조상의 혈세로 짓는 제철소입니다. 실패하면 조상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목숨 걸고 일해야 합니다.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향우’해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죽어야 합니다. 기필코 제철소를 성공시켜 나라와 조상의 은혜에 보답합시다. 제철보국! 이제부터 이 말은 우리의 확고한 생활신조요, 인생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박태준은 비장했고 직원들은 뭉클했다. 누가 애쓸 필요도 없이 그 외침은 가슴과 가슴을 타고 번져나갔다. ‘조상의 혈세’는 포철 1기 건설에 투입되는 일제식민지 배상금을 의미했다. 이는 민족주의를 자극했다. 오른쪽으로 돌아서서 곧장 나아가 바다에 투신하자는 ‘우향우’는 비장한 애국주의를 고양했다. 둘은 ‘제철보국’ 이념에 자양분이 되었다. 제철로써 조국의 은혜를 갚고 조국 세우기에 이바지하자는 것은, 민족과 국가를 위한 대역사에 참여한다는 자긍심을 조직에 불어넣었고 빠르게 ‘포철정신’으로 뿌리내렸다.

종합제철소 건설의 출발선을 막 떠난 박태준 앞에는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대한 국가자금을 만지고 있으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부패세력과 정치자금이 그것이었다.

1969년 세모의 어느 날, 박태준은 포항사무소에서 비서실장 조말수의 보고를 받았다. 서울사무소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날마다 여기저기서 인사청탁하고 납품업자를 도와달라는 전화가 오는 바람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그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누가 그런 짓을 해? 그거 이리 내.”

비서실장이 내민 것은 청와대 박종규 경호실장의 메모였다. 박태준은 짹짹 씹어서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다.

“이 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 나가봐.”

그는 포철 창립기념식에서 ‘사회사업적’ 인사관리를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선언한 일을 떠올렸다. 자신이 아는 박 아무개는 설마 그런 위인이 아닐 테지만, 흔히 청탁을 거절당한 실력자들은 거절한 사람을 모함하기도 했기에, 앞으로 더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일관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로이 다졌다.

1970년대의 첫 태양이 영일만 수평선 위로 솟아올랐다. 그것이 바로 쇠물의 빛깔이란 것을 박태준은 알고 있었다. ‘대망의 70년대’란 말이 나왔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영일만 사내들’에게 선사해야 할 새해의 꽃다발이었다. 이제 곧 설비구매와 공장건설을 시작할 포철에 가장 어울리는 현사였다. 박태준도 ‘국가적 대의’에 순수하게 복무하라는 대망을 받아들였다. 자립경제 기반 위에 번영을 구가하고 선진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국가적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포철의 성패에 달려 있다는 자각을 새삼 똑바로 세웠다. 어쩌면 1970년의 새해 첫 아침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엄숙한 순간인 것 같았다.

그런데 새해가 열흘 남짓 지나는 동안에 벌써 엄청난 장애가 나타났다. ‘조상의 혈세’를 한 푼도 더럽히거나 낭비하지 않겠다는 박태준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였다.

포철 1기 설비구매는 대금지불과 설비선정의 절차에 비능률과 잡음을 부르는 혼선이 깔려 있었다. 청구권 자금은 정부 간 협정이어서 포철이 직접 사용할 수 없고, 상업차관은 계약 당사자의 합의를 거친 뒤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포철을 설비구매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게 하는 덫이었다. 포철은 정부기관인 ‘주일구매소’를 통해 설비구매를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중구조는 당장 말썽을 일으켰다. 주일구매소는 포철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한 설비공급업체를 성능이나 가격에서 트집 잡았다. 그러면서 포철이 탈락시킨 업체와 계약하겠다고 주장했다. 공급업체에서 상납과 리베이트를 받아내려는 정치인들의 협잡까지 개입했다.

박태준은 판단했다. 출발선을 떠나기 바쁘게 맞닥뜨린 장애를 일거에 뛰어넘지 못하면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리고, 설비구매 차질로 전체 공기와 비용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그것을 말끔히 해치울 존재가 필요했다. 오직 청와대의 한 사람뿐이었다.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박태준에게 기회가 왔다. 1970년 2월 3일, 대통령이 포철의 공사 진척 상황을 보고받고 싶어 한다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그가 브리핑을 시작하려 하자 박정희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에게 나가 있으라고 했다.

“완벽주의자인 임자가 알아서 잘하고 있을 텐데, 보고는 무슨 보고. 그래, 일은 순조롭게 되어가나?”

박정희가 박태준의 속내를 꿰뚫는 듯했다.

“구매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박태준은 설비구매에서 포철이 부딪친 난관을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심각하게 듣던 박정희가 말했다.

“지금 건의한 내용을 여기에 간략히 적어봐.”

박정희가 메모지를 내밀자, 박태준은 경제장관 회의에서 지시할 자료인가 하며 건의사항을 간략히 정리했다.

한국측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결정해야 할 구매방식에 관한 건의는, 구매방법 결정에서 고려할 요소 4가지와 이를 뒷받침할 행정절차 3가지로 되어 있었다. 전문·목표·방법으로 짠 메모는, 설비구매를 둘러싼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포철이 일본기술협력회사와 협의하여 공급업체를 선정하도록 한다’는 것은, 정부 관료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뜻이다. ‘경우에 따라 사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편계약을 했을 때 정부에서 이를 보증해준다’는 것은, 포철이 구매계약의 주체로 나서고 정부가 구매절차의 간소화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박태준이 박정희에게 메모지를 넘겼다. 이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내용을 아무지게 훑어본 박정희가 메모지의 좌측 상단 모서리에 친필서명을 하여 도로 내밀지 않는가. 그는 당혹스러웠다. 박정희를 오래 모셨지만 처음 본 결재방식이었다.

“내 생각에 임자에겐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어려울 때마다 나를 만나러 오기 거북할 것 같아서 아예 서명해주는 거야. 고생이 많을 텐데, 소신대로 밀고 나가.”

박정희는 따뜻한 목소리에 미소까지 지었다. 박태준은 가슴이 찡했다. 몇 달 전 ‘3 선개헌 지지서명’의 서명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부했는데도 ‘원래 그런 친구야’ 하고 받아넘긴 바로 그 사람이 이번엔 대통령 권한의 일부를 자신에게 일임하지 않는가.

“각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박태준은 영혼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박정희의 전폭적 신임과 지지, 이것은 박태준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더 키우는 영양분이 되었다.

박정희의 친필서명이 든 그 메모지는 포철 역사에서 ‘종이마패’로 불린다. 임금이 암행어사에게 마패로써 전권을 위임했듯, 대통령이 메모지로써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종이마패는 경제관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지만, 설비구매를 맡은 포철 임원들에겐 소신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다. 그러나 박태준은 한 번도 그것을 내민 적이 없다. 관계자 이외에는 일체 공개하지 않다가, 1979년 10월 박정희 급서 후 고인의 포철에 대한 집념과 애정을 회고하면서 공개했으며, 현재 그것은 포항제철소의 포스코역사관에 전시돼 있다.

1970년 4월 1일 오후 3시. 영일만 모래벌판에서 천둥 같은 폭발음과 오색찬란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지반을 다지는 파일 향타의 굉음이 울려 퍼졌다. 고박 10년간 술한 고난과 시련을 넘어 파란만장한 역정을 헤쳐 나온 포철이 착공식을 거행하는 소리였다. 국내 착공식에서 최초로 쓴 파일 향타의 버튼을 누른 사람은 셋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김학렬 부총리, 박태준 사장.

박정희의 기념사는 웅대한 포부, 그 자체였다. “공업국가 건설에 선행돼야 할 근간산업 중 철강산업이 가장 중요한 분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공업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온 국민이 총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포항종합제철은 73년까지 103만 톤 규모의 공장을 예정대로 완공하면 계속 확장하여 70년대에 1,000만 톤 규모까지 생산 능력을 갖추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포항제철의 1,000만 톤 시대라는 박정희의 비전을 받아 뒤를 연단에 오른 박태준은 ‘민족중흥의 기틀’을 놓겠다는 각오로써 포철의 ‘존재의 이유’를 천명했다. 그것은 사원과 국민, 그리고 박정희를 향한 약속이었다. “종합제철 건설은 바로 우리가 비축했던 민족역량의 결정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국민 의지의 발현이며 우리의 오랜 꿈을 현실화하는 가교가 될 것”이라며 “훌륭한 공장을 최소 비용으로 건설하고, 완벽한 조업준비 자세로서 공장가동 시점에서 바로 정상조업에 돌입해야 하며, 보장된 품질의 철강재를 원활히 공급”하겠다고 천명했다.

공장부지 232 만 7 천 평에 주택단지와 연관단지 부지를 합하면 389 만 평. 그곳에서 파일 박기를 시작하자 국내 언론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다. 가난한 한국이 KISA 에 배반당했을 때는 ‘무리한’ 제철산업 추진을 비판했으나, 대역사의 막이 오른 현장을 지켜보자 희망을 예견했다.

‘1973 년 7 월 말 완공’을 내건 ‘포철 1 기 사업’은 연산 조강 103 만 톤 규모에 연간 열연코일 18 만 3 천 톤, 열연박판 22 만 톤, 대강 18 만 톤, 빌레트 41 만 1 천 톤, 중후판 10 만 5 천 톤 등을 생산한다는 규모였다.

성공이냐 실패냐. 포스코라는 거대한 열차를 성공으로 이끌어 나갈 레일은 이미 깔려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는 레일이었다. 박태준의 우향우, 이를 완벽하게 보호할 박정희의 신뢰가 바로 그 레일이었다.

“떡을 사먹든 술을 사먹든 임자 마음대로 해”

박태준은 포철의 건설방식을 ‘후방방식’으로 선택했다. 종합제철소 건설 방식에는 크게 전방방식과 후방방식이 있다. 전방방식은 철의 제조 과정과 동일하게 제선공장, 제강공장, 압연공장의 순으로 건설하고 후방방식은 압연공장, 제강공장, 제선공장의 순으로 건설한다. 압연공장을 제일 먼저 건설하고 마지막에 고로를 건설하는 후방방식은, 쇠물이 나오기 전부터 반제품인 슬래브를 수입해와서 완제품의 압연강판을 생산할 수 있다. 철강공급과 회사수익을 훨씬 앞당길 수 있는 길이다. 바로 이 장점을 그는 주목했다.

그러나 후방방식을 실현하는 데는 ‘조상의 혈세’가 아닌 별도의 큰돈을 들여야 했다. 수입한 슬래브를 완제품으로 가공할 중후판공장 건설. 여기엔 2 천 500 만 달러 상당의 외자가 투입되어야 했다. 유일한 해결책은 외국의 유명한 제철설비업체를 불러들이는 것. 박태준은 오스트리아의 피스트 알피네를 파트너로 잡았다. 6 월 23 일 포철 사장과 피스트 알피네 사장(아팔터)은 영일만의 ‘중후판공장 기본계약’에 서명했다. ‘조상의 혈세’로 만든 밀천과 ‘정부 보증’이 있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었다.

세계의 모든 철강인들이 과연 포철이 성공리에 건설될 수 있을까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큰 규모의 차관을 포철에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의 결정을 마치 자살행위로 보는 듯했어요. 박태준은 매우 끈기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한 여건에서의 협상이란 피곤하기 마련입니다만, 그는 나를 꾸준히 설득하여 우리가 포철 1기 공사에서 큰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헬무트 하세(전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총재), 『우리 친구 박태준』

중후판은 주로 선박 건조에 쓰는 철강재다. 1972년 7월에 완공될 포철의 중후판공장에 제일 먼저 눈독들인 기업가는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이었다. 어느 날 그가 박태준에게 만나자고 했다.

“조선소를 만들 생각입니다. 어디가 좋겠습니까?”

박태준은 선배의 선견지명에 깜짝 놀랐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후판은 굉장히 무거운데, 바다로 날라야 합니다. 물류원가도 절감해야 하니, 울산 정도면 적당할 겁니다. 울산이라면 포항에서 바지선으로도 실어 나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고맙습니다. 일류제품을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입니다. 서로 도움이 돼야지요.”

포철은 단골고객을 확보하고, 현대는 양질의 값싼 철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만남이었다. 한국의 중공업이 웅비의 날개를 준비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박태준이 선견지명이라고 했지만, 정주영은 청와대로 불려가 박정희에게 혼쫓이 난 다음이었다.

정주영은 부총리 김학열에게 조선업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차관 도입을 위해 일본, 미국으로 돌아다녔으나 ‘정신 나간 사람’이란 푸대접만 받고는 그를 찾아가 기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보고를 들은 박정희가 정주영을 불러 야단을 쳤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적극 지원하겠다는데 그거 하나 못하느냐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든 해내라고 몰아세운 것이었다. 머잖아 포철이 양질의 후판을 생산할 것이니 때를 맞춰서 반드시 선진국 규모의 조선소가 태어나야 한다. 이것이 박정희와 김학열의 양보할 수 없는 판단이었다. 정주영의 현대는 1972년 3월에 조선소 건설을 착공했다. 건설에 3년 걸리는 도크와 역시 3년 남짓 걸리는 조선을 동시에 시작한, 조선업계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1970년의 박정희는 국내의 저항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가 결코 어려워지고 있었다. 김지하 시인의 ‘5적 필화’ 사건이 일어나고, 닉슨이 주한미군 철수를 발표했다. 베트남전쟁은 종점으로 가고 있었다. 박정희의 시각에는 ‘내우외환’이었다. 그는 닉슨독트린을 역이용할 ‘자주국방·자립경제·자주통일’의 깃발을 준비했다.

박정희가 김종필을 총리로 기용한 때는 1971년 6월이다. 김종필이 빠진 1970년의 공화당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던 신주류를 흔히 ‘4인 체제’라 불렀다. 당의장 백남억, 재정위원장 김성곤, 사무총장 길재호, 원내총무 김진만. 이들 중 김성곤이 제일 쏠렸다. 특히 김성곤은 체제유지와 정권창출의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정치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었다. 당 밖에서는 이후락이 김성곤을 능가했다. 박정희는 그러한 내막을 잘 알았다. 군대 시절에 부정부패에 맞섰던 박정희에게는 체질적으로 안 맞는 일이었다. 그러나 정권과 체제 유지에는 정적(政敵)들과 지지자들, 군 지휘관들을 관리하는 자금이 필요했다. 이것이 그의 고민이었다. 못마땅한 구조지만 눈을 감는 수밖에 없었다.

1970년 가을 어느 날이었다. 박태준의 인생에 처음으로 굉장한 규모의 ‘뒷돈’이 저절로 굴러왔다. 보험회사 리베이트 6천만 원. 1기 건설이 시작돼 영일만으로 들어오는 고가 설비에는 규정상 거래하는 양측이 다 보험을 들어야 했는데, 그게 뜻밖에도 그만한 떡고물로 떨어졌다.

그는 임원들과 의논하여 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 드리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다. 공화당 재정담당 책임자가 정치자금 모으느라 포철에도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 없는 공돈이 생겼으니 체면치레는 될 것 같았다.

“나라를 위해 쓰시라고 기부금 좀 가져왔습니다.”

박태준이 6천만 원짜리 수표를 박정희에게 바쳤다.

“포철은 절대 정치자금 안 낸다고 한 사람이 왜 이래?”

의아하게 쳐다보는 박정희에게 돈의 성격을 설명했다.

“임자는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야. 가져가서 마음대로 써.”

박정희가 미소 지으며 탁자 위의 봉투를 도로 내밀었다.

“제가 쓰기에 너무 많은 돈입니다.”

“임자 스케일이 그렇게 작아? 떡을 사먹든 술을 사먹든 맘대로 써. 내 선물이라고 생각해.”

봉투를 돌려받는 박태준의 머리엔 ‘장학재단 설립’이 떠올랐다. 그 순간 박정희의 눈빛이 날카롭게 반짝였다.

“여보게, 그러면 다른 국영기업체 사장들도 이런 리베이트를 받아왔다는 거 아닌가?”

박태준은 눈앞에 불꽃이 튀는 듯했다. 부정할 수도 긍정할 수도 없는 질문이었다. 청와대를 나서는데 곤혹스러웠다. 순수한 마음을 냈다가, 괜히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고자질이나 한 꼴이 되고 말았다.

포항으로 내려온 박태준은 곧 임원회의를 열었다. ‘공돈 6천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주제였다. 여기서 그는 미래를 위한 종자돈으로 쓰자는 안을 냈다.

“우리 회사의 주택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으니, 하나 남은 중요한 과제는 우리 사원 자녀들의 교육문제요. 앞으로 사원이 대폭 늘어나고 젊은 사원이 나이가 들어가면 무엇보다 자녀교육이 회사의 중요한 복지 문제로 떠오를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걸로 제철장학재단을 설립하면 어떻겠소?”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이튿날부터 실무진은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1970 년 11 월 5 일 포철 제 1 회의실에서 ‘재단법인 제철장학회’ 설립이사회가 열렸다. 박태준이 원대한 포부의 한 자락을 내비쳤다.

“오늘 조출하게 출발의 첫걸음을 내디디지만, 장차 우리 사원들에게 최고의 교육시설과 장학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가 장래와 교육을 연결시키는 철학적 사고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교육에 의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며, 숨은 역량은 교육을 통해서만 계발되는 것입니다.”

박태준이 장학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국전력과 석탄공사 등 몇몇 국영기업체 사장들이 대통령에게 혼쭐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더욱 경악할 노릇은, 박 아무개의 고자질 때문이라는 꼬리표였다. 박태준은 귀를 막고 싶었다. 미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다. 해명하러 다닐 수도 없는 터에 누군가는 복수의 손길마저 뻗쳐왔다.

“보험 리베이트가 어디 6 천만 원뿐이었겠나?”

이러한 의구심을 띤 세력이 박태준과 임원들을 뒷조사했다. 박태준은 순진한 대가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곤욕으로 생각했다. 겁날 것은 눈곱만큼도 없었다. 어차피 ‘뒷구멍’ 따위는 하나도 두지 않은 것이었다.

박정희는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박태준과의 관계에서만은 결코 얼룩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거듭 확인하듯 박태준의 ‘저절로 생긴 돈’마저 거절했다. 두 사람의 ‘독특한 인간관계’를 새삼 확인하는 이 장면에서, 박정희는 ‘거절’의 선택이 돋보이고 박태준은 그것을 고스란히 자기 포부를 위한 밑거름으로 묻은 선택이 돋보인다.

은행 빚을 내서 사원주택 해결의 첫발을 내디딘 박태준은 묘하게도 리베이트라는 공돈으로 사원자녀 교육에 첫발을 내디뎠다. 제철장학재단은 포철의 교육적 모태였다. 이 재단이 1971 년 9 월 첫 유치원을 세운 뒤로 회사의 성장과 사원 자녀의 성장이 거의 일치함에 따라, 포철은 각급 학교를 차례차례 설립했다. 1980 년대에 광양제철소를 건설할 때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거의 한꺼번에 다 세웠다. 박태준은 유치원, 초, 중, 고교 14 개를 세워 한국 최고 사학으로 육성하고 마침내

1986년에는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을 설립하여 세계적 명문대학의 반열에 올려놓는다. 한국 사학의 새 지평을 열어젖힌 것이다.

“중통령이라 부르시오”

박태준의 포철이 교육에 대한 포부를 실행하는 첫걸음을 옮긴 지 1주일쯤 되었다. 1970 년대의 첫 가을이 저물어가는 그때, 별안간 한국의 잠든 노동운동에 뇌성병력이 떨어졌다. 1970 년 11 월 13 일 오후 1 시 40 분께,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한길에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 절규가 불꽃으로 타올랐다. 전태일 분신자살. 이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이 반독재 투쟁대열에 용기와 힘을 불어넣는 원천으로 거듭나는 가운데 70 년대 첫해의 달력이 넘어갔다.

1971 년 새해 영일만에는 하나둘씩 사원복지제도의 기반이 마련되고,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우후죽순으로 돌아났다. 바깥세상은 대통령선거에 관심이 쏠리는 중이었다. 3 선개헌을 통과시킨 박정희가 확고부동한 공화당 후보로 정해져 있었고, 신민당은 70 년 9 월의 전당대회에서 김영삼·김대중·이철승의 ‘40 대 기수 3 파전’의 경쟁을 거쳐 김대중을 후보로 내세웠다. 1 차 투표에서 패했으나 2 차 투표에서 이철승의 도움으로 김영삼을 이긴 김대중. 45 세의 야당 후보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높은 지지로 승리를 호언하는 마당에, 청와대와 공화당은 ‘힘겨운 선거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만큼 ‘금권’이 있어야 했다. 돈의 위력으로 표 모으기를 획책하는 선거운동 핵심부는 마땅히 돈이 들어올 파이프라인들을 만들고 있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공화당 재정위원장의 눈은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한창 설비를 구매하고 있는 포철을 ‘가장 دم직한 파이프라인’으로 찍었을 것이다. 그는 박태준의 방문을 두드렸다. 즉시 뼈뺀 반응이 나오자 아예 방문을 황황 두들겼다. 대통령선거의 계절, 박태준에게는 ‘정치적 곤경’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이른바 공화당 4 인체제의 핵심인 재정위원장 김성곤. 그가 박태준을 자기 집으로 불렀다. 거실에는 여러 사람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여당에 정치헌금을 내려고 초대받은 사람들 같았다. 박태준과 김성곤은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았다. 주인이 본론을 꺼냈다.

“다가오는 대선을 생각해서 박 사장도 정치자금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달 도쿄에서 포철의 설비입찰이 있다고 들었는데, 마루베니로 낙찰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손님이 얼굴을 찌푸렸다. 주인은 짐짓 웃었다.

“이것이 대선에서 우리 당을 돕는 일입니다.”

“포철은 어떤 정치자금 조성에도 관여하지 말라는 각하의 특별당부가 있었습니다. 포철이 정치현금 때문에 제대로 완공되지 못하면, 그때 가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주인의 눈가에 깊은 주름살이 생겼다.

“박 사장님, 자신과 회사를 생각해서라도 마루베니를 도와주세요.”

“자격을 갖춘 응찰자 가운데 최저입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방침입니다. 마루베니가 최저입찰자라면 당연히 낙찰되겠지요.”

둘은 헤어졌다. 마루베니는 탈락했다. 박태준은 다시 악역을 맡은 이에게 불려갔다.

“다음 입찰에서는 꼭 마루베니를 도와주세요.”

“마루베니의 입찰가는 최저입찰가보다 무려 20%나 높았습니다. 내가 특정회사에 특혜를 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지금의 뼈대한 예산으로 포철을 제대로 완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각하가 선거에서 이기셔야만 나라도 발전하고 우리도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음에는 무조건 마루베니를 밀어주세요.”

그러나 마루베니는 번번이 입찰에서 떨어졌다. ‘20%’라는 정치자금을 더 얻었으니 그쪽으로 떨어질 국물조차 없었다. 그때마다 박태준은 같은 장소로 불려가야 했다. 무려 5 번이나 마루베니에 특혜를 주라는 압력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포철 1 기의 설비입찰이 모두 끝났을 때 두 사람은 또 마주앉아야 했다.

“결국 한 번도 마루베니를 배려하지 않았더군요. 내 이익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잖소? 지난 1 년 반 동안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끝까지 우리와 당을 도와주지 않았소. 소통령이라도 된다는 거요?”

“그런 별명을 붙이시려거든 소통령보다는 차라리 중통령이라고 불러주시오.”

박태준은 부드럽게 김성곤의 말을 받아넘겼다.

김성곤과의 길고 버거운 씨름에서 이긴 뒤 박태준은 ‘소통령’이란 소리를 몇 번 더 들었다. 국회에 불려나갔다가 “저기 소통령 가시네.” 하는 소리를 손가락질과 함께 표창처럼 맞곤 했다. 그러나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소통령’은 훈장이라고 여겼다. ‘모든 정치자금’을 철저히 배격하고 ‘최저비용 최고품질’이라는 설비구매 원칙을 관철한 것이 포철 성공을 담보할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박태준이 ‘소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포철은 걸음마부터 휘청거려야 했다.

“나왔다! 만세!”

드디어 영일만 모래벌판에 최초의 공장이 태어났다. 1972년 7월 4일 오전 11시, 포항 1기 건설의 22개 공장 중 제일 먼저 ‘중후판공장 준공식’이 열렸다. 외자 2천 430만 달러와 내자 24억 원을 투입해 8월에 준공할 계획이었던 공장을 ‘공기 1개월 단축’ 목표에 따라 한 달 앞당겨 완공한 것이다. 중후판공장은, 당장 반제품인 슬래브를 들여와 길이 22미터의 완제품 조선용 중후판을 비롯해 오일탱크, 고압보일러탱크, 다리·댐건설용 강판 등을 연간 33만 6천 톤 생산하여 400만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올리게 되어 있었다. 이 공장의 시험조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7월 31일 최초의 국산 중후판 62톤이 호남정유 여수공장 유류저장 탱크 제작용으로 트럭에 실렸다. 고로에서 쇠물을 쏟아져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포철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동스위치를 누르자 롤러테이블 위로 미끄러져 나온 시빨건 슬래브가 4중 회전식 압연기를 거쳐 두꺼운 철판으로 거듭났다. 후판(厚板) 생산 개시. 박태준은 첫 제품에 ‘품질로서 세계정상’이란 기념휘호를 썼다. ‘포항제철 제품 첫 출하’라는 플래카드를 붙인 20톤 대형트럭 3대가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가슴 벅찬 박수를 받으며 포철 정문을 빠져나갔다. 그는 나이 어린 맏딸을 시집보내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이었다.

영일만의 역사적인 첫 준공식보다 한 시간 빨랐던 7월 4일 오전 10시,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을 설레게 하는, 조만간 한반도에서 천지개벽을 일으킬 듯한 사건이 터졌다. 서울과 평양이 똑같은 시간에 별안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72년 5월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2부장 박성철이 비밀리에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합의했다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원칙’을 비롯해 상호중상·비방·무력도발 중지, 다방면에 걸친 교류 실현, 이를 위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 어느 하나도 민족적 염원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과연 서울과 평양의 집권자는 어떤 정치적 계산으로 이 대담한 선언을 했을까.

포철은 8월을 맞아 희망에 부풀었다. 본디 1974년 8월로 예정되었던 260만 톤 규모의 ‘포항 2기 사업’을 8개월 앞당긴 73년 12월에 착공하기로 결정했다. 열연공장 가열로의 화입식(火入式)이 열렸고, 중후판공장 조업에 필요한 반제품 원료인 슬래브와 핫코일이 속속 선박에 실려 왔다. ‘공기 1개월 단축’의 목표도 뜨거운 태양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설 요원들의 역수 같은 땀을 최고 영양분으로 받아마시며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었다. 1972년 10월 3일 포철은 1기 건설의 핵심 설비 중 하나인 열연공장의 준공테이프를 끊었다. 연간 62만 2천 톤의 슬래브를 처리하여 열연코일 18만 3천 톤,

박판 22 만 톤, 대강 18 만 톤 등 58 만 3 천 톤의 완제품을 생산할 공장. 박태준의 ‘후방방식’에서 일관제철소의 하(下)공정 건설이 거의 마무리된 것이었다.

박태준은 첫 열연제품에 흰 붓글씨로 ‘피와 땀의 결정체’라는 기념휘호를 쓰며 뜨거운 가슴을 진정했다. 이때 포항 1 기 건설은 종합진도에서 79.2%의 공정률을 기록했다.

열연공장 준공식이 끝나고 서울 손님들이 돌아간 다음이었다. 박태준은 제 3 의 공기단축을 구상하고 있었다. 문제는 구성원의 정신이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도전에 성공한 자신감, 민족적 염원을 실현한다는 자긍심, 애국적 의지를 불태우는 강한 집념. 포철의 건설현장에는 이런 정신적 자산의 요체인 ‘제철보국’이 든든한 기초공사로 안착해 있음을 박태준은 확신할 수 있었다. 그가 제 3 의 공기단축에 대한 세부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던 1972 년 10 월, 한반도는 정치적 배덕의 길에 접어들었다. 평양의 김일성이 제 5 기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국가주석 중심제’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사실상 ‘영구집권체제’를 구축했다. 이어서 서울의 박정희는 1972 년 10 월 17 일 이른바 ‘10 월유신’을 단행하여 ‘영구집권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그날 저녁 7 시 전격적으로 발표된 ‘대통령특별담화문’은 한반도 남녘을 일시에 얼어붙게 한 한파였다.

“현행 법령과 체제는 냉전시대의 산물로서 오늘날의 상황에 적응할 수 없으며, 대의기구는 파벌과 정략의 희생이 되어 통일과 남북대화를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비상조치로서 체제개혁을 단행한다.”

박정희는 전국 비상계엄선포, 국회해산, 정당활동 중지, 비상국무회의 설치 등 비상조치를 단행했다. 7·4 남북공동성명, 그 설레는 화해무대에 줄지에 엄청난 한파가 몰려온 저녁이었다. 된서리도 내리기 전에 덮친 한파주의보. 대한민국은 단결음에 ‘자립경제·자주국방·자주통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겨울공화국’으로 진입했다. 이제 사회 전반에 독재의 사슬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날 차례였다.

시월유신의 통치체제는 불과 열흘 뒤에 등장한 ‘유신헌법’으로 합법화되었다. 여기에는 ‘평화적 통일지향’이 담겼다. 그러나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란 새 조항이 단연 빼어나 보였다. 그것은 곧 억압에 동원할 독재의 사슬을 의미했다. 저항과 탄압의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독재권력의 비극적 종말을 잉태한 자궁이기도 했다. 비상국무회의가 의결·공고한 유신헌법은 개헌반대 발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가운데, 11 월 21 일 국민투표에 부쳐져 ‘투표율 91.9%에 찬성 91.5%’라는 결과를 낳았다. 북한식 선거에 버금가는 결과였다. 새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간접선거’에 의거해, 12 월 23 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들은 체육관에서 제 8 대 대통령에 박정희 후보를 선출하였다.

스산한 겨울공화국의 1972 년, 그러나 영일만의 겨울은 공기단축의 열정으로 뜨거웠다. ‘공기 2 개월 단축’이란 결전의 목표가 세워져 있었다. 박태준은 1972 년 12 월 31 일 서울 본사를 아예 포항으로 이전했다. 현장제일주의의 실천이었다.

포철의 역량이 공정관리에 집중 투입된 영일만에는 1973 년 벽두부터 준공식이 이어지고 있었다. 정월 초하룻날의 급배수설비·시험검정설비 준공을 필두로, 1 기 설비의 10 개 공장과 12 개 설비가 차례차례 준공되어 시험조업에 돌입했다. 박태준이 호주에서 ‘일본과 동등한 조건의 공급’을 기어코 타결했던 원료들도, 기나긴 항해를 거쳐 유라시아대륙의 가장 동쪽 아름다운 영일만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2 월 27 일 호주의 원료탄을 실은 4 만 2 천 톤급 아잔타호가 포항항에 들어왔다. 4 월 14 일엔 월드뉴스호가 3 만 8 천 339 톤의 호주산 철광석을 싣고 포철이 흰히 바라보이는 수평선에 나타났다.

호주산 철광석이 처음으로 포철 원료부두에서 산더미를 이루었을 때, 박태준은 이미 포철을 ‘1 기 건설 종합 카운트다운 체제’로 운영하고 있었다. 국내 건설공사 최초로 도입한 이 관리기법은, 그때그때 해야 할 모든 일을 완전무결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전체 흐름에 혼선을 일으킬 상황에서, 남은 공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한꺼번에 관리함으로써 ‘완벽한 마무리’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1 기 공사의 절정은 ‘고로 화입’과 ‘첫 출선’이었다. 제 1 고로 화입일(火入日)은 6 월 8 일로 잡혔다. 4 월 초부터 일본기술단의 고로팀, 설비공급자, 부문별 감독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무리에 필요한 보완·추가공사의 항목을 점검했다. 아직은 크고 작은 공사가 500 여 항목이나 남아 있었다. 박태준은 다시 비상을 걸었다. ‘D-32 일’의 표지판이 걸린 5 월 7 일에 ‘고로 잔공사(殘工事) 비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고로 운전실에 잔공사 지휘본부를 설치했다. 고로에 달라붙은 모든 직원이 빨간 안전띠를 착용해 정신적 재무장을 결의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의 정신에 달려 있다. 신선한 사명감으로 활력을 얻은 그들은 24 개 송풍기관 설치를 24 시간 내에 완료했고, 5 월 15 일엔 애초 계획대로 고로의 고압누설시험에 성공했으며, 5 월 22 일엔 고로 내부에 침목 2 천 725 본을 쌓아 충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

‘D-1 일’이었다. 박태준은 본관 앞 광장에서 태양열을 채화하여 원화로로 보냈다. 마침내 디데이의 날이 밝았다. 7 명의 원화 봉송 주자들이 차례차례 하늘의 불씨를 넘겨받았다. 오전 10 시 30 분, 7 번째 주자가 넘겨준 원화봉을 받은 박태준은 엄숙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1 고로에 불을 지폈다. 불은 붙었다. 이제부터 21 시간 동안이나 기다려야 했다. 그는 고로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리는 것으로 기다림을 시작했다. 잘생긴 돼지머리가 올라앉은 조출한 제상 앞에 다른 임원들도 엎드려 절을 올렸다. ‘첫 출선의 성공’을 기원하며.

박태준은 숙소로 돌아와 경갈히 몸을 씻었다.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잠시도 긴장을 놓지 못했던 지나간 나날의 술한 역경이 파노라마처럼 전개되는가 하면, 다음날 아침엔 정말 ‘우향우’를 실천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초조감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고로에서 쇳물이 나오지 않으면, 영일만에 빠져죽어야 한다. 전쟁터에서 용케 살아남은 이 한 몸 죽는 거야 가족에게 죄스런 일이지만, 조상의 피맺힌 돈을 헛되이 날려버린 민족적 죄업은 누가 짊어져야 하나.’ 이런 생각이 스쳐갈 때마다 고개를 강하게 저으며 다그쳤다. ‘불길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반드시 된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새벽 5시, 일찍 깨어난 박태준이 노심초사하는 시각, 제 1 고로에선 심각한 실수가 발생했다. 첫 출선을 확실하게 하려고 개공기로 출선구를 뚫다가 그만 파이프를 망가뜨린 것이다. 고로 공장장 조용선은 아찔했다. 벽 두께가 2 미터나 되는 출선구를 산소불로 직접 뚫는 수밖에 없었다. 잘해보려던 일이 피 말리는 2 시간 30 분의 사투로 귀결된 것이었다.

박태준은 아침에 다시 몸을 깨끗이 씻었다. 아들의 성공을 빌기 위해 정한수를 뜨러 나가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숙소를 나섰다. 형산강 다리를 건넜다. 어느새 말간 해가 한 발 남짓 올라와 있었다. 영일만 바다에는 눈부신 아침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6 월 9 일 오전 7 시 30 분, 포철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과 건설 요원들이 700 입방미터 고로의 제 2 주상으로 올라섰다. 막 출선구 뚫기가 끝났다. 과연 한국 역사상 최초의 대형고로에서 쇳물이 나올 것인가. 그리하여 22 개 공장으로 구성된 ‘일관·종합제철’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 것인가.

“펑!”

굉음이 터졌다. 출선구를 뚫고 나온 오렌지색 섬광이 사람 키보다 높이 치솟았다. 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천천히 불꽃이 스러졌다. 고로 안에 침묵이 가득 찼다. 그때였다. 숨을 죽이고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발밑으로 꾸물꾸물 기어나오는 물체가 있었다. 용암 같은 황금색 액체였다. 아침마다 바라본 영일만의 일출, 맑은 아침 수평선에 올라앉는 찰나의 태양이 내는 빛깔이었다. 쇳물이었다.

“나왔다! 나왔다!”

순식간에 고로 내부는 환호의 도가니로 바뀌었다. 포철의 상징마크와 닮은 형 도량을 따라 흘러가는 황금색 쇳물. 그 역사적 현장을 지켜보는 사내들의 눈에서 왈칵왈칵 눈물이 흘러내렸다.

“만세! 만세!”

사람들의 두 팔이 머리 위로 힘차게 올라갔다. 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두 팔을 올렸다. 감격의 ‘만세’도 외쳤다. 영일만 제 1 고로의 폭포 같은 첫 출선, 한국 현대경제사의 새 지평이 벅차게 열렸다.

일찍이 풍수의 달인 이성지가 예언한 대로, 황량한 모래벌판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높다란 굴뚝들이 시(詩)의 대나무를 대신했다. 3 년에 걸쳐 연 인원 810 만 명,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의 3 배에 이르는 1 천 135 억 5 천 300 만 원을 투입했다. 약 8 만 2 천 개의 기계를 공장에 설치하고, 약 2 만 7 천 개의 콘크리트파일과 약 2 만 8 천 개의 강철파일을 땅에 박았다. 한국 역사상 초유의 대역사가 예정 공기를 두 달이나 단축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더욱 놀라운 일은, 포철의 조강 톤당 건설단가가 251 달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대만 CSC 의 667 달러, 일본 오기시마제철소의 626 달러에 비해 40%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적 철강기업으로 도약할 포철의 원가경쟁력을 담보했다.

박태준이 모든 공장의 시험가동 성적표를 확인해가며 정상조업을 준비하고 있던 6 월 23 일, 박정희는 ‘6·23 선언’이라는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일곱 항목에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정책전환도 포함되었다.

6·23 선언에 대한 평양의 공식적 반응이 표명되지 않았으나 남북화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가던 1973 년 7 월 3 일, 포철 1 기 설비 종합준공식이 열렸다. ‘사진만장(沙塵萬丈)’의 영일만 모래벌판엔 22 개의 대형공장이 넘실거리는 위용을 갖추고 있었다.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는 통념을 통쾌하게 깨버린 대역사이기에 사람들은 ‘무에서 창조한 유’, ‘영일만의 기적’이라고도 불렀다.

대통령과 내외 귀빈, 회사 임직원과 건설요원들이 영일만 모래벌판에 세워진 ‘민족중흥의 기틀’에 모여들었다. 박정희는 여덟 번째 포철을 방문했다. 1968 년 11 월 첫 방문에서 제철소가 되겠느냐고 쉴쉴히 독백했던 그가 여덟 번 만에 드디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카랑카랑했다.

“지금으로부터 3 년 전 1970 년 봄에 여러분들이 보통 롬멜하우스라고 부르는 저 앞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김학렬 전 부총리와 박태준 사장, 그리고 나 세 사람이 포항종합제철 기공식의 보탄을 눌렀습니다. 그 후 만 3 년 3 개월만에 허허벌판이었던 이 곳에 이와 같은 초현대적인 훌륭한 종합제철공장이 준공된 데 대하여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 없으며, 그 동안 박태준 사장 이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박정희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며 국가경제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제 우리는 남을 따라가기 위한 출발에 있어서 첫 개가를 여기서 올렸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공장은 금년부터 계속해서 200 만 톤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또 계속해서 1976 년말까지 700 만 톤 규모까지 확장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1980 년대에 가면 우리나라의 철강 수요가 국내만 하더라도 약 1,200 만 톤 내지 1,300 만 톤을 넘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 포항종합제철의

1 차, 2 차 확장 공사와는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연산 약 1,000 만 톤 규모의 제 2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지금 예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들이 전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어서 80년대 초에 가면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100 억 달러 수출이라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100 억 달러 수출을 할 때가 되면 총 수출량에 있어서 중화학 분야의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60%를 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마무리에 이르러 포철의 존재 이유와 의의를 이렇게 정리했다.

“이 포항종합제철이 앞으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발전에 명실공히 핵심적이고 근간적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준은 ‘경과보고’에서 숙연한 목소리로 박정희의 당부에 화답했다.

“앞으로 당 제철소는 우리나라 철강공업의 기틀이 되고, 중화학공업의 핵심적 위치를 점하며, 보다 비약적인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확신하며, 금년 12 월에는 260 만 톤 규모로 확장사업을 착수하여 1976 년 중에는 완공,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날 박태준은 박정희에게 철 병풍을 기념품으로 증정하였다. 현재에 포스코 역사관에 진열되어 있는 그 병풍에는 제선공장 전경, 제강공장의 전로, 열연공장의 압연기 등이 양각으로 배경을 이루는 가운데 노산 이은상이 지은 시가 새겨져 있다.

보라 하늘을 향해 치솟는 불꽃
여기는 잠자지 않는 일터
지축을 흔드는 우렁찬 소리
파도보다 더 높은 젊은 의욕
우리는 땀과 양심과 성실을 바쳐
새 역사의 바퀴를 떠밀고 간다
조국과 인류의 영광을 위해

언론들은 ‘1973 년 7 월 3 일’은 포철의 임직원들을 위해 오래 기억해야 할 날이라며, 포철의 조국 근대화 기여도는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당한 평가’란 아직 까마득한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한 박태준은 거대한 포부를 품었다. 그것은 박정희가 품은 그 포부였다. 포항에서 4 기에 걸쳐

연산 1 천만 톤 생산체제를 성공한 다음, 제 2 제철소까지 건설하여 포철을 세계 최고 철강회사로 키우고 싶다는 것. 그 무렵에 정부 일각이 조심스레 다루고 있는 제 2 제철소 입지의 조사대상 후보지는 네 군데였다. 낙동강 하구의 동쪽과 서쪽, 아산만, 그리고 광양만.

과연 ‘철에 목숨을 걸었다’는 박태준은 길고 험난한 ‘철의 여정’을 가장 빛나게 완주하는 영광의 마라토너로 등극할 것인가. 바야흐로 국가의 계절은 기나긴 겨울에 들어섰건만, 지독한 모래바람을 잠재워가는 영일만에는 따사로운 봄기운이 완연했다.

김대중 납치사건과 박태준의 망치

1973 년 한여름, 폭우가 쏟아지던 태풍이 덮쳐오던 영일만 사내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추고 있었다. 첫째는 경험과 자신감. 현대적 대규모 용광로를 사진으로만 보았던 사람들에게 1 기 공사를 공기 단축 속에서 완벽하게 완공한 경험은 ‘우리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정착되었다. 둘째는 자금 조달의 우월성과 확실성. 포철 1 기 공사를 지켜본 외국의 금융기관이든 설비공급업체든 포철의 미래를 낙관하며 투자를 망설이지 않게 되었다. 셋째는 안정된 원료확보. 일본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해뒀으니 원료문제로 정상조업에 차질을 일으킬 염려는 놓아도 좋았다.

그렇다고 예측되는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조업과 건설을 병행해야 하는 점, 기존 설비를 증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설비구매를 유럽과 미국으로 대폭 확대하는 데 따른 설비사양 다양화에 대비한 종합관리 문제. 하지만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사람들에게 유에서 또 다른 유를 창조하는 일은 결코 두렵지 않았다.

그 한여름에 세계의 시선을 한국으로 집중시키는 사건이 터졌다. 도쿄에 체류 중이던 김대중이 통일당 당수를 만나려고 그랜드팔레스호텔로 갔다가 잠복해 있던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납치되고(8. 8.), 승용차에 실린 채 선박으로 옮겨져 일본과 한국 간 공해상에서 수장되기 직전에 극적으로 구출되었다. 이 사건을 빌미로 평양 정권은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파기했다. 남북조절위원회가 하루아침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한반도는 다시 침예한 냉전체제로 복귀했다. 일본의 항의도 강경했다. 대한 경제협력의 전면적 중단을 선언했다. 9 월로 예정된 제 7 차 한일각료회담도 무기한 연기했다.

1973 년 12 월 1 일 연산 157 만 톤 규모의 2 기 공사를 착공하여 2 년 6 개월 뒤에 연산 260 만 톤 체제를 갖추려는 포철의 계획이 순탄하게 풀리려면 최소한 자금조달, 설비구매, 기술협력의 세 요소가

엇박자를 일으키지 않아야 했다. 전혀 고의가 없더라도 ‘특별한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엇박자를 일으킬 만한 힘을 거머쥔 쪽은 일본이었다. 이것이 현실로 대두되었다. ‘영일만의 기적’으로 떠오른 포철은 ‘김대중 납치사건’과 완전무결하게 무관했지만 그 후폭풍은 영일만에 높은 파도를 일으키며 ‘포철의 위기’로 상존했다.

설상가상으로 제 1 차 석유파동이 일어났다. 세계경제의 급격한 위축 속에서 모든 나라가 강력한 에너지절약 정책을 긴급히 도입했다.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개발도상국 대열의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절박해질 수밖에 없었다. 수출액 17 억 달러에 수입액 23 억 달러의 국제수지적자 국가는 유가폭등에 노심초사하면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온갖 묘수를 다 짜내야 했다. 고층빌딩 엘리베이터의 홀짝운행이나 정지, 밤 10 시부터 소등, 상점과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사용금지…….

2 기 설비 착공 예정일을 불과 석 달도 앞두지 않은 포철은 ‘일본의 경험중단’과 ‘석유파동’이란 강력한 프레스 사이에 낀 형국이었다. 이 신세를 빠져나올 열쇠는, 기본적으로 일본정부와 석유생산국의 손에 있었다. 포철은 마냥 앉아 기다릴 수 없었다. 어떡하든 스스로 벗어나야 했다.

내자 1 억 9 천만 달러, 외자 3 억 4 천 800 만 달러를 투입할 2 기 착공을 앞두고 박태준은 수십 차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다. 이때 그의 유일한 위안은, 완공된 1 기 조업이 순조롭게 정상가동하여 내자조달의 70% 이상을 포철 스스로 부담할 수 있게 된다는 청신호였다.

1973 년이 서산 위에 놓였다. 미국은 4 월에 터진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한국은 8 월에 터진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한 해가 저물어갔다. 이제 영일만에는 ‘영일만의 기적’으로 길이 남을 찬란한 금자탑이 구체적 수치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세계 모든 철강업계와 한국정부의 일치된 예상과는 정반대로, 포철의 회계장부는 ‘종합제철소 조업’ 6 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박태준도 좀 미심쩍었다. 공인회계사들의 명백한 감리를 거쳐야만 비로소 안심하고 믿을 것 같았다. 흑자가 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돌아선 박태준은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중단되었던 한일각료회담이 해를 넘기지 않고 개최된다는 것.

김대중 납치사건은 86 일 만에 대충 외교적 결말이 났다. 중앙정보부의 관련자를 면직 처분한다는 공개적 발표를 통해 중앙정보부의 범죄였음을 천하에 자백한 다음의 일이었다. 한일각료회의는 12 월 22 일 도쿄에서 열렸다. 이날 저물 무렵, 박태준은 도쿄 제국호텔에서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종합하여 ‘즉각적인 진전은 어렵다’고 판단하긴 했지만, 혹시 모를 일이므로 협상 당사자를 만나 직접 확인한 뒤 대책수립에 나설 계획이었다. 각료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태완선

부총리와 한국의 장관들은 서둘러 침실로 들어갔다. 들으나마나 ‘김대중 납치사건 때문에’ 차관 도입 등 온갖 일들이 풀리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박태준은 더 머뭇거릴 수 없었다. 특단의 결심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일본에 머물면서 상황 진척을 위해 애쓰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무조건 유럽으로 날아가자. 1기 건설에 성공했으니 우리는 환영받을 것이다. 정치인이 아닌 내가 왜 정치적 방법에 매달리고 있는가? 사업의 난관은 사업가의 방식으로 돌파해야 옳지 않은가.’ 그는 외국계약담당 노중열 부장을 불렀다.

“독일 가는 비행기 알아봐.”

“독일요? 언제 말입니까?”

“내일 당장.”

“크리스마스에다 연말인데…….”

“즉시 알아봐.”

프랑크푸르트행 루프트한자에 좌석이 있었다. 박태준은 안병화에게도 지시를 내렸다. 미국 피츠버그로 가서 코퍼스와는 고로설비 구매에 대해, 블로녹스와는 냉연설비 구매에 대해 협상하라고.

노중열과 함께 비행기에 오른 박태준은 호텔 예약도 없고 누구를 만나자는 약속도 없었다. 딱히 프랑크푸르트가 목적지도 아니었다. 이를테면 ‘무작정 여행’이었다. 그러나 전혀 무작정은 아니었다. ‘작전’은 있었다. 비행기가 잠시 함부르크에 내렸다. 여명의 기운이 감도는 새벽이었다. 문득 박태준은 내리고 싶었다.

“비행기 더 타는 것도 지겨운데 여기서 내려버리자.”

“호텔 예약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노중열이 뜨악하게 쳐다보았다.

“프랑크푸르트까지 가면 돼 있나?”

“그건 아닙니다만…….”

공항 청사 앞에 택시가 있었다. 최고급 호텔로 가자는 두 동양인을 태운 택시가 어둑어둑한 새벽의 거리를 질주했다. 한국은 곧 크리스마스 이브의 전야를 맞을 테고, 독일은 12월 23일이 밝아오는 중이었다. 애틀란틱호텔 앞에 택시가 멎었다. 프런트에 혼자 앉아 꾸벅꾸벅 졸던 백인 사내가 수상쩍은 눈초리를 가다듬었다.

“예약했어요?”

“안 했소.”

“그렇다면 물론 방은 없어요.”

박태준이 싱긋 웃었다.

“로열 스위트룸은 비어 있잖아? 국기게양대를 보니까 외국 국기가 없던데, 그 방은 비었겠지. 그걸로 주지.”

외국 국기가 게양되어 있지 않다는 건, 외국 귀빈의 투숙이 없고 로열 스위트룸을 비워뒀다는 뜻이리라. 예상대로 비어 있었다. 하지만 안내인이 고개를 가웃거렸다. 거기는 하루 숙박비가 500 달러나 된다면서.

“이 친구가 우릴 빈털터리로 아나 봐. 얼른 지불해. 올라가서 씻고 잠부터 푹 자고 보자.”

방이 2 개고 우아한 접견실까지 갖춘 로열 스위트룸. 둘은 걱정이라곤 모르는 팔자 좋은 사람처럼 잠들었다. 눈뜨자 아침 9 시가 다 되었다. 더디게더디게 돌아오는 독일의 아침은 퇴근시간도 한참 지났을 저녁 분위기였다.

“지금부터 전화해?”

“어딜 말입니까?”

“오스트리아의 피스트, 독일의 오포. 거기 중역들한테 먼저 해.”

“아하, 그거였군요!”

노중열이 선물받은 아이처럼 싱글벙글 웃었다.

“사업도 좋은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양놈들을 불러내서 미안하지만 우리를 산타클로스로 대접할지 아나.”

제철설비 공급업체 중역들과의 약속은 24 일 하오로 잡혔다. 열차를 타고 온 사람들과 손수 자동차를 굴려온 사람들이 함부르크 최고급 호텔의 최고급 룸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설비사양을 담은 홍보물과 관련 자료를 챙기고 있었다. 박태준은 여유를 부렸다.

“포철은 1 기 설비의 대부분을 일본 업체에서 구매했지만, 2 기부터는 유럽의 여러분에게도 문호를 활짝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2 기 공사에 들어갈 설비 예정금액은 3 억 5 천만 달러입니다.”

노중열이 설비목록을 제시했다. 제 2 고로, 소결, 코크스……. 신설하거나 증설할 21 개 공장의 설비사양과 구매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무려 3 시간이나 걸렸다. 유럽의 장사꾼들은 군침당기는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만한 규모면 크리스마스 이브를 얼마든지 가족과 함께 보내지 않아도 좋음을 확신하는 것 같았다.

“나는 원활한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 새해 1 월 5 일까지 여러분이 직접 포철로 오시길 희망합니다. 우리 회사 2 기 설비구매의 문호는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럽의 사업가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새해 벽두에 걸쳐 흔히 가족과 휴가를 즐긴다. 박태준은 그 사실을 꿰차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끌려오게 하고 싶었다. 이윤 따라 달려오느라 크리스마스 이브의 ‘오붓한 가족시간’을 망친 자본주의 전사들은, 순간적으로는 어리둥절했으나 이내 미소지었다.

“새해를 기념하는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극동의 바다가 궁금합니다.”

유난히 해가 짧은 독일의 겨울 하루는 어느덧 저물고 있었다. 즐겁게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다. 뢰프스트 대표가 예약해둔 최고급 레스토랑은 우아했다. 에너지절약에 철저한 독일 시민의 칙칙한 함부르크 거리와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포도주도 음식도 최고급이었다.

1974 년 1 월 초순, 포철 사원주택단지 내빈숙소인 영일대의 앞뜰에는 날이 저물어도 어둠이 내리지 못했다. 온 나라가 절전운동에 매달려 있건만 박태준은 영일대 주변을 대낮처럼 환히 밝히려고 지시했다. 가까운 거리에 숙소가 있는 일본인 기술자들을 자극하려는 계략이었다. 박태준은 이틀도 지나지 않아 기다리던 전화를 받았다. 주한 일본대사였다. 그는 안부 나누는 예절을 마치기 바쁘게 단도직입으로 나왔다.

“유럽 설비업체들과의 교섭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뜸 일본측의 고민을 눈치챈 박태준은 거두절미로 나갔다.

“포철로서는 예정된 공기를 맞추려면 더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귀국의 업체들과 먼저 교섭하고 싶었지만 귀국 정부의 제재조치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군요.”

사흘이 지났다. 다시 일본 대사의 전화가 포철 사장을 찾았다. 김대중 납치사건 때문에 다 정지되어 있지만 포철 프로젝트만 예외로 다루기로 일본 각의에서 양해했으니, 이제라도 일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사장은 점잖게 답변했다. 아직은 진행중이니 그럴 수 있으며 기회는 균등하다고. 대사는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작전이 완벽하게 먹힌 순간이었다.

박태준의 목표는 일본의 자발적 참여까지 유도하는 것이었다. 동쪽을 치는 척 시끄럽게 굴면서 실은 서쪽을 친다는 성동격서(聲東擊西)란 말이 있지만, 서쪽(유럽)을 끌어들이며 동쪽(일본)이 스스로 숙이고 들어오게 만들었으니, 포철의 위기를 돌파해나간 그의 작전은 ‘성서격동’인 셈이었다.

한국의 정치정세는 새해 벽두부터 두텁게 얼어붙고 있었다. 1 월 8 일 헌법개정 논의를 금지하는 ‘대통령 긴급조치 1 호와 2 호’가 발동되었다. 비판의 목소리를 옥죄는 독재의 사슬은 대학생, 지식인, 언론인, 야당 정치인에 대한 대대적 탄압과 그들의 조직적 저항운동을 예고했다.

유신체제의 정치적 억압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윤 따라 흐르며 모든 만리장성을 무너뜨리는 자본논리는 한국의 국경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유럽인들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포항에 신일본제철의 아리가 부장이 조용히 나타났다. 포철 1 기 공사에서 일본 기술자문단 단장과 설비구매 자문위원을 지냈던 그는, 정직하고 헌신적으로 자기 일처럼 해줬기에 포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박태준도 아리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물론 마음 한 귀퉁이엔 포철의 미래를 기껏 300 만 톤 체제로 예측했던 데 대한 괴씸함이 있었지만.

아리가의 방문 목적은 포철 사장의 진심을 확인하는 데 있었다. 아리가가 정중히 물었다.

“일본 설비업체들에 대해 서운한 점이 있습니까?”

박태준은 진지하게 답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일본의 철강업계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고 당신을 포철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행한 정치적 사건 때문에 한국경제의 주춧돌인 제철소건설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아리가의 얼굴에 긴장이 걸렸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역시 정치적 문제로 우리 관계가 중단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리가가 일본 설비업체들의 메시지를 꺼냈다. 한마디로, 지금 포항에 와 있는 유럽 업체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기다려온 소식을 접한 박태준은 영일대에 숙소를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새해가 열흘쯤 지났다. 포철의 영일대는 내빈숙소가 아니라 협상무대로 바뀌어 있었다.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의 철강설비업체 계약담당 직원들이 한 건이라도 더 따내려고 조금씩 가격을 내리는 경쟁에 들어가 눈에 불을 켜고 있었다. 박태준은 노중열을 따로 불러 일렀다.

“자네는 나무망치나 하나 준비해. 비싸게 부르면서 튀어오르는 놈은 무조건 두들겨. 그러면 자꾸 내려가게 돼 있어. 그래도 머리는 안 다치도록 적당히 해야 돼.”

최후 지침은 통쾌한 유머 같았다.

이리하여 포철은 포항 2 기의 설비구매를 입맛대로 골라잡았다. 1 기 설비와 기술적 연관성이 많은 제선·제강·열연·분과·동력계통·원료처리 설비는 일본 업체들, 소결·석회소성·연속주조 설비는 오스트리아 피스트, 코크스·화성 설비는 독일의 오토에서 각각 구매하기로 계약했다. 유가폭등의 영향으로 모든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악조건에서, ‘최저비용으로 최고품질’을 확보한 쾌거였다.

“정말 믿어도 되는 거야?”

포항 2 기의 최대·최악 위기를 ‘성서격동’의 양동작전으로 돌파한 1974 년 1 월 중순, 박태준은 박정희의 전화를 받았다.

“지금 포철 보고서를 보고 있어.”

“그렇습니까?”

포철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 제출한 ‘1973 년도 연차보고서’가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가 있는 모양이었다.

“순이익을 표시하는 난에 제로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1200 달러겠지. 어떻게 가동한 지 6 개월밖에 안 되는 종합제철 공장에서 1200 만 달러의 이익을 낼 수 있겠나? 제로 4 개가 더 붙은 거 같은데, 이거 나를 놀라게 하려고 일부러 실수한 거 아닌가?”

박정희가 밝은 목소리로 포철 사장을 놀리려 했다. 하지만 박태준은 이미 한 차례 겪은 일이었다. 부총리도 그랬던 것이다. 세계 종합제철소 역사상 신설 제철소가 가동 첫해부터 흑자를 냈다는 유례가 없고 포철도 당연히 처음 3 년쯤은 적자를 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니 다시 한 번 수치를 점검해 보라며, 차라리 ‘마이너스 1200 만 달러’로 기입되어 있다면 얼른 믿을 수 있겠다고는 기분 좋은 농담도 곁들였던 것이다.

포철 사장과 임직원들로선 서운할 수 있어도 대통령과 부총리의 첫 반응은 당연히 그럴 수 있었다.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철강업체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적자조업’ 예상을 뒤엎고, 가동 여섯 달 만에 1 천 200 만 달러(약 46 억 원)의 ‘흑자조업’이라니…….

“그 수치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박태준은 명백히 대답했다.

“확실한 건가? 정말 믿어도 되는 거야?”

“주주총회에 보고하려고 7 명이 넘는 공인회계사가 몇 주일에 걸쳐 면밀하게 만든 재무제표입니다. 그들은 참빛으로 머리를 빗듯이 모든 사항을 일일이 검토했습니다. 허위기재나 오류는 한 점도 없습니다.”

“내가 자네의 성품을 몰라서 이러겠나? 너무 기쁘고 놀라서 이러는 거야. 자네가 기어이 기적을 일궈냈어. 이건 기적이야, 기적!”

박정희가 상기된 목소리로 ‘기적’이란 말을 선물했다.

조업을 시작하여 여섯 달 만에 1 천 200 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린 사실은, 포철과 한국정부의 단순한 기쁨에만 머무는 게 아니었다. 2 기, 3 기, 4 기에 이어 제 2 제철소까지 건설해나갈 ‘포철과 박태준’의 국제적 신인도를 급등시켰고, 그것은 앞으로 외국 투자유치를 끌어올 강력한 자석이였다.

1974 년 1 월에 ‘영일만의 기적’으로 우뚝 솟아난 포철. 황량했던 모래벌판에는 이미 기적의 뿌리들이 강철파일처럼 깊숙이 박혀 있었다. 굵은 것만 추려도 8 가지였다. 최저비용의 설비구매, 공기단축, 정상조업 조기달성, 염가의 안정적 원료구매, 기술인력 조기육성, 단계별 사원확보의 적절한 조절, 복지정책의 조기도입과 정착, 제철보국의 기업정신. 이러한 뿌리들을 만든 모태는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이었다. 박태준의 리더십은 포철의 구심점이었다.

포철의 첫 번째 성공 요인은 모험사업 추진의 리더로서 지도력, 통찰력, 사명감을 충분히 발휘한 박태준 회장의 공헌이다.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한국의 성공기업을 본다」

박태준 회장의 탁월한 지도력이 포철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서울대학교, 「포철의 성공사례 연구」

포철은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박태준의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스탠포드대학교 경영대학원, 「한국의 발전과 포철의 역할」

박태준 리더십의 요체는, ‘철저한 완벽주의를 기초로 탁월한 통찰력, 신속한 판단력, 강력한 추진력을 조화시킨 역동성’이다. 그것은 애국적 사명감과 조화를 통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정신에 공명을

일으켰다. 그러나 기적의 굵은 뿌리들에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최소한 둘은 되었다.

하나는 박태준의 성장배경, 또 하나는 박정희와 박태준의 독특한 인간관계.

생존의 길을 찾아 일본으로 들어간 아버지의 뒤를 쫓아 현해탄을 건너갔던 수많은 식민지 아이들 가운데, 사춘기를 벗어난 무렵에 해방된 고향으로 돌아와 빈곤에 허덕이는 신생독립국의 어른으로 성장한 다음, 유소년기에 어쩔 수 없이 익혔던 일본어와 일본문화로써 가장 훌륭하고 가장 탁월하게 조국에 이바지한 인물은 박태준일 것이다.

박정희는 박태준의 순수하고 뜨거운 애국적 사명감만은 ‘범할 수 없는 처녀성’처럼 옹호했다. 정치권력의 방면으로 기웃거리지 않고 당겨도 단호히 뿌리치는 박태준의 기개를 높이 보았다. 여기엔 한 인간과 한 인간으로서, 한 사내와 한 사내로서 오직 두 사람만이 온전히 알아차릴 수 있는 서로의 빛깔과 향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박정희와 박태준의 독특한 인간관계는 박태준이 자신의 리더십과 사명감을 신명나게 발현할 수 있는 ‘양호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주었다.

아이젠버그와 박태준의 결투

앞에서 이미 유대인 거물 로비스트 아이젠버그를 간략히 소개했지만, 가령 그는 1964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방문 장도에 올랐을 때는 첫날부터 호텔 로비에서 기다린 인물이었다. 이런 증언이 남아 있다.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 숙소인 쾨니히스호프 호텔에 도착하자 뤼브케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안내하여 들어섰다. 박 대통령 곁에서 통역을 하려고 바짝 따라 붙었던 백영훈 통역관의 증언.

“부동자세로 선 경호원들만 보이는 로비에 웬 서양인이 의자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황당했지요. 그 순간 그는 신문을 천천히 접으며 박 대통령을 바라보고 웃더군요. 유대인 거상 아이젠버그였습니다. 순진한 박 대통령은 무척 반가워하면서 저를 통해 뤼브케 대통령에게 아이젠버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기 위해 백방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 아이젠버그씨입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박 대통령의 서독 체류 기간 내내 아이젠버그는 박 대통령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조갑제, 『박정희』제 7 권

그 어마어마한 유대인을 박태준도 잘 알고 있었다. 1961년 11월 그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상공담당 최고위원으로서 정래혁 상공부장관과 독일을 방문하여 혁명정부 최초로 3750만 달러 상당의 마르크화 차관 도입을 성공시켰을 때, 그 물밑 교섭을 맡은 이가 아이젠버그였다. 그때 이미 박태준은 아이젠버그를 ‘필요악’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나라가 가난하니 어떤 이권개입을 통해서든 그 더러운 구전을 떼어갈 로비스트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통탄스러웠던 것이다.

박태준과 아이젠버그의 첫 대결은 1970년 초반 포철의 중후판공장 건설에서 이뤄졌다. 제일교포가 포철 울타리와 가까운 자리에 포철의 착공식에 앞서 ‘조일제철’이라는 중후판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조일제철 건설에서 차관 알선은 아이젠버그가 맡았고, 우리 정부는 지불 보증을 썼다. 아이젠버그가 소개한 파트너는 파나마 유나이티드개발회사였다. 그러나 그 회사의 실제 소유자는 바로 아이젠버그였다. 그러니까 그는 조일제철 건설비에서 이권을 이중으로 뜯어먹은 것이었다.

박태준은 오스트리아 피스트 알피네와 포철의 첫 공장인 중후판공장 건설 협정체결 과정에서 아이젠버그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했다. 그가 포철의 외자담당을 데리고 직접 뛰어다녔다. ‘조상의 혈세’로 건설하는 제철소에서 조상의 혈세가 아닌 자금을 유치하는 일에서 한 톨도 낭비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운 것이었다. 피스트 알피네 사장의 증언을 앞에서 들었지만 박태준은 그 오스트리아 사업가를 ‘진정성’으로써 감동을 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조일제철이었다. 박태준은 그 중후판공장을 헌신짝처럼 차버려야 했지만 우리 정부가 지불보증을 썼으니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포철이 흡수하는 수밖에 없었다. 포철은 유나이티드의 돈을 다 갚고 오스트리아 피스트와 계약하여 중후판공장을 세웠다. 포항제철의 조일제철 흡수, 이것은 박태준의 포철이 자금과 정력을 낭비한 유일무이한 사례로 남았다.

그런데 조일제철의 중후판공장 건설 배후에는 한국의 권력자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아이젠버그를 활용한 그는 스위스 대사를 지낸 여당의 K 의원이었고, K 의원의 뒤에는 군의 요직을 거쳐 국무총리도 지낸 더 막강한 권력자 J가 있었다.

포철이 피스트와 알피네의 도움을 받은 중후판공장 준공식을 앞둔 1972년 7월 어느 날이었다. 느닷없이 아이젠버그가 박태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용건은 왜 자신에게는 여태껏 준공식 초청장이 오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박태준은 어이가 없었다. 가난한 나라의 돈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 그걸 게워내면 초청하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 올랐다. 아이젠버그가 한국 고위층의 이름을 들먹이며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박태준은 반응하지 않았다. 이 교활하고 거만한 인간에게는 끝까지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그는 끝내 아이젠버그에게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 당신과는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맺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였다.

유신헌법이 등장하기 전부터 아이젠버그가 설치한 배경에는 ‘포스트 박정희’를 노리는 권력 암투가 작용했다. 이때 박정희의 후계 경쟁자로는 K, L, J가 꼽혔다. 향간에는 “K, L은 자금이 많지만 J는 자금이 없어서 어쩌나” 하는 소문이 돌았다. 여기서 J에게 포철은 바로 ‘정치자금’의 원천으로 보일 수 있었다. 박태준을 포철에서 뽑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게 된다면 앞으로 공사가 창창하게 남아 얼마든지 뒷구멍으로 돈을 빼낼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조일제철에서 큼직한 돈을 챙기긴 했으나 포철 중후판공장 준공식에 초청 받지 못해 박태준에게 자존심을 몹시 다친 아이젠버그는 그를 골탕 먹일 제 2의 음모를 꾸몄다. 박태준과의 첫 만남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의 인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포철에 파견된 일본기술단 아리가 단장. 그가 아이젠버그의 표적이 되었다. 아리가를 포철에서 빼내 일본으로 돌려보내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인물을 천거한다면 앞으로 포철의 설비구매에서 안정된 뒷구멍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계산이었다.

1억 달러가 넘는 포철 1기 설비구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아리가는 박태준의 의지를 고스란히 따르는 양심적 인물이었다. 아리가가 버티는 한 일본 철강업계에 국제 브로커의 입김은 먹힐 리가 없었다. 설비에 대해 바삭 하게 아는 사람을 속일 수 없는 것이었다. 때마침 일본철강업계에 합병이 일어났다. 1970년 4월 1일 포철이 착공식을 거행한 그날이었다. 야하타제철소와 후지제철이 합병한 신일본제철이 탄생했다. 아리가는 후지제철 출신이고 신일본제철 최고경영진은 야하타 출신이어서 인사구조상 아리가에게는 불리한 여건이었다. 이 기회에 아이젠버그는 아리가를 제거하려고 농간을 부렸다. 그러나 첩보를 입수한 박태준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농간을 무시해줄 사람은 신일본제철 이나야마 회장이었다. 그는 이나야마를 찾아가 아이젠버그의 흑심을 소상히 알려주었다. 이나야마는 아리가를 그대로 신임했다.

아이젠버그가 주춤한 사이에 이번에는 ‘소화시대의 최대 괴물’로 꼽히는 골칫덩어리로 꼽히는 일본인이 열연설비 계약에 개입하려 했다. 한일관계에서도 상당한 막후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문제의 인물은 박태준에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구했다. ‘나’라는 인물을 보면 알 것이니, 모든 설비를 ‘나’를 경유하여 구매하라는 것. 박태준은 ‘괴물’을 상대하는 최고 비책은 그 앞에서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더 무서운 괴물’로 맞서는 것이라 판단했다. 설비구매를 둘러싼 각종 압력을 물리치지 못하면 회사의 효율적인 설비구매 전통을 수립할 수 없으며 그것은 ‘최저가격 최고효율’의 설비구매를 통한

성공 경영의 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그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 괴물의 요구를 들고 나타난 심부름꾼에게 박태준은 의연히 타일렀다.

“나는 내 나라를 위해 취해야 할 올바른 방도를 취할 뿐이오. 이는 일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내 방법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소.”

이때 박태준은 어떤 괴물도 부적도 품고 있었다. 박정희의 ‘종이마패’. 그러나 수고스럽게 꺼내진 않았다.

1973년 12월에 포항 2기 157만 톤 공사를 시작한 포철은 1974년부터 ‘조업과 건설’을 병행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포항에서 3기, 4기 확장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연산 조강 1천만 톤 체제에 육박해가려면 앞으로 6년 내지 7년에 걸쳐 영일만 사내들은 ‘한 손은 조업, 한 손은 건설’을 외쳐야 했다. 이것을 박태준은 ‘일면 조업, 일면 건설’이란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포철이 ‘조업과 건설’을 병행하는 원년에 들어간 1974년, 박정희와 박태준의 독특한 인간관계를 시험대에 올려놓을 모종의 음모가 슬그머니 진행되고 있었다. 피해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포철 2기 설비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연속주조공장 설비구매와 관련된 일이었다.

이때만 해도 포항제철소 3대 설비의 하나였던 연속주조공장 설비는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었다. 세계 철강업계에서는 오스트리아의 피스트 알피네, 스위스의 콩캐스트, 독일의 만네스만 등 3사만이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어떡하든 최저가격에 구매해야 국제경쟁력의 첫 단계를 확보할 수 있는 포철은 입찰 경쟁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다.

그런데 박태준에게 스위스의 콩캐스트와 계약하라는 권력의 압력이 들어왔다. 아이젠버그가 끼어든 것이었다. 보고를 접한 박태준은 “아이젠버그 그놈이 또…….” 하고 호랑이눈썹을 곤두세우고는 아예 무시한 채 공정하게 최저가격으로 유인할 국제입찰을 결정했다. 그래봤자 3개사가 전부였지만 그래도 그것만이 돈을 아끼는 길이었다. 그가 남아프리카연방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 유럽의 3사는 치열한 수주경쟁에 들어갔고, 1973년 12월 11일 비엔나 입찰에서 피스트 알피네가 낙찰을 받았다.

포철 계약담당자들은 경쟁 3사 대표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콩캐스트 사람들은 뒤에서 불만을 늘어놓았다. 애초 그들은 포철에 연속주조 설비를 팔아봤자 운전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약소국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잔뜩 거드름을 부린 자들이었다. 그것은 포철이 자기네 것을 살 수밖에 없다는 확신의 표현이었다. 그들 뒤에는 아이젠버그가 있고, 아이젠버그는 한국 권력층을 움직일 든든한 끈을 쥐고 있다는 점을 꿰차고 있었던 것이다.

연속주조 입찰에서 보기 좋게 물을 먹은 아이젠버그는 새로운 작전에 돌입했다. 1974 년 새해부터 아이젠버그와 그의 배후가 정한 목표는 포철에서 박태준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 흔히 동원하는 방법은 도덕적 모함이다. 1974 년 상반기에 아이젠버그, 스위스 대사 출신의 유정희 국회의원 K 도 비밀리 그것을 추진했다. 그들은 진정서를 만들었다. 연주공장 설비가 피스트 알피네로 낙찰된 배경에는 뒷거래의 의혹이 있으며 같은 설비를 피스트 알피네보다 훨씬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그럴싸한 근거 자료도 포함한 그 진정서는 중앙정보부, 감사원 등에 들어갔다.

문제의 진정서가 대통령의 손에까지 들어갔을까? 음모 자체를 모르는 포철 사장은 진정서가 대통령 손으로 넘어갔는지 중앙정보부장 손에서 멈춰있는지 알 턱이 없었다. 당사자는 까맣게 모르는 상태에서 은밀히 추진된 ‘진정서 작성과 접수’는 얼마 동안의 잉태기간을 거쳐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1974 년 여름의 어느 월요일 아침, 서울 북아현동 박태준의 집에는 자녀들만 있었다. 고등학교 2 학년생인 만이 박진아는 동생들의 책가방을 챙겨 학교에 보내고 자기도 등교할 준비를 갖추는 중에 별안간 두 사내의 기습을 받았다. 사복 차림인데 가택수색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에 여고생은 오히려 한숨을 돌리고 뛰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침착하게 요구했다.

“그렇다면 수색영장을 내놓으세요.”

그들이 내민 서류엔 ‘박태준과 장옥자’란 이름이 분명 적혀 있었다.

“네 어머니가 밀수품을 사들였다는 혐의가 포착돼서 관세법 위반혐의로 집을 수색하는 거다.”

그때 한국에는 외제품이 귀해 암시장 뒷거래가 흔했다. 면소재지 담뱃가게에도 양담배가 버젓이 진열된 요새 세상에서야 웃을 노릇이지만, 양담배 따위가 무슨 진귀한 물건이나 되는 것처럼 암시장에 나돌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실력자들의 가택을 수색하면 외제품 두셋쯤은 나오기 일쑤였고, 당국은 미운 털 박힌 실력자를 혼내거나 망신시켜 제거할 수단으로 가택수색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두 사내는 여고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살이 뒤졌다. 아이들의 방도 빼놓지 않았다. 세상에 자랑시켜 임자를 망신시킬 물건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찍어둔 진짜 목표물은 따로 있었다. 안방의 장롱과 조그만 금고. 그것은 모두 잠겨 있었다. 그들이 열쇠를 내놓으라며 장롱 문을 부수겠다고 위협하자, 박진아는 그들이 밉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오기가 났다.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두 사내의 꿈무늬를 좇아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도 놓치지 않는 여고생의 당돌한 대거리에 국면이 전환됐다. 그들은 장롱과 금고에 딱지를 붙였다. 문을 열기만 하면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이다. 두 사내가

돌아간 뒤 여고생은 아버지를 보러 포항에 간 어머니에게 빠짐없이 자초지종을 들려주고 교복을 차려입었다.

열쇠가 도착하고, 그들이 다시 오고, 암전히 잠겨 있던 장롱과 금고의 문이 열렸다. 장롱엔 이불과 옷이 전부고, 금고에는 집문서와 패물 몇 가지와 잦은 해외출장의 흔적으로 남은 푼돈의 외화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냐? 이게 전부야?”

두 사내는 금고의 내용물이 너무 초라하여 서로 난처한 표정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빈손으로 돌아서게 된 그들이 말했다.

“우리도 너희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공무집행상 어쩔 수 없었다. 가택수색을 당하면 어른도 벌벌 떠는데 네 침착성에 놀랐다.”

가택수색은 한 편의 소극(笑劇) 같은 부질없는 소동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객석에 앉은 관객 중 오직 한 사람은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는 포철 사장이었다. 박태준은 심각한 생각에 잠겼다.

‘과연 각하도 알고 있었는가? 모함의 문서가 대통령 손에도 들어갔는가? 그래서 나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이라도 품었는가? 그따위 모함은 앞으로도 몇 번이고 반복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나와 내 동료들이 곤욕을 겪어야 한단 말인가?’

그는 괴로웠다. 대통령에게 서운했다. 한 번쯤 경각심을 일깨워주려는 조치였을지 모른다고 가정해 봐도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 있었다. 그 ‘방법’을 들고 대통령과 상대할 때와 곳이 결정되었다. 대구시를 시찰한 대통령이 포철 영빈관으로 내려온다는 전갈이 왔다.

“무슨 일 있었나?”

영접 나온 포철 사장의 어딘가 다른 눈빛을 대뜸 알아차린 대통령의 질문이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박태준은 짧게 대답했다.

박정희가 2 층으로 올라가고, 박태준은 대통령 수행원 일행과 아래층에 남았다. 마침 식사시간이 다가왔다. 박종규 경호실장, 김정렴 비서실장, 그리고 포철 사장이 둘러앉았다. 박태준이 박종규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사람을 모래벌판에 던져놓고 독약 먹이려는 음모나 꾸며?”

박종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김정렴은 암전히 있었다.

“대체 무슨 말이요?”

박태준은 박종규의 반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래알처럼 쌓인 말을 뱉었다.

“서울에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손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청와대에도 있는 모양인데, 더러운 놈 깨끗한 놈 가릴 줄은 알아야지. 그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서울에서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야?”

박종규는 억울한 따귀를 그만 맞아야겠다는 듯이 항의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귀뜸이라도 해줘야 대답할 것 아니오?”

“모른다고? 그러면 됐어.”

박태준은 무뚝뚝하게 말을 끊었다. 하지만 속은 조금 풀렸다. 경호실장이 모른다면 대통령도 모르고 있다는 뜻인데…….

식사를 마친 뒤 박정희가 박태준을 2 층으로 따로 불렀다. 두 사람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앉았다.

“아무래도 고민거리가 있구먼. 그게 뭔가?”

“포철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박태준은 안주머니의 사표를 꺼내 정중히 대통령 앞에 내려놓았다.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래? 영문이나 알아야지.”

“저는 훌륭한 보상을 받았습시다. 몇 년 전에는 저와 저의 참모들을 뒷조사하더니, 이번에 아이들만 있는 집에 들이닥쳐 가택수색까지 벌인 것은 너무 훌륭한 보상이었습니다.”

“뭐? 가택수색을 당해?”

박정희가 깜짝 놀랐다.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즉시 김정렴 비서실장이 불러왔다.

“어떻게 된 거야?”

“진정서가 올라왔기에, 보낸 사람들도 그렇고…….”

비서실장이 우물쭈물했다. 그제야 박태준은 아까 암전했던 비서실장의 태도를 이해했다. 일의 선후를 챙긴 박정희의 매서운 추궁이 떨어졌다

“이봐, 사람을 가릴 줄 알아야지. 아무에게나 그런 짓 하나!”

박정희의 짜증-“백악관이야 뭐야”

유신체제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은 동일한 역사의 무대에서 공존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모순을 극명히 노정하고 있는 1974 년, 이해 6 월 26 일, 포철에 긴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뚝 떨어진 순간, 조업현장과 건설현장 곳곳에서 함성과 박수가 터졌다. 연산 103 만 톤 규모의 제 1 고로가 정상 조업 1 년을 눈앞에 두고 마침내 ‘씻물 100 만 톤’을 토해냈기 때문이다. ‘조업 1 년’의 순이익은 242 억 원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즈음 박태준은 다시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강조했다. 천성적으로 ‘전시행정’의 속임수 따위를 혐오한 그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직원의 복지후생을 허울 좋게 선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 있게 하고 있다. 이 노력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이다” 하고 뚝뚝하게 자랑했다. 6 월 27 일 임원간담회에서도 박태준은 “우리 직원 중에서 부인이나 가족이 중병을 앓는 사람이 없는지 인사부에서 파악하라”는 엄한 지시를 내렸다. 박태준은 직원들에게 ‘목욕론’도 줄기차게 전파했다. 한마디로 “몸이 청결해야 정신이 청결해지고 그것이 공장의 청결로 이어진다. 공장의 청결은 제품의 완벽성과 안전사고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었다.

6 월 28 일 대통령 가족이 포철을 찾았다. 오전에 울산으로 가서 현대조선소 1 차 준공식 및 26 만 톤짜리 유조선 두 척의 명명식(命名式)에 참석하여 한국 중공업 역사의 이정표를 세우는 자리에 가서 ‘오는 1977 년까지 두 개의 거대 조선소를 더 지어 조선능력을 연간 600 만 톤으로 늘리고 한 해 수출액의 10%인 10 억 달러를 벌어들일겠다’고 약속한 박정희는 포철 현장을 둘러보며 시종 기쁜 표정으로 직원들에게 고생 많다는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 보트를 타고 영일만으로 나가 항만시설도 둘러보았다. 그는 포철에 와서 새로운 활력을 얻는 모습이었다.

이날 저녁, 대통령 가족은 포철의 새 영빈관 ‘백록대’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백록대는 그해 5 월에 완공된 국가 원수급 내빈을 위한 숙소였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뜰에 나가 백록대를 한눈에 바라보던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날카롭게 물었다.

“집이 왜 하필 흰색이야?”

“한라산 ‘백록담’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백록담의 ‘백(白)’을 생각해 회색 칠했습니다.”

“이 사람아, 백악관 냄새가 나잖아. 나는 싫어. 백악관이야 뭐야.”

거부감으로 뭉쳐진 목소리였다. 박정희에게 ‘최초로 기합을 받는’ 박태준은 좀 머쓱했다. 그리고 미안하기도 했다. 지미 카터가 백악관의 주인이 된 뒤로 미국 정부와 한층 더 불편한 관계를 감당해 나가는 대통령의 내면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이었다.

이튿날 대통령 가족들은 포철 주물선공장 건설현장까지 둘러본 다음에 평안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백록대를 떠나갔다. 육영수 여사도 피로를 말끔히 풀어버린 모습이었다. 1960년 부산 군수사령부시절에 박정희는 술을 자주 마셔서 가끔씩 서울에서 내려온 육영수의 안색을 흐리게 만들곤 했는데, 그때 제일의 공범으로 찍혔던 박태준이기에 그에게나 육영수에게나 그만큼 더 친근한 사람이었다. 대통령의 자녀들도 박태준을 그냥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러나 박태준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6월 29일 포항에서의 작별이 육영수와 영원한 작별이 될 줄이야..... 그해 8월 15일 영부인은 문세광의 흉탄을 맞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7월 3일, 포철은 1기 종합준공 첫돌을 맞았다. 박태준은 조출한 자축연과 더불어 정신무장을 다시 가다듬는 계기로 삼았다. 그 국가적으로 기억할 만한 날을 언론들도 잊지 않았다.

제품의 질에 있어서도 영국 로이드선급협회를 비롯한 주요국의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품질 및 규격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며, 국내 판매 가격은 수입 가격의 22~42%까지나 저렴한 편으로, 그에 따른 수입대체로서 지난 한 해 동안에 1억 5천만 달러의 외화를 절약한 셈으로 분석되고 있다.

-- 1974년 7월 4일 조선일보 사설

포항종합제철이 그 가동 1년 만에 모든 의문을 해소하고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된 것은 한국과학교육의 성과요 경영자의 탁월한 통솔력의 결과라고 하겠다.

--1974년 7월 4일 중앙일보 사설

폭파하며 전진하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뒤 박정희는 공식 기록에서 세 번 더 포철을 방문했다. 1976년 5월 31일 2기 종합준공식, 1977년 9월 7일 건설 현장 순시, 1978년 12월 8일 3기 종합준공식. 그 이전의 아홉 번에 비하면 뜸해진 편이었지만, 그가 판단하기에도 그만큼 포철이 안전한 궤도 위에 올랐다는 뜻이기도 했다.

실제로 박태준의 포항제철은 박정희가 제시한 비전(포항에서 연산 조강 1000 만 달성)을 향해 순탄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1975 년 봄날에 원료 공급선의 다양화를 위해 뉴질랜드, 인도, 브라질, 페루, 캐나다, 미국 등으로 바쁘게 돌아다닌 박태준은 1976 년 새해 들어 2 기 종합준공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이어서 외자 7 억 6 천 360 만 달러와 내자 4 억 8 천 907 만 달러가 소요될 3 기 착공을 준비했다. 이때 포철은 내자 소요액의 42 %를 자체 경영이익금과 보유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제철보국의 정신에 따라 국내 수요가들에게 국제 시세보다 30% 내외로 싸게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건실하다는 결정적 상징과 같았다. 더구나 박태준은 3 기 설비에서 당시 세계에서 용적량이 가장 큰 대형 고로 건설을 결정했다. 엔지니어들이 우리 손으로 돌릴 수 있겠느냐는 걱정을 했지만 그는 도전해야 한다고 밀어 붙였다.

1976 년 8 월 2 일 땡볕 이래서 포철은 300 만 톤 규모 3 기 건설을 위한 종합착공의 축포를 터트렸다. 공사 절정기에는 하루 1 만 4 천 명이 투입될 단군 이래의 대역사를 시작하며 박태준은 역설했다.

“한마디로 당사의 운명이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제 4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의 성패가 달린 중대한 계기임을 깊이 명심하고 맨주먹으로 출발했던 창업정신을 다시 한 번 일깨워야 합니다.”

1976 년이 저물었다. 박정희는 김재규를 중앙정보부장에 앉혔다. 하지만 한미관계나 국내 정치상황은 그의 앞길이 험난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심복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일은 아닐 것 같았다.

포철의 앞길에도 뜻밖의 복병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1977 년 4 월 2 일 새벽에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다. 제 1 제강공장에서 쇳물을 작동하는 크레인 기사가 줄다가 그만 쇳물을 바닥에 얹지른 것이었다. 용암처럼 펄펄 끓는 쇳물 44 톤을 쏟아버린 사고. 요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가장 심각한 피해는 ‘공장의 신경계’라 할, 제강공장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의 70%가 타버린 것이었다. 긴급 파견된 일본인 기술자들이 완전복구에는 3 개월 내지 4 개월 걸릴 것이라고 했다. 복구기간이 늘어나는 그만큼 조업 차질과 영업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철은 ‘완전복구 1 개월’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기어코 그것을 성취했다.

포철 3 기 공사에는 이른바 ‘중동 특수’도 큰 장애물이었다. 건설 숙련공들이 대거 아리비아 사막으로 떠나버린 것이었다. 숙련공이 부족한 것에 비례하여 공기는 지연되어야 했다. 그러나 포철은 추석마저 반납하는 사명감을 자극하여 오히려 공기단축을 실현했다.

박태준은 나사가 몇 개 빠져버린 건설현장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공사품질을 보장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할 특단의 조치도 내렸다. 그것이 1977년 8월 1일 일어난 ‘부실공사 폭파사건’이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불볕이었다. 박태준은 발전송풍설비 공사현장 앞에 차를 세웠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80%쯤 진척되어 70미터의 굴뚝도 올라가 있었다. 그는 기초공사 상태를 둘러보다가 지휘봉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다.

“저긴 왜 저렇게 울룩불룩 나와 있어?”

포철에서 나와 있는 감독의 낯빛이 질렸다.

“너, 입사한 지 몇 년 됐나?”

“3년 조금 지났습니다.”

“나는 10년 됐어. 저대로는 안 돼. 방법이 뭔가?”

“문제 부분을 뜯어내고 다시 하겠습니다.”

감독이 조심스레 대답했다. 사장의 지휘봉이 움직였다. 퍽, 안전모에서 소리가 났다. 퍽, 어깨에서 소리가 났다.

“너 임마,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그러면 콘크리트 양생시기가 안 맞잖아?”

“예, 그건 그렇습니다.”

박태준은 일본인 감독관도 앞으로 불렀다.

“너희는 뭐 했어!”

한국말과 일본말의 범벅이 소나기 오듯 퍼부어졌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당장 폭파해!”

별안간 육중한 철근 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는 ‘폭파식’ 준비까지 일러줬다.

“먼저 드릴 가져와서 군데군데 구멍을 뚫어.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야 하니까. 다이너마이트는 대한중석에 연락하면 금세 오게 돼 있어. 다이너마이트가 오면 구멍에 넣고, 물 젖은 가마니를 덮어. 그러고는 바로 폭파야.”

현장 책임자들에게겐 바쁜 하룻밤이 지나갔다. 석산 현장에서 폭약을 구해오라, 포항경찰서에 폭파신고 하고 허가를 받으라, 폭약 장전하라, 폭파기사 대기시키라.

이튿날이었다. 그림자가 짧은 한낮에 ‘이상한 기념식’이 마련되었다. 포철 안에 있는 모든 건설현장의 책임자와 간부, 외국인 기술 감독자, 그리고 포철의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했다는 나폴레옹의 말을 떠올린 박태준은 문득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며 미소를 머금었다. 포철의 사전에 부실공사는 없다. 하지만 정말 그걸 실현하려면 그런 거창한 말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80%나 진척된 공사를 다이너마이트로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창한 폭파식’이야말로 어떤 호소나 명령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었다.

“깡! 깡! 깡!”

굉음이 터졌다. 예산과 시간과 노력이 한순간에 파편으로 부서진 찰나, 모여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사라진 것들과는 견줄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 남아야 했다.

‘포철의 사전에 부실공사는 없다.’

부실공사 폭파사건으로 3기 건설 현장의 정신을 쇠신한 박태준은 그해 가을에 한국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정부보증 없는 차관 도입’을 성사시켰다. 국회가 삭감시킨 4기 공사 착수금 1억 달러. 이 돈을 박태준은 미국 시티은행의 홍콩 계열은행인 APCO에 가서 ‘포철 자력’으로 차입하기로 결심했다. 국제금융기관이 신인도 낮은 개발도상국 기업과 차관 협상을 벌일 때마다 당연한 것으로 요구하는 정부보증, 이번 기회에 그것도 폭파하고 싶었다. APCO에 들어서는 박태준의 가장 든든한 무기는 포철의 조업실적과 경영실적이었다. 은행 측은 포철의 신인도에 정부보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차관 도입의 정부보증, 한국에서는 포철이 처음으로 그 굴레를 벗어던진 기업이 되었다. 그는 가난한 나라의 설움에서 엔간히 벗어난 것 같은 기분도 맛보았다.

제2 제철소 쟁탈전 서막

1978년, 무오년(戊午年)이 밝았다. 창업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새해에 포철은 금상첨화로 3기 설비 건설공사를 완공해 550만 톤 생산체제를 갖출 것이었다. 박태준은 1978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10년 전 오직 젊음과 정열, 사명감만으로 뭉쳐 우리나라 철강공업의 밑거름이 되기로 다짐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가 개척과 시련의 시기였다면, 금년을 기점으로 한 앞으로는 ‘성장과 안정’을 향하여 우리가 구축해온 성과를 다듬고 앞으로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성장’과 ‘안정’으로 나아가려는 첫 해에 포철은 ‘3기 설비 조기준공, 4기 설비 조기착공’이란 과제를 짊어져야 했다. 포철의 큰 부담은 ‘조업’이 아니라 ‘건설’이었다. 이른바 ‘중동건설 붐’으로 명명된 중동 특수경기가 한국의 유능한 건설 일꾼들을 열사의 나라로 불러들인 탓에 한국의 모든 건설현장에는 인력이 모자랐다. 영일만의 건설현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태준은 정초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서울에서 신년 하례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잘 아는 언론인이 야릇한 귀뜸을 했다.

“현대가 제2 제철소를 먹으려고 합니다. 상당히 진척됐어요. 경제수석 등 청와대 비서실이 현대를 민다고 합니다.”

박태준은 의아했다. 제2 제철소 실수요자 문제는 이미 ‘한국제철’을 포철이 흡수하면서 일단락된 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설마, 하는 생각까지 스쳐갔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였다.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기업의 하나로 성장한 ‘현대’가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자본금 2억 달러의 ‘현대제철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제2 제철소 실수요자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현대의 주장은 ‘제2 제철소의 민영화’를 핵으로 삼고 있었다.

포철은 뒤통수를 맞았으니 서둘러 대응책을 세워야 했다. 박태준은 첫 단계로 여론경쟁을 상정했다. 회사의 홍보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했다. 그는 이대공에게 긴박한 상황을 알려주고 대책을 주문했다.

“사장님,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석 달만 기다리면 회사 10주년입니다. 그날을 포철 홍보의 절정과 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후 상황이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곧 홍보계획과 행사계획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그래, 우리 회사도 그런 일을 할 때가 됐어.”

정주영의 현대와 제2 제철소 쟁탈전이 벌어진 때에 딱 맞춰 돌아온 ‘창업 10주년’. 이대공, 윤석만 등 홍보 쪽 참모들은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창업 10주년을 ‘포철 홍보의 전국화·본격화·적극화’의 계기로 삼고, 현대와의 싸움에서 일차적으로 여론을 선점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제 포철은 지역적, 방어적, 소극적 홍보 관행을 하루아침에 벗어던지기로 했다. ‘영일만의 기적’은 언론의 조명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고, 항간에는 바야흐로 ‘이제는 자기 PR 시대’라는 말이 새로운 문화의 도래를 알리는 짙은 선전구호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홍보예산과 홍보인력의 규모는 현대가 포철보다 월등한 우위였다. 정주영 회장 일가가 소유한 말 그대로의 ‘사기업 재벌’은 공기업 포철에 비해 홍보력이 월등히 앞설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포철 홍보팀은 ‘10주년 홍보 계획서’란 굵은 책자를 만들어 사장의 결재를 받았다. 그에 따라 2월부터

서울의 유수한 언론인을 포항으로 초청했다. 그들에게 필설로만 말해온 ‘영일만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살필 수 있는 기회였다. 포철도 까다로운 손님들을 상대할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포철은 3월 13일 상공부로 제2 제철소를 짓겠다는 제안서를 보낸 데 이어 3월 21일 예비계획서까지 제출했다. 바로 이튿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현대도 전격적으로 예비계획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우선 울산에 300만 톤 규모로 제철소를 짓고 최종 1천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경북 영해에 짓겠다는 내용이었다.

현대는 벌써 막강한 지원부대의 진용을 갖추고 있었다. 청와대에선 비서실장과 경제 제2수석 비서관이 현대의 편이었다. 마침 박정희가 포철 사장을 찾는 일도 뜸했다. 유신체제의 종반기에 접어든 그는 정치적 방면이 너무 복잡하여 그 바깥에 있는 일꾼을 찾을 여유가 없는 모양이었다.

재계 일각에선 현대와 포철의 제2 제철소 경쟁전을 ‘재벌 오너 정주영’과 ‘포철 사장 박태준’의 씨름으로 보기도 했다. 재계와 언론계, 그리고 고위권력층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포철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박정희가 선물을 보내왔다. ‘鐵鋼’은 國力이라는 친필 휘호였다. 그것을 받아 든 박태준은 한 번 소리 내어 읽었다. “철강은 국력”. 그의 영혼에 파동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딱 맞는 말씀이지.’

포항제철 10주년. 박태준은 누구보다 가슴이 벅찼다. 그는 10주년 기념사에서 솔직한 속내를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포철 창립 10주년은, 충실한 사명감과 정열의 화신이었던 우리가 10년의 젊음을 불태워 봉사한 대가로서 온 겨레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기고 후대에는 영광을 물릴 수 있게 된 것을 확인하는 제전(祭典)입니다. 본인은 여러분과 더불어 허다한 난관을 극복한 경험에서, ‘행운의 여신은 민족적 대의를 위하여 인내와 끈기로 슬기롭게 정진하는 자의 편에 선다’는 확신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일간지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포철 10년의 의의’에 찬사와 격려를 보냈다.

오일쇼크 이후 대부분의 제철소들이 조단(操短)과 운휴 속에 빠뜨려지고 있는 지금까지 포철은 도리어 평균 110%라는 높은 가동율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도합 820억 원이라는 순이익을 올렸던 것이며, 공장 확장공사의 소요내자 중 66%에 해당하는 2천 848억 원을 자체 조달해왔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1978년 4월 1일 조선일보

외국의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포철이야말로, 우리 힘을 결집하기만 하면 못 해낼 것이 없다는
공업한국의 의지를 표상하는 상징적 존재이다.

--1978년 4월 1일 한국일보

포철 10년의 경영성과는, 다른 국영기업체들이 빠지기 쉬운 안이한 매너리즘을 탈피하여 합리적으로
경영돼왔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1978년 4월 2일자 동아일보

현대와 겨루는 포철에게는 응원가 같은 사설이었다. 물론 신문들은 축하와 격려 뒤에 '제2 제철소
쟁탈전' 예고도 놓치지 않았다. 제2 제철소 건설 사업자선정에 대해 정부가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책적으로 신중히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기술·자본·경험의 축적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것도 포철에겐 응원가였다.

현대도 가지런히 논리를 펼쳤다.

조만간 중동건설의 특수경기가 하강기에 접어들게 되니 '풍부한 돈과 인력과 중장비'를 곧바로
제철소 건설에 투입할 수 있다.

자동차·중공업·조선소·건설 등 철을 대량 소비하는 업체를 소유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도 건설비를 조달할 수 있다.

현대그룹의 역량을 활용하면 제철소 건설과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력을 동원할 수 있다.

해외지사를 움직이면 제철소에 들어갈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국내 철강업에 경쟁사가 들어섬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현대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그럴싸한 포장 속에다 '포철의 철강독점체제'를 공격할 비수를 감추고
있었다. '독점은 폐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그 실태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옳은 소리로 들릴
만했다. 포철로선 억울한 노릇이었다. 시장독점을 악용해 자사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조상의 혈세로 세운 기업으로서 민족적 대의를 경영원칙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대가 역설한 ‘선의를 경쟁’은 청와대 경제수석의 의견이기도 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건설과 방위산업 건설을 실무적으로 보좌했던 오원철 경제제2수석비서관은 박정희 방식의 ‘독점과 경쟁의 배합 전략’을 이렇게 정리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는 수요가 부족해서, 국제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국제 규모에 미달하는 공장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국제경쟁력이 없는 공장이라는 뜻이다. 당연히 생산 제품은 국제가격보다 비쌀 수밖에 없고, 따라서 수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하루속히 국제 규모의 공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우선적 과제였다. 즉 독점은 국제경쟁력이 생기고 난 후의 문제라는 뜻이다.

이 독점 공장이 일단 국제규모화가 된 후에는 즉시 또 하나의 회사를 설립해서 경쟁체제로 가야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방침이었다. 그래야만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서 품질향상과 가격인하가 이뤄지고 국제경쟁력 강화가 계속된다는 이론이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석유화학과 종합제철’이었다.

정주영의 현대에게는 ‘선의의 경쟁’이 박태준의 포철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으며,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는 ‘선의의 경쟁’이 정주영의 현대를 노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윤리적 기반이었다. 그러나 ‘선의의 경쟁’에 도달하는 논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태준의 포철에는 빛나가는 것이었다. 품질향상, 가격인하, 국제경쟁력이라는 기준이 그러했다. 또한 1,000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규모의 경제가 구현되는 미래의 국제규모 제철소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으며, 아직은 갈 길이 먼 한국과 같은 환경에서 ‘건전한’ 선의의 경쟁이 보장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차 한 잔의 일갈

제2제철소 주인이 현대냐 포철이냐. 언론의 표현이 ‘쟁탈전’이었지만, 실상은 포철에겐 ‘방어전’이고 현대에겐 ‘공격전’이었다. 초기 형세는 선제 공격자가 유리하기 마련이다. 현대와 포철의 경우도 초반전에는 포철이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지원세력을 확보해둔 현대의 목소리가 우세했다. 그러나 포철 10주년 행사 직후, 현대는 소나기를 피하려는 작전인지 숨을 고르는 듯했다.

포철 홍보팀은 승세를 잡은 김에 확실히 해두고 싶었다. 언론을 통해 정당하게 주장할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대공은 홍보계획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카드를 써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조선일보 선우휘 주필의 「차 한 잔을 나누며」라는 인터뷰가 상당히 인기 높은 고정지면입니다.”

“나도 가끔 봐. 하지만 그쪽에서 인터뷰 요청이 없는데 우리가 나설 수는 없잖아.”

사장이 점잖게 반응했으나 홍보팀은 조선일보 주필실을 노크했다. 주필은 유보하자고 했다. 그래도 두세 번을 더 부탁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예고 없이 선우휘가 전화했다. 대구까지 내려왔다면서 지금 포항 가면 박태준 사장과 인터뷰가 되겠느냐고 했다. 빠른 성사를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려온 이대공은 곧 사장을 찾았다. 마침 박태준은 포항에 있었다. 여건이 되었다. 인터뷰는 포철 영빈관 ‘청송대’에서 이뤄졌다. 선우휘는 혼자였다. 이미 포철 내부를 살펴보고 ‘영일만의 기적’이란 찬사에 흔쾌히 동의하고 있었다.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6·25 전쟁터에서 고생한 경험이 있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조국의 경제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온 박 사장님의 노고에 훈장을 드려야겠습니다.”

선우휘는 깎듯한 인사부터 차린 뒤 대답에 들어갔다.

선우 : 그럼, 그 뒤의 경과를 ……

박 : 아이러니컬한 것은 IBRD가 타당성을 인정하고 돈을 빌려준 브라질의 CSN 제철소는 아직까지 200만 톤밖에 건설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금년에 550만 톤을 건설하게 됐고, 건설단가에 있어서도 CSN이 톤당 1천 750달러인 데 반하여 우리는 396달러로 400달러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재정금융인들이 모인 IBRD조차 그 나라의 정확한 능력을 측정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지요.

선우 : 4월 1일이면 만우절인데 포항제철만은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얘기군요. (웃음) 그런데 근래에 거론되고 있는 제2제철 문제에 대해 박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 : 요즘 제2제철 문제가 항간에서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기업이라면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확대재생산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증산의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을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도 그에 대비해서 수요추정을 KDI(한국개발연구원)나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통하여 계속해서 시켜왔고, 자체적으로도 경영정책실에서 한 해에 한 번씩 수요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파동 이후 세계 철강경기가 계속해서

불황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철강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수요추정 자체가 좀 미심스럽다고 해서 다시 KIST 와 용역을 맺어서 금년 6 월 말까지 보고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수시로 수요추정을 하면서 제 2 공장의 필요성 유무나 설비용량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검토를 해오고 있고, 또한 이미 제철소를 보유한 선진국들의 설비용량이나 1 인당 철강소비량도 제철설비를 확장해나가는 데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비교·검토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2 공장이 필요하단 생각을 일찍부터 가졌고 또 그를 위하여 기술축적(해외연수비 2 천 200 만 달러, 1 천 360 명 육성)을 해왔고 이미 계획을 다 성안시켜놓고 있어요. 항간에서 어떤 민간 재벌이 한다든지 하는 보도도 간혹 나오는데 제 개인의 생각은 이미 명확히 정립되어 있습니다.

선우 : 새로 민간에서 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백지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 :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두 가지 각도에서 보아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하나는 경제적·기술적·사업적인, 극히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경제 정책을 지향해나갈 텐데 소위 기초물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방향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정책적인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제철소를 건설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사람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말아서 계획적으로 엔지니어링 단계부터 건설, 조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사람을 지명해서 보내면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민간 기업이 한다고 가정해보면, 경험 있는 사람은 우리 회사밖에 없는데 우리 회사에서 무작정 사람을 빼내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부작용은 상상하기조차 무섭습니다. 계획적으로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양쪽이 모두 잘못될 가능성이 큼니다.

그밖에 제 1 공장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제 2 공장을 건설할 때에는 상호보완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약 요인이 굉장히 많게 되지만, 새로 하려면 그 낭비는 엄청날 겁니다. 불필요한 설비가 더 추가되어야 하니까 자연히 부담이 가중되는 셈이지요. 그렇게 될 때에 과연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의 원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겠지요.

어떤 시기에 가서 민영화를 하더라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주도형 민영화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가경쟁력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오늘날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 이탈리아, 인도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소수 공장들을 계속해서 통합해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이 크지도 못한 나라에서 왜 이 같은 기초산업을 두 개, 세 개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유경쟁의 효과를 말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나, 철의 경우에는 미국도 현재 관리가격제이고 기초물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1978년 4월 18일 조선일보 대담, 「차 한잔을 나누며」

차 한 잔 속에 담은 박태준의 일갈이 거둔 효과였을까. 4월 하순엔 포철이 제2 제철소 실수요자로 결정될 것이란 소문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5월의 상황은 달라졌다. 현대가 인천제철을 인수하면서 재공세를 펼치고, 이에 발맞춰 일부 신문이 다시 ‘제2 제철소 민영화’ 논의에 불을 지폈다.

박정희의 마지막 선물

박태준이 3기 공기단축을 위한 ‘건설비상’을 선포하고 종합 카운트다운 체제에 돌입하여 영일만에 다시 전투 같은 일과가 돌아가는 1978년 6월 중순, 포철은 ‘제2 제철소 1기 설비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제2 제철소 입지 후보지는 현대가 제시한 경북 영해와 건설부가 찍어둔 아산으로 갈라져 있었다. 정부는 포철의 의견을 물어왔고, 포철은 2곳 중 아산을 추천했다. 제2 제철소 입지 선정은 1981년 11월에 가서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8월에는 현대도 ‘제2 제철소 1기 건설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들이 포철과 현대의 계획서 검토에 착수했다. 드디어 포철과 현대의 제2 제철소 쟁탈전이 무대 위의 실전으로 전개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지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한국 관료사회의 관행상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한 ‘계획서’보다 배후의 ‘뒷발’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마련이었다.

포철이 제2 제철소를 쟁취하려는 현대의 드센 도전에 시달리고 있던 1978년 8월, 도쿄에는 ‘아시아의 작은 거인’으로서 ‘백묘흑묘론’을 펼치게 되는 중국 최고실력자 덩샤오핑이 머물고 있었다. 개방을 기획하는 그는 자본주의경제와 산업화에 관심이 깊어 현대적 제철소에 남다른 시선을 기울였다. 이는 그의 신일본제철 방문으로 입증되었다. 1965년 한국의 박정희가 미국의 피츠버그제철소를 찾아간 것처럼, 1978년 중국의 덩샤오핑은 일본의 신일본제철소를 찾아갔다. 양국 두 지도자의 선진 제철소 방문 시기에 나타난 시간적 격차는, 장차 양국의 산업화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된다’는 한마디 비유로 거대한 대륙과 10억 인구를 개방의 시대로 이끌어 나갈 덩샤오핑은, 조그만 한반도의 동해안 남단에 붙은 영일만 모래벌판에서 신화를 완성해간다는 ‘작은 거인’을 은근히 궁금해 하며 탐내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박태준은 외국

설비공급사 감독들로부터 ‘3기 설비의 11월 말 완공 불가’라는 건의를 받았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째 한국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부족, 둘째 일부 국산화 설비의 납기지연과 하자 발생으로 재시공 현장 증가.

숙련된 건설인력이 대거 중동으로 빠져나갔기에 첫째 이유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지만, 둘째 이유는 몹시 자존심이 상했다.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모든 설비와 기자재의 제작을 국내 64개 업체에 의뢰하여 ‘22% 이상 국산화 목표’를 내세운 것이 부메랑처럼 공기지연의 핵심 요인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태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 물러설 수 없었다. 길은 보였다. ‘공기 5개월 단축’이란 목표를 위태롭게 하는 기술부족을 한국인의 뛰어난 장점으로 보충해나가겠다고 판단했다.

9월 17일은 추석이었다. 박태준은 술선수범으로 차례모시기와 연휴를 포기했다. 임원들도 따르면서 ‘추석연휴반납운동’이 회사 살리기 캠페인처럼 모든 부서에 전개되었다. 2만여 건설역군들에게도 ‘성묘 미루기’나 ‘성묘 후 빨리 돌아오기’란 말이 회자되었다. 이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며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이름으로 찍어낸 유인물에는 ‘번영 위해 바친 추석, 조상인들 탓할쏘냐’란 구호가 찍혀 있었다.

추석을 맞아 고향에 가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박태준은 묘안을 냈다. 한국에서 제일 큰 차례상을 회사 정문에 차리는 것. 추석을 하루 앞두고 총무팀은 바쁘게 움직였다.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이란 슬로건이 걸린 정문 밑에 기다란 상을 놓고 흰 종지로 입혔다. 제수는 포항 죽도시장에서 최고품으로 마련하여 올렸다. 때가 되자,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박태준은 합동차레에서 제일 먼저 술잔을 올렸다.

추석연휴를 반납하거나 줄이자는 캠페인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추석 당일에도 38%의 건설역군들이 현장을 지켰다. 사흘 만에 67%, 닷새 만에 100% 출근율을 기록했다. 현장 사람들 스스로가 그 소식에 놀랐다. 그것은 고스란히 공기단축의 새로운 에너지로 충전되었다.

박태준은 9월 24일부터 임원회의를 ‘건설비상회의’로 대체했다. 매주 월·수·금요일 아침에 열리던 정례회의가 휴일도 없이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한 번씩 열렸다. 11월 28일 밤까지 꼬박 66일 동안 강행한 건설비상회의는 ‘공기 5개월 단축’을 지휘하는 야전사령부의 역할을 수행했다. 1·2기 건설에서 경험한 카운트다운 체제보다 더 뻑뻑한 날들이었다.

영일만 바닷물에 가을빛이 들 무렵, 포철과 현대의 쟁탈전은 승패의 고비를 맞았다. 그러나 박태준은 박정희와 독대할 길이 막혀 있었다. 정치계와 절연하고 포철 건설에 몰두해왔으니 어느새 최고권력자와 만날 일이 뜸해진 것이었다. 더구나 청와대 비서실이 현대를 미는 상황이었다.

박태준은 우선 소통의 선을 정부 내에서 찾았다. 최각규 상공부 장관은 제 2 제철소 실수요자 선정이 한국경제의 미래에 끼칠 영향을 심각하게 보면서 박태준의 견해에 귀를 기울였다. 제 2 제철소 실수요자 선정에 국내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 때, 최각규는 마침 부산까지 출장을 오게 되었다. 언론에 띄지 않고 자연스레 포항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는 기회였다.

포철 영빈관에서 박태준과 최각규는 밤늦도록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상공부 장관의 궁금증과 의구심을 차근차근 풀어주는 박태준의 말씨와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세계 철강업계에서의 한국의 입장, 한국 철강업계의 장래,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공략에 대한 전략과 전망, 포철이 비축한 노하우, 자금조달능력, 해외연수를 다녀왔거나 나가 있는 기술인력의 실태……. 특히 그의 견해는 제 2 제철소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주체를 밝히는 대목에서 더욱 힘이 붙었다.

“우리는 3 기 공사에서 22.5%까지 끌어올린 장비와 기자재의 국산화율을 제 2 제철소에선 50~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장비만 수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 2 제철소를 포철의 힘으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레이아웃, 기본계획서, 전체 설계도, 건설, 조업 등 모든 것을 포철이 직접 할 것입니다. 지금의 3 기 공사도 대부분 우리 기술자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 월 말에 3 기가 완공되면 일본기술단도 우리 회사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포항을 떠나는 손님의 마음은 편안했다. 오래 고민해온 숙제를 간밤에 해결했기 때문이다.

10 월 초순, 청와대에서 월간 경제장관회의가 열렸다. 부총리, 재무부 장관, 상공부 장관, 건설부 장관 등 경제부처 각료와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비서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제 2 제철소 실수요자 선정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의견은 딱 갈라졌다. 청와대 참모들은 현대를 지지하고, 상공부 장관과 건설부 장관은 포철을 지지했다. 논리도 팽팽히 맞섰다. 경제수석은 사기업의 육성, 시장경제의 촉진, 선의의 경쟁, 중동 산유국들과 밀접한 현대의 외자도입 능력 등을 내세운 반면에, 상공부 장관은 포철의 노하우, 기술능력, 사명감으로 뭉친 정신력,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 국제 신인도 등을 내세웠다.

회의는 결론을 낳지 못했다. 양측의 대립이 그대로 대통령 손에 넘어갔다. 비로소 박정희는 좀 의아해했다. 가끔 제 2 제철소 프로젝트에 대한 청와대 참모의 보고가 올라왔고 언론이 종종 그 문제를 다뤘지만, 정작 핵심 당사자인 박태준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것이다.

10 월 16 일 박정희는 비서실장에게 포철 사장을 청와대로 부르라고 지시했다. 현대를 미는 입장에서는 찜찜한 노릇이었다. 비서실장은 박태준에게 대통령과의 면담보다 30 분 빠른 오후 1 시 30 분까지 비서실에 도착해 달라고 했다. 예비회의부터 열자는 것이었다. 박태준은 순순히 응했다. 비서실장이 마련한 30 분 회의에는 경제수석 2 명도 참석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목적은 박태준을 설득하거나 굴복시키는 데 있었다. 하지만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포철이 실수요자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경제학 교수의 강의처럼 정연히 설명했다.

“자, 그만 들어갑시다.”

비서실장이 손을 흔들며 일어났다. 네 사람이 나란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리로 옮겨갔다.

“이제는 얼굴 보기도 힘들구먼.”

박정희가 반갑게 박태준을 맞았다.

“오래 뵈지 못했습니다.”

“그래, 모든 일이 잘 되어가나? 그래서 얼굴 보기가 어려웠나?”

박태준은 잠깐 사이를 렀다. 벌써 열 달 넘게 끌어온 제 2 제철소 쟁탈전을 떠올리는 그는 격한 감정을 억누르며 좀 냉소적으로 말했다.

“제가 뵈고 싶어도 그러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임자가 보고 싶었네.”

박태준은 오랜 고립감이 녹는 듯했다. 안 그래도 할 말은 남김없이 할 작정이었지만,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다. 몇 마디 안부와 포철 근황에 대한 대화가 오간 다음에 드디어 박정희가 제 2 제철소를 탁자에 올려놓았다.

“임자의 말을 들어보고 결정하기로 했네.”

“여기 계신 분들이 객관적으로 많이 연구하셔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씩 웃으며 박태준을 쳐다보았다. 그와 함께 들어온 세 사람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어른거렸다.

“나는 포철 사장 박태준의 보고도 들어야겠어. 시작해보게.”

박태준은 힐끗 자신의 손목시계부터 보았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시간 걱정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해봐.”

박태준은 가슴의 응어리 같은 논리들을 꺼냈다. 대통령이 귀를 기울이자 비서들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간간이 대화가 섞이긴 했지만 무려 40 분쯤 걸린 그의 주장은, 조선일보 선우휘 주필과의 대담에서 처음 언급했던 ‘사람 빼가기’로 인한 양사의 공멸을 우려한 다음, 이렇게 마무리됐다.

“세계 철강업계를 주도하는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더 이상의 제철소 증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철강경기가 악화되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포철 하나를 계속 확장해나가는 것만으로도 세계 철강업계의 압력을 견뎌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박정희가 비서들을 바라보았다.

“본인은 박 사장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혹시 질문이 있나요?”

오원철 경제 제 2 수석이 묘한 절충안을 던졌다.

“포철이 매년 이익을 내고 있으니, 제 2 제철소는 현대가 맡아서 건설하고 포철이 투자하는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박태준은 주저 없이 반박했다.

“포철이 그런 데 쓸 돈은 없습니다. 밖으로는 용자상환과 설비도입에 막대한 돈이 필요하고 안으로는 사원훈련, 공장관리, 설비보수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또한 제철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 제안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박정희가 손에 쥔 연필로 톡톡 탁자를 치면서 독백처럼 중얼거렸다.

“정주영 회장은 불도저같이 일하지.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공헌도 하고…….”

문득 팽팽한 긴장이 드리웠다. 침묵 중에 톡톡 탁자를 치던 연필이 멈췄다.

“그러나 철은 역시 박태준이야. 오늘의 만남이 결정에 큰 도움이 됐어.”

박정희가 톡 부러지게 말했다.

“제 2 제철소는 포철이 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포철 창립 10 주년을 기념하여 ‘鐵鋼은 國力’이란 휘호를 선물했던 박정희, 그의 카랑카랑한 결정이 떨어졌다. 포철 사장이 대통령 비서들과의 씨름에서 승리한 순간이었다. 박정희와 박태준의 독특한 인간관계, 박태준의 완벽한 논리, 그에 대한 박정희의 완전한 신뢰와 냉정한 판단이 하나로 뭉쳐져서 현대 경영진과 대통령 비서들의 동맹을 조용히 격파한 순간이었다. 어쩌면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큰

선물을 안긴 순간일 수도 있었다. 물론 선물을 받는 쪽은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박태준은 까맣게 몰랐다. 그것이 박정희의 ‘마지막 선물’이 될 줄을…….

당사오피, “박태준을 수입하면 되겠네”

박태준은 훌가분하게 영일만으로 돌아왔다. 즉시 현장부터 살살이 둘러보았다. 3기 건설의 절정기에 이르러 ‘건설비상체제’로 돌아가는 곳곳이 구질구질하고 너저분했다. ‘목욕론’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꼴이었다. 과감히 ‘목욕’부터 시켜야 했다. 그는 ‘정리정돈 별동대’를 조직하라고 지시했다. 인력 160명과 각종 장비 28대를 갖춘 특이한 조직의 임무는, 현장의 건설 폐자재를 비롯해 모든 쓰레기를 남김없이 수거하는 것이었다. 11월 30일에 해체된 이 별동대는 수명은 짧았지만 10톤 트럭 4,000대분(하루 평균 830톤)의 건설 폐자재와 쓰레기를 처리한 기록으로 포철 역사에 남았다.

제2 제철소 실수요자 결정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만 남은 때, 박태준은 다시 청와대 비서실의 전화를 받았다. 그가 청와대에 도착하자 헬기 2대가 이륙했다. 앞 헬기엔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 박태준이 탑승하고 뒤 헬기엔 포철의 건설계획부장 김경진,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탔다. 박정희의 깊은 관심 속에서 ‘제2 제철소 입지 선정’을 위한 긴 여정이 막을 올린 것이다.

헬기의 목적지는 서해안 가로림 지역. 오원철 경제수석이 대통령에게 천거한 곳으로, 경북 영해를 포기한 현대가 재빨리 선택한 바로 그곳이기도 했다. 박태준은 가로림 상공에서 대통령의 의도를 헤아려보았다. ‘여기까지 직접 날아온 것은 여기를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뜻이 아닌가. 하지만 나를 동행시킨 것은 내 의견을 들어보시겠다는 뜻이 아닌가.’

제2 제철소 입지선정의 일차적 권한은 건설부에 있었다. 답사를 마치고 대통령이 박태준에게 의견을 물었다. 솔직히 답했다.

“제철소 입지를 간단하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기술적, 경제적 요소들을 평가해야 하고 사전에 충분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가 충분치 못했다는 얘기구먼. 그러면 전문가들에게 철저한 조사부터 시키도록 해야지.”

청와대를 나와 곧장 영일만으로 돌아온 박태준은 대통령의 지시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었다.

11월 초순의 포철에 ‘제2 제철소 입지조사위원회’가 태어났다. 위원회는 곧 일본 해양컨설팅트,

가와사키제철, 네덜란드의 네데고 등 해외 용역업체에게 가로림 지역에 대한 종합적 정밀조사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포철이 제 2 제철소 실수요자로서 입지선정의 ‘확실한 의견’을 내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즈음, 포항의 3 기 건설은 ‘공기 5 개월 단축’이란 목표의 9 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었다. 영일만의 전사들이 치열한 작업강도를 11 월 한 달만 더 감당해주면, 의심 가득한 외국 기술자들에게 다시 한 번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11 월 하순, 박태준은 모든 현장의 보고를 종합한 결과 포항 3 기의 종합준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일만에 연산 조강 550 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탄생시켜 일약 세계 17 위의 제철소로 도약할 포철, 남은 것은 종합준공식이었다.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 조정된 날짜는 12 월 8 일이었다.

박태준은 도쿄로 날아갔다. 지난 10 년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은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준공식에 초청하려는 걸음이었다. 그는 몰랐지만, 제법 오래 전에 배달된 ‘아주 특별한 화환’이 길이 시들지 않을 꽃처럼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태준은 누구보다 먼저 신일본제철 이나야마 회장을 방문했다. 포철의 승승장구를 진심으로 축하해준 그가 미소를 지었다.

“박 사장님, 중국에 납치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태준은 조금 긴장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순간적으로 포철의 걸음마 단계에서 맞았던 ‘저우언라이 4 원칙’을 떠올렸다. 이나야마가 껄껄 웃었다.

“지난 8 월에 중국의 덩샤오핑이 우리 제철소를 방문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제도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니 죽의 장막에도 조금씩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벌써 조그만 탁구공이 거대한 죽의 장막에 구멍을 내지 않았습니까?”

‘탁구공’은 1974 년 미국과 중국의 ‘핑퐁외교’를 가리켰다.

“그렇지요. 그런데 덩샤오핑은 일본의 제철소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깊더군요. 기미츠제철소를 둘러보자 뜻밖에도 포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론은, 우리에게 포철 같은 제철소를 중국에 지어달라는 것이었어요. 진심의 부탁이었는데,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공손히 답했어요. 덩샤오핑은 조바심 내는 것 같더니, 그게 그렇게 불가능한 요청이냐고 정중히 되물었습니다.”

이나야마는 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제철소는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짓는데 중국에는 박태준이 없지 않느냐고, 박태준 같은 인물이 없으면 포항제철 같은 제철소는 지을 수 없다고 명백히 말해줬습니다. ‘포철은 기적’이라는 말과

함께요. 덩샤오핑은 생각에 잠기더니, 그러면 박태준을 수입하면 되겠다고 하더군요. 박 사장님, 중국이 당신을 납치할지도 모릅니다.”

이나야마와 박태준은 홍소를 터뜨렸다.

그때 이미 중국 지도부는 ‘박태준 파일’을 갖추고 있었다. 어떤 인물이 어떤 신념과 어떤 리더십으로 포철의 기적을 이룩하였는지를 중국은 훤히 꿰차고 있었다. 그것은 1978년 여름 이후, 중국에서 한국의 경제인 가운데 ‘박태준’을 가장 훌륭한 인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일화는 널리 퍼져나갔다. 이나야마가 일본, 한국, 중국의 여러 인사들에게 즐거운 화제로 삼았던 것이다.

제철기술의 식민지 극복

1978년 12월 8일 오후 3시, 3고로 주상에서 ‘포철 3기 설비 종합준공식’이 열렸다. 대통령, 상공부 장관, 건설부 장관을 비롯한 내외 귀빈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정희는 “1984년까지 우리나라가 철강생산능력에 있어 전 세계 10위권대에 들어가면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공업, 시멘트 생산능력에서 모두 전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가게 된다”며 오래 갈망해온 포부와 비전을 다시 제시했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적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대전제를 존재의 근거로 밝고 있는 유신체제. 박정희는 영일만의 기적을 찾아와 ‘경제개발’을 당당히 실증하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국내 모든 언론은 정치 상황과 무관한 시각에서 ‘포철의 위업’에 찬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박태준을 ‘한국의 카네기’라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다른 욕심’은 없느냐며, 그에게 은근히 정계진출 의사를 권유하고 타진하는 질문도 나왔다. 그러나 박태준은 ‘철에 미친 사람으로서 전혀 다른 욕심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종업원을 다그친’ 지휘자와 그의 술선수범 아래 정신적 일체감으로 뭉친 모든 사원의 피땀으로 550만 톤 체제를 갖춘 포철의 영광은 이제 원대한 목표의 25%쯤에 접근한 수준이었다.

1978년 세모에 박태준은 포항 4기 설비의 ‘조기착공과 조기준공’에 관한 세부계획 작성을 지시했다. 제4고로·제2연주·제2열연공장을 비롯한 7개 공장의 신설, 제2제강공장을 포함한 6개 공장의 확장, 항만·하역·철도 등 11개 부대설비를 증설해야 하는 ‘4기 확장공사’는 3기까지 건설해온 지난 10년간 터득한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하기로 하고 건설본부 조직을 대폭 개편했다. 박태준은 포항 4기

확장공사를 ‘기필코 우리 손으로 제 2 제철소를 설계·건설하기 위한 마지막 수업 기간’으로 활용하겠다고 각오했다.

3기 설비 종합준공식이 끝난 뒤에는 일본기술단이 보따리를 꾸려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제철기술의 식민지를 극복하려고 과감한 해외연수와 기술개발에 투자해온 포철이 기술독립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앞으로는 기술독립의 바탕 위에서 세계 최고 제철기술을 확보한다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했다. 10년 가까이 영일만에 머물렀던 일본기술단은, “모든 역경을 딛고 포항제철은 단기간에 일본의 제철소에 버금가는 대규모의 선진제철소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 이 회사가 4기 확장을 마칠 때면 아마도 생산능력과 시설 면에서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포항제철의 잠재능력은 경영정보시스템, 연수원, 정비관리센터 등 독창적인 조직에 기인한다. 고급인력과 최고경영자의 탁월한 경영능력이 합쳐져 포항제철은 머지않아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단순한 덕담이 아니었다. 실상 그대로였다.

3기 종합준공을 둘러본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특별한 보상’을 안겼다. 그동안 너무 많이 독수공방시킨 아내를 위로하는 뜻에서라도 한 달 간 세계여행을 다녀오라는 것. 하지만 박태준은 휴가를 받을 수가 없었다. 직원들의 고생도 참 많았기에 사양할 수밖에 없었다.

1978년을 고작 이틀 남긴 날이었다. 사무실과 현장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다. 동아일보가 ‘올해의 인물’로 ‘포항제철의 박태준 사장’을 선정한 것이었다. 직원들은 망년회에서 외칠 멋진 말을 챙길 수 있었다.

“철에 미친 우리 사장님이야말로 진짜 애국자다. 우리 사장님의 영광과 포항제철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동아일보는 1978년 12월 29일 1면 한복판에 다음과 같이 선정 이유를 밝혔다.

마치 철인(鐵人)처럼 철(鐵)에 파묻혀 포철을 제 1기 사업 연산 103만 톤 규모에서 이제 550만 톤으로 끌어올리기까지 그 자신이나 포철 종업원들은 한결같이 한의 세월을 보냈다. 지나간 10년 세월을 한국경제의 도약기로 본다면, 박 사장은 그 뒤에 숨은 말없는 주역의 한 사람으로 보아 무방할 것 같다. 비록 저임금, 물가고, 빈부격차의 확대 등 응달지역이 독버섯처럼 눈에 띄기는 하나, 70년대 들어 우리 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한 것만은 틀림없다. 이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장열차’에 올라앉아 자신의 기여도를 높이높이 자랑했는가. 그러나 박 사장의 경우 일선에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화려한 장막 뒤에서 말없이 10년을 보내면서 오늘의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중화학 공장의 모체인 철강공업을 일으켰다. 그는 숨가쁘게 움직였으며 늘 바빴다.

박정희와 박태준의 맨가슴 대작

포항 4기 설비 종합착공을 하루 앞둔 1979년 1월 31일 저녁, 박정희가 포철 '백록대'로 내려왔다. 대통령의 목적은 공장 순시가 아니었다. 저 1960년 부산 시절처럼 박태준과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술잔을 나누려는 것이었다. 아주 편안한 사람과 아주 솔직한 대작을 바라는 대통령의 심경을 박태준은 손바닥처럼 읽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표정이 지치고 외로워 보였던 것이다.

포항시 효자동 포철주택단지 내 백록대, 그 2층에 마련된 술자리. 박정희와 박태준은 정말 오랜만에, 거의 20년 만에 계급장을 떼고 인간적인 맨가슴을 열어놓고 있었다.

“각하, 이렇게 편하게 모셔본 것이 정말 까마득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나도 임자하고 이런 자리를 갖고 싶어서 훌쩍 찾아온 거야.”

“배려 덕분에 휴가는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 겨우 일본에서 1주일을 보냈다면? 이 못난 사람…….”

“어찌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한 달 휴가를 줄 수 없으니 그 정도도 과분한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 그건 그래. 하여간 못 말려.”

두 사람은 큰소리로 웃었다. 소탈하고 편안하고 데면데면한 구석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헤아리지 않는 술잔을 주고받았다. 박태준이 박정희에게 받았던 '과음에 대한 처벌'을 꺼냈다.

“이 사람아, 내가 과음 가지고 처벌을 할 사람이야? 그거 무슨 소리야?”

“각하의 주치의를 포항에 두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

두 사람은 껄껄 웃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일어났던 짧은 소동을 술잔에 담았다.

1974년 0월 0일 박정희가 포철을 방문했을 때 박태준은 브리핑을 준비했으나 숙취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아침에 약도 먹었다. 그러나 도무지 속이 가라앉지 않았다. 숙취의 멀미는 전혀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대통령이 앞에 있건 말건 위장 밖으로 밀어낼 것은 기어코 밀어내려고 했다. 그는 보고를 시작했지만 더 이상은 구토를 참을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내놓기 바쁘게 후다닥

자리를 비웠다. 생애 최초의 술로 인한 실수를 하필이면 대통령 면전에서 저지른 것이었다. 하지만 박정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고소하다는 듯이 웃고 있었다. 아무렇게도 여기지 않는 것은 애주가의 덕망이라 치더라도, 좀 고소해한 것은 자신과의 모든 술자리에서 언제나 멀쩡했던 술꾼이 드디어 한 번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즐거움 같았다. 박태준이 구토를 마치고 얼굴을 수습하여 자리로 돌아오자 박정희는 인자한 형님이나 스승처럼 말했다. “고생이 많아서 그래.” 바로 이어서 주치의의를 쳐다보며 지시를 내렸다. “저 친구 다 낮게 해주고 올라오시오.” 대통령 주치의가 사흘이나 포항에 머물렀다. 박태준은 ‘과분한 벌’을 받는 셈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철강으로 옮겨졌다. 박태준이 보고하듯 또박또박 말했다.

“각하, 내일이면 포항 4 기 착공을 합니다. 4 기를 마치면 850 만 톤 규모로 확장됩니다. 포항에서 1,000 만 톤은 부지가 협소해서 한 번 더 확장을 해도 무리한 목표가 되겠지만, 제 2 제철소에서 1,200 만 톤을 해버리면 대망의 철강 2,000 만 톤 시대를 넘어설 것입니다. 자신감이야 넘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문득 박정희의 표정과 말씨가 좀 쓸쓸해졌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험하고 멀어……. 가긴 가야지.”

두 사람의 대화가 정치 방면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박정희는 국내정치 상황의 곤경, 미국 카터와의 불편한 관계를 토로했다. 한참을 듣고만 있던 박태준이 마치 아슬아슬한 어떤 실마리를 조심스레 잡는 경우처럼 속에 가뒀던 생각 하나를 꺼냈다.

“각하께서 잘 알고 계다시피 저는 최고회의를 떠난 뒤로 정치와는 담을 쌓은 채 제철에만 몰두해왔습니다. 원래부터 정치에는 소질이 부족한 데다 그래서 정치 감각이 더 둔해졌습시다만, 매사에는 그 단초가 있다고 한다면, 국내 정치를 더 어렵게 만든 계기는 김대중 납치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리 정적이라도 그런 방식으로 다룬 것은.”

박태준은 말을 멈췄다. 자신을 쳐다보는 박정희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다.

“임자도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나?”

박정희가 반문을 던지고 말을 이었다. 그의 말씨는 오히려 차분했다. 회한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그때 이후락이가 혈레벌떡 청와대로 올라와서 곧 숨이 넘어갈 것처럼 보고한 것이 바로 그 사건이었는데, 미국 쪽에서 중단하라는 전화가 왔다나. 나는 금시초문이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서 재떨인지 뭔지 탁자에 있던 걸 그놈 면상을 향해 집어던지고 당장 집어치우라고 소리를 질렀어.”

박정희가 잔을 비우고 말했다.

“김형욱이, 이후락이, 그 둘을 너무 오래 썼던 내 잘못이야.”

박태준은 위로의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 잔을 집었다.

이튿날, 1979년 2월 1일. 박정희는 서울로 올라가고, 박태준은 포철 4기 확장공사 종합착공 발파 버튼을 눌렀다. 박정희와 박태준가 일심으로 창조해 나가는 ‘영일만 신화’를 완성하기 위한 제4막의 막을 올린 것이었다.

연산 조강 850만 톤 규모로 확장하는 4기 건설은 3기 건설과 비교해 장·단점이 두드러졌다. 가장 큰 장점은 ‘경험 축적’이었다. 중동 특수경기의 후퇴로 숙련 건설인력을 확보하기 쉬워졌다는 사실도 장점일 만했다. 단점은 크게 네 가지였다. 부지협소, 기존설비들과의 간섭사항 증가, 대폭 확대한 국산화 품목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불안, 컴퓨터시스템(전산화) 확충에 따른 신기술 습득. 그러나 단점들은 ‘무(無)’에서 도전했던 과거에 견주면 고민거리가 될 수 없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79년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낯설었던 ‘전산화’이다.

1950년대부터 일본의 제철회사들은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산업의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했을 뿐 아니라, 뛰어난 정보기술을 산업계에 전파한 공로가 크기 때문이다. 종합제철소는 다른 제조업과 달리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을 일관공정 체제로 관리해야 해서 전산화 도입시기가 빨라진 업종이다. 포철도 초창기부터 전산화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설비자동화의 필수기술인 자동제어 시스템을 비롯해 공정계획·작업지시·품질관리·인력관리·조직관리·매출관리 등 회사의 모든 신경을 컴퓨터에 집대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

일본 철강업체들이 ‘철과 전산화’로 일본경제에 기여했듯, 포철도 국내 제조업체에 ‘산업의 쌀’을 공급함으로써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FA, OA, 통신 등 첨단시스템을 도입·적용하여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게 되었다.

박정희와 박태준의 마지막 대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서울 정상회담이 장안의 화제로 떠올랐다가 시나브로 가라앉고 있는 1979년 한여름의 어느 밤이었다. 마침 서울에 있던 박태준은 청와대로 불려갔다. 술이나 한 잔 하자는 박정희의 부름을 받은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나뉘던 두 사람의 대화를, 그해 10월 하순 이후에 기억해줄 이는 두 사람만 남았다. 박태준과 그의 아내 장옥자. 기억은 정확해도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요점만 말하고 그저 유쾌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박태준의 특이한 화법이다. 1979 년으로부터 이십여 년이 더 흐른 다음에 그 자리의 대화를 회고하는 박태준의 말은 짧았다. 그가 없는 자리에서 우연히 그 자리를 기억해주는 장욱자의 말도 짧았다. 그 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온 박태준의 베갯머리 전언(傳言)이 ‘요점’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박정희와 박태준의 대화로 재구성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각하, 카터 대통령과 각하의 회담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결말은 비교적 잘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박태준의 궁금증에 대해 박정희가 자세히 설명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보면 결말이 좋았다고 보였겠지. 나는 생각도 느낌도 달라. 카터하고는 초면인데, 카터가 회담 자리에 앉자마자 내가 일방적으로 써아버렸어. 참모들 말로는 통역까지 그게 45 분이나 걸렸다는 거야. 주한미군의 역할이 무엇인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는 것처럼 떠들었던 건데, 카터가 지난 3 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것에 대해서 갚아줬던 거야. 카터는 화를 참고 있다가 다 듣고 나서는 반격도 하더군. 한국이 북한보다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강한데 왜 북한이 군사적 우위를 점하도록 허용하느냐. 이런 주장은 뭐야?”

“방위비 증강하라는 요구였군요.”

“그래. 배부른 놈들이 편하게 하는 소리지. 우리가 자주국방을 해야 돼. 언제까지 매달리고 끌려갈 수는 없잖아? 지금 내 소원이 뭔지 아나?”

박태준은 박정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면, 그날로 국군의 날 행사처럼 핵무기를 포함시켜서 보란 듯이 시가행진을 하고, 그 능률한 모습을 사열 받고는 즉시 하야성명을 발표하고 시골 농부와 같은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먼 일은 아닐 거야.”

박태준은 오랜만에 낭만적인 청년 같은 박정희의 표정을 보았다. 혁명을 꿈꾸는 군대시절에 구상(具常) 같은 시인과 어울리는 술자리로 돌아간 사람 같았다.

“원래 각하께서는 허름한 밀짚모자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박태준이 밝게 받았다.

“나는 시골 농부들이 좋아. 순박하지. 그 사람들하고 논둑에 주저앉아 막걸리를 마시면서 남은 세월을 보내고 싶은데....”

박정희가 말끝을 흐렸다. 표정도 어두워졌다.

“카터를 재차 만나서는 기분을 풀어주긴 했어. 김포공항으로 돌아가는 리무진에 동승을 했는데, 나한테 종교가 있느냐고 묻더군. 기독교라는 답을 기대하는 줄이야 알았지만, 나는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주일학교에 다닌 경험밖에 없으니까 없다고 했더니, 대통령 각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더군. 말은 정중했지만 끝까지 인권문제에 대한 충고를 했던 거지.”

박태준은 묵묵히 있었다.

“재차 만나서도 카터는 양국 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권 개선 조치라고 하더군. 그때는 나도 예의를 차렸어. 현재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확인할 수 없으나 대통령 각하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을 했던 거야.... 왠지 모르겠어. 나는 여기까지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

‘나는 여기까지가 아닌가 하는 느낌’, 이것이 1979년 한여름 밤에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털어놓은 고백이었다.

카터의 사흘 서울 방문에 대한 다음의 기록을 읽어보자.

박 대통령은 자신이 메모해 둔 종이를 꺼내놓고 일방통행식이고 강의조의 발언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통역 시간을 포함해 45분간 진행되었다. 배석했던 글라이스틴 대사는 이를 ‘장황하고 딱딱한 연설조의 주장’이었다고 표현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방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자유세계의 방어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카터의 턱 근육이 조용히 씰룩거렸다. 해럴드 브라운 국방장관은 옆자리의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카터 대통령을 보니 매우 화가 나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카터는 메모를 써서 브라운 장관과 벤스 장관에게 슬쩍 넘겼다. 거기엔 ‘만약 박정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주한미군 전원을 철수시키고 말겠소’라고 적혀 있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과거 여러 번 정상회담에 배석했지만 그날의 두 사람처럼 회담 자체를 엉망으로 만든 지도자들은 본 적이 없다”고 회고록에서 고백했다.

--조갑제, <박정희> 제 12권

도쿄에서 7개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1979년 6월 29일 서울로 들어온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일행은 7월 1일 서울을 떠났다. 그들의 방한은 ‘포항제철의 귀중한 한 사람’에게 자유를 선물하기도 했다. 6년째 감옥에 갇혀 있던 김철우 박사의 석방이 그것이다. 앞에서 소개했지만, 재일동포 출신의 제철 엔지니어로서 포항제철 1기 건설에 큰 공을 세웠으나 일본과 북한의 재일조선인 복송사업의 덮에

걸려 북송선(귀국선)을 타고 북한으로 들어간 동생을 몇 년만에 만나기 위해 평양에 갔던 사실이 뒤늦게 들통 나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창졸간 영어의 몸이 되었던 김철우. 그해 가을에 그는 석방되었고, 박태준은 그를 다시 포항제철의 임원으로 맞이했다. 세계에서 가장 엄혹하게 냉전시대의 이념대결이 관철된 한반도의 한 희생양이 자유를 회복한 과정에는 그의 일본인 친구들의 활약이 있었다. 김철우를 잘 아는 친구(과학자)들이 카터 대통령을 수행한 비서와 만나서 ‘김철우가 절대 스파이는 아니다’라는 진정을 했고, 그것이 한국의 요로에 전달되었던 것이다.

비장한 마무리-가장 아름다운 재회

박태준이 박정희와 약속한 ‘철강 2000 만 톤 시대’를 완전히 실현한 때는 1992 년 10 월 2 일이었다. 박정희가 세상을 떠난 지 꼬박 13 년 만이었다. 생전의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마지막 선물로 안겨준 제 2 제철소를 연산 1200 만 톤 규모의 광양제철소로 완공한 그날,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합쳐 연산 2100 만 체제를 갖추었다. 장장 25 년의 인생을 바쳐 박정희와 약속을 실현한 그날, 박태준의 영혼에는 희열과 회한, 영광과 고통이 뒤엉켜 뜨거운 응어리로 맺힌 가운데 박정희 사후의 술한 곡절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전두환의 요청으로 정계에 한 발을 들여놓을 때 ‘박정희 대통령 대신 이제는 스스로 정치적 외풍을 막아내는 포철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던 다짐, 참으로 힘들었던 그 실천, 노태우의 거듭된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여 마지못해 여당 대표가 되어 갑자기 고위 정치인으로 행세할 수밖에 없었던 일, 곧 벌어진 3 당 합당 과정을 뒤늦게 알았을 때의 분노,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가 된 김영삼과 겪고 있는 심각한 갈등, 종합준공이 끝나는 대로 김영삼과 결별하고 정계 은퇴를 하며 포철 회장에서 물러나겠다는 확고한 결심.

박태준은 새로운 결심 3 가지를 그해 10 월 중순을 넘기지 않아서 그대로 실천한다.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김영삼이 광양제철소까지 몸소 내려와 박태준에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지만, 끝내 박태준은 ‘김영삼은 구국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자신의 평가를 양보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이듬해 봄날에 느닷없이 박태준을 기약 없는 해외 유랑의 길로 내몰게 된다. 광양에서 있었던 김영삼과 박태준의 ‘4 시간 담판의 결렬’이 박태준에게는 ‘해외 유랑의 4 년’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눈부신 쪽빛 가을날, 광양제철소 종합운동장 내빈석 꼭대기에는 ‘포항제철 4 반세기 대역사 종합준공’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1968 년 창업한 이래 숏한 고난을 헤치며 장장 25 년에 걸친 제철소 건설의 대역사를 마무리 짓는 장엄한 식장에 1 만 2000 여 명이 모였다. 박태준 회장과 임직원,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주한 미 대사를 포함한 외교사절들, 국내외 취재진, 직원 가족들, 지역사회의 축하객들……. 그러나 꼭 있어야 할 한 사람을 박태준은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이 가장 큰 회한이었다.

축사에 나선 세계철강협회장 로튼이 “포철과 박태준 회장이 이룩한 업적은 추진력과 엄격성과 탁월성으로 세계에 빛나는 모범이며, 4 반세기라는 짧은 기간에 이처럼 거대한 기업을 이룬 데 대해 찬사와 존경을 아끼지 않는다”고 격찬했다.

박태준이 연단에 올랐다. 두 개의 마이크가 놓인 자리, 금빛도 은빛도 없는 그저 평범한 자리. 그러나 그 자리는 세계 최고의 철강인에 오르는, ‘철강황제’나 ‘철강왕’에게 어울리는, 보이지 않는 ‘철(鐵)의 용상(龍床)’이었다. 박태준의 인생에서는 찬란한 절정의 순간이었다.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감회를 여느 때와 다르지 않는 목소리로 밝혀 나갔다.

“오랜 대역사 속에서 민족경제의 초석을 다진다는 일념으로 몸바쳐 일하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동지들의 혼령이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실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제철보국의 정신 아래 ‘민족기업·인간존중·세계지향’의 기업이념을 더욱 착실히 펼쳐나가는 한편, 21 세기를 지향하는 새로운 기업상을 정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을 바탕으로 어떤 어려움이라도 헤쳐 나가면서 기필코 ‘다음 세기의 번영과 다음 세대의 행복’을 창조하는 국민기업의 지평을 열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박태준이 가장 깊은 속마음을 펼쳐놓을 자리는 따로 있었다. 걱정을 안으로 차분히 다스린, 쇠물처럼 뜨거운 울먹임을 찬찬히 풀어놓을 곳이 그에겐 따로 있었다.

성대한 잔치가 끝났다. 손님들이 돌아갔다. 25 년 대역사를 마무리 짓는 장엄한 무대 위의 모든 의자가 치워졌다. 세계 최고의 철강인이 앉았던 평범한 의자도 치워졌다. 그러나 치워진 것은 평범한 의자가 아니었다. ‘철의 용상’이 무대를 내려간 것이었다.

한 사람의 손님처럼 광양을 떠난 박태준은 북아현동 자택으로 돌아왔다. 밤이 깊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이따금씩 눈시울이 뜨끔거렸다. 그러나 아직 눈물을 맺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날이 밝았다. 10 월 3 일, 개천절이었다. 한국 조간신문들은 기사·사설·칼럼으로 일제히 ‘포철 대역사의 대미’에 최상의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보냈다. 포철 신화를 통해 우리 국민은 뿌듯한 자부를 느낀다고 했다.

이렇게 좋은 날, 신문마다 온통 찬사를 쏟아낸 아침, 박태준은 하얀 와이셔츠 위에 검은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매다.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었다. 보고를 들어줄 혼령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 했다. 보고를 담은 두루마리는 그의 가슴에 꽂혔다.

문헌 영혼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골짜기.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욕을 침묵 속에서 웅변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묘역, 서울 동작동 국립 현충원.

박태준은 박정희의 무덤 앞에 섰다. 그의 뒤에는 아내 장옥자, 고인의 아들 지만과 딸 근영, 그리고 몇 사람의 동행자가 묵념의 자세로 서 있었다. 그가 두루마리를 펼쳤다. 한지에 붓글씨로 쓴 보고문. 비로소 그는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목소리가 져어도 좋을 것 같았다. 자신의 인격과 신념과 포부를 완전히 이해해주었던 한 사나이를, 그는 사무치게 그리워했다.

“각하! 불초 박태준, 각하의 명을 받은 지 25 년 만에 포항제철 건설의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삼가 각하의 영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포항제철은 빈곤타파와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일관제철소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각하의 의지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그 포항제철이 바로 어제, 포항·광양의 양대 제철소에 연산 조강 2 천 100 만 톤 체제의 완공을 끝으로 4 반세기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나는 임자를 잘 알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떤 고통을 당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기 한 몸 희생할 수 있는 인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아무 소리 말고 말아!’

1967 년 어느 날, 영국 출장 도중 각하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간 제게 특명을 내리시던 그 카랑카랑한 음성이 지금도 귓전에 생생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25 년이란 긴 세월을 철에 미쳐 참으로 용케도 견뎌왔구나 생각하니, 숫구치는 감회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형극과도 같은 길이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없는 불모지에서 용광로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39 명의 창업요원을 이끌고 포항의 모래사장을 밟았을 때는 각하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자본과 기술을 독점한 선진 철강국의 냉대 속에서 국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한숨짓기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모략과 질시와 수모를 받으면서 그대로 쓰러져버리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철강은 국력’이라는 각하의 불같은 집념, 그리고 13 차례에 걸쳐 건설현장을 찾아주신 지극한 관심과 격려였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포항제철 4 기 완공을 1 년여 앞두고 각하께서 졸지에 유명을 달리하셨을 때는 철강 2000 만 톤 생산국의 꿈이 이렇게 끝나버리는가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철강입국의 유지를 받들어

흔들림 없이 오늘까지 일해 왔습니다. 그 결과 포항제철은 세계 3 위의 거대철강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우리나라는 6 대 철강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각하를 모시고 첫 삽을 뜬 이래 지난 4 반세기 동안 연인원 4000 만 명이 땀 흘려 이룩한 포항제철은 이제 세계의 철강업계와 언론으로부터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철강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제 힘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필생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 각하에 대한 추모의 정만이 더욱 새로울 뿐입니다. ‘임자 뒤에는 내가 있어. 소신껏 밀어붙여봐.’ 하신 한마디 말씀으로 저를 조국 근대화의 제단으로 불러주신 각하의 절대적인 신뢰와 격려를 생각하면서 다만 머리 숙여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각하! 일찍이 각하께서 분부하셨고, 또 다짐드린 대로 저는 이제 대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진정한 경제의 선진화를 이룩하기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혼령이라도 계신다면, 불초 박태준이 결코 나태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25 년 전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 잘사는 나라 건설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굳게 붙들어주시옵소서.

불민한 탓으로, 각하 계신 곳을 자주 찾지 못한 허물을 용서해주시기를 앞드려 바라오며, 삼가 각하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안면하소서!”

박태준은 자신과 박정희의 독특한 인간관계를 개천절의 국립묘지 한 귀퉁이에서 마침내 비장한 아름다움으로 매듭지었다.

에필로그-박태준의 삶과 정신

박태준의 마지막 계절

청암(靑巖) 박태준(朴泰俊)은 생애에 여든네 번째로 맞은 여름의 한 자락을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보내고 있었다. 2011 년 8 월, 한낮 수은주가 섭씨 25 도에 닿기 어려운 피서 휴양지. 그러나 그는 겨울철 독한 감기에 걸린 듯이 자꾸만 기침을 하고 있었다. 결코 예사로운 징후가 아니었다. 어느덧 여섯 달째 접어들었건만 사라질 낌새를 보이지 않는 몹쓸 기침이었다.

훗카이도 전통 식당. 단층 목재건물의 조그만 창 밖에는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다. 따뜻한 찻잔을 식탁에 내려놓은 그가 다시 잔기침을 여남은 번 뱉었다. 그의 평전을 쓴 작가는 새삼 가슴이 짜안해져서 차가운 사케 한 잔을 단숨에 삼켰다.

“그까짓 거야 뭐 밤새도록 마시는 거지. 이 집에 좋은 사케는 아주 많소.”

그가 묘한 웃음을 지었다. ‘너그러운 아이 같은 표정’이라 해야 적절할까. 대한민국 육군에서 손꼽히는 호주였던 자신의 저 젊은 시절의 어느 아련한 술자리 장면이 떠오르는 모양이었다. 속절없는 세월의 머나먼 거리.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과거로의 길. 하나의 문장이 쏜살같이 스쳐 지나갔다. 어른의 권주에 못 이겨 어린양을 부리는 심정으로 거꾸 한 잔을 더 비우는 내 머릿속으로.

“이틀 동안 유심히 살폈습니다만 서울에서 뵈었을 때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기침이 떨어지지 않고…….”

“이 정도만 돼도 뭐든지 할 수 있겠소.”

너무 오래된 끈질긴 기침에 정말 진저리치고 있다는 괴로운 속내를 ‘늙어도 강인한 사나이’의 절제된 언어로 표현한 것이었다. 2 박 3 일 일정의 짧은 만남을 마치는 저녁식사는 세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인생의 황혼을 소일하는 노인의 한국전쟁이나 포스코에 대한 추억담과 남북관계에 대한 고담준론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상상……. 박정희 대통령과의 추억도 빠지지 않았다. 그의 옆을 지키는 아내(장옥자)가 한마디를 거들었다.

“당신은 평생을 박정희 대통령과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영혼으로 형제가 되거나 영혼으로 결혼한 부부라도 당신만큼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김영삼 씨하고 틀어져서 도쿄 단칸방에 살 때도 그랬어요. 새해 정월 초하룻날이 되면 박 대통령 사진을 상 위에 모셔놓고 정장을 차려입고는 세배를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요즘도 사무실에는 박 대통령 사진을 곁에 두고 있고 고향 집에 가면 응접실에 박 대통령 내외분의 다정한 사진 한 장이 있어요.”

“혁명을 계획할 때 약속한 게 있고, 나는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내 인격에 약속을 했으니, 내가 그 양반을 자주 봐야 죽을 때까지 흔들리다가도 금세 똑바로 서게 될 거 아니오?”

박태준은 자기 다짐과 같은 반문 끝에 다시 잔기침을 했다. 그날 밤에 작가는 자정이 지나서도 혼자서 폭탄주를 기울이고 있었다. 호텔 근처 점방에서 구해온 큼직한 샷포로 생맥주, 객실 미니바에서 꺼낸 앙증맞게 생긴 양주. 이른바 ‘양폭’이었다. ‘조폭’ 다음으로 증오하는 것이 ‘양폭’이라 주장해온 작가가 스스로 그 말을 허물고 말았다. 내년 여름에는 당신을 만나 뵈러 샷포로를 찾아오는 일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 불길한 예감을 쫓아내려 했다. 아니, 귤전에 켜켜이 쌓인 노인의

기침소리를 씻어내려 했다. 그것은 문학적인 감상(感傷)의 발로가 아니었다. 내가 제조한 폭탄주는 꼬박 십 년 전에 그가 일흔네 살의 늙은 몸으로 감당해낸 폐질환 대수술의 몇 장면을 담고 있었다. 평전 『박태준』(현암사, 2004)은 긴 이야기의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한다.

2001 년 7 월 하순, 뉴욕의 한낮은 찜통이었다. 어둠이 두텁게 깔린 뒤에도 더위는 좀체 식지 않았다. 열대야 현상은 우주로부터 의연히 내려온 정규군처럼 지구에서 가장 막강하다는 국가의 거대한 도시를 점령해 버렸다. 그러나 평화로웠다. 뒷골목의 소란마저 더위에 지쳐 잠전해진 듯했다. 강력한 정규군의 전과(戰果)는 기껏해야 도시 기상대에 달린 화씨 온도계의 최고 신기록 갱신으로나 남을지.

그 무렵, 한국의 어느 노인이 뉴욕 코넬대학 병원에 누워 있었다. 7 월 25 일 오후 1 시 30 분,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져 빈사지경을 막 벗어난 몸이다. 왼쪽 옆구리 33 센티미터를 갈라 갈비뼈 하나를 톱으로 잘라 통째로 빼낸 다음, 그 구멍으로 폐 밑에서 폐를 압박해온 흉선만 한 물혹을 끄집어내는 대수술. 소요시간 6 시간 30 분, 물혹 무게 3.2 킬로그램. 이는 일찍이 어머니가 그를 출산하면서 겪은 격렬한 진통 시간에 견줄 만하고, 갓 태어났을 때 그의 몸무게보다도 무거울 만한 기록이었다. 이집트 출신의, 손이 자그마한 집도의(執刀醫)는 신생아 무게의 물혹을 세계 신기록이라 했다.

여든네 살의 황혼을 소일하는 노인의 몸에 귀신처럼 달라붙어 계절이 두어 차례 바뀌어도 도무지 떨어질 줄 모르는 기침, 이 몸쓸 놈에 대하여 그와 가까운 지인들은 십 년 전 그 수술과의 관련성을 염려하고 있었다. 아, 다시 왼쪽 폐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번에는 또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 모두가 서로 말은 삼가고 있어도 저마다 가슴에는 우울한 질문을 간직하고 있었다.

가을이 돌아왔다. 한가위를 맞아 박태준은 고향 바닷가 생가에 머물고 있었다. 기침이 샤프로에서보다 한층 악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한 주일 앞으로 다가온 행사 참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포항제철 초창기부터 현장에서 청춘을 불사른, 이제는 함께 늙어가는 퇴역 직원들과의 만남. 그가 회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 지 19 년 만에 이뤄지는 재회. 옛 현장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그의 의지가 시나브로 그의 내면에서 소원으로 변모한 것 같았다.

2011 년 9 월 19 일 오후 7 시. 포항시 효자동 ‘포스코 한마당 체육관’에 포항제철 초창기부터 현장에 근무했던 퇴직직원 370 여 명이 모여 들었다. 이윽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천천히 행사장으로 들어서자 참석자 전원이 일어나서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다. 자리를 벗어나 그의 앞으로 뛰어나온,

그와 같이 늙어가는 몇몇 직원들은 악수를 나누며 벌써 눈물을 글썽이고 목이 메었다. ‘창업 최고경영자와 퇴직 현장 사원’의 19년 만의 재회, 이 행사의 이름은 <보고 싶었소! 뵈고 싶었습니다!>. 말 그대로 보고 싶어 하고 뵈고 싶어 해서 마련된 잔치였다. 세계의 기업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이름으로 만들 수 있는 따뜻한 만남이었다. ‘우리의 추억이 역사에 별처럼 반짝입니다’ 그가 연설을 시작하자 마치 제목 그대로 저마다 하나의 별이 된 것처럼 젖은 눈을 반짝이더니 드디어 체육관은 눈물의 호수를 이루었다. 아, 이것이 박태준의 생애에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공식 연설이 될 줄이야!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느님만이 그것을 알고 있어서 누구도 모르게 잠시 그에게 청춘을 돌려준 것이었을까. 그는 연설을 하는 동안 간간이 눈시울을 훔쳤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기침을 하지 않았다. 행사를 마치고 헤어지는 삼삼오오가, “우리 회장님, 대통령에 출마해도 되겠더라”는 즐거운 말을 주고받았다. 우렁차면서도 감정의 강약 조절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완벽한 감동의 연설이었다. 어쩌면 하느님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잠시 청춘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서 우러나온 진심이 그에게 제공한 힘이었는지…….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보고 싶었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을 그냥 ‘직원’이라 부르겠습니다. 그 앞에 ‘퇴직’이란 말을 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그냥 ‘회장님’이라 부르기 바랍니다.

보고 싶었던 직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주신 조물주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만입니까? 제가 회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 때가 1992년 10월이었으니 어느덧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9년만의 재회입니다. 지금 저는, 만감이 교차하고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는 추억 속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일만 모래벌판에서 청춘을 불태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희생하는 세대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조국 번영과 후세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은 그 외침에 공감하고 기꺼이 동참했으며, 저는 술선수범으로 앞장섰노라고 자부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때의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바탕, 그 동력은 바로 여러분의 피땀이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후배들은 한국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당시의 한국에서 중간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후배들은 근무조건이 4 조 2 교대지만, 여러분은 맞교대나 3 조 3 교대였고 비상시에는 밤잠마저 반납했습니다.

우리 임직원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 저에게 위안이 있었다면, 자녀 교육과 주택 문제, 후생 복지와 문화 혜택을 당시의 한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보장하는 가운데, 어려운 시대에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갖지 않은 특별한 것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연봉이나 복지보다 더 소중한 정신적 가치, 그것은 제철보국이었습니다. 기필코 회사를 성공시켜서 조국 근대화의 견인차가 되자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슴에 품고, 실패하면 영일만에 빠져 죽자는 ‘우향우’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열정, 우리의 그 헌신, 우리의 그 단결이 마침내 ‘영일만의 기적’을 창출하고 ‘영일만의 신화’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기적, 그 신화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회사의 종자돈이 조상들의 피의 대가였다는 사실입니다. 대일청구권 자금, 그 식민지 배상금의 일부로써 포항 1 기 건설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친 제철보국과 우향우는 한층 더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영혼을 울렸을 것입니다.

고(故) 박정희 대통령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철소가 있어야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분의 일념과 기획과 의지에 의해 포항제철이 탄생했고, 그분은 저를 믿고 완전히 맡겼을 뿐만 아니라, 온갖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도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도 기억해야 합니다. 포항제철을 위해 수많은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고, 신부님과 수녀님들은 귀중한 시설을 포기했으며, 포항시민은 인내와 협조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포항제철은 공생공영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해병사단은 포항제철의 든직한 이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해병 의장대가 우정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안보가 요즘보다 훨씬 더 불안했던 그 시절부터 해병사단은 우리 회사를 잘 지켜주었습니다.

일본에도 포스코를 위해 진심으로 협력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두 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고인이 되신 신일본제철의 이나야마 회장과 양명학의 대가 야스오카 선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간직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는 위험이 상존했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분들을 위한 묵념이 있었습니다만, 조업과 건설 중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은 우리의 마음과 포스코의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 있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

인생의 황혼에 들어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은 짧다’는 생각을 해보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사람이 세운 큰 뜻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짧은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제철보국이라는 큰 뜻을 함께 이룬 동료들입니다. 현재까지 85 년에 걸친 저의 인생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큰 뜻에 도전했던 세월이 가장 보람차고 가장 아름다운 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인생에 가장 보람차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안겨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청춘을 바쳤던 그날들에 대하여 하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우리의 추억이 포스코의 역사 속에, 조국의 현대사 속에 별처럼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자부심과 긍지로 간직합시다.

여러분, 부디 건강해야 합니다. 부디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모든 가정의 행복을 빌면서, 포스코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던 얼굴들과 아쉬운 재회를 마친 박태준은 고향으로 돌아가 며칠을 더 묵고 나서 서울로 돌아갔다. 크고 작은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러나 기침에 시달려야 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그의 기침은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 10 월 27 일 오전, 그는 오랜만에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를 찾았다. 일찍이 이십여 년 전에 손수 기획하고 결정했으나 정작 그는 한 시간도 근무해보지 못한 빌딩. 차에서 내리는 노인을 포스코 최고경영진이 정중히 맞았다. 포스코청암재단이 3 기 청암과학펠로들에게 연구지원금 증서를 수여하는 식장에는 학문별 선발위원장인 오세정 서울대 교수, 노혜정 서울대 교수, 김인묵 고려대 교수, 김병현 포스텍 교수를 비롯해 3 기 펠로 30 명, 2 기 펠로 20 명 등 60 여 명이 이사장(박태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포스코청암재단이 한국에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로 육성하는 대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청암과학펠로십. 2009 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는 한국 과학기술의 세계일류를 회원하고 한국인의 노벨과학상 수상을 염원하는 박태준의 의지와 정신이 투영돼 있다. 그는 한국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을 한마디로 표명했다.

“철강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인 것처럼, 기초과학은 과학기술 발전의 기간이다.”

청암과학펠로 선발 분야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으로, 기초과학이다. 2011년부터는 박사과정 10명, Post-doc 10명, 신진교수급 10명 등 한 기에 30명을 선발하여, 박사과정 한 사람마다 연간 2천 500만원씩 3년간, Post-doc 한 사람마다 연간 3천 500만원씩 2년간, 신진교수급 한 사람마다 연간 3천 500만원씩 2년간 각각 지원한다. 매년 5월에 선발 공고를 하고, 8월부터 엄정한 심사를 해서, 10월 하순에 증서수여식과 워크숍을 개최한다.

2008년부터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으로 봉사해온 박태준은 3기 증서수여식에서 앞날이 촉망되는 젊은 과학자들과 만나 감회 어린 격려를 했다. “산업화에 매진한 우리 세대는 실용적인 과학기술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뛰어야 했고, 그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발휘했지만,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이 요구되는 기초과학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남겼으며, 아직도 그 영향이 잘못된 풍토”로 남아 있다는 미안한 마음을 밝히고, “자연의 신비를 탐구하고 그 속에 숨은 원리와 법칙을 찾아내는 과학자의 길이 부자가 되려는 길은 아니지만 인류사회의 고귀한 가치를 창조하는 길이니, 그 자부심, 그 사명감이 과학자의 인생에서 나침반이 되기”를 당부했다.

청암과학펠로들은 ‘기침을 하는 늙은 철강왕’의 격려와 기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일제히 숙연한 표정을 지었다. 3기를 대표해서 박문정 포스텍 교수가 답사를 했다. “그 성과가 당장 어떠한 제품이나 결과물로 눈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긴 호흡으로 멀리 보고 해야” 하는데 “포스코청암재단의 청암과학펠로십은 국내의 우수한 젊은 과학 두뇌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라는 감사를 표하고, “꿈을 위한 목표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다짐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며 “길고 긴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청암과학펠로십이 한국의 유망한 젊은 과학자들의 인생에 어떤 의미로 다가서는 것일까? 생명과학 분야의 추천위원을 맡아온 이현숙 서울대 교수가 에세이 「아름다운 청년 청암 박태준」에서 ‘르네상스와 메디치가’를 돌아보며 그것을 말했다.

르네상스의 화려한 꽃이 봉우리를 터뜨리기 직전, 이태리 투스카니 지방의 정치 경제를 통치하던 맹주들은 앞다투어 예술가들을 후원한다. 가문의 성당과 집무실의 아름다움은 그 가문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척도였다. 급기야 메디치가의 ‘위대한 로렌조’는 될성부른 싹들을 데려다 교육하는 인문학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이 곳 출신으로 대표적인 이가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이다.

미켈란젤로는 14 세 때부터 메디치가에서 먹고 자고 교육 받았다. 로렌조는 그를 양자로까지 삼고 사랑하였다.

르네상스의 또 다른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메디치가의 후원으로 소년 시절부터 조각 수업을 받았으나 동성애 논란 등 불운한 스캔들 때문에 피렌체에서 굴욕까지 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재능을 아낀 메디치가가 그를 밀라노, 로마, 파리의 후원자들에게 소개하였고 그곳에서 다빈치는 불후의 걸작들을 남긴다. 메디치가가 없었다면 르네상스도 없었을 것이다.

삼 년 전, 포스코청암재단에서 청암과학펠로십을 만든다며 추천위원으로 활동해 달라는 영광스러운 청을 받았다. 나 자신도 외국에서 공부할 때 Wellcome Trust 라는 세계 최대 민간 재단에서 후원을 받아 걱정 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암과학펠로십처럼 영예로운 펠로십이 기초 과학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잘 알고 있기에 흔쾌히 수락했다. 비단 경제적 도움만이 아니라 청암과학펠로라는 명예는 어느 곳에서나 당당한 이름표가 되어주니 세계 과학계에 우뚝 설 보증수표가 될 것이다.

포스코는 철강 산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굳건히 받친다는 신념을 실천해온 세계 굴지의 기업이다.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였던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1 등 공신이 포항제철이라는 데 이견을 가질 이는 없다. 철강으로 번 돈을 이제는 기초과학을 육성하여 진정한 선진국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박태준 회장님의 뜻은 80 년대 후반 대학을 다니며 군부에 대해 편견을 가진 나의 고개도 절로 숙여지게 만들었다. 당장 먹을 것이 나오지 않을 기초과학계의 젊은 연구자들을 후원하겠다는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날을 예견하고 역사를 바꾸는 로렌조 메디치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일 년 간의 연구 연가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 16 시간의 비행 내내 올해 지원한 청암과학펠로 후보자들의 지원서를 읽었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 많은 이들이 지원을 하여 생명과학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30 대 1'이었다. 한 명 한 명 소중한 이들이라고 재단이 부탁을 한 마당에 대충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담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 지원서들, 영화보다도 더 재미있다. 뛰어난 성적과 업적에 인문학도 마냥 글재주까지 있는 지원자들이 한둘이 아니니 이미 부교수인 나까지 긴장시킨다.(방심하면 순식간에 실력 없는 사람으로 뒤쳐지겠으니 말이다). 언제나 최고의 엘리트들은 멀티 태스킹하다고 하지 않던가. 마치 르네상스인들처럼! 이들 지원자들은 세계 유수의 펠로십에 지원해도 손색이 없는 이들이다.

십 년 후 청암과학펠로들이 이끌어가는 과학계를 상상하면 마음이 벅차고 설렌다. 세상은 또 바뀌어 있을 것이지만 과학계의 중심축, 나라를 받치는 인재들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했다. 창의적 청년 과학도들을 후원하여 나라의 기틀을 굳건히 다지겠다는 청암이야말로 가장 패기 있는 젊은이 로렌조 메디치가 아니겠는가. 그를 영원히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불러도 좋으리라.

박태준은 정치에 몸담은 시절에 깊은 인연을 맺었던 오랜 두 친구와 가을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동행은 국회의장을 역임한 박준규와 국회의원을 지낸 고재청, 기간은 11 월 3 일부터 11 일까지, 여행지는 일본 도쿄 근처의 아따미, 이즈반도, 요코하마. 아따미와 이즈반도는 박태준이 유년시절을 묻은 곳이었다. 소학교, 수영대회, 밀감, 두부, ‘센징’이라 불린 차별에 대한 설움과 분개, 그리고 바지 같은 긴 장화를 신고 이즈반도의 기차 터널 공사장에서 일한 아버지……. 그러나 여행은 출발 당일 아침에 취소되고 말았다. 여행을 준비한 이의 갑작스런 건강악화, 정확히는 그 몸쓸 기침이 별안간 심통을 더 부려서 고통을 불러온 것이었다. 하루를 집에서 쉰 그는 이튿날 아내와 함께 강원도 평창으로 떠나기로 했다. 신혼여행도 못 갔던 노부부가 가벼운 짐을 꾸리며 살가운 대화를 나눴다.

“공기 좋은 데 가서 며칠 쉬어 봅시다. 좋아질 겁니다.”

“그럼시다. 다녀옵시다.”

아내는 애써 어둔 표정을 감추고 있어도 마음 한 구석이 자꾸만 허전하였다. 우리 부부가 언제 다시 여행을 떠날 수 있으려나. 이러한 회한 같은 감정이 돌아나는 그 자리는 머잖아 무덤처럼 들어앉을 슬픔의 자리인지 몰랐다.

평창에 짐을 푼 박태준은 수많은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단상에 올라야 할 중대한 축사를 생각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의 생애에서 최후의 연설이 될 수도 있을 그것은 11 월 14 일 구미시 상모동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근처에서 열리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 행사였다. 구미시장의 초청을 받은 그는 짧은 축사에 담을 내용에 대해 깊은 사색에 잠기곤 했다. 2008 년 가을에 포항시민을 대표할 만한 최영만 포항시의회 의장이 찾아와 포항시민의 성금을 모아 형산강 다리 입구나 시내의 적절한 곳에 ‘박태준 동상’을 세우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 그는 단호히 사양했었다. 대단히 감사한 일이지만 아직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먼저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랬던 그가 2011 년 12 월 3 일 포스텍 개교 25 주년을 맞아 포스텍 캠퍼스 내 노벨동산에 설립자 조각상을 세우겠다는 제안에 대해 오래 망설이다 마지못해 어렵게 수락한 것은 교내라는 점도 감안했지만 그에

앞서 고 박 대통령의 동상이 제막된다는 사실을 고려한 사정이었다. 평창에서 컨디션 회복을 염원하는 그는 우선 박 대통령 동상 제막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노부부의 여행은 오뚱했다. 그러나 즐거운 시간을 오래 누릴 수 없었다. 그의 기침이 머잖아 엄청난 사단을 일으킬 것만 같았다. 더 이상은 그냥 기다려볼 수만 없는 지경에 도달해 있었다. 남은 것은 결심이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결심. 주치의도 가족도 그의 결심을 주문했다.

“가자. 한 번 더 하자.”

그가 말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수술대 위에 눕겠다는 뜻이었다.

11 월 8 일 이른 오후, 박태준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본관에 들어섰다. 주치의 장준 박사의 안내에 따라 움직이는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처럼 곧은 자세였다. 그러나 그것은 사생결단의 시간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이었다. 그리고 박 대통령 동상 제막식에 참석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기도 했다. 그가 신형구 비서(현 포스코 자동차강판수출부 팀장)에게 일렀다. 구미시와 박지만(고 박정희 대통령의 외아들)에게 연락해서 갑작스런 내 변고를 통지해주라고.

이튿날 수술을 전제로 하는 여러 가지 검사가 선행되었다. 그는 웃는 얼굴로 의료진과 편안히 대화를 나누었다. 십여 년 전, 2001 년 여름의 뉴욕 대수술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속으로 그는 생각했다. 그때보다 나이는 열 살을 더 먹었지만 그때나 이번이나 그게 그거지 뭐. 그의 몸은 수술을 할 수 있는 완벽한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그놈의 기침, 그것을 일으키는 왼쪽 폐만 아니라면 다른 건강상태는 까딱없다는 뜻이었다.

수술 시간은 입원 나흘째인 11 월 11 일 아침 7 시 30 분으로 잡혔다. 집도이는 흉부외과 분야의 권위자 정경영 교수. 그가 모든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박태준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문득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이게 세 번째지. 그래, 세 번째구나. 메스가 그의 몸을 가르는 것이 세 번째라는 회고였다. 첫 번째는 저 1950 년 흑한의 흥남 야전병원에서 마취도 없이 몸을 맡겨야 했던 맹장수술, 두 번째는 뉴욕의 대수술, 그리고 이번. 그는 어금니를 한 번 깨물었다.

이동식 침대에 누워 입원실에서 수술실까지 이동하는 물리적 시간은 아주 짧았다. 그러나 환자와 가족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몰랐다. 만감이 교차한 그 끝에 영원한 작별의 순간이 어른어른 그려지기도 하는 시간, 그럼에도 마치 나쁜 징조를 물리치려는 것처럼 누구 하나 의연한 자세를 한 치도 흐트릴 수 없는 시간.

8 시 43 분, 가족대기실 전광판이 박태준 환자의 수술 시작을 알렸다. 마취가 잘됐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전광판에는 열 명 넘는 이름이 올랐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거의 모든 이름이 사라지고 새로운 이름이 올랐다. 정오를 넘기고 오후 2 시를 넘겼다. 새로 올라간 이름들도 더러 사라졌다, 그러나 오후 3 시가 지나도 ‘박태준’은 사라지지 않았다. 예정 시간을 벌써 두 시간이나 넘겼지만 계속되고 있는 수술. 환자의 상태가 진단의 결과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뜻이었다. 가족대기실에는 초조와 불안이 감돌았다. 그러나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환자에게 힘을 보내려는 묵상에 잠길 뿐이었다.

오후 6 시 15 분. 마침내 전광판이 수술의 종료를 알려줬다. 장장 9 시간 28 분이나 걸린 대수술. 환자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집도의 정경영 교수와 주치의 장준 교수가 가족들을 상담실로 불렀다.

“수술은 잘됐습니다.”

집도위가 낭보를 알렸다. 가족들은 감사의 한숨을 돌렸다. 그가 뻗뻗해진 손으로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을 했다. 왼쪽 폐 전체와 흉막 전체를 적출했다, 십 년 전에 물혹을 적출한 그 자리에 다시 혹이 자라고 있었다……. ‘흉막—전폐 절제수술’은 긍정적 예측을 불러오는 쪽으로 일단락되었다.

11 월 12 일 새벽 1 시 30 분. 집에 돌아와 깜빡 눈을 붙이고 있던 신형구 비서가 휴대폰을 받고 부리나케 옷을 갈아입었다. 회장님께서 찾으신다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락이었다. 차를 몰아 달리는 30 분 동안 젊은 비서의 가슴은 내내 쿵쾅거리고 있었다. 혹시 긴급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이 불안감과 초조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새벽 2 시의 중환자실은 괴괴했다. 밤 11 시에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고 가족면회가 이뤄진 다음이어서 오랜만에 창업 회장과 젊은 비서, 단 둘만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회장님 찾으셨습니까?”

젊은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자네 왔나? 지금 몇 신가?”

환자의 목소리가 예상보다 맑게 들려서 비서는 불안한 긴장을 조금 풀었다.

“두 시입니다.”

“낮이야, 밤이야?”

“새벽 두 시입니다.”

긴 마취와 10 시간에 육박한 수술이 시간의 혼돈을 초래했을 거라고 비서가 짐작하는 사이, 환자가 불쑥 강하게 물었다.

“유럽은 어떻게 되었나?”

비서는 깜짝 놀랐다. 죽음과 싸우는 상황에서도 세계와 국가의 문제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 그러나 비서는 얼른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까지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에 재정위기가 닥치는 상황에서 그것이 프랑스로 전염되면 신용경색에 빠진 프랑스 금융기관이 해외투자자금을 회수하면서 유럽 전역으로 위기가 전파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대한 간략한 보고였다.

“프랑스가 이탈리아의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지. 프랑스나 독일까지 영향이 미치면 큰일이야. 유럽의 두 강대국마저 흔들리면 유럽 전체가 위험해져. 우리나라도 단단히 대비를 해야 돼.”

자나 깨나 나라 걱정이란 말이 있지만, 어느덧 그 말이 내포하고 있던 어떤 울림마저 다 말라버린 시대이지만,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시구나. 당신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설정된 채널처럼 나라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 작동되는 분이시구나. 이래서 어른이시고 큰 분이시구나.

비서는 콧잔등이 시큼했다. 빈사지경의 경계에 머무는 늙은 환자가 축구를 화제로 꺼냈다. 올해 여름에 홋카이도에서 열렸던 한국과 일본의 축구국가대표 평가전 때 한국이 3:0으로 완패했던 ‘일대 사건’이 여전히 마음에 걸려 있는 모양이었다. 대표팀을 탓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 축구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을 드러내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를 앞으로 다가온 고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른 박태준, 10 시간에 육박하는 대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외로이 누운 박태준, 그의 앙상한 가슴에는 박정희에 대한 그리움이 뜨거운 덩어리로 묻혀 있었다. 그가 고심 끝에 준비를 마친, 그러나 끝내 불발한 그날의 연설은 유고로 남았다.

이 뜻 깊은 자리를 빛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어느덧 저의 인생은 황혼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무치게 그리운 얼굴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운 각하. 고향 사람들과 시민들이 성의를 모아 당신의 동상을 세우고 제막하는 오늘, 불초 박태준이 가슴 속에 쌓인 회한을 불러내듯이 ‘박정희’라는 존함을 불러보고, 거듭 명복을 빕니다.

돌이켜보면, 63년 전 저 태릉 골짜기의 초라한 육사 강의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당신의 눈에 띄었고, 결국 그것은 저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나는 임자를 알아. 아무 소리 말고 말아!” 이 한 말씀에 따라

저는 제철에 목숨을 걸고 삶을 바쳐야 했습니다. 지난 1992년 10월 3일, 사반세기 대역사 끝에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완공하고 동작동 국립묘지로 찾아가 당신의 영전에서 임무완수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때, “각하께서 저를 조국 근대화의 제단으로 불러주셨다”고 토로했지만, 박정희라는 한 사람을 조국 근대화의 제단으로 불러낸 것은 우리의 시대였고 대한민국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당신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리운 각하.

드디어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일어섰습니다. ‘오천년 빈곤의 대물림’을 확실하게 끝장냈습니다. 그 물적 토대 위에서 민주주의를 성장시키고, 문화를 꽃피우고,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복지사회를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후진성, 청년실업, 남북관계 등 거대 과제들을 안고 있지만, 우리의 역량과 자신감은 얼마든지 해법을 구할 것입니다.

문제는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다름없었던 조국 근대화의 성공 비결은, 현명하고 근면한 국민과 사심 없고 탁월한 지도력이 좋은 짝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국민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힘으로 승화시킬 지도력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세운 이 동상은 하나의 기념물이 아닙니다.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를 따지는 시비가 있지만, 무엇보다 지도력에 대하여 진실로 고뇌하는 사람은 여기에 와서 사색해야 합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조국 번영, 민족 중흥, 민안(民安) 복지의 영원한 길잡이로서 당신의 생가 곁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각하께서 가족과 함께 포항제철을 방문하신 시절에는 아리따운 아기씨였던 근혜 양이 어느덧 이 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지도자로 성숙해 있습니다. 저의 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장점을 절반씩 닮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장하고 자랑스러운 그 모습을 통해 세월이 참 빠르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각하, 이제는 저의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재회하여 막걸리를 나누게 되는 그날, 밀리고 밀린 이야기의 보따리를 풀어놓겠습니다. 며칠은 마셔야 저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마칠 것 같습니다. 부디 평안히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이 훌륭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성의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과 주관하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와 치하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서는 이 연설문을 꺼내 읽어드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감정을 북받치게 할 것 같아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문득 그가 흐트러진 눈썹을 발견했다. 포스코 시절에 ‘호랑이 눈썹’으로 유명했던 박태준의 눈썹. 그 허영계 센 눈썹을 가지런히 하려고 최근에도 나들이 때는 눈썹 빗을 챙기는 당신을 생각하며 비서가 말했다.

“회장님 눈썹이 흐트러졌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응, 그래. 바로 해.”

비서는 급한 대로 손가락으로 두 눈썹을 가지런히 다듬었다.

“됐어?”

“예.”

“수고했어.”

날이 밝았다. 박태준에게는 새날이었다. 앞으로는 기침이 없는 황혼의 시간대를 길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른 아침부터 가족 면회가 이루어졌다. 모두가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11 월 13 일, 박태준은 일반병실로 옮겼다. 십여 년 전에 뉴욕의 이집트인 의사가 그랬던 것처럼, 담당의가 힘이 들더라도 많이 움직이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했다. 십여 년 전에 코넬대학 병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는 영양제와 항생제 등을 주렁주렁 매달고 병실 복도를 걸었다. 그리고 십여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강인한 정신력으로 타인의 도움을 거절하며 스스로 하겠다는 고집을 부렸다. 15 일부터 시작한 병실 복도 걷기. 처음엔 한 바퀴, 다음엔 두 바퀴, 그 다음엔 오전과 오후에 두 바퀴씩. 운동량을 늘려가는 사이에 회복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십여 년 전에 뉴욕에서 그랬던 것처럼, 담당의가 놀랐다. 조만간 퇴원해도 될 거라는 고무적인 의견도 들려왔다.

수술 후 12 일째, 11 월 22 일. 드디어 외부인 면회가 허락되었다. 포스코 초창기부터 필생에 걸쳐 동고동락해온 황경로, 안병화, 박득표, 그리고 현역 포스코 회장 정준양, 사장 최종태…….

“왼쪽 폐가 완전히 없어졌어.”

환자의 유쾌한 목소리, 동지들과 후배들의 웃음소리. 병실은 넘치는 인정(人情)으로 마냥 따듯했다. 바람은 자고 별살은 오진 어느 봄날의 산모퉁이 양달 같았다. 아, 그러나 그것이 신(神)이나 자연이 박태준에게 허락한 마지막 인간적인 시간이었을까. 이튿날 아침에 그의 몸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다. 오한과 발열, 혈압과 맥박 상승. 담당의가 다시 그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급성폐렴이 덮친 것이었다. 남은 오른쪽 폐가 그놈을 극복할 것인가, 그만 지쳐서 그놈에게 먹힐 것인가. 싸움은 길었다.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다. 처절한 사투였다.

12월 2일 포스텍 노벨동산에서 개교 25주년을 하루 앞두고 포스텍 설립자 청암 박태준 조각상 제막식이 열렸다. 포스텍 총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들과 포항 시민단체 대표들이 ‘청암 박태준 선생의 교육 공적’을 영구히 기념할 수 있는 조각상을 ‘성의를 모아 건립하자’는 뜻을 모아서 이뤄진 일이었다. 포항시민, 포스텍 사람들, 퇴역한 포스코 사람들을 비롯한 22,905 명이 7억 원 넘는 성금을 보내왔다.

전신상과 흉상, 이 박태준 조각상은 중국 난징대학 미술원장이며 세계적 작가로 꼽히는 우웨이산(吳爲山)의 작품이다. 전신상은 노벨동산, 조각상은 포스텍의 청암학술정보관 안에 자리를 잡았다. 평전 『박태준』의 중국어 완역본을 읽고 주인공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그는 박태준의 정신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태연자약하고 기백과 도량이 넘치는 전신 조각상의 모습은 박태준 선생에 대한 작가의 우러러봄을 나타냈으며, 특히 젊은이들이 선생의 정신을 본받게 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힌 우웨이산. 뛰어난 서예가이기도 한 그는 전신상 받침돌에 ‘鋼鐵巨人 教育偉人’을 바쳤다. 강철거인과 교육위인, 이것은 박태준에게 필생의 두 축이었던 제철보국과 교육보국이 최후에 남겨놓은 결실로, 그의 삶에서 고갱이 중의 고갱이를 추출해낸 두 단어였다. 건립문은 받침돌 뒷면에 새겼다.

짧은 인생을 영원 조국에, 이 신념의 나침반을 따라 헤쳐 나아간 청암 박태준 선생의 일생은 제철보국 교육보국 사상을 실현하는 길이었으니, 제철보국은 철강 불모지에 포스코를 세워 세계 일류 철강기업을 키움으로써 조국 근대화의 견인차가 되고, 교육보국은 14개 유·초·중·고교를 세워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마침내 한국 최초 연구중심대학 포스텍을 세워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육성함으로써 이 나라 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횃불이 되었다. 이에 포스텍 개교 25주년을 맞아 포스텍 가족과 포항시민이 선생의 그 숭고한 정신과 탁월한 위업을 길이 기리고 받들기 위해 여기 노벨동산에 삼가 전신상을 모신다.

청암 박태준 전신 조각상의 좌우에는 이름을 빼곡히 새긴 동판들이 있다. 마치 주인공을 호위하는 듯한 그들이 바로 성의를 보내준 사람들인데, 그것은 건립위원회가 마련한 그들에 대한 답례이다.

12월 13일 오후 5시 20분 국내외 언론들이 긴급 뉴스를 보도했다. 박태준 타계, 향년 84세.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장례는 닷새의 사회장. 장지는 서울 동작동 국립 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으로 결정되었다. 고인의 유택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박지만의 역할이 컸다. 박정희를 그리워한 박태준. 박정희의 아들이 고인을 아버지의 이웃으로 모셔준 격이었다. 국내의 거의 모든 언론이 한 주 내내 ‘청암 박태준 추모 보도’를 마련했다. 해외의 많은 언론들도 그의 삶과 죽음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과연 박태준의 죽음을 한국 시민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한 언론인의 칼럼이 압축적으로 묘사해준다.

박태준이 작고하고 영결식 날까지 닷새 동안 일반 시민을 포함해 각계 조문객 8만 7천여 명이 서울, 포항, 광양 등 전국 일급 곳의 분향소를 찾았다. 우리 사회는 “세종대왕이 다시 와도 두 손 들고 떠날지 모른다”라는 자조의 농담까지 나올 만큼 갈등과 반목이 심하다. 김수환 추기경, 성철 스님, 환경직 목사 등 극소수 원로를 빼면 이번만큼 범국민적 추모 열기가 뜨거웠던 적은 드물었다.

— 권순환, 《동아일보》 2012. 1. 5.

하노이에서 길을 가리키다

2010년 1월 하순, 박태준은 3박 4일 계획으로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다. 마침 하노이 시가지에는 ‘수도 천 년’의 경축 현수막들이 축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1010년 리타이포 황제 시절에 처음 수도로 지정된 이래 천 년째 베트남의 중심을 지켜내느라 오욕과 영광을 간직한 하노이. 오욕은 중국, 프랑스, 미국이 남긴 침략의 상처이고, 영광은 그들을 차례로 극복한 자부심이다. 하노이의 기억에 남은 가장 끔찍한 제국주의적 야만의 언어는 무엇일까? “하노이를 석기시대로 돌려주겠다”는 미국 장군 커티스 르메이의 호언장담일 것이다. 항미전쟁 동안 저주와 다름없는 미군의 무자비한 폭격에 거의 석기시대로 돌려졌던 베트남의 수도, 그 중심가에 1996년 현대식 특급호텔이 들어섰다. ‘하노이 대우 호텔’이다. 여든세 살의 박태준은 한국 경제계의 후배 김우중이 세운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하노이 대우 호텔의 문을 열던 때만 해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며 글로벌 경영의 기세를 펼치는 김우중에게 그 입지를 추천한 이가 바로 박태준이었다. 왜 그는 후배에게 하노이의 요지를 추천할 수 있었을까?

박태준이 생애 처음 하노이(베트남)를 방문한 때는 1992년 11월 하순이었다. 그의 인생으로는 흥가분하고도 씁쓸한 계절이었다. 1968년 4월 1일에서 1992년 10월 1일까지,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완공하여 연산 2천 100만 톤 조강체제를 갖추으로써 장장 사반세기에 걸친 제철의 대역사를 성공리에 마치고 스스로 세계 최고 철의 용상(龍床)을 물러나 포스코 명예회장으로서 중국과 동남아 진출을 적극 모색하는 그의 기분은 매우 흥가분했을 것이며, 머지않아 한국 최고 권력자로 등극할 김영삼이 몸소 광양까지 찾아와 12월 대선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간청했으나 끝내

거절하고 말았으니 서서히 다가오는 정치적 보복을 예견하는 그의 기분은 자못 씁쓸했을 것이다.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의 수교 합의(1992년 12월 22일)가 한창 무르익고 있던 그때, 박태준은 정장 차림으로 하노이 바딘광장부터 찾았다.

끝 모를 줄을 이루며 광장을 에워싼 인민들, 호찌민(胡志明) 영묘의 좌우를 지키는 붉은 바탕의 흰 글씨들. 그의 궁금증을 통역이 풀어줬다. “매일 저렇게 많은 참배객들이 찾아옵니다. 먼 시골에 사는 베트남 인민들도 호 아저씨 영묘 참배를 평생의 소원으로 삼는답니다.” 이미 박태준은 ‘호 아저씨’란 호칭에 익숙해져서 ‘아저씨’에 담긴 탈권위적 친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통역이 손가락으로 정면의 선명한 두 문장을 가리켰다. “호 아저씨는 우리 사업 속에 영원히 살아 있다. 베트남 공산당이며 영원하라.”

박태준은 묵묵히 호찌민을 추모했다. 청렴하며 지혜롭고, 유연하며 단호했던 지도자. ‘자유와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는 기억했다. 호찌민의 그 말을, 그 절대적 가치를 위해 항불전쟁과 항미전쟁에 승리한 베트남 인민의 위대한 사투를, 그리고 한국이 냉전체제의 최전선을 통과하며 산업화에 몰두한 시절에 ‘월남 파병’을 감행했던 뼈저린 과거의 불행들. 그래서 베트남 땅에 첫발을 디딘 그의 마음은 경건하면서 착잡했다.

1945년 9월 호찌민이 주석단 한가운데 서서 베트남 독립을 선포한 그 자리에 마련된 영묘. 평안히 잠든 노인처럼 누운 고인에게 명복을 빌어준 박태준은 가장 청렴했던 지도자의 시신을 영원히 부패하지 않게 모셔둔 성역을 나서며 문득 묘한 생각에 잠겼다. 한국에 돌아가서 가장 부패한 정치지도자의 시신을 영원히 부패하지 않게 안치한다면, 그것이 한국 정치인들의 부패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바딘광장을 떠난 박태준은 베트남 최고지도자와 만났다. ‘도이모이’라는 개방정책을 이끄는 두 모이 당서기. 박태준은 그의 인품과 영혼에서 호찌민의 제자다운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것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순수한 염원이었다. 박태준은 생각하고 있었다. 경제발전에 먼저 성공한 한국이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은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엄청난 빚을 갚아나가는 길이며 한국의 도덕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인은 경제개발 방향에 대해 묻고, 손님은 한국 경험의 장단점을 간추렸다. 손님이 보반 키엣 총리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각에는 주인이 환히 여유를 부렸다. “내가 미리 말해줬어요. 늦어도 좋으니 우리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결례가 안 되게 해놓으셨다면 안심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리 늦게 당신을 만나게 되었는지 원망스럽군요.” 그리고 구체적 현안을 다뤘다. 연산 20만 톤 규모의 전기로 공장, 파이프공장,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 등이 화제에 올랐다. 베트남으로

진출하려는 박태준의 선구적 구상. 문제는 한국의 정치권력이었다. 과연 그것이 그에게 포스코 경영의 권한을 언제까지 보장할 것인가?

박태준과 두 모이의 만남은 그의 하노이 대우 호텔 입지 추천으로 이어졌지만, 정작 두 사람의 재회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의 베트남 구상도 무산되어야 했다. 이듬해 3 월 그가 정치적 박해를 받아 기약 없는 해외 유랑에 올랐던 것이다.

다시 박태준의 베트남 방문이 이뤄진 것은 첫 방문으로부터 고박 12 년이 지난 2004 년 11 월이었다. 사이공(호치민)을 찾은 일흔일곱 살의 포스코 명예회장은 1993 년 3 월부터 1997 년 5 월까지 이어진 자신의 해외 유랑과 더불어 물거품처럼 사라진 ‘베트남 구상’을 회상했다. ‘그때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이 땅에 많은 일들을 하고 우리의 역사적 부채도 갚고 도덕성도 높이는 일거삼득을…….’ 12 년 전 베트남 지도자들과 공유했던 희망과 약속이 희수(喜壽)의 영혼에 회한을 일으켰다. 그는 그들과 재회하고 싶었다. 두 모이 전 서기장은 너무 늙어서 거동이 불편하다며 “진정 그리웠다”는 인사만 전해왔다. 박태준은 예를 차렸다.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저에게 사연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보반 키엣 전 총리는 만날 수 있었다. 어느덧 여든 고개를 넘어선 혁명과 개혁의 노인이 말했다. “왜 이제야 왔소?” 늙은 손님이 답했다. “미안합니다.” 두 노인의 포옹과 악수는 길어졌다.

박태준은 젊은 지도자들도 만났다. 매년 7 퍼센트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연간 철강소비량이 500 만 톤에 이르는 베트남. 그가 오앙 트렁 하이(47 세) 공업부 장관에게 충고했다. “이제 제철소를 세우시오. 조선, 자동차 같은 철강 연관 산업이 일어서야 중진국에 들 수 있소.” 그의 생각은 포스코 후배 경영진에 의해 ‘포스코의 베트남 냉연공장 건설과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로 구체화되었다. 봉따우의 냉연공장은 2009 년 10 월에 준공되었으나, 아쉽게도 일관제철소 프로젝트는 베트남 당국과 포스코의 의견 차이로 중단되고 말았다.

2007 년 6 월 박태준은 세 번째로 베트남을 찾았다. 몇몇 동지들과 보름 일정으로 돌아볼 동남아, 홍콩, 중국 여행의 첫 기착지가 호치민이었다.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없었다. 베트남의 변화와 발전 양상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풀어보려는 방문이었다. 식사 때마다 그는 베트남의 독한 소주를 반주로 곁들였다. “아주 좋은 술”이라며 기분 좋게 여러 잔을 거푸 마시는 그의 모습은 아직 천진한 청년 같았다.

생애 네 번째로 베트남을 방문한 박태준이 하노이 대우 호텔에 묵는 목적은 베트남 켄 출판사가 번역 출간한 자신의 평전 『철의 사나이 박태준』 출판기념회 참석과 국립하노이대학 특별 강연이었다. 출판기념회는 1 월 28 일 저녁 하노이 대우 호텔에서 열렸다. 베트남의 고위 관료들과 대학 교수들과

철강업계 인사들,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를 비롯해 현지 한국 기업인들이 식장을 가득 메웠다. 작가는 저자(著者)로서 인사를 했다.

“저는 한국에서 제법 유명한 ‘58 개띠’입니다. 한국전쟁 후 베이비붐 세대지요. 고향 마을은 바로 포스코의 포항제철소가 들어선 곳입니다. 그 마을을 열 살 때 떠나야 했습니다. 포스코 때문이었지요. 그때 어른들은 스스로를 ‘철거민’이라 불렀습니다. 그 말은 고향을 상실하는 쓸쓸함과 뿔뿔이 흩어지는 서러움을 담았습니다. 원망과 저항의 감정도 묻었을 겁니다. 마을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였을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벽안의 프랑스 신부가 이끄는 예수성심회의 백오십여 수녀들이 전쟁의 폐허와 절대적 빈곤이 양산한 고아들 오백여 명을 돌보았던 겁니다. 암수 두 그루 커다란 은행나무가 정문을 지켜주는 아담한 성당에서는 일요일마다 청아한 성가가 울려 나왔지만, 마을 분교(分校)에는 교실이 두 칸밖에 없어서 1, 2, 3, 4 학년을 이부제로 쪼개야 했습니다. 저의 짝꿍도 고아였습니다. 헤어진 뒤로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이 낡은 트럭에 남루한 이삿짐을 싣는 즈음, 마을에는 ‘제선공장’, ‘제강공장’, ‘열연공장’이라는 깃발들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저는 그저 시큰둥하게 허공의 그것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나중에 듣게 됐지만, 제가 태어난 이듬해 12월 24일, 그러니까 1959년 크리스마スイ브, 런던 거리에는 크리스마스트리들이 찬란히 반짝이고 구세주 찬미의 노래들이 넘쳐났을 그날, 영국 BBC가 <a far Cry>라는 4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는 머나먼 한국, 그 <머나먼 울음>은 굶주리고 혈벗은 한국 아이들의 비참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그 아이들이 바로 저와 친구들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눈물 없이는 보지 못했을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에게 희망은 있는가?’, 이것이었습니니다. 그 절망적이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하나로서, 쉰 살을 넘어선 제가 보시다시피 조금 살진 얼굴에 점잖은 신사복을 입고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날 무렵에 나부끼고 있었던 포스코의 깃발들이 한국의 희망이요 저희 세대의 희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이십 년쯤 지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른아홉 살에 박태준 선생과 처음 만나게 되었고, 2004년 12월에 한국어판 『박태준』 평전을 펴냈습니다. 그 책은 2005년에 중국어로 번역 출판되었고, 오늘 이렇게 베트남어판이 나왔습니다. 작가가 왜 전기문학을 써야 하는가? 전기문학은 왜 있어야 하는가?

고난의 시대는 영웅을 창조하고, 영웅은 역사의 지평을 개척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얼굴과 체온을 상실한 영웅은 청동이나 대리석으로 빛은 우상처럼 공적(功績)의 표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쓸쓸한

그의 운명을 막아내려는 길목을 지키는 일, 그를 인간의 이름으로 불러내서 인간으로 읽어내고 드디어 그가 인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 이것이 전기문학의 중요한 존재 이유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트남에 여러 종류의 『호찌민』 전기가 출간된 사정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긴 세월이 흐르더라도 저의 주인공이 어떤 탁월한 위업을 남긴 인물로만 기억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합니다. 그의 고뇌, 그의 정신, 그의 투쟁이 반드시 함께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 민족, 시대라는 거대한 짐을 짊어지고 필생을 완주한 인물에 대한 동시대인과 후세의 기본 예의라고 확신합니다.”

이튿날 오전 11 시, 국립하노이대학 강당에는 총장과 보직 교수들, 오백여 명의 대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순차 통역으로 한 시간 넘게 진행된 박태준의 연설은 여든세 살의 노인이 아니라 현역 지도자처럼 패기와 열정이 넘쳐났으며, 베트남과 한국, 아니 세계의 청년을 향해 던지는 그의 사상이 응축돼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젊은 청중은 강연을 마친 노인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고 열렬한 기립박수를 보냈다. 통역을 맡았던 여성(교수)이 젖은 눈빛으로 조심스레 고백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장쩌민 전 중국 주석,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하노이대학에서 강연을 했고, 저는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박태준 선생의 강연처럼 저의 가슴을 울려주진 못했습니다.”

과연 박태준의 어떤 말들이 베트남 젊은 엘리트들의 영혼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푸른 가슴을 일렁이게 했을까?

“인간의 큰 미덕은 인생과 공동체의 행복에 대해 사색하고 고뇌하며, 실천의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파란만장한 격동을 헤치고 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엘리트 여러분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인생과 역사를 성찰해보자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특정한 세대가 감당하는 시대적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그 세대의 운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박태준의 연설은 한국과 베트남의 20 세기에 대한 비교와 특정한 세대의 운명에 대한 생각으로 나아갔다.

“나는 1927 년에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나의 세대는 일본 식민지에서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불행했습니다. 세계적 냉전체제의 희생양으로 남북분단이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분단은 곧 처절한 전쟁으로 이어지고, 그 전쟁이 다시 휴전선이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살벌한 대결의 철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반도에 남은 것은 민족 간의 적개심과 국토의 폐허, 국가의 빈곤과 인민의 굶주림, 그리고 부패의 창궐이었습니다.

한국전쟁에 청년장교로 참전하여 ‘우연히,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나는 인생과 조국의 미래에 대해 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폐허의 국토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우리 민족을 천형(天刑)처럼 억눌러온 절대빈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미국과 서구가 자랑하는 근대화를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이 시대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엄중하게 좌우명부터 영혼에 새겼습니다. ‘짧은 인생을 영원 조국에!’ ‘절대적 절망은 없다.’ 돌이켜보면, 좌우명은 필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라 걸어온 내 삶의 여정(旅程)에 대해 어떤 후회도 없습니다.

한국정부가 경제개발의 깃발을 올린 1961 년, 한국은 1 인당 국민소득 70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였습니다. 당시 경제개발계획에 참여했던 나는 1968 년부터 종합제철소 건설과 경영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자본과 자원이 없고, 경험과 기술이 없는 전무(全無)의 상태에서 포스코라는 종합제철소를 시작하여, 7 년쯤 지나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다음, 나는 동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순교자처럼 희생하는 세대다.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의 행복과 21 세기 조국의 번영을 위해 순교자적으로 희생하는 세대다.’ 우리에게 지상과제는 ‘조국 근대화’였습니다. 그것은 나의 세대가 짊어진 폐허와 빈곤, 부패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좌표였고, 마침내 우리는 근대화에 성공했습니다. 시련의 시대를 영광의 시대로 창조한 것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나의 세대는 후세에 엄청난 과제도 넘겨야 했습니다. 바로 남북분단입니다.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이 짐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게 되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지난 백여 년 동안, 베트남에도 각 세대가 감당한 시대적 고난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여러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 그리고 여러분 세대, 이렇게 삼대로 나누어봅시다.

여러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는 ‘자유와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호찌민 선생의 말씀을 실현한 세대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희생과 고통을 넘어서야 했지만, 당신들의 숙명적인 비원이었던 자유와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1954 년 7 월에 베트남은 북위 17 도선에서 분단되었습니다. 그때 어린 아이였을 여러분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통일로 가는 기나긴 전쟁이 자기 세대의 운명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기 세대의 참혹한 운명을 감당했으며, 드디어 1975 년 4 월에 종전과 통일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 세대는 휴식을 누릴 여가도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조국재건의 새로운 책무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소평의 중국이 개방의 길을 선도하고, 베트남은 1986 년에 개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일대 혁신이었습니다.

모든 혁신은 다소간 혼란과 시행착오를 초래하기 마련이지만, 나는 베트남 지도부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이 자리에서 언급하자니 슬픈 일입니다만, 개방을 거부한 북한의 오늘이 그것을 반증해줍니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종전이 늦어진 그만큼 경제개발의 출발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통일국가고, 한국은 분단국가입니다. 이 자리의 ‘여러분 세대’는 선배 세대로부터 ‘자유와 독립의 통일국가’라는 위대한 기반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여러분 세대’의 시대적 좌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평화통일과 일류국가 완성’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주어져 있다면, 베트남의 젊은 세대에게는 ‘경제부흥과 일류국가 완성’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통일 문제를 고려할 경우에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베트남의 젊은 세대보다 더 무거운 운명을 짊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두 나라 젊은 세대의 시대적 좌표를 제시한 그가 더 목청을 높여서 역설한 것은 부패척결과 자신감이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한 나라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은 지도층과 엘리트 계층이 부패하지 않고 자신감을 바탕으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유혹에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강철처럼 강인하기도 하지만, 땡볕에 내놓은 생선처럼 부패하기도 쉽습니다. 부패는 인간 정신의 문제입니다. 지도층이나 엘리트 계층에 속한 인간이 부패하지 않는 것은 자기 정신과의 부단한 투쟁의 결실입니다. 역사 속의 모든 위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정신과 투쟁했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꿈을 간직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자기 정신과의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지도층과 엘리트 계층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당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지도자가 된다고 해도 당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개개인이 10년 뒤의 자기 모습을 그려보라는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10년 뒤의 자기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까? 만약 그려놓았다면, 치밀하고도 정열적으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만약 그려놓지 않았다면, 몇날 며칠을 지새우더라도 10년 뒤의 자기 모습부터 그려야 합니다. 개개인의 비전이 모여서 국가와 시대의 새 지평을 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 지도층이 부패하지 않는 것과 인민의 자신감입니다. 베트남에는 20세기의 세계 지도자 중에 가장 청렴했던 호찌민 선생이

국부로 계시고, 프랑스와 미국을 물리친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위대한 정신적 유산을, 국가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저력으로 활용하는 일입니다. 모든 역사에는 기복이 있지만, 지도층과 인민이 위대한 정신적 유산을 공유하고 그 바탕 위에서 손잡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일류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류주의, 그 고투의 길

평전 『박태준』을 쓴 작가가 지켜본 박태준의 최고 매력은 무엇인가? 지장, 덕장, 용장의 리더십을 두루 갖춘 그의 탁월한 능력인가? 흔히들 그것을 꼽는다. 나도 흔쾌히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을 최고 매력으로 꼽진 않는다. 내 시선이 포착한 그의 최고 매력은 ‘정신적 가치’를 가치의 최상에 두는 삶의 태도였다. 그의 삶은 늘 통속을 거부했다. 통속적 계산을 경멸하는 작가만큼 치열하게 자기 신념의 정신적 자계(磁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주인공의 요청이나 부탁이 아니었건만 작가 스스로 평전을 쓰게 만드는 그 매력을, 그는 나에게 연인의 향기처럼 풍겼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1997 년 초여름이었다. 그로부터 15 년쯤 지나서 프랑스 《르몽드》가 “한국의 영웅이 떠나다”라고 박태준의 부음을 알린 2011 년 12 월 13 일까지, 나는 그와 숏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의 생애와 사상과 추억에 대한 온갖 대화를 나누는 ‘복된 기쁨’을 누렸다. 내가 그의 평전을 쓰는 작업은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노인이 젊은이에게 제시하는 삶의 새로운 길을 따라 걸어가며 사색에 잠기는 것과 비슷한 일이었다.

나는 포항제철소가 들어선 영일만 갯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밝혔지만, 작가의식으로 박태준이란 이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때는 서른 살을 훨씬 넘긴 1990 년대 초반의 어느 날부터였다. 그때까지 나는 그와 한 번쯤 악수를 나누기는커녕 면발치에서나마 얼굴을 본 적도 없었다. 나에게 그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이 알려주는 존재였다. 그런데 어쩌다 내가 그를 주목했을까. 물론 포스코에 의한 ‘철거민’이요 ‘실향민’이라는, 포스코를 바라보는 뼈뺀 시각이 엔간히 철들었다고 할 이립(而立)을 넘어선 뒤로는 오히려 남다르게 포스코를 들여다보는 태생적 인연으로 바뀌었던 것이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을 테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세계관의 조정이었다.

내가 이립한 즈음엔 고르바초프가 지각변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시절이었다. 동서독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린 독일시민이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에 운집해 축제를 여는 밤, 그는 미모의 아내와 나란히 나타나서, “역사는 늦게 오는 자를 처벌한다”고 선언했다. 그때 나의 내면에도 무엇인가 굉음이 일어났다. 그것은 ‘한국적 1980 년대’를 지탱해온 사회주의적 전망과 이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 뒤

현존 사회주의체제의 좌절을 주제로 삼은 사회과학 논문들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나는 작가이기에 인간에서 답을 구했고, 드디어 이렇게 정리했다.

인간은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천부적 윤리의 자질이 형편없이 부족한 존재이다. 이데올로기가 인간조건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조건이 이데올로기를 창조한다. 인민이 체제를 위해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가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우연한 계기였다. 내 안에 고이는 억울함을 분출하듯 박태준 옹호의 칼럼을 쓰게 되었다. 1996년 여름으로, 그와의 첫 악수보다 일 년쯤 앞선 무렵이었는데, 그것은 해외 유랑중인 박태준에 대한 정치적 사면을 만지작거리는 청와대 주인을 향한 고언(苦言)이었다.

설령 박태준의 정치적 과오가 63빌딩에 들어간 철근의 무게와 맞먹는다 하더라도 그가 포스코를 통해 한국 현대사에 이바지한 공적은 63빌딩을 63개나 건설할 철근의 무게와 맞먹는다.

아직은 박태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의 주장이었지만 뒷날에 그의 평전을 쓰는 동안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 내가 본 박태준은 어떤 인간이었는가? 그의 최고 매력으로 나는 정신적 가치를 최상 가치로 받드는 삶의 태도를 꼽았지만, 실제로 그의 영혼은 강철 같은 정신(신념)의 덩어리였다. 모든 공사(公事)를 철저히 그것으로 관장하고 처리했으며, 그것으로 물질적 유혹을 제압하고 배격했다. 그의 숄선수범이란 그것에 당연히 따르는 일종의 부수적 현상에 불과해 보였다. 2010년 1월 그가 국립하노이대학에서 ‘부패척결의 청렴한 리더십’을 역설한 것은 필생에 걸친 그 실천궁행의 당당한 웅변이었다.

포스코 착공의 장면에서 그가 일으킨 감동적인 일화는 저 유명한 ‘제철보국’과 ‘우향우’이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다. 제철보국이란 포항제철을 성공시켜 나라에 보답하자는 것이며, 우향우는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자는 군대 제식훈련의 용어이다. 그러나 둘은 박태준의 정신 속에서 짝궁으로 맺어지자 어마어마한 정신적 무장으로 거듭나서 포스코를 ‘성공의 고지’로 밀어 올리는 원동력이 되었다.

포항제철 1기 연산 103만 톤 조강체제 완공의 종잣돈은 대일청구권자금(일제식민지 배상금)의 일부였다. 박태준은 그 돈의 성격을 ‘조상의 혈세(피의대가)’라 규정했다. 조상의 피의대가로 세우는 국가적 민족적 숙원사업인 포항제철을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가? 실패하면 조상과 국가와 민족에 죄를

짓는 것이니 죽는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실패하면 우리는 목숨을 버려야 한다. 그때는 우항우 하자. 영일만 모래벌판에서 우항우 하면 시퍼런 바다, 그 바다에 빠져 죽자. 이것이 ‘우항우’다. 이렇게 강렬한 정신운동에 감히 부패가 파고들 틈이 생기겠는가. 그래서 나는 평전에 썼다.

박태준은 비장했고 사원들은 몽클했다. 그의 외침은 가슴과 가슴을 타고 번져나갔다. ‘조상의 혈세’는 민족주의를 자극했다. ‘우항우’는 애국주의를 고양했다. 그것은 ‘제철보국’이념에 자양분이 되었다.

박태준의 강철 같은 정신의 덩어리, 그 핵은 무엇인가? 그의 좌우명이 알려준다. ‘짧은 인생을 영원 조국에’, 이것이다. 그는 늘 일류를 회원했다. 포항제철이 첫 쇳물을 생산하기 전인 1969년에 발간한 사보(社報) 《쇳물》 창간호에 ‘무엇이든지 첫째가 됩시다!’라는 휘호를 만년필로 힘차게 써준 사람, 쇳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때에 구성원들을 향하여 세계 일등을 꿈꾸자고 외친 박태준이었다. 그리고 그는 25년 동안 불철주야의 노심초사를 바쳐 마침내 초심의 맹세대로 포스코를 세계 최고 철강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의 일류란 포스코가 보여주는 총체적 일류이며, 그의 일류국가도 포스코가 보여주는 것과 같은 총체적 일류국가였다.

왜 박태준은 일류 또는 최고수준을 고집하며 추구하고 일류국가를 회원했는가? 왜 그는 일류주의와 일류국가주의를 잠시도 놓지 못했는가? 이것은 그가 관통해온 시대적 고난과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의 일생은 우리 현대사의 한복판을 꿰뚫은 여정이었다.

1927년 부산 기장의 조그만 갯마을에서 태어난 박태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유년의 도일(渡日) 뱃길에 생애 최초로 부관연락선이라는 철로 만든 근대적 괴물(문명)에게 실존을 의탁한다. 영특하고 달리기와 수영을 잘하는 아이의 귀에는 자주 “센징”이라는 말이 들려왔다. 그러나 모욕은 의식의 씨앗이 되었다. 이것은 일등을 해야만 차별을 덜 받는다는 방어 의식과 저항 의식으로 돌아나 시나브로 일류 의식으로 진화하며 자라났다. 해방이 되어 와세다 대학 기계공학과를 중퇴한 그는 귀향하여 ‘건국에는 건군이 중요하다’며 육사를 택하고, 거기서 10년 연상의 박정희를 은사로 만난다. 그리고 청년장교로서 6·25 전쟁을 맞아 철원에서 서울까지 밀려나는 사흘 만에 자기 연대의 중대장 12명 중 10명이 전사한 가운데 구사일생 멀쩡히 생존한 중대장으로서 포항까지 후퇴했다가 거꾸로 청진까지 북진하지만 야전병원에서 급성맹장염 수술을 받은 몸으로 1·4 후퇴의 일원이 된다. 휴전 후 육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당시의 부패한 우리 군대에서 지독한 ‘딸깍발이’로 손꼽히는

대령이었다. 일절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았다. 결코 용납하지도 않았다. 그 소문이 박정희의 고막을 건드렸다. 이것은 거사를 획책하는 박정희가 1960년 부산군수기지사령부 사령관으로 내려갈 때 그를 인사참모로 발탁하는 인연으로 맺어지고, 5·16 정부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과 상공담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그는 박정희의 정치참여 제안을 거절한 결과로 대한중석 사장을 거쳐 마치 오래 기다린 어떤 필연이 성사되는 것처럼 한국산업화의 견인차가 되는 포스코를 맡는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포스코, 절명의 위기는 요람에 들이닥쳤다. 1969년 2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5개국 철강사들이 포스코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책임지마고 했던 약속을 세계은행(IBRD)의 ‘한국 종합제철 프로젝트는 시기상조’라는 예견에 따라 헌신짝처럼 팽개친 것이었다. 자본주의의 비즈니스 시스템은 가혹하며 비정했고, 갓 태어난 포스코는 죽어야 했다. 그의 오른팔 황경로(제2대 포스코 회장 역임)가 사장의 비밀지시를 받들어 ‘회사 청산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비상한 돌파구를 찾아냈다. 대일청구권자금 일부 전용의 아이디어, 이에 대한 박정희의 동의와 지원. 박태준은 일본 각료들과 철강업계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기어이 협력을 받아낸다. 영일만 모래벌판에 아기무덤으로 남을 뻔했던 갓난아기 포스코가 기적처럼 회생한 것이었다.

포스코를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시킨 명성은 주인공에게 정치참여의 문을 세 번 열어줬다.

첫 번째, 1980년. 박정희의 죽음은 포스코라는 한 기업의 처지에서는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던 튼튼한 울타리가 사라진 대사건이었다. 포스코의 성공요인에는 박태준의 리더십을 맨 먼저 꼽는다. 하버드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서울대학교,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등이 학문적으로 규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리더십을 맘껏 발휘할 수 있었을까. 나는 평전에서 이렇게 보았다.

박정희는 박태준의 순수하고 뜨거운 애국적 사명감만은 ‘범할 수 없는 처녀성’처럼 옹호했다. 정치권력의 방면으로 기웃거리지 않고 당겨도 단호히 뿌리친 그의 기개를 높이 보았다. 여기엔 한 인간과 한 인간으로서, 한 사내와 한 사내로서 오직 두 사람만이 온전히 알아차릴 수 있는 서로의 빛깔과 향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박정희와 박태준의 독특한 인간관계는 박태준이 자신의 리더십과 사명감을 신명나게 발현할 수 있는 ‘양호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십여 년에 걸쳐 한결같이 등직했던 포스코의 울타리가 느닷없이 사라진 암담한 시기에 새 정치권력이 박태준을 불렀고, 그는 자신이 권력에 들어가서 포스코의 울타리가 되겠다는 각오를 앞세워 정치에 발을 들였다.

두 번째, 1990 년. 김영삼, 김종필까지 하나로 엮으려는 기획을 마친 노태우가 포스코에 거의 전념하고 있는 전국구 국회의원 박태준을 여당 대표로 끌어들었다. 그는 사양했으나 노태우는 포스코 회장의 인사권자였다. ‘차출당하여’ 올라간 무대는 1992 년 10 월 차출당했던 이가 스스로 정계를 떠나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세 번째, 1997 년. 정치적 박해의 해외유량을 끝낸 박태준이 포항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했다. 이번에는 순전히 자기의지였다. 그의 선택은 김대중·김종필과 연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6·25 전쟁 후 최대 국란이라 불린 외환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과연 박태준의 ‘정치적 인생’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는 선입견이 정당한 것인가? 동시대인의 부정적 통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훌륭한 사람이 괜히 정치에 들어가서 몸을 더럽혔다’는 것이다. 이 세평(世評)은 박태준의 ‘첫 번째 정치참여’를 겨냥한 것으로, 대중의 한국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혐오증과 전두환 정권에 대한 거부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 상황에서 그가 ‘차출’을 거부했다면 광양제철소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었을 것이며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는 탄생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첫 번째 정치참여는 한국산업화의 완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한국 대학 교육의 신기원을 개척하는 ‘좋은 권력’으로 재창조되었다. 다른 하나는 ‘훌륭한 사람이 괜히 정치에 들어가서 고생만 하고 실패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 세평은 박태준의 ‘두 번째 정치참여’를 겨냥한 것으로, 그가 해외 유량을 떠나야 했던 그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지일 뿐이다. 그는 말했다. “나는 YS 를 구국의 지도자로 보지 않았다. 내 양심에 따라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만약 박태준이 속류 정치인이었다면 확실히되는 ‘권력 2 인자’를 노리는 정치적 야합을 택했을 것이다. 정말 바람직한 것은, 박태준을 파트너로 삼겠다는 권력자가 그의 눈에 ‘일류’로 보여야 했었다. 이도저도 아닌 조건 속에서 그는 억압을 예견하며 권력의 유혹을 뿌리쳤다. 경우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지만 이 장면은 ‘박정희와 박태준’의 관계와 ‘김영삼과 박태준’의 관계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박정희는 자신의 정치적 제안을 거절한 그를 경제 방면으로 불러들인 반면, 김영삼은 그것을 거절한 그에게 보복의 칼을 들이댔다. 묘한 노릇이지만, 그를 붙잡은 경우에 한국은 계량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을 챙겼고, 그를 내쫓은 경우에 한국은 계량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경제적 외교적 손실을 입었다. 박태준의 해외 유량은 그의 중국 구상, 베트남 구상, 미얀마 구상, IT 사업 구상(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와 손잡고 연간 1 조원씩 10 년간 투자 계획) 등을 파도에 쓸린 모래성처럼 사라지게 했다. 아마도 역사는 그 국부(國富) 손실의 계산서를 완전히 망각할 것이다. 그리고 박태준의 ‘세 번째

정치참여’, 그가 처음 자발적 의지로 선택한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에 합리적 보수 세력의 힘을 보태고 외환위기 수습의 최고 일꾼으로서 생애 마지막으로 국난극복에 이바지했다.

박태준은 일류국가의 밑거름이 되려는 신념을 ‘포스텍’ 설립에도 눈부시게 발휘했다. 1985 년이었다. 새로 시작한 광양제철소 건설에 들어갈 자금도 엄청난 규모였지만 그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한국 최초 연구중심대학 설립을 밀어붙인다. 그때 포스코는 국정감사 대상이었다. 정치권부터 반대의견이 높았다. 내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유·초·중·고 14 개교를 세워 세금의 도움 없이 최고 수준으로 육성한 교육의 신개척자는 오히려 포스텍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전도사를 자임한다. 과학기술이 일류가 아닌 나라는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 과학기술은 경제와 국방과 국력의 근본이다. 사람을 통솔하는 것은 곧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다. 교육은 천하의 공업(公業)이다. 이들은 박태준 사상의 두 축에서 제철보국과 짝을 이루는 교육보국의 뼈대였다. 2010 년 영국 《더타임스》가 세계 대학 평가에서 28 위로 매긴 포스텍, 그 개교를 앞둔 1986 년 8 월 27 일 그는 포스코 내부에 웅성대는 불만의 소리를 듣고만 있지 않았다.

“회사의 사운을 걸고 시작한 포항공과대학교 설립에 대해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한다면, 고생 끝에 얻은 성과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쓰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포항공대는 회사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구심점이 되고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과학영재를 길러내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의 이윤추구가 아니라 국가 장래를 위해서 큰 힘이 된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하며, 특히 간부들이 이에 대한 소신을 가져야 한다.”

포스코, 포스텍과 포스코의 학교들을 통해 박태준은 제철보국·교육보국 사상을 실현했다. 일류주의도 실현했다. 또한 그것은 일류국가의 토대구축에 지대한 공헌이 되었다. 과연 그의 인생을 한 문장에 담을 수 있을 것인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적이 포스코이고, 포스코가 한국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산업화의 물적 토대 위에 역세고 질기게 민주화 투쟁이 전개되면서 민주주의가 성장했다는 시대적 진실을 통찰할 경우, 요람의 포스코가 절명의 위기를 극복한 장면은 한국의 운명을 밝은 쪽으로 돌려준 큰 행운이었다. 아무리 축복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주인공이 박태준이다. 무엇이 그것을 이루었을까? 물론 조국 근대화를 향한 그의 절박한 염원부터 떠올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만약 그가 일본에서 식민지 아이와 청년으로 성장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 그가 일본의 실력자들과 상대하는 자리에 통역을 데려가는 처지였다면, 그의 설득은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전후사정을 나는 평전에서 한 문장에 담아보았다.

생존의 길을 찾아 일본으로 들어간 아버지의 뒤를 쫓아 현해탄을 건너갔던 수많은 식민지 아이들 가운데, 사춘기를 벗어난 무렵에 해방된 고향으로 돌아와 빈곤에 허덕이는 신생독립국의 어른으로 성장한 다음, 유소년기에 어쩔 수 없이 익혔던 일본어와 일본문화로써 가장 훌륭하고 가장 탁월하게 조국에 이바지한 인물은 박태준일 것이다.

이 문장에다 ‘신문명과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현해탄을 건너갔던 수많은 청년학도’를 집어넣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진정한 극일파(克日派), 그 영혼에 맺힌 말들

일본에 친구들이 많고 일본을 잘 아는 지일파(知日派) 박태준, 그의 일본에 대한 궁극적 목표는 극일이었다. 그는 진정한 극일파(克日派)였다. 그의 시대에서 한국은 어느 분야든 일본을 넘어서야 세계 정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극일하지 않으면 그의 일류주의는 성취할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가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의 관계이다.

‘포항제철소 1 기연산조강 103 만톤건설’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일본인은 신일본제철 이나야마 요시히로 회장이다. 1969 년 여름에 박태준은 도쿄로 날아가 그를 찾아가야만 했고 그의 마음을 열어야만 했다. 대일청구권 자금의 일부를 포항제철 건설에 전용하는 과정에는 농업 분야에 배정해둔 그것의 전용에 관한 한일(韓日) 양국 정부의 재합의가 있어야 했고, 그 재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일본철강업계 대표들의 포항제철에 대한 기술지원 약속이 이뤄져야 했는데, 이나야마 요시히로는 당시 일본 철강업계의 리더였던 것이다.

그해 여름 두 사람의 만남은 이른바 ‘역사적 회담’으로 남았다. 이나야마 요시히로는 서방 5 개국의 KISA(Korea International Steel Associates)에게서 버림받은 포스코의 절명적 위기에 관한 전후사정을 경청했다. 포항제철을 성공시키겠다는 ‘젊은 사장’의 뜨거운 의지와 순수한 사명감과 비즈니스의 비전에 감동했다. 그는 첫 만남에서 일본 철강업계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것이 포항제철 건설을 지원하는 일본기술단으로 구체화되고, 그들이 허허벌판 영일만에 들어와 ‘경험도 기술도 전무한’ 한국인들의 제철소 건설 현장에서 감독 역할을 맡는 전환점이 되었다. 포스코가 태어난 것은 1968 년 4 월 1 일이었지만 그로부터 꼬박 이태가 지난 1970 년 4 월 1 일에야 박정희 대통령, 김학렬 부총리,

박태준 사장이 영일만에서 착공의 발파 버튼을 누를 수 있었다. 바로 그 2년 동안은 요람의 포스코가 아기무덤으로 남을 뻔했던 위기를 극복해가는 긴박한 드라마의 시간대였다.

신일본제철을 비롯한 일본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일본기술단이 영일만 건설 현장의 감독을 맡은 상황에서 박태준의 기술력 확보에 대한 단기적 목표는 ‘완공과 동시에 공장을 완전히 우리 손으로 돌리는 것’이었으며, 중기적 목표는 ‘기술식민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기술자립을 이룩하는 것’이었고, 장기적 목표는 ‘세계 최고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었다.

단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박태준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직원들의 해외연수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하나의 기술도 놓치지 말라고 연수생들에게 보내는 그의 당부와 격려는 간곡했다. 이때도 이나야마 요시히로는 깊은 배려를 보여주었다. 박태준의 부탁을 받아 홋카이도 무로랑제철소 전체를 포스코 연수생이 직접 돌려보게 하는 ‘대담한 선물’을 선사한 것이었다. 실제로 포스코는 톤당 생산단가 경쟁에서 압도적 세계 1위를 달성하며 포항제철소 1기를 완공했을 때(1973년 7월 3일), 포스코 직원들의 손으로 공장 전체를 직접 돌리는 기록을 세웠다. ‘영일만의 신화’를 쓰기 시작한 것이었다.

일본기술단이 영일만에서 완전히 철수한 때는 1978년 12월 포항제철소 3기를 완공(연산 조강 550만 톤 체제)한 직후였다. 그들은 글을 남겼다. <모든 역경을 딛고 포항제철은 단기간에 일본의 제철소에 버금가는 대규모 선진제철소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 이 회사가 4기 확장을 마칠 때면 아마도 생산능력과 시설 면에서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고급인력과 최고경영자의 탁월한 능력이 합쳐져 포항제철은 머지않아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포스코가 기술자립을 확신하고 일본기술단이 그것을 인정한 무렵, 중국 덩샤오핑이 신일본제철을 방문해 이나야마 요시히로와 환담을 나누었다. 그 자리에서 중국에 포항제철과 같은 제철소를 지어달라는 덩샤오핑의 요청을 받은 이나야마 회장이, “제철소는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짓는데 중국에는 박태준 같은 인물이 없어서 포항제철 같은 제철소를 지을 수 없다”고 답하자, 덩샤오핑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럼 박태준을 수입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유명한 덩샤오핑의 ‘박태준 수입’ 일화이며, 그로부터 십여 년 뒤에 포스코가 중국으로 진출하는 초기에 든든한 힘으로 작용한다.

일본 철강업계가 ‘부메랑 이론’을 들고 나와 포스코를 공격한 것은 1981년 여름이었다. 논리는 간단했다. 한마디로 일본철강업계가 포스코라는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는 것이었다. 세계적 불황이 철강업계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제철소 4기를 완공하고 광양제철소 건설을 추진하는 포스코와 박태준을 향하여 이나야마의 후배들은 ‘지원 중단’을 결의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이미 기술자립에 들어서 있었다. 그렇다고 ‘스승’과의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피차 이로운 것이 없었다. 박태준은

어려운 상황을 전방위적 수단으로 치밀하고 과감하게 돌파해나갔다. 영일만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광양만에서 꽃피워 세계 최고 제철소로 설계해 나가는 한편, ‘선진국이 먼저 가고, 그 뒤를 중진국이 가고, 후진국은 또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순환론으로 신일본제철 사이토 사장을 몰아세우고, 일선에서 은퇴한 이나야마 회장을 움직여 후배들을 타이르게 하고, 광양제철소 설비구매에 대해 유럽 철강업계와 먼저 협의하는 ‘사업적 방법’으로 일본철강업계를 자극하여 자중지란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광양제철소 설비계약이 진행될 즈음, 일본 철강업계는 스스로 부메랑을 거둬들였다.

세계 최고 기술력 확보라는 장기적 목표를 광양제철소 완공과 더불어 성취하고 있을 때, 박태준은 그 ‘순환론’을 유감없이 실천한다. 1980년대 후반 들어 현대적 제철소 건설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중국 철강업계에 업무 매뉴얼까지 제공한 것이었다. 그는 걱정하는 후배들에게 말했다. “피할 수 없는 도리다. 우리는 더 좋은 기술로 더 앞으로 나가야지.” 이를 실천하는 것처럼 포스코가 보여준 ‘세계 최고 기술력’의 하나는 1992년 박태준의 지시로 시작한 ‘파이넥스 공법에 의한 쇠물 생산 상용화 연구’를 15년 만인 2007년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쾌거이다. 세계 철강사에 새 지평을 개척한 파이넥스 공법, 이것은 기존의 고로 공법에서 가장 많은 공해를 생산하는 공정인 코크스공장과 소결공장을 짓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친환경 쇠물생산 방식이다. 경제적으로도 고로에 비해 투자비와 생산원가가 각각 15퍼센트씩 절감된다. 현재 포스코에는 신일본제철에서 나온 연수생들이 적지 않다. 세월이 흘러 바야흐로 ‘스승’의 나라에서 ‘제자’의 나라로 배우러 온 가운데, 여러 부문에 세계 최고 수준인 포스코는 ‘유소년기의 스승’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동반관계를 맺고 있다.

아마도 박태준이 공식 연설에서 일본을 가장 따끔하게 나무란 것은 2005년에 열린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때였는지 모른다. 그날, 그는 한일관계의 과제를 한국인의 시각에서 알아듣기 쉽게 제시했다.

“일본은 한국을 가리켜 ‘일의대수(一衣帶水)’라 부르곤 합니다. 현해탄을 한 줄기 띠에 비유한 말입니다. 한국은 일본을 가리켜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로 부릅니다. 가깝다는 것은 지리적 거리이고, 멀다는 것은 민족감정을 반영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 쓰는 말에 ‘친(親)’자가 있습니다. 친교, 친숙, 친구 등 한국인은 ‘친’을 ‘사이좋다’는 뜻으로 씁니다. 매우 기분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친’을 매우 기분 나쁜 뜻으로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친일’이란 말입니다. ‘친일’의 ‘친’은 묘하게도 ‘반민족적으로 부역하다’라고 변해 버립니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40주년 한일관계에 내재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상징입니다. 한국인의 언어정서에서 ‘친일’의 ‘친’이 ‘사이좋다’는 본디의 뜻을 회복할 때, 비로소 한일수교는 절친한 친구관계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작심한 것처럼 신랄한 어조로 한반도 분단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고 반성을 촉구했다.

“한국전쟁의 기원은 분단입니다. 분단의 기원은 식민지배입니다. 미소 양극 냉전체제가 타협의 산물로 한반도 분단을 강요했지만, 식민지배라는 일본의 책임이 분단의 근원에 깔려 있습니다. 아무리 패전국이었던라도 일본은 한반도 분단의 고통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방을 맞았으나 분단에 이은 전쟁이 빈곤의 한국을 비참한 나락(奈落)으로 밀어 넣은 3년 동안, 과연 일본은 한국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일본 지도층은 엄숙해지길 바랍니다. 한국전쟁에서 일본은 한국의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미군의 군수기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것은 패전의 무기력과 잣데미 위에서 일본경제를 일으키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되었습니다. 일본 노인들은 1950년대 ‘진무경기(神武景氣)’라는 호황시절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진무’는 일본국 첫 번째 임금의 원호(元號) 아닙니까? 진무경기란 말은 ‘유사 이래 최고 경기’라는 민심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진무경기는 막강한 일본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란 특수경기가 일본경제 회생에 신묘한 보약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한국 지식인들이 ‘한국전쟁은 일본경제를 위해 일어났다’는 자탄을 했겠습니까? 그 쓰라린 목소리는 전쟁 도발자를 향한 용서 못할 원망도 담았지만, 분단의 근원에 대한 일본의 책임의식과 한국경제를 도와야 할 일본의 도덕의식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분단, 전쟁, 폐허, 절대빈곤, 부정부패, 산업화와 민주화의 투쟁, 외환위기……. 박태준은 자신이 감당해낸 시대를 어떻게 기억했을까. 그것을 알아낼 실마리를 나는 두 개쫂 잡을 수 있었다.

첫째는 박태준의 책임과 무관했으나 그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던 식민지의 원인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 경술국치, 이 통국할 비극에 대하여 그는 ‘조선이 일본에 일방적으로 얻어터지고 한입에 먹혔다’고 곧잘 표현했다. 왜 조선은 일본을 때리진 못할망정 방어조차 못했는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요새 한국인이 을사오적과 친일파의 역살부터 잡아채는 것에 대하여 그는 몹시 못마땅해 했다. 반론은 이랬다. “을사오적이 없었으면 조선이 일본에 안 먹혔나? 친일파가 없었으면 안 먹혔나? 물론 을사오적과 친일파 반민족자들을 역사적으로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그들의 죄보다 우선 따져야 할 것이 있어. 그게 뭐냐? 조선 집권층, 지도층, 사대부, 소중화(小中華)를 우주라고 착각했던 지식인들, 그들 전체의 책임부터 엄히 묻고, 백성들의 책임도 엄히 물어야 돼. 나라 전체의 책임을 엄히 묻고, 그 다음에 을사오적이다 뭐다 하는 것들의 죄를 물어야 하는 거지. 을사오적이니 친일파니 그자들을, 집권층과 지도층과 지식인들 전체의 책임과 죄업에 대한 면죄부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야.”

둘째는 박정희 통치시대를 염두에 둔 박태준의 근대화에 대한 기억의 방식이다. 그는 ‘독재의 사슬도 기억케 하고 빈곤의 사슬도 기억케 하라’고 했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마치 동일한 역사의 무대에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격렬한 대립과 갈등을 보여줬지만, 겉보기 양상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둘은 모순관계가 아니라 상보관계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다음 세대의 행복을 위해 순교자적으로 희생하는 세대’가 자기 세대라 외치며 그 길에 앞장섰던 박태준은 정치의 억압과 빈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젊은이들을 향하여, 우리 역사상 최초로 출현한, 공공적 거대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젊은이들을 향하여 내놓고 물으려 했던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원수지간처럼 으르렁거렸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어느 한쪽이라도 진정성을 상실했더라면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토대를 동시에 마련할 수 있었겠는가? 너희들은 박정희에 대해 정치적 억압의 사례만 기억하려는 모양인데 그 시대가 오천 년 대물림되어온 절대빈곤의 시대가 아니었다면 현명한 국민 대다수가 영남 호남 구분없이 그러한 리더십을 용인했겠는가? 또 그 시대의 조건 속에서 그러한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경제개발을 성공할 수 있었겠는가? 경제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복지제도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 근대화 시대라는 과거에 대한, 박정희 통치시대에 대한, 나도 모든 물욕과 사심을 버리고 일류국가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사명감 하나에 미쳐서 헌신했던 그 시대에 대한 너희의 기억방식이 공평해야지 않겠는가? 너희의 기억이 공평하지 못하다면 나만 해도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박태준은 일류주의의 길을 개척했다. 그것은 고독한 투쟁으로 공동체의 영광을 창조하는 길이었다. 그가 완주를 눈앞에 바라보는 즈음부터 비로소 동시대인들이 마치 이심전심 뒤늦게 어떤 덮혀 있던 진실을 깨달은 것처럼 그를 ‘영웅’이라 부르고 있었다. 늙은 영웅은 영혼에 맺힌 말들을 미처 세상에 다 공개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그것은 지금 내 기억에 고스란히 저장돼 있다. 이슬처럼 맺혔던 그의 말들이 내안에는 구슬처럼 남을 것이다.

만약 포스코의 성공에 기여한 박태준의 공로가 아무리 적어도 1 퍼센트는 될 것이라 인정한 국가가 그에게 포스코 주식에서 공로주로 1 퍼센트만 줬더라면, 그는 수천억 원을 소유한 재벌급 대부호로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포스코 주식을 한 주도 받지 않았다. 인생의 황혼에 가진 재물이래야 그저 평범한 서울 중산층에 불과했던 그가 생전에 풀지 못한 개인적 소망은 둘이었다.

하나는 북한의 원산이나 함흥 어디쯤에 포스코와 같은 제철소를 포스코의 자금과 기술로 세우는 것. “평양이 문을 열기만 한다면 내가 늙은 몸을 끌고 가서라도 제철소를 지어서 근대화의 기반을 놓아줄 텐데. 기술자들은 인민군 중에 우선 천 명쯤 골라서 포항이나 광양 데려다가 훈련시키면 되는 건데

말이야. 자금? 걱정 없어. 포스코의 신인도면 빌려줄 은행이 줄을 서 있어.” 어린아이처럼 흥분한 그의 육성이 지금도 내 귓전에는 쟁쟁하다.

또 하나는 한국인의 노벨과학상 수상. 이 소식을 그는 학수고대했다. 수상자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려 했다. 2010년에는 포스코청암재단에 일러 노벨과학상을 많이 받은 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조사연구도 실시했다. “일본과 축구해서 우리 대표팀이 1:0 으로만 져도 난리를 치는 우리가 왜 노벨과학상에서는 17:0 이 되어도 무신경한 거야? 뭔가 크게 잘못됐어. 교육부터 바로 돼야 해. 교육의 비교우위가 중요해. 교육이 일본에 앞서야 일본을 앞서는 거고 극일도 하게 되는 거야.” 확신에 찬 그의 육성이 지금도 내 귓전에는 쟁쟁하다.

대한민국의 큰 일꾼 박태준, 그에게 대한민국이 차린 ‘아주 지각한 예의’이자 ‘마지막 예의’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두어 평짜리 무덤을 마련해준 일이었다. 국가유공자묘역의 한 귀퉁이, 거기는 박정희의 유택과 이웃이라 할 수 있다. 저승의 박정희와 박태준을 이웃으로 맺어주는 과정에는 박정희의 외아들 박지만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박태준의 유택을 찾는 일에 박지만은 마치 아버지의 유택을 찾는 것처럼 뛰어다녔다. 영하 10 도의 차디찬 동토 속에 마련되는 박태준의 유택을 지켜보며 한용운의 시를 떠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영웅의 죽음은 곧잘 공적의 표상으로 되살아난다. 이것이 인간 사회의 오랜 관습이다. 세상을 떠난 영웅에게는 또 하나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강요된다. 여기서 그는 우상처럼 통속으로 전락하기 쉽고, 후세는 그의 정신을 망각하기 쉽다. 다만 그것을 막아낼 길목에 튼튼하고 간간한 바리케이드를 설치할 수는 있다. 인물 연구와 전기문학의 몫이다.

인물 연구와 전기문학은 다른 장르이다. 하지만 존재의 성격과 목적은 유사하다. 어느 쪽이든 주인공이 감당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그를 인간의 이름으로 읽어내야 한다.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그의 얼굴과 체온과 내면이 다시 살아나고 당대의 초상이 다시 그려지는 부활의 시간이다. 이 부활은 잊어버린 질문의 복구이기도 하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위업을 이룩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관문의 열쇠이다. 그 문을 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그의 신념, 그의 고뇌, 그의 투쟁, 그의 상처가 숨을 쉬는 특정한 시대의 특수한 시공(時空)과 만날 수 있으며 드디어 그의 감정을 느끼는 가운데 그와 대화를 나누는 방에 이르게 된다.

거대한 짐을 짊어지고 흐트러짐 없이 필생을 완주하는 동안에 시대의 새 지평을 개척하면서 만인을 위하여 헌신한 영웅에 대해 공적으로만 그를 기억하는 것은 후세의 큰 결례이며 위대한 정신 유산을 잃어버리는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짧은 인생을 영원 조국에, 이 신념의 나침반을 따라 한 치 어긋남 없이 헤쳐 나아간 박태준의 일생은 철저한 선공후사와 솔선수범, 그리고 순애(殉愛)의 헌신으로 제철보국 교육보국을 실현하는 길이었다. 그것은 위업을 창조했다. 제철보국은 무(無)의 불모지에 포스코를 세워 세계 일류 철강기업으로 성장시킴으로써 조국 근대화의 견인차가 되고, 교육보국은 유치원·초·중·고 14 개교를 세워 한국 최고 배움의 전당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한국 최초 연구중심대학 포스텍을 세워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육성함으로써 이 나라 교육의 새로운 개척자가 되었다. 더구나 모든 일들이 개인적 물욕의 유혹을 스스로 제압하고 배격하면서 일류국가의 염원을 향해 나아가는 실천이었다.

그러므로 후세는 박태준의 위업에 내재된 그의 정신을 기억하고 무형의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부터 전개될 박태준 연구와 기존 ‘박태준 전기문학’이 언젠가 그를 공적의 표상으로만 기억하게 될지 모르는 그 위험한 ‘길목’도 지켜줄 것이다.